



경제학과 역사학



전례없는
시름

오스트리아학파의
방법론과 인식론

오스트리아학파의 ‘인간행동’ 관점에서
경제학과 역사학의 방법론과 인식론을 탐구하다!

경제학과 역사학

경제학과 역사학

오스트리아학파의 방법론과 인식론

초판 인쇄 | 2014년 8월 26일

초판 발행 | 2014년 8월 27일

지 은 이 | 전용덕

발 행 인 | 권태신

발 행 처 | 한국경제연구원

등록 번호 | 제318-1982-000003호

주 소 | 150-8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층

전 화 | 02-3771-0001

팩 스 | 02-785-0270~3

홈페이지 | www.keri.org

I S B N | 978-89-8031-689-2

정 가 | 25,000원

Copyright © 2014 by 전용덕

- 이 도서는 대구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4024251)

제작대행: (주)F미디어(02-3771-0245)

경제학과 역사학



전영민 지음



오스트리아학파의
방법론과 인식론

일러두기

- 이 책에서 각종 인용 자료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표기했다.
단행본 『 』, 연구보고서 및 논문 「 』, 일간지 및 잡지 《 》, 음반·영화·방송프로그램 〈 〉,
신문기사 외 기타 인용문 “ ”
- “ ” 속에 있는 []의 내용은 인용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저자가 개입하여 덧붙인 설명이다.
- 인용문에서 이탤릭으로 강조됐던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했다.
- 이 책에 등장하는 외국 인명과 지명 등은 가급적 현행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했다.

이 책은 오스트리아학과 **Austrian School**의 관점에서 경제학에 있어서의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종합할 뿐 아니라 역사학 원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필자는 먼저 현재의 주류 경제학으로 지칭되는 신고전학과 **Neoclassical School**의 경제학과 오스트리아학과의 경제학 간 차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두 경제학의 근저에 놓인 방법론과 인식론에 관련된 문제를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동시대 역사를 너무 다르게 서술하는 것을 보고 역사학 원리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 서로 다르게 보이는 두 가지 의문이 ‘인간행동학 **praxeology**’이라는 하나의 학문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하나의 책으로 만들게 되었다.

이 책은 경제학과 역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과 지적 수준이 높은

학부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이상의 전문가들은 이 책에 소개된 원전을 읽도록 권하고 싶다. 다만 역사학 원리를 공부한 적이 없거나 경제학과 역사학의 관계를 탐구해본 적이 없는 역사학 전공자들에게는 이 책이 개론 수준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오늘날 다수의 역사가는 역사학 원리를 배우거나 고민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경제학 전공자에게도 이 책이 개론서로서 유의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경제학과 역사학을 위한 방법론과 인식론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 특히 오스트리아학파의 시각에서의 연구를 최대한 종합하여 보여주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과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학파의 경제학 간 차이를 대비했다. 그러나 두 학파의 차이를 모두 서술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책의 주제에 도움이 되는 범위에 한정하여 두 학파의 차이를 설명했다. 주류 경제학자이면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 주류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어렴풋이나마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독자 등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경제학계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은 거의 잊혀졌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이 시기에 따라 비록 부침은 있지만,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그리고 전 세계 오스트리아학파에 속하는 경제학자들이나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에 관심이 있는 비전공자들도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 경제사학계를 포함한 역사학계도

거의 비슷한 처지라고 하겠다. 이 책은 그런 연구자들에게 오스트리아 학파의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의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뿐 아니라 역사학 원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과 역사학에서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의 연구는 192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긴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특히 *Human Action*(1996[1949])이라는 대작이 처음 출간된 1949년 이후에 미제스는 방법론과 인식론에 관련한 문제에 집중했다고 한다. 그 결과가 1957년에 첫 출판된 *Theory and History*(2007[1957])와 1962년에 첫 발행된 *Ultimate Foundation of Economic Science*(2006[1962])이다.

방법론과 인식론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그의 연구가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 주제가 중요할 뿐 아니라 쉬운 것이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그 점을 고려하여 방법론과 인식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미제스의 예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인 *Epistemological Problems of Economics*¹에서 아주 좋은 내용은 중복을 무릅쓰고 각주로 인용했다. *Epistemological Problems of Economics*에서는 1957년과 1962년에 출간한 책들과 약간 다른 표현을 쓰고 있지만 방법론과 인식론에 관련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짐작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이 책은 미제스의 저서들 중에서 방법론과 인식론과 관련한 문제에 연관된 부분을 읽을 때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제스의 대작 *Human Action*의 1부는 방법론과 인식론과 관련한 문제뿐 아니라 역사학 원리를 다루고 있다. 비록 그 수준이 *Theory and History*에 미치지 못하지만 말이다. 그 부분을 처음 대하는 독자는

난해할 뿐 아니라 매우 생소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 책은 일부 독자의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한계를 몇 가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방법론과 인식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필자의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여 이 책에 독자적인 학문적 공헌을 추가한 것은 많지 않다. 비록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의 응용 수준에서의 공헌은 어느 정도 있지만 말이다.

둘째, 경제학만을 공부해온 필자에게 경제학과 역사학의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는 매우 생소한 것이어서 바로 그 이유로 필자에게는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니었다. 그 결과로 이 연구가 어느 정도의 오류나 과오가 없을 수 없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필자가 그런 문제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다만 최대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셋째, 이 책의 일부 내용은 필자의 이해 부족, 원전의 설명이 더 잘 된 이유 등으로 원전을 인용하여 설명을 대신한 경우도 있다. 그 결과로 본의 아니게 인용문이 자주 나올 뿐 아니라 길어진 경우도 있다. 특히 역사학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 점이 두드러진다.

넷째, 이 책은 몇 가지 중요한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저자 문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그 저자들의 아이디어와 문헌에 담긴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필자의 한계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말이다.

다섯째, 이 책을 저술하면서 일부 내용은 논문으로 발표하였기 때문에 내용의 중복이 일어났다. 중복되는 내용을 최대한 제거하고자 하였지만 내용의 구성상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기

초 개념의 이해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서술을 반복했다. 이 책의 한계에 대한 독자들의 넓은 이해를 구한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한계와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것은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를 이해하는 일은 경제이론과 경제법칙을 분명히 할 뿐 아니라 경제학의 유용성이 크게 도전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도전에 맞설 수 있는 학문적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이념이 지배하는 연구나 저술로 인하여 역사적 진실을 찾는 일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 연구나 역사 교육은 왜곡될 뿐 아니라 오류투성이가 된다. 이런 일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 역사가들이나 역사 관련 연구자들은 자신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역사학 원리의 연구와 습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학과는 역사학 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경제사(economic history)를 연구하는 경우에 경제이론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이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경제이론을 가르친다 해도 어떤 이론이 좋은 이론인지 스스로 찾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제 이 책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총 4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는 방법론과 인식론을 위한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경제학과 역사학의 방법론과 인식론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후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과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을 간략히 비교했다.

2부는 경제학의 방법론과 인식론을 자세히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론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경제학의 방법론과 인식론의 이해를 위한 기초를 설명한다. 5장에서는 인간의 목적이 행동을 초래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물론 인간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행동보다 목적이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선행되기 때문에 인간행동의 법칙은 ‘선택적’이다. 6장에서는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counterfactual law’을 설명한다. 인간은 행동하기 위하여 선택을 하고 선택에는 필연적으로 ‘포기한 선택지forgone alternatives’가 존재하게 된다. 포기한 선택지와 행동은 본질적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는 법칙이 된다. 7장에서는 ‘실재론적realistic’ 균형 분석 접근법을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균형 분석을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으로 만듦으로써 균형 분석이 현실을 설명하는 방법이 아니라 현실을 묘사하는 방법임을 보인다.

3부에서는 역사학 원리를 설명한다. 먼저 8장에서는 역사학 원리를 위한 기초를 설명한다. 9장에서는 역사학 원리인 ‘특정한 이해specific understanding’를 설명한다. 특정한 이해란, 역사가가 특정한 시점과 특정한 장소에서의 역사를 비역사적 학문들로 설명하고 남는 부분을 정신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역사가가 개인들과 집단들이 선택한 동기 또는 목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선택한 수단, 목표와 수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가치평가valuuing 또는 가치 판단value judgement, 행동의 결과 등을 이해하는 것을 특정한 이해라고 한다. 10장에서는 역사학의 일부로서의 ‘심정학thymology’을 소개한다. 심정학이란 심리학의 한 부문으로서 인간의 의지, 동기, 목표, 아이디어 등을 연구하는 학문을 지칭한다. 역사학이 인간의 의지, 동기, 목표, 아이디어 등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심정학이 역사학의 일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11장에서는 행위자의 동기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여기에서 행위자의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경제적 동기이고 다른 하나는 이데올로기 또는 ‘공익 public interest’이다. 역사가가 역사 연구에서 주의해야 할 점 중의 하나는 개인(들)이나 집단(들)의 동기가 실제로는 경제적인 것이면서 이데올로기 또는 공익으로 포장하는 경우에 실제적인 동기를 찾아내는 일이다. 12장에서는 역사학에서 특정한 이해를 위한 개념으로서 ‘이상적 유형 ideal type’을 설명한다. 13장에서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설명한다. 14장에서는 역사 연구를 응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와 역사 연구가 어떻게 미래 예측에 응용되는가를 보인다. 15장에서는 유사 역사학 원리 또는 가짜 역사학 원리와 역사의 철학적 해석들에 대해 비판한다. 16장에서는 8장부터 15장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역사학을 위한 함의들을 유도한다. 4부에서는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를 기초로 한 전망에 국한하여, 경제학, 역사학, 자본주의, 현대 문명 등에 대한 약간의 전망을 한다.

박종운 선생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은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미제스의 저작들을 번역했다. 비록 초벌 번역 상태로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필자는 미제스 저작들의 인용문을 번역하는 데 그분의 번역을 참고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었다.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 준 한국경제연구원의 권태신 원장님에게도 큰 고마움을 표한다.

2014년 8월

전용덕

대구대학교 경산 캠퍼스에서

서문	005
1부 방법론과 인식론을 위한 기초	015
1장 방법론과 인식론의 필요성과 중요성	016
2장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 대(對) 신고전학파의 경제학	027
3장 인간행동학과 경제학과 역사학	072
2부 경제학의 방법론과 인식론	101
4장 경제학의 방법론과 인식론을 위한 기초	102
5장 행동의 목적과 선험주의	134
6장 포기한 선택지들과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	154
7장 균형 분석의 실재론적 접근	188
3부 역사학 원리	223
8장 역사학 원리를 위한 기초	224
9장 역사학 원리	258

10장 역사학의 일부로서의 심정학	268
11장 행위자의 동기 추정	278
12장 이상적 유형	285
13장 방법론적 개인주의	292
14장 역사 연구의 응용	299
15장 유사 역사학 원리와 역사의 철학적 해석들	321
16장 역사학을 위한 함의들	331
4부 경제학과 역사학의 발전을 위하여	337
17장 경제학과 역사학에 대한 도전	338
18장 방법론과 인식론을 기초로 한 전망	343
주	349
참고문헌	372
찾아보기	380

Part. 1

1부

방법론과
인식론을 위한
기초

방법론과 인식론의 필요성과 중요성

이 책의 일차적인 목적은 인간행동학, 경제학, 역사학 등의 기초가 되는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오스트리아학파의 연구를 소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 시점의 오스트리아학파의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이 분야의 선구자이자 개척자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 이후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종합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작금의 주류 경제학으로 일컬어지는 신고전학과 또는 신고전주의의 방법론인 실증주의 또는 범물리주의 pan-physicalism와 기타 방법론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2008년에 발생한 세계적인 차원의 경제위기는 작금의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학과 경제학, 특히 거시경제학에 대한 강한 불신을 초래했다. 그런 불신은 주류 경제학의 유일한 대안적 접근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학파의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고조시키고 있다.¹ 특히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과 금융계 종사자들의 관심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학계에서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을 포함해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거의 미미하다. 그러므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을 국내 학계에 소개하면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을 더 정밀하게 만든다는 목적에서도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의 기초가 되는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분석과 종합은 의미가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연구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는 오늘날에는 경제이론이나 경제법칙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크게 멀어진 주제로,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주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을 가르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그러할 뿐 아니라 오스트리아학파가 발전시킨 인간행동학과 그것의 하부 부문이라 할 수 있는 경제학, 역사학 등에서 또한 그러하다. 인간행동학, 경제학, 역사학 등의 연구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가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 이유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행동학, 경제학, 역사학 등의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는 이론들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명히 깨닫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유용하다. 첫째,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학문 또는 분야의 내용과 그 한계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문 또는 연구의 내용과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학문 또는 연구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 결과, 학문 또는 이론 내에 있는 각종 오류들을 제거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다. 이 점은 학문의 발전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학문의 현실 응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확한 이론만이 잘못된 현실 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실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다른 학문 또는 이론과의 관계도 정확히 정립할 수 있다.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의 이해를 통해 다른 학문과 자신이 연구하는 이론들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앞에서 지적한 이유들로 자신이 연구하는 이론이나 학문에 대한 잘못된 비판에 대해서도 적절하고도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인간행동학, 경제학, 역사학 등의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는 일은 그들 학문들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역사학 원리 또는 역사 원리 **historical principle**를 설명하고 가짜 역사 원리를 비판하는 것이 이 책의 추가적인 목적이다.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사는 역사 서술에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화가 상당히 진행된 나라일수록, 그리고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나라일수록 특히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왜냐하면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역사 서술에 있어서 경제가 다른 어떤 부문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산업화가 진전된 서양에서 신경제사학 **new economic history**이 등장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화의 진전과 서양학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우리나라에서도 신경제사학이 중요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4장에서 보겠지만 최근 서양에서 중요해진 신경제사학은 역사 원리라는 관점에서 비추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역사학은 과거의 인간행동을 다루기 때문에 인간행동학의 한 부분

이다. 그러므로 인간행동학에 기초를 둔 방법론과 인식론을 응용하여 역사학의 원리를 유도해야 한다. 이 책은 인간행동학에 기초를 둔 역사학 원리를 소개함으로써 역사를 서술하는 역사가들이나 역사 자료를 수집하는 국가 기관이나 공식 기관의 연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기도 하다.

오스트리아학파라고 지칭할 수 있는 연구자들 가운데 인간행동학, 경제학, 역사학 등에서 방법론과 인식론에 관련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독일어권이 아닌 영어권에서의 최초의 연구자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이다.² 영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미제스의 연구와 비중은 가히 독보적이다. 그러나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그의 연구 업적은 오늘날 그가 실질적 의미에서 세웠다고 여겨지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들에게도 관심을 못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업적에 비해 훨씬 덜 존중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힐즈만 Hülsmann은 지적하고 있다.³ 왜냐하면 미제스 이후로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와 관련한 저작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를 다룬 미제스의 작품으로는 *Epistemological Problems of Economics, Human Action, Theory and History, Ultimate Foundation of Economic Science* 등이 있다. 그리고 그의 사후에 출간된 책인 *Money, Method, and Market Process*(1990)에는 일부의 논문이 방법론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제스의 연구 업적에서 알 수 있듯이, 미제스의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33년에 출간된 *Epistemological Problems of Economics*라는 책은 그 이전에 발표한 논문들을 모은 것이다. 그런데 그 책에서 가장

오래된 논문은 1929년에 발표한 것이다. 역사학의 연구 방법론을 종합한 책인 *Theory and History*는 방법론에 관한 논문이 처음 발표되고 거의 30년이 지난 시점인 1957년에 첫 출간되었으니 미제스의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에 관한 연구는 그가 연구 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전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그의 연구 업적은 가장 논쟁적일 뿐 아니라 아마도 그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여겨진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스의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저작들은 당시 경제학계의 큰 저항에 부딪혔을 뿐 아니라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들마저도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⁵ 인간행동학자들, 경제학자들, 역사가들 등의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무관심은 지금도 미제스가 활동했던 당시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에 관한 미제스의 연구 업적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미제스는 경제과학(economic science)이 선형(a priori)과학이고 경제학에서의 경제법칙들(economic laws)이 선형적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경제과학의 이러한 선형성은 실증주의와 역사주의(historicism)를 비판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신고전학파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인 실증주의란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경제법칙마저도 경험에 의하여 발견할 수 있다는 연구 방법론이다. 역사주의란 독일의 역사학파가 주장했던 내용으로 인간행동에는 발견할 수 있는 법칙이 없다는 전제에 의존하는 연구 방법론이다. 그러므로 역사주의는 경제학과 역사학을 학문으로 인정하는 것을 부정한다. 실증주의와 역사주의를 비판한 내용이 미제스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업적의 다른 두 가지다.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미제스의 연구 업적은 이 책 전체에 걸

쳐서 다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실증주의는 4장, 역사주의는 15장에서 그 내용을 비판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미제스는 *Theory and History*에서 역사 연구에 적용해야 할 원리, 즉 역사학 원리를 정립했다. 그는 역사학이 과거의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인간행동학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해^{understanding}’를 역사학 원리로 제시했다. 게다가, 역사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점에 일어났던 인간행동이기 때문에 역사학 원리는 더 엄밀하게는 ‘특정한 이해’가 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미제스는 주장했다. 문제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부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앞에서 열거한 미제스의 연구 업적을 기본으로 하고 미제스 이후에 머레이 라스바드 [Murray N. Rothbard](#), 한스헤르만 호페 [Hans-Hermann Hoppe](#), 휠즈만 등에 의해 발전된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보완하거나 종합하는 것이다. 호페와 휠즈만, 두 연구자는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설명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인물이다. 먼저 호페는 *The Economics and Ethics of Private Property*(1993), *Economic Science and the Austrian Method*(2007) 등으로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연구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했다. 게다가, 휠즈만은 최근에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중요한 연구 성과를 몇 가지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휠즈만의 연구 성과를 상당 부분 소개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 과정에서 미제스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의 연구에 관한 한 미제스의 업적이 최초라고 간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 휠즈만 등의 연구자에 의해 그의 연구 업적 중의 일부가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연구의 주제가 경제학과 역사학에서의 오스트리아학파의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주류 경제학의 연구 방법론인 실증주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실증주의는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이 그 윤곽을 발표하면서 주류 경제학의 방법론으로 널리 알려졌고 채택되었다.⁶ 프리드먼은 자신의 책에서 경제적 추론 **economic reasoning**의 유일한 기준은 예측력에 있다고 주장했다. 좋은 이론들은 정확한 예측을 하게 하고 나쁜 이론들은 부정확한 예측 또는 틀린 예측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실증주의는 오늘날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방법론이 되었다.

그러나 실증주의는 경제예측 **economic forecasting**을 향상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제이론들의 기초가 되는 방법론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사실 주류 경제학계의 지배적인 방법론인 실증주의는 의미 있는 경제이론들을 우리에게 제시한 적이 거의 없다. 그렇게 오랜 기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제 주류 경제학을 신봉하는 연구자들마저도 ‘실재 **reality**’에 대한 의미 있는 직관을 얻기 위하여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과 같은 대안적 접근법 **alternative approach**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7,8} 그들은 예측력이 아니라 실재론 **realism**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⁹

이 책의 주요 목적이 오스트리아학파의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소개할 뿐 아니라 비판적으로 종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류 경제학의 방법론인 실증주의에 대한 관심은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라는 주제에만 국한할 것이다. 실증주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비판은 4장에서 하고자 한다. 그리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학과의 방법론, 예를 들어 역사주의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부에서 보겠지만 역사학은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가치중립적 **wertfrei**인 학문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이념에 근거하여 역사를 서술함으로써 역사학은 가치의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역사학의 주요 명제를 무시하거나 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 역사 서술은 이념에 편향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등의 이념이 팽배해 있다.¹⁰ 문제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등은 동일한 이념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런 이념 편향은 정확한 역사를 찾는 일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역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분열시킨다. 그리고 이념 편향된 역사 교육은 미래 세대의 이데올로기를 친(親)사회주의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자신들의 몫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폐해는 적지 않다. 이런 경향은 최근 역사, 특히 해방 전후사, 제3공화국의 역사 등을 포함한 현대사에서 특히 그러하다. 이 책은 그런 이념 과잉 또는 편향을 바로잡는 데 기여함으로써 역사가를 포함한 사회 내의 개인들이 잘못된 아이디어를 가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개인들이 가진 아이디어들이 – 그것들이 자본주의에 기초하든 사회주의에 기초하든 상관없이 – 역사의 진로를 결정한다. 역사의 진로를 현재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한다면 개인들이 가진 아이디어들이 역사의 진로를 개선할 수 있는 이념에 근거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풍요를 원한다면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인 개인들이 자본주의라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개인과 사회가 파멸에 – 적어도 물질적으로는 –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개인이 가진 아이디어들이 역사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는 역사학 원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설명할 것이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의 의미와 그 유용성을 간략히 보기로 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인식론이란 인간과학 *sciences of man*의 한 부분 또는 기초이다.¹¹ 인식론은 인간이 사고하고, 지각하고, 지식을 얻는 것 *knowing*을 다룬다. 그 점에서 일반적 인식론과 여기에서 말하는 인식론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인식론은 인간행동학이라는 분야의 특별한 인식론적 문제를 지칭한다. 사고하기, 지각하기, 지식 얻기 또는 지식 만들기 등은 인간 본성의 한 측면이다. 인간은 사고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인간행동학에서 인식론적 문제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정신적 현상을 다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행동학에서 인식론적 문제란 ‘인간이 가진 마음의 논리적이고 인간행동학적인 구조 *logical and praxeological structure of the human mind*’를 다루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식을 신비주의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A’와 ‘A가 아닌 것’, 즉 ‘non-A’를 구분하는 데서 출발한다.

경제현상은 인간행동의 결과이다. 인간의 행동은 다시 개별 인간이 획득한 지식에 의존할 뿐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목적 – 그런데 목적도 넓은 의미에서 지식의 일부이다 – 에도 달려 있다. 그러므로 경제현상을 다루는 과학인 경제학은 필연적으로 인식론적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인식론적 문제란 인간이 가진 마음의 논리적이고 인간행동학적인 구조를 다루는 것이다. 그 결과 경제학은 인간이 가진 마음의 논리적이고 인간행동학적인 구조, 즉 인식론적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제스는 현대 인식론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현대 인식론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그 발전과

실천적 응용이 현대사의 가장 극적인 사건이었던 경제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Mises, 2006, p. 3) 앞의 인용문은 미세스가 인간행동학의 인식론적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 것이 경제학을 도외시한 현대 인식론의 문제점 때문이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오스트리아학파의 방법론과 인식론에 의하면 경제이론은 선형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은 자연과학의 방법론인 범물리주의 또는 실증주의를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공학, 복지국가주의, 간섭주의 등이 대두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주류 경제학이 잘못된 방법론을 채택함으로써 자본주의 또는 자유시장이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방법론적 관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학을 정밀한 과학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옳은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를 이해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역사학은 인간행동학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역사학을 위한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를 이해하는 일도 필수적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오늘날 역사에서 경제현상이 중요해지면서 경제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나 대학원의 역사 교육 과정에서는 경제학과 관련한 과목을 가르치지 않는다. 역사학을 위한 인식론이나 방법론은 말할 것도 없이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가 바르게 서술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역사가 역사가에 따라 다르게 서술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더라도 역사 왜곡이 도를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과거의 인간행동인 역사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제학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생물학, 수학, 물리학, 법학 등과 같은 비역사

적 nonhistorical 학문도 필요하다. 그러나 역사가들의 비역사적 학문들에 대한 이해나 관심은 충분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경제학과 역사학을 위한 방법론과 인식론은 필수이다. 그러나 미제스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미제스는 경제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학을 제외한 다른 학문들과 방법론에 정통할 것을 권하며 경제학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 있다. “경제학이 다른 과학들의 유형을 따라서 나아가야 한다는 헛된 생각에 의해, 경제학 연구는 거둬 길을 잃곤 했다. 그러한 오해에 의해 이루어진 해악은 경제학자가 다른 분야의 지식에 동경하는 눈빛을 보내지 말라거나 심지어 그것들(다른 분야의 지식)을 완전히 무시하라고 경고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지식(다른 분야의 지식)이 어떤 주제에 관한 것이건, 무지는 진리를 추구하는 데 유용한 자질이 결코 될 수 없다. 학자들이 수학, 물리학, 생물학, 역사학, 법학 등의 방법론들에 의존함으로써 경제 연구를 잘못 하지 않도록 막는 데 필요한 것은 이들 과학들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그것들을 이해하고 정복하려 하는 자세이다. 인간행동학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수학, 물리학, 생물학, 역사학, 법학 등에 정통해야 한다. 만약 그가 인간행동 이론의 과제들과 방법론들을 다른 분야 지식 이론의 과제들과 방법론들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다.”(Mises, 2006, p. 3)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 대(對) 신고전학파의 경제학¹²

1. 논쟁의 필요성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경제위기는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에 대한 강한 의혹과 불신을 제기했다.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이 이번 경제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구체적으로는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에는 경기변동 현상을 설명할 이론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은 이번 경제위기가 궁극적으로는 화폐를 과다하게 발행하여 발생한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오스트리아학파의 일부 연구자는 2008년 경제위기를 이미 몇 년 전에 예측하기도 했다.

이번 경제위기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금융 관련 종사

자들을 중심으로 이번 경제위기를 설명해야 할 –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타인을 위해서 –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에 대한 대안으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이 어느 정도 부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물론 과거에도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은 보통 사람들을 포함한 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오스트리아학파는 경제학계에서는 여전히 소수임에 틀림없는 것처럼 보인다.

학문 세계에서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들과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 간에 간헐적으로 논쟁이 있었다. 그럼에도 두 경제학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은 지지자들이 많다는 이유 또는 다른 이유로 쉽게 자신의 패러다임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폴 크루그먼 Paul Krugman 교수 같은 신고전학파, 특히 케인스 경제학의 신봉자는 이번 경제위기 시에 경제학자가 아니면서 경제현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을 읽어볼 것을 제안했을 때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 내용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연구자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다른 한편,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비록 그 수가 적지만 자신들의 패러다임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학문이나 이론의 진위 여부는 지지자의 숫자로 결정해야 할 일은 아니다. 이 점은 코페르니쿠스 Copernicus의 지동설을 생각해 보면 명백해진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과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은 너무 달라서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두 경제학은 물과 기름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다르다. 비록 두 경제학이 경제학

이라는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말이다. 전혀 다른 체제인 두 학파의 경제학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논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을 신봉하는 학자들이 너무 많고 자신들의 학문에 대한 믿음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제학자로서 학문 세계나 사회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학파의 경제학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좋은 경제학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좋은 경제학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학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강의나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을 상대로 한 강의나 교육에서 좋은 경제학은 설명력을 높여 현실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좋은 경제학을 선택하게 되면 이번 경제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좋은 경제학의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한 국가의 경제정책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문명의 성쇠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공황 이후에 케인스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인 고전학파의 경제학에 접목되면서 경제위기는 대규모화되고 반복적이 되면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자신의 학문 체계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경제학이 좋은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학이 의존하고 있는 가정, 전제, 기초 등이 얼마나 ‘실재적’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프리드먼은 예측력을 기준으로 비실재적인 **unrealistic** 가정도 반

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¹³ 그러나 프리드먼이 주장한 실증주의 또는 범물리주의는 경제학을 위한 방법론이 될 수 없다. 실증주의 또는 범물리주의는 자연과학을 위한 방법론이다. 신고전학파는 자연과학을 위한 방법론이 아닌 인간의 행위를 다루는 방법론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방법론과 인식론에 대한 약간의 설명과 논평을 하고자 한다.

2. 오스트리아학파의 역사¹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은 멩거Carl Menger를 시조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제스를 오스트리아학파의 설립자founder라고 불리기도 무방하다.¹⁵ 미제스는 멩거, 뵘바베르크Böhm-Bawerk 등의 가르침을 기초로 우리가 오늘날 접하고 있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과 인간행동학을 집대성했을 뿐 아니라 인간행동학과 경제학과 역사학의 방법론과 인식론적 기초를 처음으로 완성했기 때문이다.¹⁶ 그리고 오늘날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에서 오스트리아학파의 명맥을 잇고 있다고 여겨지는 미국에서는 주로 미제스의 저작들을 토대로 제자들이 양성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의 학파를 이루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오스트리아학파라고 말할 때는 미제스 자신과 그 후학이 학파의 형성에 더 중요하다고 하겠고 바로 그 이유로 오스트리아학파의 역사가 길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의 사상사적 위치에 대해서는 독립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 사상적 위치에 대한 최근의 서적으로는 Schulak and Unterköfler(2011)가 있고 논문으로는 Hülsmann(1999) 등이

있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의 전통을 잇는 연구자로는 Menger(1950)를 시조로 하여, Böhm-Bawerk(1959), Mises(1980, 1996, 2007, 2010), Hayek(1931, 1937, 1979), Rothbard(1993, 1997a, 1997b), Kirzner(1966, 1973), Hoppe(1989, 1993) 등이 있다.¹⁷ 앞에서 나열한 참고문헌은 각 연구자의 대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호폐 이후에도 많은 연구자가 오스트리아학파의 맥을 잇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그들을 모두 열거할 수는 없다.¹⁸ 그러나 이 주제는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학파의 경제학과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고전학파의 경제학과 달리 주관주의 *subjectivism*를 토대로 경제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한 것은 경제사상사에서 멩거, 제본스 *Jevons*, 왈라스 *Walras* 등이 처음이다. 그러나 멩거와 달리 경제이론을 만들면서 제본스와 왈라스는 주관주의를 기초로 이용하는 데 철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멩거는 비록 많은 저작을 남기지 않았지만 효용의 주관성을 끝까지 유지했다. 이러한 전통은 뵘바베르크 등으로 이어지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미제스는 주관주의 전통을 이어받아 1912년에 *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 1922년에 *Socialism*이라는 걸작을 저술했다. 미제스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오스트리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1949년에 철저한 주관주의에 입각하여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을 완성한 *Human Action*을 출판했다. 앞의 두 저작은 말할 것도 없고 *Human Action*은 그 이후 몇 십 년 동안 미국에서 오스트리아학파가 부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제스는 1957년에 경제학의 방법론과 역사학 원리를 다룬

*Theory and History*를 출간했다. 미제스는 앞에서 제시한 4대 걸작을 제외하고도 많은 서적과 논문을 남겼다. 이러한 저술 활동을 통해 미제스는 주관주의 전통을 사실상 잃어버린 신고전학과와 완전히 결별하고 주관주의에 철저한 경제학인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을 완성했다.

미제스의 제자였던 라스바드는 그때까지 오스트리아학파를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¹⁹ 극단적 주관주의를 신봉하는 집단, 하이에크적 전통을 따르는 연구자들, 미제스적 전통을 잇는 학자들을 말한다. 현재는 극단적 주관주의를 추구한 학자들은 더 이상 학맥이 유지되는 것 같지 않다. 다른 두 집단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미국과 일부 국가에서는 미제스적 전통을 잇는 연구자들이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²⁰ 다만 필자가 미국과 전 세계 오스트리아학파의 연구자들의 연구 동향을 모두 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멩거에서 뵘바베르크, 그리고 미제스로 이어지는 전통에서 일부 연구자들이 오스트리아학파적 요소들을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자신의 주장을 변경함으로써 후학들이 판단하건대 오스트리아학파의 일원에서 제외된 연구자들도 상당수 있다. 슈페터 *Schumpeter*, 하벌러 *Haberler*, 모겐스틴 *Morgenstern*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들이 활동했던 당시라면 몰라도 최근에는 오스트리아학파를 신봉하는 연구자들은 누구도 이들을 오스트리아학파의 일원으로 꼽지 않기 때문이다.

3.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 대 신고전학파의 경제학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은 몇 가지 점에서 신고전학파의 경제학과 명백히 다르다. 그렇지만 이 다른 몇 가지가 가정 또는 전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두 경제학은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그 결과 두 경제학의 차이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일은 이 책의 목적에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두 경제학의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차이만을 다루고자 한다.²¹

(1) 인간행동학적 분석 대 심리학적 분석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의 기초가 되는 ‘인간행동학적 분석 *praxeological analysis*’은 주류 경제학의 ‘심리학적 분석 *psychological analysis*’과 분명히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은 행동 이론 또는 인간행동학의 일부이고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은 응용심리학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은 인간행동학의 일부이고 주류 경제학은 응용심리학의 일부라고 하는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에서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행동 개념 *concept of action*’이 중요하다. 행동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우리는 행동 개념과 밀접히 연결된 개념인 가치, 부, 교환, 가격, 비용 등의 개념도 파악 가능하다고 미제스는 설명한다.²² 미제스는 가치평가, 가치와 중요성의 척도, 희소성과 풍부함, 장점과 단점, 성공과 실패, 이윤과 손실 등과 같은 개념도 행동 개념에 함축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행동 개념으로부터 앞에서 열거한 개념들을 유도하고 그 개념들 간의 필연적인 관계도 유도하는 것이 경제학의 일차적

인 임무라고 미세스는 지적한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은 행동 개념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주류 경제학은 인간의 심리에서 출발한다. 이것이 두 학파의 결정적인 차이 중의 하나이다.

인간은 행동한다. 인간이 행동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 선택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들 또한 스스로 선택한다. 이 점을 힐즈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그들[오스트리아 학파의 연구자들은 인간 존재들이 선택을 하고 목적들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들을 이용한다고 강조한다.”(Hülsmann, 1999, p. 4) 주류 경제학자들도 인간은 스스로 목적들을 선택하고 선택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들 또한 선택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현실에서 기업가는 금전적 이윤의 극대화만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고, 금전적 이윤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자선을 하면서 금전적 이윤의 일부를 희생하는 경우가 후자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심적 이윤 *psychic profit*’의 극대화이다. 오스트리아학파는 기업가가 심적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하는 대신에 주류 경제학은 ‘금전적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물론 기업가에 따라 심적 이윤의 극대화가 곧 금전적 이윤 극대화와 동일시되는 경우도 있다. 기업가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류 경제학은 금전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가정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비실재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가가 추구하는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신고전학파는 오스트리아학파보다 비실재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현실의 기업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기업가가 ‘어떤’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두 학파가 다르지 않다. 다만 아

래에서 보겠지만 두 학파는 이러한 사실들을 다루는 방법과 그에 따라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유형 *types of explanations*에서 완전히 다르다.

인간은 행동의 순간에 선택을 하고 자신이 선택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을 채택한다. 인간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을 선택하는 점”이 ‘행동의 기초 공리 *fundamental axiom of action*’이다. 인간행동학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동의 기초 공리에 두 가지 ‘보조적인 전제 *subsidiary postulates*’가 추가되어야 한다. 두 가지란 인간과 자연자원은 다양하다는 것이며, 여가 *leisure*가 소비재 *consumers' goods*라는 점이다. 오스트리아학파는 행동의 기초 공리와 두 가지 보조 전제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인간행동학과 경제이론을 연역적 방법에 의해 이끌어낸다. 행동의 기초 공리에서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이 출발한다는 점이 신고전학파의 경제학과 다른 것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행동의 내부 *within action*에 있는 것’으로 목격된 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행동의 내부에 있는 것이란 ‘행동의 목적’ 또는 ‘포기한 선택지’를 말한다. 미제스는 행동의 목적이 인간으로 하여금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소위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가 말하는 ‘목적론 *teleology*’이다.²³ 최근에 휠즈만은 인간이 행동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한 선택지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그것으로 목격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²⁴ 이것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관계 *counterfactual relation*’로 행동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²⁵ 요약하면, 오스트리아학파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때 행동의 내부에 있는 것으로 목격된 행동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행동이 어느 정도 ‘스스로 결정하는 *self-determining*’ 것이기 때문이다. 행동의 내부에 있는 것으로 행동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인간행동학이라고 하며,

경제학은 지금까지 가장 잘 발달된 인간행동학의 하부 부문이다.

그러나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오스트리아학파의 연구자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들은 인간의 행동을 주어진 환경 또는 행동의 조건의 ‘필연적인 결과-*sequel, corollary*’로서 설명하고자 한다. 신고전학파는 행동을 인간의 감정 또는 만족감이라는 심리 상태로 설명하는데, 인간의 감정 또는 만족감은 ‘행동의 조건들-*conditions of action*’ 또는 행동의 환경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인간의 행위를 다른 관측 가능하면서도 내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들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신고전학파의 가치 이론-*theory of value*과 선택 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고통과 기쁨이라는 감정 또는 만족감과 연결함으로써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목격된 행동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들이 목격된 행동을 설명하는 것과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은 관측 가능한-*observable* 행동 – 현실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행동을 말함 – 을 행동의 조건들, 즉 ‘욕구-만족’의 정도라는 심리적 현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물론 행동의 조건들은 행동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외부에 있는 것이다. 이 점을 힐즈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즉 “요약컨대, 신고전학파의 가치 이론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그것[신고전학파의 가치 이론은 한쪽에서는 우리의 감정과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의 행동이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전제한다. 그런데 그 행동이 신고전학파의 소비자 이론에 의해 연구되고 서술되어야 하는 것이다.”(Hülsmann, 1999, p. 5) 다른 말로 하면, 신고전학파는 인간의 행동 그 자체와 행동의 조건들 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 점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문제는 행동과 행동의 조건들 또는 심리적 현상 간에는 일정한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즉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은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진 이론이라는 것이다. 미제스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다른 개인들은 동일한 사물들을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심지어 동일한 개인이라도 조건들이 변하면 가치평가는 변한다. 우리는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개인들을 집단으로 분류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조건들을 결정할 수 없다.”(Mises, 1990, p. 6)

라스바드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바꿀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행위자 자신이 마음을 바꾼 것을 제외하모든 점에서는 동일한 조건들일 때도 인간은 다른 방법으로 행동한다.²⁶ 신고전학파의 심리학적 접근법이 틀린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접근법이 오스트리아학파의 접근법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두 경제학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연구방법론과 인식론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점은 아래에서 더 다루고자 한다.

요약하면, 방법론 또는 경제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과 현재의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학파의 경제학 간의 중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은 행동의 이론, 즉 인간행동학이라면, 주류 경제학은 응용심리학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두 학파의 경제학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이후의 분석과 설명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학파의 경제이론들 일반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류 경제학이 심리학적 분석에 기초하고 있고 오스트리아학파의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이 인간행동학적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은 한 가지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 시사점이란 두 경제학에서 포함된 경제이론들이 상당한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경제학의 이론들이 유사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어느 경제이론들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동을 인식하고 설명하는 방법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점은 아래에서 다룰 것이다.

(2) 합목적성 대 합리성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간은 주류 경제학의 ‘합리적^{rational}’ 인간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연구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 목적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영어 ‘rational’이라는 말의 의미는 ‘합리적’이 아니라 ‘합목적적’이라는 의미이다.²⁷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을 앞에서 지적했다. 이때 목적을 추구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에서는 인간의 행동 또는 행위가 연구의 대상이다. 여기에서 인간이란 큰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나 생물학적 자극에 크게 휘둘리는 어린이 등을 제외한다. 물론 어린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인간 등도 때로는 성숙한 성인과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고 그런 경우에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논리 전개의 편의상 그들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상적인 성인이지만 술을 마시거나 정신 관련 의약품 복용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의 성인의 행동도 우리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여기에서 인간이란 큰 정신적 장애—유전적일 수도 있고 인위적일 수도 있는—가 없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인간을 말한다. 요약하면 오

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에서 인간이란 이성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실재의 **real** 인간을 말한다.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라도 이성을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정도는 개인마다 모두 다르다. 즉 이성의 사용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실의 인간은 이성을 사용하지만 그 정도는 다르나 모두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고 있는 주류 경제학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ideal** 인간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실재적'이다. 그러므로 비실재적인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주류 경제학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틀린 것이라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인간이 이성을 사용하지만 또한 감정, 유행, 모방, 타인의 권유 등에 따라 행동하기도 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물론 인간이 감정, 유행, 모방, 타인의 권유 등에 따라 행동한다 해도 자신의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은 틀림없다. 인간은 열정에 불타오르게 되면 차분하게 생각할 때보다 목표에 대해서는 더 바람직하게 여기고 지불해야 할 대가 또는 비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때로 인간은 상당히 합리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폭력적 혁명이 일어날 때의 인간의 행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혁명이 발발하고 진행될 때 인간들의 행동과 혁명 직전 인간들의 행동을 비교한다면, 전자의 경우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앞에서 설명한 경향만이 가능하다. 혁명을 전후하여 인간은 비용에 비하여 목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신고전학파의 경제학과 다르게 오스트리아학파는 이상적인 인간이 아닌 현실에 존재하는 그런 인간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²⁸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는 것은 동물과 달리 인간은 심사숙고해서 그의 행동을 조절한다는 점이다. 인간은 맛있다고 모든 음식을 먹어치우지 않는다. 사람은 욕정에 따라 모든 예쁜 여성을 성추행하지 않는다. 인간은 그가 미워하는 모든 인간을 죽이지 않는다. 그러나 때로 인간은 즉흥적이고 행동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이 가진 일정한 가치 척도에 따라 그의 욕망과 욕구를 배열하고 선택한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한 마디로 인간은 행동한다.

인간은 동물과 구별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동물사회학, 사회생물학 등과 같은 학문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다. 동물이 사회를 이룬다는 주장이나 설명은 ‘사회’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란 독립된 개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의 패턴으로 정의된다. 동물이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그런 움직임은 개체들 간의 교환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물은 사회를 이룬다고 볼 수 없다. 동물사회학 등은 기본 개념에서 오류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구분해야 한다. 경제학의 연구 대상은 ‘의식적인 행위 *conscious behavior*’이지 ‘무의식적인 활동 *unconscious activity*’은 아니다. 물론 두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두 경우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학파에 있어서 연구의 대상은 인간의 의식적인 행위이다.²⁹ 이 점은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에서도 동일하다.

(3) 현시 선호 원리 대 무차별 원리

오스트리아학파는 신고전학파가 수요 곡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

용하고 있는 ‘무차별 **indifference**’이라는 개념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³⁰ 인간은 언제나 어떤 행동을 한다. 경제학과 같이 인간의 행동을 다루는 과학에서 이 행동은 ‘설명되어야 할 사실 **fact to be explained**’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가정하자. 철수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행동을 보았을 때 그러한 관측 또는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관측과 철수가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면 했을 가능한 다른 행동 **possible alternative actions**을 연계해야 한다. 철수는 다른 선택지, 즉 녹차보다는 커피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신고전학파의 무차별 개념을 도입하여 철수가 커피와 녹차에 대해서 무차별하다고 가정하면 커피를 마시는 행동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 **undeniable fact**’을 설명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심리적 현상인 무차별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데 맞지 않다는 것이다.

무차별 이론을 옹호하는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위하여 뷔리던의 당나귀 **Buridan's ass**를 예로 제시하고 있다.³¹ 뷔리던의 당나귀 사례는 두 개의 건초 묶음 또는 두 개의 우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서 배고파하거나 목말라하고 있는 당나귀의 우화이다.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매력적인 두 묶음의 건초나 두 개의 우물을 앞에 두고 당나귀는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고, 그 결과 굶거나 물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무차별 이론가들 **indifference theorists**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세 번째 선택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굶거나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굶는 것이나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보다 분명히 가치 순위가 낮을 것이기 때문에 당나귀는 굶거나 물을 마시지 않는 쪽보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만약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과 완벽히 동일하게 매력적이라면 그 당나귀는 동전 던지기

와 같은 방법으로 어느 한쪽을 결정할 수도 있다.

라스바드는 이제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무차별 개념의 결정적 오류는 ‘무차별’이 행동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경제학이나 어떤 다른 인간행위학적 과학에서 무차별 개념이 할 역할은 없다. (중략) 다시 한 번 선택을 통해 표출되는 선호에 관심이 있고, 선호의 심리학에는 관심이 없다.” (Rothbard, 1993, pp. 265, 267)

무차별 개념을 옹호하는 무차별 이론가들이 제시한 뷰리던의 당나귀에 대한 라스바드의 비판에다 필자가 한 가지 점을 추가하고자 한다. 당나귀마저 무차별로 인하여 두 개의 우물 또는 두 묶음의 건조 앞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라스바드의 지적은 옳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인간은 의지와 이성이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 그러므로 뷰리던의 당나귀는 무차별 현상을 설명하거나 반박하는 예로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무차별 이론가들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과 관련한 예를 제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점은 반박하는 쪽에도 해당한다. 사실 우리는 무차별한 행동이 있을 때 그 현상을 그냥 설명하기만 하면 된다. 즉 무차별 행동은 설명되어야 할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무차별 개념이 행동을 설명할 수 없음을 보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인간행동학 또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에서 우리의 어떤 행동은 ‘포기한 선택지’와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수는 녹차보다 커피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설명 방법은, 어떤 행동을 목적과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졸음을 깨우기 위하여 커피를 마신다고 말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우리는 현실 세

계의 행동, 즉 철수가 커피를 마시는 행동을 그 행동과 관계 있는 다른 어떤 것, 즉 ‘포기한 선택지’ 또는 커피를 마시는 ‘목적’으로 설명한다.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에서 무차별을 전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그 전제에서 이미 선택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없앤다는 점이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행동이라는 가시적인^{visible} 현상을 다른 ‘관측 가능한’ 현상 또는 심리적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여기에서 다른 관측 가능한 현상이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한 예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행동의 조건들이다. 이 경우는 게임 이론^{game theory}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심리적 현상이란 ‘욕구-만족’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신고전학파 미시경제학의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특히 ‘욕구-만족’의 일종인 무차별로 소비자의 선택을 설명하는 경우를 자세히 검토해본다. A라는 사람이 사과를 먹는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인간행동학은 A가 건강을 위해 사과를 먹는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또는 A가 사과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했을 행동, 예를 들어 배를 먹기로 한 결정으로 사과를 먹는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에서 소비자인 A는 사과와 배에 대해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인간 행동학에서와 같은 설명은 불가능하다. A가 사과를 선택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선택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이 ‘욕구-만족’으로 소비자의 선택과 가치를 설명하고자 하는 신고전학파 방법의 문제점이다. 요약하면, 무차별을 전제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선택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 ‘전제’에서 이미 하나의 선택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없앤 것이기 때문이다.

무차별로 소비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방법을 비판하는 다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구와 함께 소비자 A가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다고 가정해보자. A가 자신은 된장찌개와 김치찌개에 대해 무차별하다고 말하고 친구에게 주문할 음식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그때 A는 친구에게 결정권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또는 A는 자신이 좀 더 이야기에 집중하기 위하여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또는 A는 정말로 두 음식에 대하여 무차별하기 때문에 친구가 결정해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또는 두 가지 음식보다 더 저렴한 음식을 주문하기 위하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또는 A는 두 메뉴에 대한 무차별로 제3의 음식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혼자 식당에 온 경우에 그런 행동이 가능할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A는 두 음식에 대하여 무차별하지만 중국에는 한 가지 음식을 선택하게 된다. 한 가지 음식을 선택하는 행동이 우리가 ‘설명해야 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점을 힐즈만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요컨대, 내적 성찰에 의해 무차별로 알고 있는 그 무차별은 ‘설명되어야 할 사실’이다. 우리가 주장했듯이 무차별 그 자체로는 인간의 행동이 설명되지 않으며, 아무리 해도 설명할 수 없다.” (Hülsmann, 1999, p. 8)

라스바드는 ‘현시 선호 원리 *principle of demonstrated preference*’를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의 효용 이론의 기초라고 주장한다.³² 이것이 오스트리아 학파가 행동을 설명하는 기초적인 원리이다. 행동하는 인간의 선호는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 즉 행동하는 인간의 선호는 그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지 않고는 그의 선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 라스바드가 제시한 현시 선호 원리이다. 물론 우리는 인간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 그의 의도나 목적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자신의 의도를 감추기 위하여 의도와는 다른 행동

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선호를 해석하는 문제와 관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점은 행동이 선호를 분석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 점을 힐즈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요컨대, 실제의 인간행동은 선호들을 분석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Hülsmann, 1999, p. 14) 라스바드는 현시 선호 원리를 기초로 복지 이론(welfare theory)을 구축했다. 왜냐하면 효용은 ‘대인 간의 비교(interpersonal comparison)’가 불가능하고, 그 결과 신고전학파가 주장하는 ‘사회복지함수(social welfare function)’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 주관주의 대 객관주의

인간의 선택을 결정하는 효용 또는 만족은 주관적이다. 다시 말하면, 효용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이나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이나 별다른 의문이 없다. 문제는 그것을 기초로 한 응용에서 두 경제학은 큰 차이를 보인다. 신고전학파는 그 점을 기초로 효용함수(utility function)를 작성하고, 미분(differentiation) 등을 이용하여 경제이론을 유도한다. 비록 암묵적이지만 효용을 객관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효용 또는 만족은 주관적인 것이고 ‘순위(rank)’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효용함수, 미분 등이 가능하지 않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효용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할 때만이다. 그러므로 효용의 측정 가능성을 기초로 세워진 주류 경제학의 이론들 또는 응용들은 모두 틀린 것이다.

효용 개념을 응용한 것이면서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에서 중요한 이론 중의 하나로 간주되는 것으로서 “균형에서 재화들 간의 한계효용의 비율은 그 재화들의 가격들의 비율과 같다.”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오

스트리아학파는 이 이론을 부정한다. 앞에서 서술한 이론을 두 재화만의 관계로 나타내면 ' $M_1/M_2 = P_1/P_2$ '이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신고전학파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등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식이 왜 틀린가를 자세히 보기로 한다.

먼저 한계효용 또는 효용은 순전히 주관적인 것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효용은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용은 '가감승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백 번 양보하여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 경우에도 재화의 가격과 재화의 효용은 다른 종류의 사물이다. 다른 종류의 사물을 비교할 수는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효용과 가격은 '차원dimension'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같은 종류의 사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화들의 가격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A라는 재화의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오로지 3,000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A라는 재화를 커피라고 가정하자. 그 경우에 커피의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한다면 커피의 가격은 정확하게는 '3,000원/커피 한 잔'이다. 다른 재화의 가격도 마찬가지다. 녹차의 가격이 2,000원이라면 녹차의 가격은 정확하게 따지면 '2,000원/녹차 한 잔'이다. 커피와 녹차의 가격 비율은 이제 '두 잔의 커피/세 잔의 녹차'가 된다. 이러한 비율이 지닌 문제는 서로 단위가 다른 재화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두 잔의 커피를 세 잔의 녹차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비율로 표현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동일한 단위를 사용할 때만이 비율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에서 "균형에서 각종 재화의 한계효용의 비율이 그 재화들의 가격들의 비율과 같다."라

는 이론은 틀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틀린 이론을 기초로 한 분석이나 정책적 함의도 근거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신고전학파는 무차별 곡선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곡선을 연속적으로 그리기 위하여 ‘수학적 연속성 *mathematical continuity*’을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재화나 상품의 단위는 ‘불연속적 *discrete*’이다. 재화나 상품을 무한히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두라는 재화를 생각해보자. 구두는 한 켤레, 두 켤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만약 구두 한 켤레를 반으로 나누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 구두의 경우에 한 짝 이하로는 더욱이 나눌 수 없다. 그러므로 무차별 곡선의 연속성을 가정하는 것은 비실재적이고 의미가 없다.

(5) 인간행동과 불확실성

‘불확실성 *uncertainty*’을 다루는 일에서도 두 학파는 견해를 달리한다. 미제스는 인간의 행동은 미래를 향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과 불확실성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³³ 사실 인간이 미래를 안다면 선택과 행동의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미제스는 그런 상태에서 인간은 의지도 없이 자극에 반응하는 자동기계장치 *automaton* 처럼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⁴

다른 한편, 행동은 ‘미지의 미래 *unknown future*’를 대비한 것이다. 그 점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항상 ‘투기 *speculation*’이다. 왜냐하면 투기란 정의상 불확실성하에서 내리는 결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모든 인간은 언제나 투기자이다. 오늘날 투기자라는 개념은 상업 세계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으로 축소되고 왜곡되어 사용됨으로써 투기가 발생하는 정책적 또는 제도적 원인을 찾아내는 일을 어렵게 하고

있다. 투기자라는 개념을 바르게 사용해야 상업 세계에서 수익률이 매우 큰 상황이 발생하는 정책적 또는 제도적 원인을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하다면 그 지식의 서술은 확률적이다. 미제스에 의하면 확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급간 확률class probability’과 ‘사례별 확률case probability’이 그것이다. 급간 확률은 ‘빈도 확률frequency probability’, 사례별 확률은 인간행동학에 있어서의 ‘특정한 이해’라고 부를 수 있다. 급간 확률의 응용 분야는 ‘기계적 인과성’이 지배하는 자연과학 분야이다. 사례별 확률의 응용 분야는 목적론이 지배하는 인간행동과학의 분야이다. 사례별 확률은 빈도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 점에서 ‘수량화 불가능한 위험non-quantifiable risk’을 다루는 것이다.

급간 확률은 우리가 사건이나 사고의 전체 집합의 모습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만 그 집합에 속한 단일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0장의 복권표가 있고 그중 5장이 당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자. 그 경우에 우리는 전체 복권표의 당첨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각 개별 복권표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 이때 전체 복권표의 당첨 확률이 급간 확률이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급간 확률은 자연과학 분야에 응용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사건 또는 사고의 확률은 사례별 확률이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라는 한 가지 ‘종류class’를 만들 수 있다. 이 ‘종류 개념class concept’은 여러 가지 추론에는 유용하고 필요하다. 예를 들어, 헌법의 관점에서 대통령 선거 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

나라의 역대 대통령 선거를 묶어서 한 가지 종류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11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하나의 사례로서 개별적이고, 고유하며, 반복될 수 없는 것이다. 사례는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그 자체로서 하나의 종류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례별 확률은 수량화 또는 계량화가 불가능하다.

1997년 대통령 선거는 하나의 사례이자 과거의 사건이다. 이 사례를 다루는 방법은 역사학의 ‘특정한 이해’라는 원리이다. 특정한 이해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이해’라는 원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역사학의 원리이다. 역사가는 이 원리를 이용하여 특정 사건에서 세 가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세 가지란 먼저 행위자들의 동기, 목적, 의도 등이고, 그다음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원한 수단이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 결과를 지칭한다.

미래의 대통령 선거 중의 하나, 예를 들어 2017년 11월의 대통령 선거는 하나의 사례이지만 미래의 사건이다. 이때도 우리는 역사학의 특정한 이해라는 원리를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고자 할 것이다. 문제는 이때의 미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수량화가 불가능한 무지 또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캐플란^{Caplan}은 오스트리아학파의 그런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한다.³⁵

문제는 어떻게 미래의 불확실성 또는 사례별 확률의 존재, 다시 말해 ‘수량화가 불가능한 종류의 무지’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미제스는 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명이 재삼, 재사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을 변하게 만든다는 점을 주장한다.³⁶ 물론 아이디어를 발명한 것을 제외한 다른 조건은 동일한 환경에서 말이다. 발명가의 존재는 인간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규칙성을 확립하는 것을 방해한다.³⁷ 이때 미래는

언제나 수량화가 불가능한 위험 또는 무지에 놓여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Rothbard(1997a, ch.1-6), Hoppe(1989, 1993, ch. 7) 등도 다른 각도 또는 관점에서는 수량화 또는 계량화가 불가능한 위험 또는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주장했다. 이 점이 수량화가 불가능한 위험 또는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신고전학과와 다른 것이다.³⁸

이제 휠즈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요컨대,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확률적 법칙들은 없다. 그 결과 어떤 인간도 그의 모든 결정을 확률적 직관들에 기초할 수 없다. 사후적으로 *ex post* 그는 확률적 모델들에서 과거 사건들을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델들은 그의 결정에 있어서 주요 문제, 즉 미래라는 독특한 배열을 예상하는 일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런 모델화는 또한 인간의 선택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일과 관련이 없다.”(Hülsmann, 1999, p. 13)

(6) 논쟁의 윤리 대 파레토 최적

여기에서의 의문은 정부정책을 평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것이다. 정부정책의 결과가 사회에 유익한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신고전학과는 ‘파레토 최적 *Pareto optimal*’ 또는 ‘파레토 개선’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문제는 두 개념의 전제조건이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효용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감승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앞에서 지적했다. 그 결과 효용의 대인 간 비교도 물론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파레토 최적 또는 파레토 개선이라는 개념은 틀린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Rothbard(1982)는 재산권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호페는 그 개념은 여전히 불완전하다고 지적하고 ‘논쟁의

윤리(argumentation ethics)라는 보다 발전적인 개념을 제안하였다.³⁹ 논쟁의 윤리란 사적 재산만이 정당화될 수 있고 사적 재산을 침해하는 모든 주장은 필연적으로 ‘스스로를 반박하는(self-refuting)’ 모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호페는 모든 사회적 협동에는 개인의 ‘자기 소유권(self-ownership)’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합의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노예의 소유주가 노예에게 명령을 내릴 때 노예만이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왜냐하면 노예의 소유주가 노예를 직접 통제하고 있다면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살인, 도둑질, 사기 등도 모순 없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살인, 도둑질, 사기 등을 정당화하려는 사람은 논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권의 원리를 전제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 논쟁의 윤리는 다른 재산, 예를 들어 책상, 의자, 토지 등과 같은 물적 재산(physical asset)에도 물론 적용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현시된 선호의 원리와 논쟁의 윤리 또는 정의 이론(theory of justice)을 기초로 오스트리아학파의 복지 이론(Austrian welfare theory) 또는 복지 경제학(welfare economics)이 구축된다. 호페는 논쟁의 윤리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적 재산의 침해는 사회적 상호 작용의 실질적 전제조건들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적 재산의 침해는 사회 전체의 복지라는 의미에서의 사회적 복지(social welfare)를 감소하게 하는 것이 틀림없다.

어떤 정책이 사회에 유익한가를 알기 위하여 효용의 대인 간 비교를 가정하면 문제는 간단하고 쉬워진다. 그러나 효용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인 간 비교가 불가능하다. 만약 그 점을 전제한다면 그 전제를 기초로 한 응용은 모두 무너진다. 다른 한 가지 길은 가치 또는 효용

에 의존하는 방법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휠즈만은 호페가 제시한 논쟁의 윤리는 복지경제학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⁴⁰

그러나 캐플란은 복지경제학을 다른 기준, 즉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지면 재배분(reallocation)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펼친다.⁴¹ 그는 효율성을 비교함으로써 실제 세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는 비효율적이고, 지대 통제가 비효율적이며, 해적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복지경제학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효율성 개념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정치 지도자는 지대를 통제하는 길이 득표를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임차인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선거에서 당선을 노리는 정치 지도자에게는 지대 통제가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는 것이다. 임차인에게도 자유로운 계약보다는 지대 통제가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은 지대 통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류 경제학은 효율성 개념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수단이 효율적인가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목적은 언제나 개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정치 문제에 관련된 개인들의 목적은 언제나 갈등 관계일 수밖에 없다. 앞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정치 영역에서의 모든 정책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효율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정책에서 해결책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개인 간 효용을 비교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인한 효용이 비효용보다 크다면 그 정책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

나 그런 비교는 불가능하다. 효용은 가감승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이미 앞에서 지적했다. 다른 한 가지 길은 효용이나 가치 이론에 기초하여 복지경제학을 구축하는 길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기초를 찾는 것이다. 우리는 라스바드의 현시 선호 원리와 호페의 논쟁의 윤리를 그 기초로 이용할 수 있다. 힐즈만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이것[두 번째 길이 호페의 정의 이론이 역할을 하게 되는 곳이다. 현재로서는, 즉 누구도 ‘가치-이론적인 value-theoretic’ 접근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에는 이것[두 번째 길이 복지경제학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인 것처럼 보인다.”(Hülsmann, 1999, p. 16)

(7) 정부실패 대 시장실패

오스트리아학파의 연구자들이 ‘공공재 public goods’를 바라보는 시각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시각과 다르다. 먼저 사람들의 행동만이 사람들이 어떤 재화를 원하고 얼마를 원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민간에서 어떤 재화가 생산되지 않는다고 정부의 행동, 즉 정부에 의한 재화의 생산 또는 정부에 의한 시장의 간섭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시장에서 어떤 재화가 생산되지 않는 것은 그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보상될 만큼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들이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데 충분한 자원을 희생할 의지가 있다면 어떤 재화라도 정부의 간섭 없이 생산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재화가 재화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그 영향이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상관없이—을 미친다면 그 재화는 공공재가 될 수 있다. 이때 의도한 효과 또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는 그 재화 본래의 특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

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외부성externality’이라고 부른다. 외부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재화의 주인을 제외한 타인이 그 재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어떤 재화도 사실상 공공재가 된다. 그 결과 우리는 공공재와 ‘사적 재화private goods’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모든 재화가 공공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재화의 상태는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 순간순간 변하게 된다. 즉 동일한 재화가 어떤 때는 공공재가 되고 어떤 때는 사적 재화가 된다.⁴²

신고전학파는 어떤 재화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게 되면 공공재로 분류한다. 두 가지 특성이란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 of consumption’과 ‘다른 사용자의 비배제성non-exclusion of other users’이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유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정부가 행동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조건, 즉 소비의 비경합성과 다른 사용자의 비배제성이 제시되었다. 강조해야 할 점은 공공재 이론의 본래 의도는 공공재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어떤 재화를 공공재로 인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로 정부가 그 재화를 제공해야 할 이유는 없다. 민간이 그 재화를 제공하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재의 생산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별도의 규범적 주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여 탄생한 것이 신고전학파의 공공재 이론이다.⁴³

앞에서 보았듯이, 공공재는 외부효과 또는 외부성이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외부효과라는 개념에 대한 신고전학파의 접근법과 오스트리아학파의 접근법은 전적으로 다르다. 아래에서는 두 접근법을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외부효과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설명

인간의 행동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고전학과 경제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외부불경제 **external diseconomies**’라고 한다.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이득을 주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외부경제 **external economies**’라고 한다. 전자와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 각각 환경오염과 교육을 들고 있다. 외부불경제와 외부경제를 모두 지칭할 때는 ‘외부효과’ 또는 외부성이라고 한다.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시장에 맡겨보자.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는 외부불경제의 경우에는 행위를 한 경제주체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재화나 용역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이 생산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의 경우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심할 것이기 때문에 주류 경제학자는 정부가 나서서 오염배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왜냐하면 오염을 발생하는 경제주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오염배출세 부과나 오염배출권 매매와 같은 제안이 외부불경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다.⁴⁴

주류 경제학자는 외부경제의 경우, 행위를 한 경제주체가 모든 이득을 수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외부경제가 발생하는 재화나 용역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교육을 개인에게 맡기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은 양의 교육에 투자한다고 주류 경제학자는 주장한다. 교육은 분명히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대가를 모두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개인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은 양의 교육을 받고자 한다. 그에 따라 교육의 공급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사적 교육 공급자가 공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교육을 공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런 주장이 공립학교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어왔고 그 결과 공립학교가 증가해 왔다.

한 마디로, 주류 경제학은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에 시장은 실패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주류 경제학은 이런 ‘시장실패 market failure’에서 정부의 시장 간섭 또는 개입의 정당성을 찾는다. 문제는 과연 주류 경제학의 이런 주장이 옳은가 하는 것이다. 편의상 다음에서는 외부불경제를 먼저 다루고자 한다.

외부불경제와 자유시장경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 또는 자유시장 원리를 신봉하는 경제학자는 외부불경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대책을 제안하는가? 미제스는 대작 *Human Action*에서 국가나 공공단체 소유의 재산을 예로 들어 외부불경제와 관련한 논점을 설명한다.⁴⁵ 숲과 나무, 바다나 하천에 있어서의 어족자원, 광물질 등은 많은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이다. 예를 들어, 어부들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그들의 고기잡이 방식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고기를 잡는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그들은 어획 방법이 어족자원 자체를 멸종하게 만들지라도 개의치 않는다. 이런 행동은 국가 또는 공공 소유에서의 동물 사냥, 나무 베기 등에서도 목격된다. 그들에게 국가 또는 공공 소유 재산에서의 고기잡이, 동물 사냥, 산림 채취 등에 의해

자원이 고갈되거나 자원의 미래사용에 영향을 주는 손상 등은 그들의 비용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외부비용external cost’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자원의 채취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자신들이 거둬들이지만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 어족자원의 경우에 어족의 씨를 말리는 정도로 모든 고기를 잡는다면 나중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어족자원을 재식민 **repopulation**해야 한다. 국가 또는 공공 소유의 자산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경우에 어부는 어족자원의 재식민 비용을 자신이 지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원 고갈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어족자원을 잡아버리는 것이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공공 소유의 산림에서 나무를 베는 경우에는 나무에서 나오는 신선한 공기나 재산림화**reforestation**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나무를 베어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자연자원을 채취하여 얻는 이득은 자신이 가지고 재식민이나 재산림화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 상태, 즉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먼 과거에 넓은 지역이 동물, 어족, 나무 등으로 가득했을 때는 그런 사냥 방법, 어족 채취, 나무 베기 등은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로 집중되면서 그런 낭비적인 방법으로 자원을 채취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점차 인간은 ‘사적 재산권’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토지에서 목초지, 삼림, 바다와 하천 등으로 재산권 도입 지역을 넓혀갔다. 유럽에서는 이런 과정이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났다. 유럽은 이미 오래전에 약탈적인 채취 방법을 포기하고 자원에 대한 사적 재산권을 도입한 것이다. 그 결과 적어도 사적 소유권이 확립된 지역에서는 자연자원이 고갈되는 일은 없어졌다. 토지, 산, 강 등의 개인 소유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재식민과 재산림화 등의 비용을 고려하여 자연자원을 적절히 채취했기 때문이다. 외부불경

제가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과 달랐다. 이주민이 대량으로 이주하면서 재식민과 재산림화 등을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자원을 남획했다. 그리고 그런 약탈적 방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서 자연자원의 고갈로부터 발생하는 불이익을 외부비용으로 여기게 되었다. 여기에서 외부비용이란 외부불경제로부터 생겨나는 비용을 의미한다.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농부나 목재 채취업자, 어부들은 이제 외부비용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했다. 사람들의 이런 생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념적인 요소가 되면서 달라진 환경에 맞게 자연자원 이용 방법을 바꾸는 것을 방해했다.

타인에게 피해 또는 손실을 입히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과 규칙의 일반적인 원리이다. 그러나 피해나 손실과 관련하여 책임과 배상에 관한 법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완전하지 않다. 책임과 배상에 관한 법과 규칙이 허점 또는 결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다. 첫째, 환경오염 물질이 주는 피해나 손실은 그것을 쉽게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피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의 원리는 그 피해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약간의 대기오염의 경우처럼 단기간에 피해가 미미하여 그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미제스의 설명에서 보듯이 국가 또는 공공 소유의 재산과 이념적 요소가 책임과 배상의 원리의 적용을 방해한다. 셋째, 공기의 경우처럼 재산권을 개인에게 할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길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 경우에는 현재의 지식 체계가 문제다. 넷째, 법과 규칙의 '성문화 작업 **wording**'의 어려움이 법과 규칙을 그렇게 만든 경우도 있다. 다섯째, 과거

에 국가나 정부가 의도적으로 외부불경제를 장려한 경우도 있었다. 산업화 초기에 많은 나라에서 철도나 공장의 주인들은 그들의 활동으로 발생한 매연, 소음, 수질 오염 등이 철로나 공장의 인근 주민, 피고용자, 또는 행인 등의 재산과 건강에 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았다. 그렇게 한 이유는 만약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이 산업화의 진전과 산업의 발전을 방해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아이디어는 당시의 법과 규칙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과 규칙의 허점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거나 다른 법과 규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과 규칙이 결점을 가지게 된 역사적 측면이다.

산업 혁명 직후에는 기업들 또는 자산 소유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나 손실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법과 규칙이 그런 기업들의 책임과 배상을 실질적으로 줄여abate 주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왔다. 근래에는 가난한 사람, 임금 생활자, 농민들을 부유한 기업가나 자본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가나 자본가의 책임과 배상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법과 규칙을 만들고 있다.

그 발생 원인이 무엇이든 책임과 배상에 관한 법과 규칙이 책임과 배상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를 완전히 구현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다. 어떤 경우라도 입법자들이 법과 규칙의 허점을 개선하거나 필요하다면 결점 없는 새로운 법과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금도 그런 상태는 상당 부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입법자들이 이익집단의 이익을 돌보는 법을 무더기로 쏟아냄으로써 과거보다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다. 그 결과 책임과 배상에 관한 법과 규칙이 과거보다 더 많은 허점 또는 결점을 안고 있다.

법과 규칙이 허점을 지니게 된 원인이 무엇이든 행위자들 또는 경제

주체들은 그런 상태의 법과 규칙을 외부조건 또는 여건 datum으로 간주한다. 즉 행위자들은 외부불경제 또는 외부비용을 자신이 아닌 타인이 책임지는 것 또는 타인에게 떠넘겨도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그 타인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꾸어 말하면, 일부 경제주체는 법과 규칙의 허점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외부불경제와 정부실패

만약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외부불경제 또는 외부비용이라면 개인이나 기업의 계산은 명백히 틀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사람을 속이게 된다. 예를 들어, 매연을 뿜어내는 공장이 그 매연으로 인해 발생할 비용의 상당부분 또는 전부를 외부불경제 또는 외부비용으로 간주하여 공장주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그는 확실히 그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보다 자신의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이다. 즉 주류 경제학자가 주장하듯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그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하게 된다. 이렇게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자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의 외부불경제의 결과에 대한 예측은 일치한다.

그러나 외부불경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명백히 다르다. 주류 경제학은 외부불경제 발생 원인을 분석하지 않는다. 외부불경제가 어떤 현상인가만을 설명할 뿐이다. 당연히 대책은 원인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임의적이고 즉흥적이다. 외부불경제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대책이 ‘비용-편익’에 기초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인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책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거나

심지어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간접적이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그런 법과 규칙을 허용한 사람들의 지식 체계, 언어의 한계, 국가나 정부의 의도, 현재의 책임 규명 체제의 한계, 국가 또는 공공 소유 재산의 존재, 이익집단의 이해 등이다. 이런 간접적인 원인들은 외부불경제의 직접적 원인, 즉 외부불경제를 발생케 한 허점 또는 결점 있는 법과 규칙으로 수렴된다. 그런데 현재는 법과 규칙에 관한 제정, 집행, 사법의 권한이 모두 정부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주류 경제학자의 주장처럼 외부불경제는 시장실패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실패의 결과이다.

이제 자유시장경제주의자의 외부불경제에 대한 대책을 종합해본다. 첫째, 재산권 제도를 전적으로 사유권 제도로 바꾸는 것이다. 만약 국가 또는 공공 소유 재산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외부불경제를 결코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둘째, 피해와 손실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당사자 간에 완전하게 하도록 현재의 법과 규칙의 허점이나 예외 조항을 모두 없애는 것이다. 재산권 제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피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의 원칙이 완전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 허점을 악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과 규칙의 허점이나 예외 조항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셋째, 외부불경제는 정부실패의 결과이다. 외부불경제를 시장실패의 탓이라고 주장하는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을 폐기해야 한다. 잘못된 지식이 존재하는 한 잘못된 제도나 정책의 결과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외부경제⁴⁶

어떤 행위자의 행동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혜택을 가져다 준다면 두 가지 가능성 또는 대안이 있다. 하나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

득이 매우 큰 경우이다. 이 경우에 행위자는 어떤 행동이나 계획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자 한다. 미제스는 철도회사의 예를 제시한다. 산업화 초기에는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철로를 건설해야 할 때 철도회사가 산사태를 방지하는 차단막을 건설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이런 산사태 방지 차단막의 설치로 차단막 인근 주민은 엄청난 이득을 본다. 매년 발생하던 산사태로부터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회사는 차단막 설치로 인근 주민이 이득을 얻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너무도 잘 안다. 그럼에도 철도회사는 산사태 방지 차단막의 설치를 연기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차단막의 규모를 줄여서 산사태가 일어날 여지를 남겨두고 차단막을 설치하지도 않는다. 철도회사는 차단막으로부터 자신이 받는 이득이 매우 크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자신이 지불한다. 철도회사는 타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득을 누린다는 점을 차단막을 설치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외부경제가 철도회사의 결정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주류 경제학자의 지적처럼 과소 생산의 우려는 전혀 없다.

두 번째 가능성 또는 대안은 어떤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커서 누구도 혼자서 또는 소수의 사람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이다. 그 프로젝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비용을 분담해야만 한다.

두 가지 대안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외부경제에 대해 더 말할 것이 없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그것이 전부인 것이다. 그러나 미제스는 *Human Action*에서 주류 경제학과 같은 가짜 경제학 문헌들이 외부경제를 전적으로 잘못 해석함으로써 외부경제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

하다고 역설한다. 특히 두 번째 가능성 또는 대안에 대해서 주류 경제학의 오류가 많다는 것이다.

이제 두 번째 대안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오류를 미제스의 설명을 빌려 지적해본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의 이윤 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C사업'이 이윤이 나지 않는 것은 기업가들의 계산이 C사업으로부터 생겨나는 외부경제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C사업에서 발생하는 이득은 더 이상 외부적인 것이 아니다. 주류 경제학자는 그런 외부경제가 적어도 사회의 일부 구성원에게 이득을 주고 그 결과 전체 효용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C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그만큼 손실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이윤은 나지 않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공기업을 운영하든지 또는 개인 투자자나 기업가가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류 경제학자는 제안한다.

정부가 외부경제를 이유로 C사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정부는 C사업에서 외부경제를 이유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한다. 정부가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원이 필요하고 그것은 세금의 형태로 국민의 소득에서 온다. 정부가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는 무엇을 생산하는 조식이 결코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국민이 낸 세금은 그 사업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국민 각자가 자신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사용됐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을 위한 세금의 납부로 국민 각자는

자신의 욕망 일부를 충족시키는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 즉 정부가 많이 소비하면 국민은 그만큼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윤이 나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면 그만큼 민간 부문에서는 같은 크기이면서 이윤을 낼 수 있는 사업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물론 민간에서 실현되지 못한 사업은 소비자들이 더 원하는 것이다. C사업과 관련하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업에서 생산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소비자의 우선순위가 낮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정부가 시작하기 전에 사부문-private sector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C사업으로 생산할 재화나 용역에 대한 소비자의 우선순위가 높다면 그만큼 수요가 많고 발생될 이윤이 예상되어 정부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도 전에 이미 민간 영역에서 시행했을 것이다. 이윤 기회를 찾는 기업가가 그런 기회를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금을 징수하여 C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소비자로부터 더 큰 만족을 뺏고 더 작은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국 C사업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더 적게 가지게 된다.

한마디로, 외부경제가 있는 경우에도 정부의 간섭이 없는 자유시장 경제가 최선이다. 만약 정부가 간섭한다면 필연적으로 시장에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결과보다 효율 또는 만족은 명백히 감소한다. 외부경제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는 영역은 엄청나게 많다. 앞에서 예로 든 교육, 철도, 교량, 항만, 도로, 공항, 하천, 조림, 발전, 물 공급과 상하수도 유지, 통신, 우편, 화폐 발행과 은행 제도, 예금보험, 연금과 건강보험, 방역 체계 유지, 치안, 국방, 사법 체계 유지, 식량 안보용 농업, 복지, 그린벨트 유지, 공용 택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가 하는 거의 모든 일이 여기에 포함된다.

(8) 상품화폐 대 불환지폐

화폐 제도와 금융 제도에서도 두 학파는 큰 차이를 보인다. 오스트리아학파는 화폐의 기원을 고찰해볼 때 상품화폐commodity money 또는 상품화폐에 기초를 둔 태환지폐만이 시장에서 발달한 것이고 바로 그 이유로 상품화폐 또는 상품화폐를 기초를 둔 태환지폐만이 가장 문제가 적은 화폐라고 주장한다.⁴⁷ 또한, 지폐는 정부가 발행을 독점했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고전학파는 불환지폐가 상품화폐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화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불환지폐는 발행과 관련한 직접 비용은 적게 들지만 정부가 화폐 발행량을 통제함으로써 다른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다른 비용이란 만성적이고도 높은 인플레이션, 경기변동에 따르는 경제위기, 소득 재분배 등을 말한다. 그리고 지폐의 사용은 국제 관계에서도 환율 전쟁을 포함한 화폐 전쟁currency war, 국제 분업의 파괴와 빈곤, 문명의 몰락 등의 피해를 초래한다. 한마디로, 지폐는 ‘화폐 국가주의monetary nationalism’에서 ‘화폐 제국주의monetary imperialism’로 나아가게 한다.⁴⁸ 그러나 상품화폐는 발행하는 데 드는 직접 비용은 적지 않지만 앞에서 열거한 다른 부작용은 대부분 없다. 즉 상품화폐는 지폐의 핵심적 문제점, 즉 정부에 의한 과다 발행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화폐이다.

이와 함께, 오스트리아학파는 ‘100퍼센트 지급 준비 은행업100 percent reserve banking’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신고전학파는 ‘부분 지급 준비 은행업fractional reserve banking’을 허용한다.⁴⁹ 그리고 두 학파는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결정에 있어서도 입장을 달리한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자유시장을, 신고전학파는 필요시에 정부의 간섭을

옹호한다.

화폐와 금융의 자유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신고전학파가 제안하는 화폐 제도와 금융 제도는 그 제도 자체가 정부의 독점이다. 그 결과 전 세계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경제위기의 반복, 그에 따른 각종 부작용 등을 경험하고 있다. 1920~1930년대의 대공황,⁵⁰ 1970년대의 ‘오일 쇼크’로 지칭되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1980년대 미국 저축대부조 합의 위기, 1993년 일본의 위기, 1997년 한국의 경제위기, 1990년대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기,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남미 제국의 위기,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적인 수준의 경제위기 등이 좋은 예이다. 그리고 부분 지급 준비 은행업은 정의라는 관점에서든 문제가 있다. 부분 지급 준비 은행업이 예금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9) 선험주의 대 실증주의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에 있어서 두 학파는 큰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실증 분석과 이론과의 관계에서 두 학파는 다른 시각을 보인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경험적인 사실 *empirical fact*로 경제이론을 증명하거나 논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경제이론은 ‘선험적’이기 때문이다.⁵¹

경제이론이 왜 선험적인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동한다. 그 목적은 행동보다 언제나 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선행한다. 인간이 행동을 하기 위하여 선택을 할 때 포기한 선택지가 발생한다. 물론 포기한 선택지도 행동보다는 언제나 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선행한다. 그러므로 경제이론은 선험적이다. 경제이론이 선험적이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나쁜 이론은 좋은 이론에 의해서만 논박된다는 것이다. 경험적인 사실로 이론을 증명하거나 반박할 수 없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론 또는 이론들은 행동의 공리와 보조 전제에 의해 유도된다. 우리는 공리로부터 유도된 이론 또는 이론들을 이용하여 현실 세계에서 실증적인 사실 **observable facts**의 의미를 설명하고 해석한다. 다시 말하면, 사실 또는 자료는 이론을 보조하는 도구이지 이론을 검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신고전학과는 실증주의 또는 범물리주의를 방법론으로 채택함으로써 이론의 예측력을 이론 선정의 기준으로 제시한다. 좀 더 넓게는, 경험적 사실로 이론을 증명하고 반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범물리주의는 자연과학에 적합한 방법론이다. 왜냐하면 범물리주의는 돌, 사과 등과 같은 물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인간은 동일한 외부 사건에 대해 때로는 다르게 반응하고 다른 외부 사건에 대해 동일하게 반응한다. 자연에서 물체는 인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물체와 물체의 관계에는 규칙성이 있다고 전제된다. 그리고 그것은 두 물체 간의 인과 관계를 말한다. 자연의 세계에서 규칙성이 없는 관계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 세계에서는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자연에서의 인과 관계와 같은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범물리주의 또는 실증주의는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방법론으로는 부적절하다.

인간의 행동도 원인과 결과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게 된 동기가 있고 그 동기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행동의 목적이 행동의 원인이고, 그 원인의 결과가 바로 행동이다. 그러나 인간 행동에 있어서 인과 관계는 자연 세계의 인과 관계와 다르다. 인간의 행동은 목적론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 세계

에서의 인과론에 기초한 실증주의 또는 범물리주의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방법론으로는 부적절하다.

(10) 기타 개념 또는 이론

첫째, 두 학파는 주권 **sovereignty**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한다. 오스트리아학파는 ‘개인 자기 주권 **individual self-sovereignty**’ 개념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있고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신체와 재산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오스트리아학파는 ‘소비자 주권’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생산자 주권’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경우에 소비자 주권이라는 개념에 공급자 주권이라는 개념을 추가하기보다는 개인 자기 주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신고전학파는 소비자 주권만을 인정한다. 신고전학파가 전제하고 있는 이 개념의 문제점은 시장에서 생산자들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들도 신체와 재산에 대한 소유뿐 아니라 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차이는 반트러스트법, 독점법, 소비자보호법 등과 그 정책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리만을 인정하는 소비자 주권 개념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주제를 따로 다루지 않지만 중요한 주제임에는 틀림없다. 자세한 내용은 Rothbard(1993)를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반트러스트법에 대한 오스트리아학파의 분석은 Armentano(1999) 등이 있다.

둘째,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가가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에는 없다. 그 결과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에서는

기업가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다. 기업은 존재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간단히 가정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기업가는 위험을 떠맡는 기능, 자본가 기능, 재산의 소유자로서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능 등을 한다.⁵² 그 결과 기업가는 시장과 경제를 끌어가는 핵심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업가가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에는 빠져 있다. 그리고 이윤 극대화 가정도 문제가 있음을 앞에서 지적했다. 시장 경제에서 없어서 안 되는 기업가라는 주요 개념을 다루지 못하게 된 원인 중의 한 가지로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이 개인적인 독특함을 다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라스바드는 주장한다.⁵³ 왜냐하면 개별 기업가는 확실히 독특하기 때문이다.

셋째, 독점의 정의와 카르텔cartels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두 학파의 정의가 전혀 다르다.⁵⁴ 오스트리아학파는 독점을 “정부가 생산에서 개인이나 기업에게 수여한 특권 또는 특혜”로 정의한다. 그 말은 생산 영역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둔 ‘진입장벽’이야말로 독점이라는 것이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어떤 산업에 하나의 생산자만 있는 경우를 독점으로 정의하는 신고전학파를 부정하고 비판한다. 역사적으로도 독점이라는 개념은 정부가 만들어둔 진입장벽이라는 것이었는데 어떤 일인지 주류 경제학은 이 정의를 던져버리게 되었다.

독점과 관련된 개념으로 카르텔이라는 것이 있다. 주류 경제학은 카르텔을 ‘담합’ 행위로 비난한다. 여러 사업자가 하나의 기업처럼 행동함으로써 독점 기업이 되고 그 결과 소비자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는 자발적 행위에 의한 생산자들 간의 카르텔은 협력 행위로서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행위이지 감소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물론 진입장벽이 없는 경

우에 말이다. 정부의 진입장벽이 없다는 것, 즉 자유시장인 경우에 기업가들이 시장의 변화 또는 수요의 변화에 ‘사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카르텔이라는 것이다. 이때 사후적이라는 것은 기업이 설립되고 난 뒤를 말한다. 여기에서 정부가 카르텔을 허가해주는 경우의 카르텔이야말로 독점으로서 비효율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시장에서 카르텔은 담합이 아니라 생산구조^{production structure}의 하나로서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카르텔에 대한 관점에 따라 반트러스트 법 또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다.

4. 결론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과 현재의 주류인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은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여러 가지 점과 이론의 응용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결과, 두 학파는 무엇보다도 정치 철학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행동 공리, 이론의 전제 등을 포함하여 경제이론들, 방법론, 인식론적 문제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두 학파의 정치 철학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단순히 ‘철학적 기초’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학을 제외한 법학, 정치 체제 등에 있어서도 작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상이 점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다.

좋은 경제학 또는 좋은 경제이론을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경제학 또는 경제이론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정책의 형성을 통해 인간과 국가의 경제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문명의 성쇠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제학자들이 경제학 또는 경제이론의 선택에 있어서 현명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장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과 현재의 주류 경제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비교한 것이다. 서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경제이론 또는 경제학을 선택하는 기준은 해당 경제학 또는 경제이론이 의존하고 있는 공리, 전제, 기초 등이 얼마나 실재적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실재적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대답은 이성과 합리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이론 또는 경제학을 선택함에 있어서 범물리주의 또는 실증주의가 사용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실증주의를 경제이론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위한 보조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이제 이 부분의 결론으로 힐즈만의 주장을 인용하고자 한다. “진실은 경제과학이, 조금이라도 발전하려면, 실재주의적 분석 **realist analysis**이라는 위대한 전통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 실재주의적 분석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들이 100년 이상 발전시키기를 조력했던 것이고 그들이 현재는 그 분석의 유일한 대표자들인 것이다. 오늘날의 천재 물리학자들이 아인슈타인 추종자들 **Einsteinians**이어야 했던 것처럼 미래의 경제학자들은 미세스 추종자들 **Misesians**이어야 할 것이다.” (Hülsmann, 1999, p. 18)

인간행동학과 경제학과 역사학

이 장에서는 연구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라는 이 글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간행동학과 경제학과 역사학이라는 세 학문의 핵심적인 내용, 연구 대상의 차이,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학과 역사학의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따로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언급하고자 한다.

1. 인간행동학과 경제학

인간행동을 다루는 과학은 인간행동학과 역사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⁵ 경제학은 인간행동학의 한 부문이면서 인간행동학 중에서 지금

까지 가장 잘 발달된 학문이다. 인간행동학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경제학은 ‘교환학 *Catallactics*’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경제계산 *economic calculation*’이 가능한 경제행위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미제스는 경제학이 경제학보다 좀 더 일반적인 과학인 인간행동학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행동학을 이해하는 것이 경제학에서의 미해결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⁵⁶ 그리고 인간행동학에 대한 이해는 경제학에 대한 잘못된 비판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경제학 고유의 문제들을 다루자면 선택 행위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경제학은 더 일반적인 과학인 인간행동학의 일부분, 지금까지는 가장 잘 다듬어진 일부분이 된 것이다.”(Mises, 1996, p. 3)

경제학이 인간행동학의 일부분이라는 점에서 인간행동학을 기초로 하지만, 경제학과 인간행동학 간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차이는 연구의 대상에 있다. 인간행동학은 가치판단 또는 가치평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연구와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미제스는 인간행동학에서 경제학을 제외하고 최근 비교적 발달한 부분은 전쟁과 관련한 연구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경제학은 인간의 행위 중에서 특히 경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경제행위란 경제계산 또는 ‘화폐 계산 *monetary calculation*’이 가능한 행위만을 대상으로 지칭한다. 그 점에서 경제학에서 연구 대상은 두 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두 가지란 가치판단 또는 가치평가와 경제계산이다.

예를 들어보자. 기업가, 소비자 등은 투자, 소비 등을 할 때 경제계산을 기초로 하고 자신의 가치판단 또는 가치평가를 기준으로 투자, 소비 등의 결정을 내린다. 비록 투자의 경우에는 그 경제계산이라는 것이

예상(prediction or expectation)을 토대로 한 것이지만 말이다. 이때 기업가는 최대의 가장 잘 예상하려고 하며 그 결과가 이윤 또는 손실(profit or loss)로 나타난다. 요컨대, 투자, 소비 등은 경제학의 대상인 것이다.

결혼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거래라고 생각하여 결혼조건, 특히 물질적 조건을 따지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면 배우자의 선택은 가치판단 또는 가치평가가 큰 역할을 한다. 물론 배우자의 선택을 넘어서서 결혼 행위 자체에는 경제행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혼 행위의 일부는 경제학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요컨대, 결혼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경제학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경제계산이 가능한 것만 경제학의 대상이고 그 부분을 제외한 것은 인간행동학의 대상이라고 하겠다.

역사학이 인간행동을 다루는 과학인 것은 역사가 과거에 일어났던 인간행동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역사학이 인간행동을 다루는 과학이기 때문에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의 도움이 필요하다.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과 역사학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과 역사학의 같은 점은 다루는 주제가 ‘행동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결국 인간은 동물이다. 그러나 그는 행동하는 동물이다; 그는 상충하는 목적들 중에서 선택한다. 정확히 이것이 인간행동학과 역사학의 주제이다.”(Mises, 2006, p. 41)

그러나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과 역사학은 같은 점보다 다른 점이 더 많다. 첫째,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과 역사학은 연구 대상에서 다르다.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은 시간과 장소와 관련이 없는 인간행동을 다룬다. 그러나 역사학은 특정 시점과 특정 장소에서의 인간행동을 다룬다. 물론 여기에서 특정 시점이란 모두 지나간 시간이다. 둘째, 인

간행동학 또는 경제학과 역사학은 방법론에 있어서 다르다.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은 ‘논리적^{logical}’일 뿐 아니라 ‘선험적인^{a priori}’ 것이다. 이 주제는 4장과 5장에서 다룬다. 역사학은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과거의 인간행동을 해석한다. 역사학은 인간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연과학들, 수학, 논리학, 인간행동학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와 함께, 특정한 이해가 역사학 고유의 방법론으로 이용된다. 이 주제는 3부에서 다룬다. 셋째,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과 역사학은 연구의 대상, 연구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를 기초로 한 응용, 정책적 함의 등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3부에서 다루고자 한다.

인간행동학에서 인간의 ‘행동’이 ‘궁극적 기정사실^{ultimate given}’ 또는 ‘궁극적 여건’이기 때문에 궁극적 기정사실로 연구되어야 한다. 인간행동학에서 연구의 대상은 인간의 행동 그 자체이고 행동을 넘어서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제스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의 행동은 변화를 야기하는 매개체들 중의 하나다. 인간의 행동은 우주적 활동과 전화^{becoming}의 한 요소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동은 과학적 연구의 정당한 대상이다. 인간의 행동은 – 적어도 현재의 조건들 아래에서는 – 행동을 일으킨 원인들까지 더듬어 올라가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렇게 연구되어야 한다.”(Mises, 1996, p. 18) 다시 말하면 “인간행동학의 주제는 인간행동 그 자체이다.”(Mises, 1996, p. 12)라고 미제스는 지적한다.

이 주제를 2장의 주제와 연결해본다. 인간행동학적 분석에서는 행동이 궁극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연구의 출발점이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주류 경제학은 응용심리학의 일

중이다. 응용심리적 분석에서 인간의 행동은 그 행동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어떠한 심리적 요인으로 결정된다. 이것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과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을 구분하게 하는 중요한 점이다.

여기에서 무엇이 행동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미제스에 의하면 행동이 반드시 무엇을 하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⁵⁷ 행동은 무엇을 하는 것에 못지않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 undo’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주택 소유자의 일부는 주택을 판다. 주택 소유자의 그러한 판매 행위는 분명 하나의 행동이다. 다른 한편,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앞으로 그 가격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하여 소유한 주택을 팔지 않고 그냥 보유하는 것도 분명히 행동의 일종이다. 요약하면, 주택의 판매와 주택의 소유, 두 가지가 모두 행동이라는 것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선거에서 투표자가 투표를 하는 것은 명백히 행동이다.⁵⁸ 그러나 투표를 하지 않는 것 또한 행동이다. 물론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말이다. 그리고 본능적 충동에 휘둘리는 어린이의 행동,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정신병자의 행동, 알코올을 섭취하고 횡설수설하는 행동 등은 인간행동을 다루는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과 같은 과학의 대상이 아니다. 이 점은 2장에서 이미 지적했다.

그러면 인간행동학에서 인간의 행동을 궁극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제스는 연구자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성과 경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분리된 영역이 있음을 보여준다. 두 영역이란 물리학적, 화학적, 생리학적 현상이라는 외적 세계와 생각, 느낌, 평가, 목적의식적 행동이라는 내적 세계를 말한다. 이 두 영역을 연결해주는 다리는 –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 없다. 동일한 외부 사건이 때로는 인간에게 서로 다르게 반응하고, 서로 다른 외부 사건이 때로는 인간에게 동일하게 반응하도록 한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른다.”(Mises, 1996, p. 18) 59, 60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마음속에 지닌 가치판단 또는 가치평가가 선택과 행동을 초래하지만 외부 세계가 인간의 가치판단 또는 생각과 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현재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궁극적으로 주어졌던 것이다. 즉 인간행동학에서는 인간의 행동 그 자체가 연구의 대상이다.

인간행동학이 행동 그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심리학과 구별할 수 있다. 심리학의 주제는 일정한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일정한 행동을 초래할 수 있는 내적 사건들이다. 즉 심리학의 주제는 행동으로 귀결되는 심리적 사건들이다. 예를 들어 정신분석학은 심리학의 일부이다. 정신분석학은 신경쇠약 환자나 정신병자도 일반인과 같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단지 정상인이 볼 때는 신경쇠약 환자나 정신병자가 목적을 선택할 때의 추론 과정이 황당무계할 뿐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하는 수단이 때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심리학과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은 구분 가능하고, 구분해야 한다.

미제스는 심리학과 경제학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경제학도 또한 여기[행동하는 인간이 선택하는 행위에서] 정지한다. 경제학은 더 추적하지 않는다. 경제학은 행동하는 사람의 의사결정들 배후에 있는 것 속으로, 즉 ‘다른 방식이 아닌 엄밀하게 그들이 한 방식으로 왜 행동하는가’로 질문해 들어가지 않는다. 경제학 쪽에서의

이러한 자기 한계 설정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다. 경제학은 인간들을 활성화하는 동기들이 가격들의 결정에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그 정당성을 발견한다. 시장에서의 무기에 대한 수요가 법과 질서의 편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하건 또는 무기에 대한 수요가 범죄자나 혁명가들에게서 발생하건, 경제학은 그 점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결정적인 것은 특정 양의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경제학은 그것이 오로지 행동만을 고려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사건들은 경제학을 위해 아무런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서 심리학과 구별된다.”(Mises, 2003, pp. 221-222)

심리학이 끝나는 지점에서 경제학이 시작한다는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심리학은 개인들에게 눈을 돌림으로써 제대로 된 출발점을 발견했다. 그러나 심리학의 길은 필연적으로 인간행동과학이 가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어진다. 심리학의 주제는 행동을 초래하는 정신의학적 사건들인 반면에, 인간행동과학의 주제는 행동이고, 행동에 뒤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경제학은 심리학이 멈추는 지점에서 시작한다.”(Mises, 2003, p. 3) 미제스의 이러한 지적은 심리적 전제를 기초로 전개하는 오늘날의 주류 경제학이 출발점에서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점은 이미 2장에서 일부 지적했다.

경제이론 또는 경제학과 이성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앞 절에서 보았듯이 경제이론은 행동 공리부터 연역적 추론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경제이론은 ‘이성주의적 **rationalistic**’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과학처럼 경제학도 과학으로서 이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이론과 모든 과학처럼, 경제이론은 이성 – 추론 **ratio** – 이라는 방법론들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이성주의적

이다. 정말이지 이성 없이 과학이 있을 수 있는가?”(Mises, 2003, p. 98)
요컨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은 이성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미제스는 앞에서 세상에는 두 개의 분리된 영역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적 연구에서 두 개의 분리된 영역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법론적 이원주의 **methodological dualism**’라고 한다. 방법론적 이원주의란 물리학, 생물학 등과 같은 자연과학에 적용하는 방법론과 경제학, 사회학 등과 같은 인간행동과 관련한 학문에 적용하는 방법론이 다르며, 또한 달라야 한다는 관점을 말한다. 그 결과 일원주의와 일원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방법론인 실증주의, 범물리주의 등은 인간의 행동을 다루는 학문인 경제학 등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일원주의란 자연과학과 인간행동과학에 적용하는 방법론은 하나이고 그 방법론은 자연과학에 적용하는 방법론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말한다. 적어도 일원주의와 유사 일원주의를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원주의와 유사 일원주의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아래에서 하고자 한다.

인간을 행동하게 만드는 필요조건 또는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인간을 행동하게 만드는 조건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인간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불만족한 상태를 좀 더 만족스러운 상태로 바꾸고 싶어 한다. 이때 더 만족스러운 상태가 무엇인가는 행동하는 인간 자신이 결정한다. 물론 현재 불만족이 없다면 인간은 더 이상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 미제스는 그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인간행동학 일반, 그리고 인간행동학의 전문 분야인 경제학은 인간행동의 원천과 관련해 행동하는 사람이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불편을 해소하길 원한

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정하지 않는다.”(Mises, 1996, p. 240) 불편의 해소라는 행동의 조건은 기업가에게도 물론 해당한다. 이 점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둘째, 행동하기 위해서 인간은 만족스러운 상태에 대한 인지 또는 상상이 있어야 한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만족스러운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경우를 볼 수 없다. 정상적인 인간도 만족스러운 상태에 대한 인지 또는 상상이 없다면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인간은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을 없애거나 최소한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간은 행동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선거에서 많은 선거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선거에 참여하는 비용이 혜택보다 크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투표가 현재의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위에서} 말한 세 가지 조건을 말함^이 인간행동의 일반적인 조건들이다. 인간은 이러한 조건들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homo sapiens* 일 뿐 아니라 그 정도로 호모 아젠스 *homo agens* [행동하는 인간이라는 의미임]이기도 하다.”(Mises, 1996, p. 14) 라고 미제스는 요약한다.

넷째, 행동은 사물의 인과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행동하는 것은 인과성이라는 범주를 요구하고 전제로 한다. 인과성에 비추어 세상을 보는 인간만이 행동하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과 관계는 행동의 한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중략) 인과성과 현상의 규칙성이 없는 세상에서는 인간의 추론이나 인간의 행동이 존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Mises, 1996, p. 22) 미제스는 다른 곳

에서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조건에 인과성과 인간행동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물의 인과성을 전제하는 것을 행동의 네 번째 조건으로 추가하는 것이 옳다.

인간의 행동은 의식적인 것 또는 의도적인 것이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의도하는가? 인간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 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한다. 그 점에서 인간의 행위는 ‘합목적적’이다. 인간이 무슨 목적 또는 목표를 선택하는가는 순전히 행동하는 인간 자신의 몫이다. 그리고 인간행동의 이러한 합목적성이 영어 ‘rationality’가 가진 의미이다.⁶¹ 그러므로 미제스는 “인간의 행동은 필연적으로 항상 합목적적 rational이다.”(Mises, 1996, p. 19)라고 지적한다. 인간이 어떤 목적을 선택하는가는 그 자신의 가치판단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일정한 척도에 따라 그의 욕망들과 욕구들을 배열하고 그리고 그 기준에 의거하여 선택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했듯이 가치판단 또는 가치평가가 행동을 결정한다.

앞에서 영어 rationality라는 용어의 의미를 합목적성이라고 설명했다. 영어 rationality는 정확하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합목적성과 ‘합리성’이다. 오스트리아학파와 달리 주류 경제학은 rationality라는 용어를 합리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게 되면 많은 인간행동을 설명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사실 인간의 일부 행동은 제3자가 보기에는 비합리적이다. 그러나 인간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에 비추어보면 모든 인간의 행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영어 rationality의 의미를 합리성이라기보다 합목적성이라고 보는 것이 적어도 경제학에서는 결점이 적은 해석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추론 reasoning과 합목적성은 언제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수단의 적합성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들이 목표로 하는 모든 궁극적 목적은 이성에 의한 비판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가치의 판단은 이성 또는 이성에 의한 추론에 의해 정당화될 수도 없고 반박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영생을 믿는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는 무신론자가 어리석고 무신론자의 관점에서는 기독교인이 비합리적이다. 여기에서 미제스는 궁극적 목적의 선택은 ‘비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린다. “이 점[추론과 합목적성이 언제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합성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궁극적 목적의 선택은 언제나 비합리적이다.”(Mises, 2007, p. 267)

인간의 행동과 이성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인간은 자신의 목적 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을 사용하고 배치할 때도 인간은 이성을 사용한다. 이 점이 동물과 다른 것이다. 미제스는 이성과 행동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행동학의 주제가 되는 실재 대상, 즉 인간행동은 인간의 추리력과 동일한 원천으로부터 나온다. 행동과 이성은 ‘동종(conspecific)’이고 ‘동질적(homogeneous)’이다. 행동과 이성은 심지어 동일한 사물의 다른 두 측면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성이 순수한 추론을 통해 행동의 본질적 특징을 규명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행동이 이성의 파생물이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하나의 결과이다.”(Mises, 1996, p. 39)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완전하지 않다. 인간의 이성이 무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거나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인간의 행동은 합리적인 숙고의 결과일 뿐 아니라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합목적적이다.⁶² 다만 얼마나 이성

을 잘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각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인간은 이성을 사용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모든 교육이 이성을 잘 사용하도록 도와주지 않을 뿐 아니라 이성을 잘 사용하도록 훈련시키지도 않는다.

합목적성과 이성의 사용 간의 관계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100여 년 전 한국 사람은 무당의 ‘굿’으로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지금의 의사가 보기에 황당한 행동이지만 그런 행동은 당시로서는 이성적 판단의 결과이다. 왜냐하면 현대 의학보다 무당의 굿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합목적적이지 않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현대 의학이 무당의 굿보다는 효과적이지만, 그보다 더 합목적적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미래에 의학이 지금의 의학보다 더 발달하는 경우에도 이 점은 그대로 현대 의학에 적용할 수 있다.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서도 질병 치료 방법으로서 무당의 굿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굿에 대한 요구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합목적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인간이 행동하는 이유 또는 궁극적인 목표 또는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목표 또는 목적인데, 이때 욕구란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앞에서 지적했듯이 “불만족 상태를 좀 더 만족스러운 상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무엇이 더 만족스러운 상태 인가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 자신이 결정한다. 즉 가치판단 또는 가치평가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 가치판단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제스는 가치판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물에 비해 한 사물을 선호하게 만드는 정신적 과정의 결과를 가치판

단이라고 부른다.”(Mises, 2007, p. 207) 가치판단은 그 본질상 추론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도 없고 논박될 수도 없다.

그러면 가치의 원천은 무엇인가? 미제스는 사물의 가치는 그 사물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을 하는 주체 안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⁶³ 예를 들어보자. 독재자는 미사일을 쌀보다 더 중요시한다. 자유사회의 민간들은 미사일보다는 쌀을 더 중요시한다. 비록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이 예가 보여주는 바는 가치가 사물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치판단 또는 가치평가의 특징을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가치판단은 순전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제스는 타인이면 누구도 행동하는 인간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⁶⁴ 가치판단은 주관적인 것으로서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가치판단이 주관적이라는 점은 가치판단이 ‘가감승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은 명목적으로는 가치판단이 주관적임을 받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치판단을 객관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다. 주류 경제학은 가치판단이 주관적임을 철저히 추구하지 않고 있다.

셋째, 가치판단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가치판단은 가치판단을 하는 개인의 느낌 또는 기호, 선호를 나타낸다. 라스바드는 이 점을 현시 선호 원리로 규정했다. 그 점에서 가치판단은 진리 또는 오류의 문제와 관련이 없다.

넷째, 가치판단은 변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을 초래하는 가치판단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즉 한 인간의 가치판단은

불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가치평가가 변하면 행동도 변하며, 또 변화해야 한다. 변화된 상황에서 예전의 계획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미제스는 지적한다.⁶⁵

다섯째, 과학 – 인간행동학과 경제학도 과학이다 – 이 존재하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라면 과학은 가치판단과 관련하여 가치판단한 사람이 말한 것 이상을 주장할 수도 없고 가치판단에 의한 행동의 결과물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도 물을 수 없다고 미제스는 지적한다.⁶⁶ 다시 말하면, 과학은 가치판단과 가치판단의 결과에 대해 ‘실증적 서술 positive statement’을 해야지 ‘규범적 서술 normative statement’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행위자의 가치판단 대신에 연구자 자신의 가치판단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인간의 가치판단을 다룰 때, 궁극적으로 그것을 여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⁶⁷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동일한 외적 자극에 대해 다른 사람이 다르게 반응한다. 동일한 외적 자극에 대하여 동일한 사람이라도 다른 시점에서는 다르게 반응한다. 현재로서는 왜 그런지 모른다는 것이 정확한 실상이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우리는 외부 사건과 그것[외부 사건을 말함]이 인간의 마음속에 낳는 아이디어들 사이의 필연적인 연계를 찾아낼 수 없다.”(Mises, 2007, p. 69)

모든 것은 변한다. 다만 “오로지 한 가지 의미, 즉 덜 가치 있는 것보다는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선호한다는 한 가지 의미에서만, 행동은 불변적일 수 있다.”(Mises, 1996, p. 103)라고 미제스는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동에서 불변적인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고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이 점도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에서는 중요하다.

지금까지 인간의 행동과 관련한 인식의 원리 또는 인지의 원리를 요약해보았다. 인간의 정신이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원리는 두 가지다. 바로 ‘목적론’과 ‘인과성’이다. 목적론이란 인간이 행동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인과성이란 인간의 행동을 포함한 모든 사물이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두 원리 중의 어느 하나에 의해 해석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은 인간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이거나 신비로운 것일 뿐이다. 미제스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우리는 인과성과 목적론이 없는 세계를 생각할 수 없다.”(Mises, 1996, p. 35) 이때 인간의 행동과 사물을 파악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고 목적론과 인과성으로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마음의 논리적 구조 mind's logical structure’ 때문이다.⁶⁸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죽은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인간의 삶과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인식의 원리 또는 인지의 원리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목적론과 인과성이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와 자연을 이해하기 위한 제3의 길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변화는 기계적 인과성이 작동한 결과이거나 목적의식적 행위의 결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마음에는 이용 가능한 제3의 길이란 없다.”(Mises, 1996, p. 25)

인간은 인간의 행동을 목적론과 인과성에 의존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이성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지닌 이성이 완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의 능력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인간이 지닌 이성의 한계 때문에 인식의 두 원리 또는 인지의 두 원리를 이용한 사건

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는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도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간행동은 그 자체가 연구 대상이라는 점을 앞에서 지적했다. 그러므로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은 인간의 목적 그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은 주어진 목적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을 다룬다. 다시 말하면,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은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채택하는 수단이 적절한가를 다룬다. 미제스는 이 점을 “인간행동학은 수단을 다루는 과학이지 목적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이 아니다.”(Mises, 1996, p. 15)라고 요약한다.

목적은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은 ‘가치중립적’이다.⁶⁹ 또는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은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value-free’ 학문이다. 역사학도 과학인 한에서는 가치중립적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인간행동학과 경제학과 역사학은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역사학의 가치중립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8장 3절 역사학과 가치중립성’에서 하고자 한다. 미제스는 인간행동학의 가치중립성과 인간행동학이 존재하는 것을 묘사하는 일 또는 설명하는 일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인간행동학의 모든 가치판단과 궁극적인 목표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다. 인간행동학의 역할은 승인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존재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Mises, 1996, p. 29)

경제학이 가치중립적인 학문인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경제학은 선택된 목적들을 달성하는 데 적용할 수단을 다루는 과학이지, 확실히 목적들을 선택하는 것을 다루는 과학은 아니다. 궁극적 결정들, 가치평가들, 목적들을 선택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과학의 범

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과학은 인간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말 해주지 않는다. 과학은 단지 인간이 특정한 목적들을 달성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보여줄 뿐이다.”(Mises, 1996, p. 10)

경제학이 가치중립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규범적 판단 또는 규범적 서술이 경제학의 범위 밖이라는 것이다. 그 점에서 오늘날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산업복지학과 등에서 가르치는 소위 복지경제학은 비록 경제학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경제학이 아니다. 가치판단을 다루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어떤 학문도 과학이라는 의미의 경제학이 아니다. 비록 경제학이라는 용어가 명칭에 붙어 있는 경우에도 말이다.

미제스는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의 가치중립성과 관련하여 경제학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다.⁷⁰ 경제학자가 어떤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할 때 어디에서 인과 관계로 된 과학적 설명이 끝나고, 어디에서 가치들의 충돌이 해결될 필요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제스는 경제학자에게 과학적 설명과 정치적 가치판단 사이의 경계선을 망각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경제학자가 경제정책을 제안할 때는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가치중립성 개념은 중요할 뿐 아니라 쉬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의 중립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기로 한다.⁷¹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경제학 자체 *per se*는 가치가 들어가지 않는 과학 또는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과학이다. 비록 경제학이 다루는 인간의 행위는 인간이 가진 가치가 구현된 것이지만 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재화의 가격이 내리면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는 수요의 법칙에 연구자나 경제학자의 어떤 가치가 들어

있지는 않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예로, 만약 정부가 어떤 재화의 가격을 시장 가격 *market price*보다 낮게 통제하면, 그 재화에 대한 부족이 발생한다. 재화의 가격에 대한 정부 통제의 분석이나 설명에는 정부의 공공 정책에 대한 ‘좋다 *good*’ 또는 ‘나쁘다 *bad*’는 판단은 개입되어 있지 않다. 다만 경제학은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 또는 공공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보여줄 뿐이다. 그러므로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은 가치 또는 윤리 *ethics*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로서의 경제학자의 가치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치 또는 윤리는 각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경제학과 가치 또는 윤리의 관계에 대한 규범적 주장은 경제학이 과학으로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가치판단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어야 하고, 가치판단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가 그러한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어떤 공공 정책을 제안하거나 주장 *advocate*하게 되면 이제 그 공공 정책에는 가치판단 또는 ‘윤리적 판단 *ethical judgement*’이 들어가게 된다.⁷² 왜냐하면 그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경제학자로서 경제학에 의거하여 어떤 공공 정책을 주장한다면, 그의 주장은 윤리 또는 규율 *discipline*, 고전철학 *classical philosophy*에서 말하는 도덕과학 *moral science* 또는 과학으로서의 윤리학 *science of ethics*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다.⁷³ 그러나 과학으로서 경제학은 어떤 종류의 윤리 또는 가치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로서 경제학자에게 어떤 윤리적 선언 *pronouncement* 또는 가치판단이 허용될 수는 없다.

복지 제도를 예로 들어 가치중립성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자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은 인간의 목적에 대

해서는 주어진 given 것으로 간주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거나 배치할 것인가를 다루는 학문이다. “가난한 사람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것이 좋은 것인가?” 또는 “가난한 사람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한 검토나 분석은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은 빈자를 돕는 일이 가치 있는 일임을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또는 반대의 가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전제 아래 경제학은 가난한 사람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선’과 ‘강제에 의한 자선(즉, 세금으로 가난한 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행위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자선이 아님)’의 효율성을 비교하여 검토한다. 경제학이 이때 두 제도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일은 가치와 무관한 일 또는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일 또는 가치 중립적인 일이라고 하겠다.⁷⁴

인간행동의 목적 또는 목표는 심리학과 심정학, 또는 다른 학문의 대상이다. 심정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0장에서 하고자 한다. 역사학은 과거에 인간이 한 행동의 기록이고 그 행동에는 인간의 가치판단 또는 가치평가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한 가치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 역사학은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과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다. 경제학과 역사학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제학과 역사학’ 부문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은 시간과 장소와 관련이 없다. 이 말은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에서 유도된 원리 또는 이론은 모든 시간 또는 모든 장소에서 일어난 일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원리 또는 이론은 인종 또는 국가와도 관련이 없다. 그 점에서 어떤 한 나라에 특별히 적용되는 경제원리 또는 경제이론이 있다는 주장은 틀린 것

이다. 특히 국가에 따라 성장을 위한 정책이나 전략이 달라야 한다는 주장은 그런 주장이 경제원리 또는 경제이론 일반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틀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존 자원 등, 사회·경제 환경의 차이가 성장을 위한 정책이나 전략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런 환경에 적용하는 경제원리 또는 경제이론이 다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종 일부 경제학자는 현재의 경제학이 서양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틀린 것이다. 물론 경제학이 발달한 정도가 학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경제학과 ‘나쁜’ 경제학으로 구분하여 좋은 경제학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경제원리 또는 경제이론 자체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명백히 틀린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은 시간, 장소, 인종, 국가, 성별 등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은 인간행동의 동기, 목표, 원인 등과도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의 가르침은 인간의 동기 또는 목적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행동에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비자들로서 개인들은,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사회적 힘들과 자연적 힘들의 작용 때문에, 주어진 순간에 재화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히 그만큼 가치평가한다. 이 결정 요소들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은 다른 과학들의 과제이지 경제학의 과제가 아니다. 경제학, 즉 교환학이라는 과학은 스스로 결정적 요소들에 관심을 두지도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스스로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둘 수도 없다. 심리학, 생리학, 문화사, 많은 다른 학문 등이 인간들이 왜 술을 마시길 좋아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을 자신의 일로 삼을 수

있다. 교환학에서, 오로지 중요한 것은 주류에 대한 수요가 특정 양과 특정 강도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한 사람은 지식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칸트의 저작들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빠지고 싶은 이유에서 칸트의 저작들을 살 수 있다. 시장에서 구매자들의 행동들의 동기는 대수로운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특정 금액을 지불할 태세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Mises, 2003, p. 178) 그리고 소비의 동기들과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일정 금액을 지불할 태세가 되어 있다는 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진실이다. 그러므로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의 가르침은 인간의 동기 또는 목적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행동에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명명백백한 진리이다.

그러나 역사학은 특정한 인간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행동한 것을 다룬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학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적용 가능한, 소위 일반 이론을 유도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에 비한다면 역사학의 유용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2. 경제학과 역사학

이제 인간행동학의 잘 발달된 한 부문인 경제학과 역사학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역사학에서 인간행동 이론, 특히 경제학은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역사학은 인간행동 이론이 제공하는 지적 도구들이 없다면 진

정하게 역사학으로 될 수 없다. 역사학은, 자신의 진정한 과제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반대로 역사학이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 과제들을 어느 때보다도 잘 이행하기 위해서, 이론[인간행동 이론을 말함]에 의존하여야 한다.”(Mises, 2003, p. 136) 역사학의 관점에서, 역사학에서 경제학을 포함한 다른 학문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8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인간행동의 목적 또는 동기와 가치판단이 경제학과 역사학이 만나는 접점임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그러나 경제학과 역사학은 인간행동의 목적과 가치판단을 다루는 방법 또는 태도에서 다르다. 인간행동학의 일부분인 경제학은 목적들의 선택과 가치판단을 주어진 것 또는 여건으로 간주한다. 경제이론은 그런 여건으로부터 재화 또는 수단의 가격설정pricing이나 가치설정을 지배하는 법칙을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즉 경제학은 특정한 목적들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개인의 동기들을 연구하지 않는다. 이 점을 미제스는 “인간행동학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의 가장 발달된 부분 – 경제학 – 의 주제는 행동 그 자체이지, 인간으로 하여금 특정 목적을 향하게끔 충동질하는 동기들이 아니다.”(Mises, 2007, p. 272)라고 설명한다. 휠즈만은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이 예를 들어 선택, 목적 지향, 가치, 실패와 성공 등과 같은, ‘인간행동의 불변적인 특성constant features of human action’을 다루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행동의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고 부연 설명한다.⁷⁵

경제학이 인간의 불변적인 특성을 다루기 때문에 경제이론들의 진리여부는 특정하고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historical experience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관련이 없다. 즉 실증주의처럼 역사적 자료로 경제이론들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셉 살레르노Joseph T. Salerno는

“경제이론들은 보편적 경험에서 나온 논리적으로 유효한 연역법 **deduction**의 결론들인데, 그 보편적 경험이란 인간들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믿는 수단을 채용한다는 사실을 말하기”(Salerno, 2005, p. 13)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이론들의 이런 성격을 선험성과 연역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학의 선험성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5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연역법이란 행동이라는 공리 **axiom**로부터 추론하여 어떤 원리, 법칙 등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말한다. 경제이론은 또한 선험적이다. 그러므로 경제이론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선험적 추론’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하학의 모든 정리들이 이미 공리들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화폐의 개념 속에는 화폐 이론의 모든 정리들이 이미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화폐수량설은 실제로 화폐의 개념 속에 들어 있지 않은 그 어떤 지식도 보태주지 않는다.

선험적 추론의 역할에 대해서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선험적 추론의 주요 과제는 한편으로는 범주, 개념, 전제들 속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것을 부각시켜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속에 함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이전에는 감추어져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드러내고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선험적 추론의 역할이다.”(Mises, 1996, p. 38)

미제스는 역사학에 있어서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의 역할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인간들의 가치판단과 목적의 선택에 대해서는 주어진 것, 즉 여건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행동에 대한 선험과학 **aprioristic science**인 인간행동학 그리고 더 특수하게 현재까지는 인간행동학의 가장 발전된 부분인 경제학 자신의 영역 안에서 기록된 과거 사건들의 더할

나위 없는 해석을 제공한다. 그리고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은 자신의 영역 안에서 특정 종류의 미래 행동으로부터 기대되는 결과들의 더할 나위 없는 예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해석과 이 예상, 모두는 행동하는 개인들의 가치판단들의 실제 내용과 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양자 모두(인간행동학과 경제학)는 개인들이 가치평가하고 행동한다는 점을 전제한다. 그러나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의 정리들은 이 가치평가와 행동이라는 특별한 특징들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특징들은 인간행동과학들에게는 궁극적 여건들이고, 그런 특징들이 소위 역사적 개별성이다.”(Mises, 2007, p. 309)

다른 한편, 역사학의 대상이 행동이고 특정한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지휘하는 가치판단임을 앞에서 지적했다. 그 점이 의미하는 바는 역사학에서 행동과 가치판단이 궁극적으로 주어진 것 *givens* 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제스는 “역사학의 주제는 행동이고, 특정 목적들을 향한 행동을 지휘하는 가치판단들이다.”(Mises, 2007, p. 298)라고 설명한다. 이 점이 역사학과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과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에서 행동은 궁극적으로 주어진 것 또는 궁극적인 여건이지만 역사학에서는 행동과 그 행동을 초래한 가치판단이 궁극적으로 주어진 것 또는 궁극적 여건이라는 것이다.

미제스는 역사가가 개인들의 행동과 가치판단이 개인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한다.⁷⁶ 역사학에서 개인들의 행동과 가치판단은 특정한 성찰 방식이 출발하는 지점이다. 이때 특정한 성찰 방식이란 인간행동을 다루는 역사학의 원리로서 ‘특정한 이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정한 이해란 역사학의 방법론으로서 역사가가 다른 학문들, 예를 들어 논리학, 수학, 자연과학들,

경제학을 포함한 인간행동학 등의 도움을 받아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점의 역사적 사건에 있어서 개인들의 행동과 가치판단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이해라는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9장에서 하고자 한다. 휠즈만은 역사학이 ‘인간행동의 우연적인 특징(contingent features of human action)’을 다루고 검토 중인 사례에서의 행동의 원인들과 결과들을 설명하고자 한다고 부연 설명한다.⁷⁷ 요약하면, 역사학은 인간들의 행동들과 가치판단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를 다룬다는 점에서 인간행동학을 포함한 경제학과 명백히 구분된다.

가상적인 예를 이용하여 경제학과 역사학의 차이를 설명해보자. 과거 일정한 시점에 한국은행 총재가 지폐를 발행하여 통화량을 증가시켰다고 가정하자. 역사학과 경제학이 이 사건의 분석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역사가는 한국은행 총재가 ‘왜’ 통화량을 증가시킨 것인가를 설명할 것이다. 역사가는 통화량을 증가시킨 여러 가지 이유를 검토한 후에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통화량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하자. 경제학자는 이 경우에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량을 증가시킨 것은 재화들의 가격 상승 또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역사학자의 주장은 일반적인 법칙에서 유도된 것이 아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경기 부양을 제외하고도,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고, 곤경에 처한 대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고, 선거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으며, 그 밖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 또는 앞에서 열거한 이유들의 혼합일 수도 있다. 역사학자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주장이나

설명은 특정 장소와 특정 시점의 역사적 사실들의 검토에서 유도된 것이지, 어떤 일반적 법칙—예를 들어, 통화량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모든 결정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것—에서 유도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경제학자의 주장은 경제학에서 유도된 일반적 법칙, 즉 경제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이때 일반적 법칙이란, 지폐의 증가란 언제 어디에서나 재화들의 가격 상승 또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는 것을 말한다.⁷⁸ 물론 이때 재화들의 가격 상승 또는 인플레이션은 지폐의 증가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경제학자의 주장이나 설명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의 특정한 조건들과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역사학자의 주장이나 설명과 다른 것이다.

지금까지 서술한 경제학과 역사학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요약해본다. 첫째, 역사학자는 역사적 사실에서 개인들의 동기와 가치판단을 다루지만, 경제학자는 그런 동기와 가치판단은 주어진 것으로 여기고 수단의 선택과 그 결과 등을 다룬다. 역사학과 경제학, 모두 개인들의 목적을 다룬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경제학은 그 목적을 주어진 것으로 여기고, 역사학은 목적 그 자체를 분석한다.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다시 하고자 한다.

둘째, 역사학은 어떤 특정 시점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지만 경제학은 시간과는 관련이 없는 행위, 즉 불변적인 인간의 행위—예를 들어 성공과 실패, 선택, 비용, 가치, 목적 지향성 등—를 다룬다. 경제학에 비하면 역사학은 개별 사례 *case by case*의 경우를 기초로 식별되는 인간의 우연적 행위를 다룬다. 특정 시점과 특정 장소의 역사적 사건은 특정 시점과 특정 장소의 역사적 상황에 지배되고 그때 인간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 역사학은 그런 행위를 다룬다. 그러나 예를 들어,

지폐라는 통화의 양과 재화의 가격들의 관계는 경제학의 주제로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셋째, 경제학은 역사학과 역사학의 전문화된 일부인 경제사학^{economic history}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 시점의 경제현상이라도 그것이 경제현상인 한에 있어서는 경제원리를 통해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들의 결과들이고 바로 그 이유로 경제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이 점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하고자 한다. 이 점이 대학 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오늘날 대학 역사학과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곳은 흔하지 않다. 그것은 경제현상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최근 역사를 이해하는 일을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경제학을 가르치지 않는 대학과 대학원 역사학과는 교과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넷째, 미제스에 의하면 경제학과 역사학은 인간행동에 대한 지식의 예측에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⁷⁹ 예를 들어보자. 경제이론에 의하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그 재화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재화의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 하는 수량적 문제는 역사학에서 ‘이해’라는 방법에 의해 규명할 수밖에 없다. 가격 변동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과 가격 변동의 정도를 예측하는 일은 전적으로 다른 일이고 다른 학문이 담당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실증주의를 신봉하는 경제학자들은 그 점을 잘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학과 역사학은 인식론과 방법론에서 다르다. 경제학에서 인간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주어진 것 또는 궁극적인 여건이다. 그 여건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학이다. 그러나 역사학에

서는 인간의 행동과 함께 그런 행동을 했을 때의 가치판단이 연구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역사원리로서 특정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제학이 인간 행위의 불변적 특성을 다룬다면 역사학은 인간 행위의 우연적 특성을 다룬다. 그러므로 경제학은 경제이론들을 유도하지만 역사학은 그런 이론을 유도할 수 없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하지 않은 점은 3부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Part. 2

2부

경제학의
방법론과
인식론

경제학의 방법론과 인식론을 위한 기초

1. 사실과 법칙과 과학

과학—여기에서 과학이란 자연과학, 인간행동학, 경제학 등의 구분 없이 모든 과학을 지칭한다—에 있어서 ‘법칙^{law}’이란 무엇인가? 모든 과학에서 법칙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먼저 과학적 탐구에서 법칙이라는 개념을 정의해본다. 과학적 탐구란 어떤 경험적 사실을 설명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 경험적 사실이란 인간의 감각 또는 이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² 여기에서 경험적 사실을 설명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 다른 하나의 사실과 특별한 방법으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휠즈만은 과학에서 법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두 사실을 연결하고, 그 결과 우리에게 하나를 통해 다른 하나를 설명하는 위치에 있게 하는 특별한 관계를 일반적으로 ‘법칙’

으로 부른다.”(Hülsmann, 2003, p. 59)

이제 과학에서 법칙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정의해본다. 첫째, 과학에서 ‘특별한’ 관계란 문제가 되고 있는 개별적인 관계를 ‘뛰어넘는^{transcend}’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물리학에서 중력의 법칙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적용된다. 중력이 구체적인 어떤 물체, 예를 들어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특정 시점과 특정 장소에 존재하는 사과와 같은 경우에만 해당된다면 중력의 작용은 법칙이 될 수 없다. 중력의 법칙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과, 더 나아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법칙이 될 수 있다.

둘째, 예를 들어 물리학에서 중력의 법칙이란 확인 가능한 두 개의 물체가 있고 그 두 물체가 ‘본질적 관계^{essential relationship}’를 가지게 될 때 중력이 작용한다고 한다. 중력의 법칙을 통해 두 물체가 특별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사과와 같은 것만 아니라 지구상에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적용된다.

셋째, 경험적 사실이라는 것이 모두 인간의 감각에 의해 ‘인식 가능^{perceptible}’하거나 ‘확인 가능^{ascertainable}’한 것은 아니다. 앞에서 규정했듯이 경험적 사실이라는 것이 인간의 감각뿐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도 의존하여도 확인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인간의 경험이 아닌 이성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 적지 않다. 요약하면, 경험적 사실이란 인간의 감각 또는 이성에 의해 ‘식별 가능^{distinguishable}’한 사실을 말한다.

넷째, 특별한 관계 또는 본질적 관계는 ‘우연적’ 관계가 아닌 관계를 말한다. 현실 세계에서는 특별한 관계 또는 본질적 관계가 아닌 우연적인 관계가 상당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건축할 때 모든 아파트의 평수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니다. 아파트의 평

수와 건축물의 관계는 우연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어떤 공기업을 민영화했을 때 그 공기업이 판매하던 재화가 일시적으로 생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해당 공기업의 민영화와 민영화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 중단은 우연적인 관계이다. 바로 그 이유로 모든 공기업의 민영화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왜냐하면 민영화 과정에서의 일시적 생산 중단은 우연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인간의 행동과 관련한 경험적 사실이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경험 또는 이성으로 두 사실이 확인 가능하고, 두 사실이 우연적 관계가 아닌 특별한 관계 또는 본질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관계는 개별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모든 인간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면 인간의 감각 또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경험적 사실들을 구분해본다.³ 여기에서 먼저 지적해두어야 할 것은 아래에서 제시한 사실들이 모든 사실을 분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아래의 분류는 우리의 분석과 관련이 있는 것만 포함했다. 첫째, 인간의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색깔, 냄새, 집, 쌀, 멜로디 등이다. 이 사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면 우리의 감각으로 사실을 지각할 수 없다.

둘째, 인간의 감정이나 심리적 성찰에 의거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 이 사실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인간의 감각 기관에 의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인식(interior perception)’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서 기쁨, 슬픔, 흥분, 사고과정, 의도, 꿈 등이 있다.

셋째, 인간의 이성의 작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이때 이성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성을 말한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선택, 목적, 수단, 성공, 실패, 가치 등과 원, 사각형, 점 등과 같은 것이 있다.

넷째, 인간의 이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지칭하지만 이때 이성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성을 말한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묘사되는 기하학적 관계, 파이(π)에 의해 표현되는 기하학적 관계, 인간행동의 각종 관계 등이 예이다.

2. 행동과 선택

인간은 행동한다. 인간이 행동하는 이유는 자신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⁴ 이 점이 인간이 지구상에 생존하는 동물을 포함한 다른 생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물은 자극에 반응할 뿐이고 그 반응은 인간처럼 자신이 선택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⁵ 그리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성을 사용한다는 점도 인간이 동물을 포함한 다른 생물과 다른 점이다.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인간은 무지한 상태에서도 행동한다.⁶ 물론 무지한 상태에서의 행동은 사후적으로 결과가 좋을 때가 많지 않다. 수동

적으로 움직일 때도 인간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행동이다. 신경증 환자, 정신병자 등의 행동도 그가 목적이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면 행동이다.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 정신병자의 행동은 외관상 명백하게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우리는 그런 경우에 흔히 ‘미친 짓’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 자신의 목표를 잘 성취하지 못하지만 행동임은 분명하다. 요컨대 행동의 목적에 대해서는 합리성 개념과 비합리성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합리적’ 또는 ‘비합리적’이라는 표현은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지향하는 목적은 각 개인에 따라 모두 다르다. 그러나 각 개인이 지향하는 목적을 일반적인 말로 바꾸면 “행동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오직 하나의 궁극적 목적은 끊임없이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다.”(Mises, 2007, pp. 12-13)라고 미제스는 설명한다. 철학자들의 말로 환원하면, 인간은 그를 덜 행복하게 해주는 것보다는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선호하고, 행복이 유일한 궁극적 목적이다. 여기에 행복을 추구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것은 수단일 뿐이다. 미제스는 이 점을 더 일반화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덜 만족스러운 상태들을 더 만족스러운 상태들로 대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 동기가 그의 정신적 에너지를 자극하고 행동하도록 부추긴다. 완벽한 틀 속에서의 삶은 인간을 순전히 식물적 존재로 떨어뜨릴 것이다.”(Mises, 2007, p. 363)

행동의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행동을 바라볼 수도 있다.⁷ 인간은 그가 처한 환경에 반응하여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환경이란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에 인간은 주

어진 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에 그는 그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장기에 인간은 그 환경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바꿀 수 있다. 두 경우, 모두가 환경에 대한 반응이다. 다만 전자는 좀 더 수동적이고 후자는 좀 더 능동적이다. 물론 그 구분은 명백하지 않다. 어느 경우 에나 인간은 환경에 반응하여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 또는 불만족을 해소하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불편함 또는 모든 불만족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작은 불편함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지만 모든 불편함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지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걸리며,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데 그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목적을 추구한다. 그런 목적과 불만족함 또는 불편함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미제스는 인간이 지향하는 목적을 불편함 또는 불만족과 관련하여 “엄격하 의미에서 목적은 항상 불만족을 제거하는 것이다.”(Mises, 2003, p. 33)라고 설명한다.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여기에서 목적을 좀 더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배고픔이라는 불만족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음식의 조달과 식사를 위한 준비를 목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 또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인간이 어떤 목적 또는 목표를 추구하는가는 각자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선택하거나 결정한다. 다른 상당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선택해준 목적 또는 목표를 자신의 목적 또는 목표로 선택한다. 이 경우에도 목적 또는 목표를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선택했다는 점에서 그 목적은 결국 자신이 선택

한 것이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바꾸기도 한다. 하나의 목적을 포기하고 다른 목적을 추구할 것을 결정하기도 한다. 행동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 미제스는 “목적들은 개인의 소원들과 욕구들에 의해서 결정된다.”(Mises, 2003, p. 34)라고 요약한다.

인간은 자신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수단을 선택한다. 적어도 ‘사전적^{ex ante}’으로는 그렇다. 그 점에서 사전적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최적^{optimal}’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사전적으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최적인 수단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후적^{ex post}’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선택한 수단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현실에서 비일비재하다. 선택한 수단으로는 자신의 목적이나 목표를 성취할 수 없거나 비록 목적을 성취하더라도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그렇게 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가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투자를 한다. 기업가는 사전적으로는 이윤을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한다. 즉 주어진 여건하에서 그의 투자는 사전적으로는 최적인 것이다. 기업가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기업가의 투자 행위도 소비자의 소비 행위처럼 ‘주관적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후적으로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윤 또는 손실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가의 예상 능력이고 그 능력이 이윤 또는 손실의 크기도 동시에 결정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수단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행동하는 개인의 관점에서

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미제스는 강조한다.⁸ 바로 이 점에서 단체, 사회 등과 같이 집단의 관점에서 최적성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경제학은 목적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수단의 선택을 다룬다고 하였다. 경제학은 이때 인간들이 현명하게 행동하는지 또는 우둔하게 행동하는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분위기에 휩쓸려 주식을 투매하는 경우라도 수단을 선택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은 그런 현상을 설명해야 한다. 깊은 생각 없이 사람들이 유행을 따르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런 행동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단을 선택하는 행동이다. 그 점에서 그런 행동은 경제학의 대상이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은 인간이 언제나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정을 함으로써 이성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의 행동을 제외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은 이 점에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을 가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앞의 예에서 보듯이 언제나 합리적으로만 행동하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은 인간이 합목적적임을 전제함으로써 인간의 실재의 행위를 설명의 대상으로 삼는다.

경제학은 인간이 경제적 동기만을 추구하는지, 비경제적 동기만을 추구하는지, 경제적 동기와 비경제적 동기를 적절히 혼합한 것을 추구하는지를 상관하지 않는다. 현실에서 기업가는 순전히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 모든 이윤을 자선 사업에 써버리는 경우도 있다. 또는 이윤과 자선 행위를 적절히 혼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인간

이 어떤 목적을 추구하느냐와 상관없이 경제학은 목적을 추구하는 행동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은 인간이 비경제적 동기를 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경제적 동기 – 특히 공급의 경우에 기업가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 만을 추구하는 것을 가정함으로써 현실에서 실재하는 기업가의 행동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현실의 기업가는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고 그 결과 주류 경제학은 존재하는 현상의 일부를 제외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미제스는 “경제학이 설명하는 교환학의 법칙들은, 교환에 관련된 사람들이 현명하게 행동하는지 또는 현명하지 않게 행동하는지, 또는 그들이 경제적 동기들에 의해 활성화되는지 또는 비경제적 동기들에 의해서 활성화되는지와 상관없이, 각각의 모든 교환에 타당하다.”(Mises, 2003, p. 36)라고 설명한다.

인간의 행동은 언제나 합목적적이다. 인간은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동한다. 인간은 자신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수단을 선택한다. 적어도 사전적으로는 그렇다. 바로 그 이유로 인간이 행동할 때는 언제나 합목적적이라는 것이다. 어떤 인간의 행동의 목적에 대해서 타인이 자신의 관점에서 그 인간의 목적을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여기에서 타인의 목적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미제스는 “행동에서 비합리성이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하는 대신에, 인간은 단지 다음과 같이 말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즉 내가 지향하는 것과는 다른 목적들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상황에서 내가 사용했었을 것과는 다른 수단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Mises, 2003, pp. 36-37)라고 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서 행동과 ‘필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A보다

B가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특정한 환경하에서는 아주 편리한 표현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심각한 오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의 대상은 선택으로 나타난 행동 또는 행위이고, 선과 악, 가치와 무가치 사이의 구별을 과제로 삼고 있는 규범 체계를 다루는 과학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규범적 서술, 복지경제학, 후생경제학 등은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을 미제스는 “해야 하지만 하지는 않은 행동은 우리 과학(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을 지칭함)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Mises, 2003, p. 158)라고 지적한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복지경제학, 후생경제학 등은 경제학이라는 이름하에 대학에서 널리 가르쳐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학이라는 명칭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그 과목들이 매우 정밀한 것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범 체계를 다루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서적을 포함한 경제 관련 서적에 내포된 규범적 서술, 복지경제학, 후생 경제학 등은 경제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경제학이라는 과학으로 볼 수도 없고 간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행동하지 않는 것^{undo}’과 필요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부동산을 판매하겠다는 생각을 바꾸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행위는 행동하지 않는 것이지만 자신의 의지에 따라 부동산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필요와 구분해야 한다. 이때 행동하지 않는 것은 필요의 일부가 아니라 행동의 일부이다. 즉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은 것도 행동의 일부라는 것이다.

요약하면, 인간은 목적도 수단도 ‘스스로’ 선택한다. 그러나 목적과 수단의 선택에 관여하는 인간의 능력은 다르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서로 다른 영역이 목적과 수단의 선택에 관여한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이성의 문제이고 궁극적 목적을 선택하는 것은 마음과 의지의 문제이다.”(Mises, 2007, p. 15) 인간이 목적과 수단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사실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선택은 인류의 운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점을 미제스는 “사실 인간이 뛰어난 점은 그가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힘에서 볼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것은 신이 인간에게 미덕과 악덕 사이에서 선택하게 하는 분별력을 수여해주었다고 신학자들이 찬양할 때 그들이 보았던 것이다.”(Mises, 2007, pp. 371-372)라고 설명한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선택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선택이라는 행동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선택의 특성을 논의하기 전에 선택이 존재한다는 점, 즉 선택은 ‘사실^{fact}’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인간 본성의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점도 또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선택이 사실이라는 점을 부인하면 인간행동과 관련한 논의를 더 이상 전개할 수 없다.⁹

먼저 선택의 특징을 알아보기로 한다. 선택은 가치평가를 필요로 한다. 선택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은 각종 선택지들^{alternatives}의 중요성이나 가치가 중요도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선택지들의 중요성이나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다. 바로 그 이유로 사람들은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동일한 사람이 선택하는 경우에도 선택지들의 중요성이나 가치는 시간과 장소

에 따라 달라진다. 동일한 사람이 선택하는 경우에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선택지들의 중요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행동하는 인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어진 조건 또는 환경하에서 최선의 선택 또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선택을 하고자 한다. 이때 인간의 선택은 모두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선택을 한다는 관점에서 그의 선택 기준은 객관적이지 아니라 '주관적'이다. 이 점은 인간의 모든 선택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투자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 사람마다 다른 선택을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다.

인간의 선택 과정은 '미래 지향적(future-oriented)'이다. 그 결과로 언제나 투기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투기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행동이 현재의 불만족을 줄이는 것, 즉 미래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 과정이 미래 지향적이 된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택을 살 때 미래에 주택을 다시 파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인가를 고려한다. 현재 그 주택이 자신에게 얼마나 편리함을 주는가 하는 점도 고려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선택이 언제나 투기적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요소를 넣거나 빼는 방법으로 모형을 만드는 방법은 그런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제 여기에서 인간의 선택 행위가 법칙이 될 수 있는가를 일차적으로 검토한다. 인간의 선택 행위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만 선택 행위가 법칙이 될 수 없다는 관점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있다. 극단적인 주관주의를 택하고 있는 새클(Shackle G.L.S.(1972), 라흐만(Lachmann(1994) 등이 여기에 속한다.¹⁰ 그들은 선택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만 선택을 지배하는 법칙이 없다고 생각한다. 세계는 영원하고 무제한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인

간행동의 일반적 법칙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선택은 다른 사건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간 행위의 법칙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다. 아래에서 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인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모든 다른 과학에서처럼, 인간의 행동에서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관찰된 사실 *observed fact*’이 ‘다른 관찰된 사실 *some other observed fact*’에 의해 결정되거나, 관찰된 사실이 그 사실에서 거슬러 올라가 다른 관찰된 사실 탓으로 되어야 한다. 인간의 선택 행위를 자세히 관찰하면 어떤 선택 행위를 그 선택 행위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관찰된 사건으로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때 외부에서 관찰된 사건이란 그 선택 행위의 이전에 일어난 사건 또는 그 선택 행위의 이후에 일어난 사건 또는 그 선택 행위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면서 그 선택 행위와 독점적으로 *exclusively*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선택 행위를 그 선택 행위의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선택 행위의 본질 때문이다. 인간의 행동은 어느 정도 ‘스스로 결정되고 *self-determined*’, 그 결과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행동이 아닌 다른 요소들로 완전히 설명되어질 수 없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결정한다.

우리는 인간의 행동이 일어나는 모든 조건들을 나열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이 인간의 행동에 미친 영향을 법칙으로 공식화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확히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때는 X를 선택하고 다른 때는 Y를 선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동이 일어나는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그 행동 또는 선택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행동의 법칙이란 없다. 인

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동의 환경 또는 행동의 조건들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선택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은 없다. 이 점은 이미 2장에서 일부를 설명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선택의 이런 특성을 힐즈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요약하면, 선택이라는 존재 때문에, 인간의 행위를 단순히 어떤 다른 사건 또는 다른 사건들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략) 인간의 행위는 고려 중인 행동의 외부에 있는 사건들과 다른 사물들을 참고하여 완전히 설명될 수는 없다.”(Hülsmann, 2003b, pp.63-64) 인간행동의 이런 특성은 인간의 행동을 ‘환경 또는 행동의 조건들’로 설명하는 신고전학파의 경제학 방법론이 틀린 것임을 의미한다.

선택이라는 행동에는 법칙이 존재한다. 즉 선택의 법칙(laws of choice)이 존재한다. 그 결과 인간행동을 지배하는 법칙이 존재한다. 경제 행위에만 국한하여 법칙(들)이 된 것이 경제이론(들) 또는 경제학이다. 이 법칙(들)이 인간행동의 인과 관계적(causal) 설명과 비인과 관계적(non-causal) 설명을 가능하게 만든다. 경제 행위만 국한하여 만들어진 경제 법칙(들)은 인간의 선택 행위 내부에(within) 포함된 관계들에 의존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은 가시적인 특성 또는 실재화된(realized) 특성을 가진 것과 비가시적인(invisible) 특성 또는 실재화되지 않은(not realized) 특성 – 아직 실재화되지 않은(not yet realized) 특성으로 볼 수도 있음 – 을 가진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진 행동을 설명해보자. A라는 인간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나와서 주차장에 주차해둔 자동차에 간다고 하자. 이 경우에 A라는 사람의 육체가 움직이는 모습(actual movement of the body)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나 사고과정

actual activity of the mind도 볼 수 있다. 사고하기(thinking, 경청(listening)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의 예에서, A라는 사람의 정신 활동,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하기 위하여 생각하거나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인간행동의 가시적인 부분이다. 사고하기 또는 생각이 행동이라는 것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불충분한 인식과 같은 덜 만족스러운 상태로부터 더 나은 통찰력이라는 더 만족스러운 상태까지 단계를 거쳐 점차적으로 나아감으로써, 이 일(논리학과 수학은 이상적 사고 체계를 다루는데 그 체계의 관계들과 의미들을 한번에 파악하는 것을 말함)을 성취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은 사고하기(생각을 말함) 그 자체를 행동으로 만든다.”(Mises, 1996, p. 99)

A가 아파트를 나와서 주차장에 주차해둔 자동차로 가겠다는 선택을 하고 아파트 문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탈 것인가 또는 계단을 내려갈 것인가를 선택한다. 아파트 출입구를 나와서도 뛰어갈 것인가 또는 천천히 걸어갈 것인가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한 마디로, 아파트에서 주차장에 주차해둔 자동차로 가는 동안에 선택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선택이 행동의 비가시적인 부분이다.

선택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선택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A가 연속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 그는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로 가는 것이 목적이다. 다른 하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에 다른 선택지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포기한 선택지들’이라고 부른다. 어떤 선택에서 포기한 선택지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도 있다. 편의상 여기에서는 포기한 선택지가 여럿이라고 가정한다. 추구하는 목적과 포기한 선택지들은 인간행동의 비가시적인 부분이다. 자신이 선택한 목적과 포기한 선택지들은 비

가시적인 것이고 실재화되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목적과 선택지들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다.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에서 주요 관심사는 행동의 비가시적인 부분이다. 행동의 가시적인 특성은 비가시적인 특성의 부수적인 것으로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인간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들 또는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중심에는 선택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수단의 본질도 또한 다르다.

비가시적인 특성을 가진 행동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특성 *time-invariant features*’을 지닌 행동 또는 ‘불변의 *constant*’ 행동과 ‘우연적인 특성 *contingent features*’ 또는 ‘환경적인 특성’을 지닌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예로 선택, 목적 지향, 가치, 실패와 성공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행동은 시간의 경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식별해야 하는 것으로서, B라는 사람이 일 년 전에 결정한 선택지들, C라는 사람이 연주회에 가기로 결정했을 때의 과오 *error* 등이다. 이 경우에는 그런 결정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모두 달라진다.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지닌 행동, 즉 인간행동의 본질을 다루고 행위의 수단에 대한 본질을 또한 다르다. 비가시적이지만 우연적인 특성을 지닌 행동은 역사학의 주제이다.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 인간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행동의 비가시적인 부분인 행동의 목적들과 포기한 선택지들은 비

실재화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비추어보면 현실 세계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나 행동의 목적들과 포기한 선택지들은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 어떻게 이러한 사실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인간행동의 가시적인 부분 – 행동과 사고 – 을 행동의 비가시적인 부분 – 목적들과 포기한 선택지들 – 의 당연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게 하는가?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돈 또는 생계비를 버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다. 그는 그의 목적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 즉 행동하는 것이다. 즉 행동의 가시적인 부분을 행동의 비가시적인 부분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때 돈을 벌기 위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것이 포기한 선택지이다. 포기한 선택지는 행동의 비실재화된 부분이다. 여기에서도 행동의 가시적인 부분을 포기한 선택지라는 행동의 비가시적인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때 이런 설명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관계 *counterfactual relation*’¹¹라고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6장 포기한 선택지들과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많은 예를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길 건너에 있는 구멍가게에 가기 위하여 건널목을 건넌다고 말한다. 길을 건너는 행위는 구멍가게에 가기 위한 것이다. 대학 입시 시즌에 수능성적표를 받아본 학생과 학부모는 최대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하여 입학 가능성을 따져본다고 말한다. 여기에서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목적이고 입학 가능성을 따져보는 행위가 행동의 가시적인 부분이다. 한 대학을 선택하고 다른 대학을 포기한다면 그 포기한 대학이 포기한 선택지이다.

휠즈만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즉 “이런 모든 설명들에서 우리는 [인간행동의] 실재화되지 않은 – 아직 실재화되지 않은 – 부분으로 [인간행동의] 실재화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간행동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이용한다.”(Hülsmann, 1999, p. 5) 그렇게 하여 오스트리아학파는 인간들이 목적들을 선택하고 그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수단들 또한 선택한다는 단순 명료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그들의 이론들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자연과학에서 설명이란 어떤 사실이 다른 사실들의 ‘필연적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스트리아학파의 인간행동에 대한 설명은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설명과 다른 것이다. 이 점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요약하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인간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한 목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하나이고, 인간의 행동과 포기한 선택지의 관계로 설명하는 방법이 다른 하나이다. 전자는 ‘5장 행동의 목적과 선택주의’에서 더 자세히 분석하고 후자는 ‘6장 포기한 선택지들과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다.

3. 전통적 방법론

여기에서는 행동과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주류 경제학의 방법론인 범물리주의 또는 실증주의, 역사주의, 전통적 균형 분석 방법 등을 비판하고자 한다. 그런 비판은 오스트리아학파가 방법론과 인식론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이 비판을 토대로 또는 이 비판에 견주어 오스트리아학파의 방법론과 인식론이 다듬어져왔다. 특히 범물리주의와 역사주의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 극복 과정에서 5장과 6장의 내용이 완성되고 전통적 균형 분석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 극복 과정에서 ‘7장 균형 분석의 실재론적 접근’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범물리주의

오늘날 실증주의 또는 범물리주의는 신고전학파의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실증주의 또는 범물리주의가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의 방법론으로는 타당하지만 경제학과 같은 사회과학의 방법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은 문제가 되는 행동의 외부에 있는 사건들로 완전하게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은 앞에서 이미 지적했다. 그러므로 물리학의 방법론을 경제학에도 응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범물리주의자 또는 실증주의자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것이 주류 경제학이 채택하고 있는 실증주의 또는 범물리주의에 대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을 신봉하는 연구자들의 결론이다. 아래에서는 그 이유들을 제시하고자 한다.¹²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본질적인 차이를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일종인 경제학의 인과성 측면에서의 차이는 앞에서 지적하였다. 여기에서는 인과성 측면을 제외한 차이를 설명한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구분해주는 특징적인 요소는 모든 인간의 행동이 목적 또는 의도를 가진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지적했다. 물리학에서 다루는 물체, 예를 들어 돌, 사과 등은 그 자

체가 인간이 가진 것과 유사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점은 동물도 식물과 마찬가지로이다. 동물은 자신의 본능에 따라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만 인간처럼 뚜렷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점에서 동물사회학이나 동물생태학 등에서 동물세계를 인간세계와 유사한 것으로 바라보거나 동물세계에서 동물의 행동을 인간세계에 적용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다. 인식론적 관점이 있어서 핵심적인 점은 자연과학의 대상인 물질은 인간과 달리 '자유지'가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과학이 다루는 물질과 달리 자유지가 있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범물리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인간의 자유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즉 실증주의는 인간의 행동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도 무시한다. 그러므로 경제학과 같은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인간의 행동과 자연과학의 연구 대상은 전적으로 다른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돌이나 사과와 같은 물체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¹³ 자연과학들의 방법론은 오로지 규칙적 유형이 지배하는 사건만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돌이나 사과와 다르다. 동일한 외부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은 다르게 반응하고 동일한 사람이라도 다른 시간 또는 다른 장소에서는 다른 반응을 한다. 자연과학들과 달리 인간의 행동을 다룰 때 특징적인 점은 이러한 '불규칙성'이다. 자연과학들은 이러한 불규칙성에 직면하면 소용이 없다.

앞에서 설명한 인간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물리학자들은 그들의 연구 대상인 물체가 인간처럼 선택을 한다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과 공간에서의 물체의 움직임은 다른 물체와의 본질적인 관계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물리학자들은 가정한다. 다시 말하면 범물리주의 또는 실증주의의 본질은 사회과학 또는 경제학에서의 근본적인 사실인 인간행동의 영역에서 선택과 자유의지, 또는 더 일반적으로 말해 인간 사회와 인간행동의 영역에서 ‘물활론animism’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택이라는 행동의 인식론적 시사점은 인간의 행동을 다루는 과학인 경제학이 물리학을 모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과학에서는 방법론으로서 범물리주의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

물리학에서는 사전적으로 명백히 틀린 이론이라는 것은 없고 어떤 이론이 좋은 것인가 하는 점은 사후적으로 분명해진다. 물리학에서는 처음부터 어떤 규칙이 존재한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다. 물리학에서는 미래의 관측치들이 이론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물리학에서는 지금까지 기각되었던 가설들이 유용한 설명이 될 수도 있다. 물리학의 인식론은 본질에 있어서 실용주의pragmatism의 인식론이다. 실용주의의 인식론이란 가설이 관측치들을 설명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만 하면 그 가설이 ‘참true’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실증주의 또는 범물리주의의 본질, 즉 인간행동과 인간 사회라는 영역에서 물활론을 부인하는 아이디어가 구현된 사례는 경제학에서 거시경제 모형화macro-economic modelling 또는 이와 유사한 접근법이다. 거시경제학자는 모형을 만들 때 사회 내의 개인들이 선택을 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는 행동할 때의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완전히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적했듯이 범물리주의가 사회과학에 있어서 근본적인 사실, 즉 행동에 있어서 선택의 존재와 선택의 지배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틀린 가정에 근거한 모형화가 그럴듯한 결과 또는 경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다. 실제로 현대 거시경제학자는 단 하나의 새로운 경제법칙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과학에서 실증주의 또는 범물리주의가 별다른 성과물 또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에서 실증주의 또는 범물리주의가 위세를 떨치고 있는 점에 대해 호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는 사회과학에서 실증주의를 지지하는 지원자는 서양의 정부들 – 서양의 정부들은 또한 경제학자들을 포함한 사회과학자들을 고용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 이라고 지적하고 서양의 정부들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실행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증적인 증거 또는 자료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⁴ 다시 말하면, 실증주의 또는 범물리주의가 방법론으로서 큰 위세를 떨치게 된 것은 서방 정부들의 간섭주의와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실증주의는 서양을 제외한 국가들에서도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국가들이 서양에서 발달한 주류 경제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자연과학은 실험을 통해 사실을 축적할 수 있지만 사회과학은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 자연과학에서 실험자들은 실험을 통해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한 가지 요소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관찰하거나 사실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는 그런 실험이 가능하지 않다.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이 흔히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기관의 통계국을 실험실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가나 국가 기관 소속의 통계국이 발표하고 있는 통계치는 ‘역사적인’ 것이다. 여기에서 역사적이라는 말은 그 통계치가 여러 가지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과학에서는 자연과학

에서처럼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 한 가지 요소만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들은 복합적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들로 이론을 증명하거나 반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들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 중에서 이론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만을 추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증주의자 또는 범물리주의자가 국가 기관 소속의 통계국을 마치 자연과학에서의 실험실로, 통계치를 실험의 결과로 다루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전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자연과학에서 경험이란 ‘실험에 의한 경험 *experience of experiment*’을 말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때 물론 실험자는 실험을 통제하여 사실을 관찰하고 축적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는 자연과학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자가 실험을 통제할 길이 없다. 이 점 때문에 실증주의를 인간의 행동을 다루는 학문인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채택할 수 없다. 사회과학에서 경험이란 ‘역사적 경험’으로서, 지나간 경험을 말한다. 즉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경험이라는 의미에서의 경험이 사회과학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실험과 관련되어 있는 ‘측정 *measurement*’이라는 관점에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다르다. 물리학자는 원자의 무게, 밀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통계 전문가 또는 통계를 전문으로 하는 경제학자는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 있어서 공급과 가격의 관계를 수치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의 측정은 물리학자가 원자의 무게, 밀도 등을 측정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경제학자가 측정한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서 공급과 가격의 관계는 다른 장소 또는 다른 시간에서는 공급과

가격의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물에 대해서 다른 인간들은 다르게 가치를 매길 뿐 아니라 동일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다른 환경에서는 가치평가를 다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계를 측정할 때의 경제학자나 통계 전문가는 역사가 또는 역사학자일 뿐이고 자연과학에서의 실험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다. 바로 그 이유로 사회과학에 있어서 통계치는 역사 연구의 방법을 구성하지만 경제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제스는 경제학에서의 지식이 ‘질적 지식 *qualitative knowledge*’이지 ‘양적 지식 *quantitative knowledge*’은 아님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론 과학인 경제학은 질적 지식을 제외한 다른 어떤 지식도 전해줄 수 없다. 그리고 경제사는 오로지 사후에만 우리에게 양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Mises, 2003, p. 127) 예를 들어보자. 화폐의 질적 이론 또는 질적 지식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화폐량의 증가가 화폐 단위의 구매력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화폐량이 두 배 증가한다고 화폐의 구매력이 50퍼센트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시기와 특정한 장소에서의 화폐 구매력의 감소는 양적 지식으로서 오로지 사후에만 이용 가능한 경제사일 뿐이다. 그러나 공학자는 주어진 하중을 견디기 위하여 다리를 어떻게 건설해야 하는가를 계산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수관계가 없다. 화폐량과 화폐 단위의 구매력의 양적 관계 또는 양적 지식은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것일 뿐이고 화폐와 관련한 질적 이론의 일부가 아니다.

범물리주의 또는 실증주의가 인기가 있는 데는 심리적인 요소도 한 몫을 한다고 휠즈만은 지적한다.¹⁵ 물리학에서는 분명히 처음부터 나쁜 이론 같은 것은 없다. 왜냐하면 물리학에서 ‘일리 있는 이론들 *workable*

theories'을 발견하는 데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이유로 물체들 간에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그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충분하다. 물리학에서 좋은 이론들이란 사후적으로 식별된다. 다시 말하면 물리학자들이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도 자신들의 모델 빌딩(model building)이 언젠가 성공할 것이라는 낙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오늘날 평균적인 사회과학자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그러나 인간행동의 영역에서는 물리학에서와 같은 낙관주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행동의 외부에 있는 다른 사건들로 인간의 행동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처음부터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한다.

무엇보다도, 앞의 '행동과 선택'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행동에 관한 경험은 인간행동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한다는 점에서 그런 지식이나 전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연현상에 관한 경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점이 범물리주의라는 방법을 인간행동학, 경제학, 역사학 등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의 하나이다.

실증주의의 핵심은 모든 선험적 명제들이 단지 분석적인 것일 뿐이고 선험적 지식이 가진 인식 면에서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다. 실증주의자들은 선험적 명제들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증주의자들은 선험적 명제들이 동의반복이거나 정의들이나 전제들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실증주의자들은 오직 경험만이 종합 명제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제스는 이 주장의 모순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 학설에 대한 명백한 반대가 있다. 즉 종합 선행 명제들이 없다는 이 명제도 그 자체로 – 필자가 생각하기에, 틀린 – 종합 선행 명제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경험에 의해 정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Mises, 2006, p. 4)

범물리주의에 대해 휠즈만의 지적으로 범물리주의에 대한 비판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경제학에 물리학의 방법론을 응용하는 범물리주의는 실패할 운명이다.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바로 그 본질이 인간의 행동을 고려하고 있는 그 행동의 외부에 있는 사건들로 전적으로 결정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고 과정이나 행동에서 행동의 구체적인 표현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다.”(Hülsmann, 2003b, p. 66) 이와 함께, 미제스는 “실증주의의 오류들을 드러내고 반박하는 것은 인식론의 과제이다.”(Mises, 2006, p. 112)라고 지적하고 있다.

(2) 역사주의¹⁶

역사주의는 인간행동과학의 영역에는 오로지 역사학과 역사적 방법론만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역사학과 역사적 방법론에서 모든 과학적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유도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자연과학, 수학, 논리학 등을 제외하면, 역사주의는 역사가 제공한 지식 이외에는 어떠한 의미 있는 지식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인간의 행동들, 업적들, 제도들을 다룰 유일하게 분별력 있는 방법은 역사적 방법, 즉 역사주의이다.

역사주의는 실증주의의 한 종류로 분류해도 큰 무리가 없다. 역사주의에서 과학적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이다.¹⁷ 역사

주의자는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독일과 영국의 역사학과, 미국의 제도주의institutionalism, 시스몽디Sismondi, 베블린Veblen, Decline of the West을 저술한 슈펜글러Spengler, A Study of History를 쓴 토인비Toynbee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역사주의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조력자이다. 역사주의는 옛날의 관습과 제도들을 너무 과대평가한다. 그러나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역사주의는 넓게는 인간행동과 관련한 인식론적 문제를 다룬 학설이고 좁게는 역사학과 관련한 인식론이다.

역사주의는 얼마나 타당한 인식론인가? 첫째, 역사주의는 시간과 공간 등과 독립적인 보편타당한 원리, 즉 경제학을 부인한다. 역사주의는 경제학을 발전시키려는 시도와 경제법칙들을 발견하려는 시도가 헛된 일이라고 주장한다. 미제스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사주의의 관점에서는, 인간행동과학의 영역은 오로지 역사학과 역사적 방법론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시간, 장소, 인종, 민족, 문화 등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보편타당한 규칙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역사주의는 주장한다. 사회학과 경제학이 우리에게 이야기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은, 새로운 경험에 의해서 타당성이 부인될 수도 있는 역사적 사건의 경험이다. 어제 그랬던 것이 내일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사회 영역에서의 모든 과학적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도출된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이끌어낸 일반화야말로 나중의 몇몇 경험에 의해서 항상 뒤집혀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과학들의 유일하게 적합한 방법론은 역사적으로 독특한 것에 대한 특정한 이해이다.”(Mises, 2003, pp. 5-6)

여기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하나는 경제과학이 경험과학인가

하는 것이다. 역사주의자들은 경제학의 이론들이나 법칙들이 선형적 추론의 산물이기 때문에 공허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오직 역사적 경험만이 경제학을 현실적인 것으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제스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경제법칙들이란 없으며, 따라서 그 법칙들을 찾는 것은 어리석다고 역사학파는 믿고 있다. 가격들은 ‘경제법칙들’이 아니라 ‘사회적 힘이라는 조건들(conditions of social power)’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해진다.”(Mises, 2003, p. 220) 그러나 앞에서 설명했듯이 경제과학은 선형과학이면서 논리과학이다. 경제과학의 선형성이란 실증주의 또는 경험에 의해 경제이론이나 법칙이 논증되거나 반박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식론으로서 역사주의는 경제과학의 요점을 놓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역사주의가 경제과학의 과학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역사주의는 인간행동과학에서의 모든 지식의 유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역사주의는 인간행동과학에서의 모든 지식이 새로운 경험에 의해 반복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역사주의는 “타당성이 특정한 역사 시기를 넘어서는 또는 기껏해야 여러 역사 시기를 넘어서서 확장될 수 있는 지식은 없다.”(Mises, 2003, p. 6)라는 의미라고 미제스는 지적한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인간행동과 관련한 지식은 시간, 공간 등과 관련이 없다. 예를 들어, 경제현상에서 가격과 수요의 관계는 시간, 공간, 인종 등과 관계없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경제과학의 과학성을 부정하는 역사주의의 인식론은 틀린 것이다.

둘째, 역사학이 비록 부분적이지만 경제이론이나 경제법칙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역사주의가 인식론으로서 타당할 수 없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사실 모든 역사 서술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자연과학,

수학, 논리학 등뿐 아니라 경제학을 포함한 인간행동학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역사학과 역사적 방법론에서 모든 과학적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유도된다고 주장하는 역사주의는 인식론으로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역사주의는 경제학이 인간을 이기적이고 전적으로 물질적 후생만을 추구하는 존재로 가정함으로써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역사주의의 비판이 주류 경제학을 향하고 있다면 그 비판은 옳다. 2장에서도 지적했듯이 주류 경제학은 인간을 물질적 후생만을 추구하는 존재로 가정하고 있다. 특히 생산자들의 행동을 설명할 때 그렇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은 생산자들 또는 기업가들이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생산자들 또는 기업가들은 물질적 동기뿐 아니라 비물질적 동기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은 현실에 존재하는 그대로의 인간을 전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에서 인간은 물질적 욕망뿐 아니라 비물질적인 욕구도 추구하고, 이기적일 뿐 아니라 이타적인 행동도 하는 것으로 전제된다. 그러므로 역사주의의 경제학에 대한 비판은 그 비판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으로 향하는 경우에는 초점이 빗나간 것이다.

넷째, 역사주의자들 중에서 역사적 사건들을 몇 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다양한 시기들로 구별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 우리는 시기를 구분하고자 하는 학설을 ‘시기구분주의(Periodalism)’, 그 지지자들을 ‘시기구분주의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 문제는 시기구분주의자들의 시기 구분의 근거에는 각 시기의 경제를 결정하는 경제법칙들 또는 경제이론들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시기구분주의자가 시기구분주의

의 방법론적 정당성을 구축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설명한 두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역사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역사주의가 그 본성상 체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사주의는 본성상 체계가 아니고, 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의 원리를 기각하고 부인하는 것이다.”(Mises, 2003, p. 7)

(3) 전통적 균형 분석 방법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균형 분석 *equilibrium analysis*이 방법론으로서 결함이 있음을 비판하고자 한다. 이 비판을 토대로 휠즈만은 ‘균형 분석 방법에 대한 실재론적 접근법 *realist approach to equilibrium analysis*’을 제안하고 있다. 휠즈만의 실재론적 접근법은 ‘7장 균형 분석의 실재론적 접근’에서 따로 다루고자 한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 특히 주류 경제학자들은 경제법칙들이란 균형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들은 이 가정을 토대로 균형의 공식적인 특징과 실질적인 특징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졌다. 예를 들어, 균형 가격 *equilibrium price*의 결정, 균형 가격들 간의 관계, 균형의 존재 유무와 균형의 출현과 균형의 안정 조건, 일반 균형 분석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균형 경제학 *equilibrium economics*이 경제과학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법칙들은 균형의 존재 유무에 달려 있지 않거나 균형이 어떻게 출현하는가 하는 문제에 달려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균형의 존재’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경제법칙과 같은 것은 없다. 왜냐하면 만약 그런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선택 행위의 본질에 위배된다. 선택 행위의 본질이란 인간은 언제나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결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주장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균형 분석을 응용했던 주류 경제학자들이 자연 과학에 있어서 실증주의와 같은 방법으로 인과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즉 당시의 경제학자들은 관측된 행동을 전적으로 다른 관측치로만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일반 균형 이론의 등식들이 아주 좋은 예이다. 일반 균형 모델의 전제는 시장 참가자들이 인간이 아니라 '자동인형 *automaton*'이라는 것이다. 일반 균형 모델에서 시장 참가자들은 선택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인간의 행동은 다른 사건들에 의해 어느 정도 조건 지어진다. 문제는 외부의 사건들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공식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재화의 가격을 규제하는 경우에 그 재화를 부족하게 만들거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부족을 더 크게 할 것이라고 경제이론은 가르친다. 그러나 인간들이 그 재화보다 더 좋은 대체재를 찾아내고 일부 수요자가 그 대체재를 수요한다고 가정하자. 그 경우에 가격이 규제된 재화의 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정부 당국의 계속되는 설득으로 규제를 시행하고 난 뒤에 해당 재화의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시장에서 그 재화의 부족을 실제로 목격할 수 없다.

다른 예를 들어본다. 화폐와 관련한 경제이론 중의 하나는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화폐의 가치 또는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재고 수요 *stock demand*와 화폐의 재고 공급 *stock supply*에 의해 결정된다.¹⁸ 화폐의 공급이 증가할 때 어떤 이유로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화폐 수요 증가의 효과가 화폐 공급 증가의 효과를 상쇄할 정도가 되면 화폐의 가치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즉 화폐 공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는다. 만약 화폐의 수요가 변하면 화폐 공급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는 이론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행동의 목적과 선택주의¹⁹

다수의 요인이 동시에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 요인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즉 가설을 어떻게 증명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가? 앞의 예에서 어떤 재화에 대한 가격 규제가 그 재화에 대한 부족을 초래한다는 가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일반 균형 이론은 대답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택 행위는 존재하며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인간 행위의 균형 모델은 다른 관측 가능한 사실로부터 만들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행동은 다른 관측 가능한 사실들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힐즈만은 균형 분석을 인간의 행동을 바탕으로 하는 실재론적 균형 분석 방법으로 만들었다. 전통적인 균형 분석에 대한 추가적인 비판은 ‘7장 균형 분석의 실재론적 접근’에서 하고자 한다.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방법론으로서의 범물리주의는 전적으로 틀린 것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행동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 방법은 인간은 목적을 선택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목적으로 행동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행동의 목적으로 행동을 설명하는 방법은 미제스가 제시한 것으로 소위 목적론이다.²⁰ 그런데 목적의 선택은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행동 이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선험적일 수밖에 없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선택에는 언제나 포기한 선택지가 존재하고 그 포기한 선택지가 선택이라는 목격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휠즈만이 최근에 제안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전자를 먼저 다루고 두 번째 방법론은 ‘6장 포기한 선택지들과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에서 다루고자 한다.

미제스는 선험주의 *apriorism*야말로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의 인식론이라고 주장한다.²¹ 왜냐하면 인간행동의 목적 또는 행동을 위한 선택이 행동보다 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선행하기 때문이다.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의 선험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경제과학은 ‘관측에 기초한 방법들 *observation-based methods*’에 의존하는, 자연과학의 방법론인 범물리주의 또는 실증주의에 의해 반박될 수도 증명될 수도 없다. 그 결과 미제스는 자연과학의 방법론인 범물리주의를 경제과학의 방법론으로 채택하는 것을 부정한다. 범물리주의 또는 실증주의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비판했다.

또한 경제과학이 인간의 행동에 어떤 법칙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역사주의를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미제스는 주장한다. 독일 역사학파가 채택했던 방법론인 역사주의는 미제스가 연구 활동

을 했던 20세기에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었지만 오늘날 주류 경제학에서는 거의 채택하지 않는 방법론이다. 그러므로 방법론으로서의 역사주의에 대한 비판은 Mises(2007)를 참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3부 역사학 원리’를 설명하는 곳에서 추가하고자 한다.

미제스는 선험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의 모든 부문에서 그 과학은 선험적이고 실증적인 것이 아니다. 논리학과 수학처럼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은 경험으로부터 유도되지 않는다. 그 과학은 경험에 선행한다. 말하자면 그 과학은 행동과 행위의 논리학이다.”(Mises, 2003, p. 13)²²

미제스는 경제학에서 인식의 문제를 1928년부터 1931년 사이에 독일어 논문으로 발표했다.²³ 미제스는 이후 그때까지 발표한 논문들과 두 개의 장을 추가해서 1933년에 *Grundprobleme der Nationalökonomie* (영역하면, *Fundamental Problems of Economics*)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그 책은 인식론과 방법론에 대한 미제스의 최초의 연구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영역본은 1960년에 *Epistemological Problem of Economics*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미제스의 선험주의는 미제스가 그의 사상 체계를 완전히 제시했던 시점인 1940년대 이후에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Salerno(1999)는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세기 서양 철학사 또는 과학사에 있어서 미제스의 사상의 위치에 대해서는 Hülsmann(2003a, pp. xli-xlvi)을 참조할 수 있다. 휠즈만은 미제스의 선험주의는 임마누엘 칸트 *Immanuel Kant*가 말하는 철학과 약간의 유사성은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이 없다고 설명한다.²⁴ 다만 미제스가 선험주의를 옹호하면서 비판했던 경험주의 *empiricism*와 이성주의 *rationalism*

등과 같은 용어들 또는 인식론은 20세기 초 서양 주류 철학계에 지배적이었던 것이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아래에서 좀 더 다루고자 한다.

그런 환경을 고려하면서 미제스가 말한 선택주의가 가진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휠즈만의 설명을 인용해본다. “미제스가 경제학이 선택적인 과학이라고 주장했을 때, 그는 경제학의 법칙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는 주장을 의미하진 않았다. 미제스는 경제학이 학자들의 공동체가 사용하는 다소간 허구적인 가정들에 기초하고 있다고 믿지 않았고, 그는 ‘선택주의’가 이들 학자들이 지닌 공통된 신념에 매달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지 않았다. 경제 분석이 자체적으로는 검증 혹은 반증할 필요가 없는 일련의 자의적인 가설들에 의존한다고, 그 결과 경제학은 단순히 동어반복적인 말장난이라는 의미에서 ‘선택적’이라는 점을, 미제스는 또한 믿지 않았다. 경제학은 확실히 확인 가능한 사실들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요점은 우리가 관찰하거나 측정하거나 냄새 맡거나 접촉함으로써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실들과 관련한 명제들은 감각기관의 증거에 의해 검증되거나 반증될 수 없다.(각주 생략)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에서 사실들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전혀 인식될 수 없었다. 인간행동에 있어서 인식할 수 없는 구조적 특징들에 대한 자기성찰적(self-reflection) 행동을 통하여 사실들은 이해될 수 있고 오로지 이해될 수 있다.”(Hülsmann, 2003a, pp. xliii-xliv)

미제스는 인간의 행동 또는 행위가 두 가지 근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²⁵ 인간행동의 첫 번째 특징은 인간은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인간행동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이 선택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

여 수단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촉발된다는 세계관이 목적론이다. 미제스의 목적론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녔던 세계관에서 기원한다고 할 수 있다.²⁶ 아래에서 미제스의 목적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인간의 목적이 행동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목적과 행동은 인과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이때의 인과성은 자연과학에서 주장하는 인과성과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과학의 방법론인 범물리주의를 인간의 행동에 적용할 수 없다. 미제스는 그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목적론을 인과성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옳다. 이 사실을 확인한다고 해서 두 범주 사이의 본질적 차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Mises, 1996, p. 25)

여기에서 인간의 선택 행위에 대해서 먼저 강조해두어야 할 것은 그런 선택 행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택은 ‘사실’이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 본성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선택이 사실이라는 점, 그 자체를 부인하는 순간에 사실의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마음속으로 먼저 선택을 하고 그 결과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선택하는 행위를 일상의 언어로는 ‘의사결정 **decision-making**’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선택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범물리주의는 인간의 그런 선택을 듣거나, 냄새 맡거나, 접촉하거나, 볼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4장 2절 행동과 선택’에서 제시한 선택 행위의 예를 다시 보기로 한다. A라는 사람이 자기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나와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로 가기로 한 경우이다. 물론 집을 나오기

전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을 것인가를 먼저 선택한다. 거주하는 아파트를 나오기 전과 아파트를 나올 때도 그는 선택을 한 것이지만 아파트를 나온 후에도 선택을 한다. A는 계단을 내려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 갈 수도 있다. 아파트 출입구를 나와서 자동차로 가는 동안에도 뛰어갈 것인가 또는 천천히 걸어갈 것인가를 선택한다. A는 아파트를 나와서 자동차로 가는 동안에 여러 번의 선택을 한다. 요약하면, 인간의 행동은 선택의 결과이고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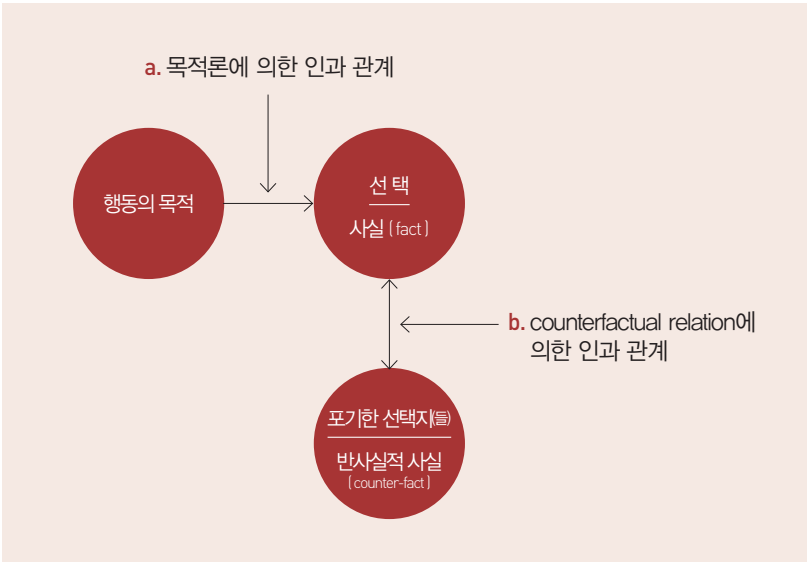
우리가 이때 A라는 사람의 육체의 움직임만을 본다면 그가 집을 나와서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에 가는 동안 선택을 하는 행위를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알아볼 수는 없다. 집을 나오기 전과 집을 나올 때도 그는 선택을 한 것이지만 아파트를 나온 후에도 선택을 한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했다. A는 계단을 걸어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도 있다. 여기에서도 A는 선택을 하고 있지만 선택하는 것을 육안으로 보거나, 접촉하거나, 냄새 맡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A가 집을 나와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로 가는 동안에 한 몇 번의 선택을 감각기관을 통해 알 수는 없다. 우리가 A가 아파트를 나와서 자동차로 가는 경우에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는 선택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은 인간 행동의 비가시적인 특징을 숙고 reflection하는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선택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관찰된 사실 – 여기에서는 인간의 육체가 아파트를 나와서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로 가는 행위 – 을 정확히 해석하거나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아파트를 나와서 주차장으로 가는 동안의 인간의 행위 또는 행동은 두 부분을 포함한다. 가시적인 부분과 비가시적인 부분이다. 행동의 가시적인 부분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눈다. 두 가지란 육체의 움직임과

마음의 움직임은 포함하는 것으로서 인간 행위에서 실재화된 특징을 지닌 것을 말한다. 마음의 움직임이란 숙고, 경청 등을 말한다. 인간 행위의 비가시적인 부분은 인간의 행위 중에서 실재화되지 않은, 또는 아직은 실재화되지 않은 특징을 지닌 것이다. 이 부분은 다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A가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타러 가겠다는 의지나 목적을 지칭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행동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소위 이것이 목적론이다. 다른 하나는 포기한 선택지이다. 예를 들어, 포기한 선택지란 A가 아파트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선택을 한다면 그 순간에 계단을 걸어서 내려가는 선택지는 포기한 것이다. 인간 행위 중에서 실재화되지 않은 특징을 지닌 부분은 명백히 비가시적인 것이다.

인간 행위에서 실재화된 부분과 실재화되지 않은 부분은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 인간은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선택지를 포기하고 실재화된 특징을 지닌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미제스는 인간행동의 두 부분이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인간이 목적을 추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인간 행위의 합목적성을 지적한 것이다. 목적에 의한 행동의 인과 관계를 <그림 1>의 'a. 목적론에 의한 인과 관계'에서 볼 수 있다. 인간이 목적을 지향한 결과로 행위에서 인간행동의 비실재화된 요소들이 실재화된 요소들을 초래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인과론'을 전제하고 있다고 미제스는 주장한다. 또한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수단과 목적이라는 인간행동학의 범주는 원인과 결과라는 인식론적 범주를 전제하고 있다. 인과성과 현상의 규칙성이 없는 세계에서는 인간의 추론이나 인간행동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Mises, 1996, p. 22) 이 점에 대해 휠즈만은 “간단히 말해서, 예

〈그림1〉 행동의 두 가지 인과 관계



를 들어 어떤 공간과 시간에 인간의 육체가 존재하는 상대적인 위치는 인간행동의 가시적인 특징들을 스스로 설명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행동의 가시적인 특징들은 오로지 인간행동의 어떤 비가시적이고 ‘선택적인’ 성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와 결부될 때만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다.”(Hülsmann, 2003a, p. xlv)라고 설명한다.

‘4장 1절 사실과 법칙과 과학’에서 말한 법칙이란 관점에서 인간행동이 법칙이 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첫째, 행동의 가시적인 부분 –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주차장으로 가는 행위 – 은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 – 아파트에서 주차장으로 가겠다는 의지 또는 목적 – 에 의해 초래된 것이다. 이때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은 인간행동의 비가시적인 부분이다. 인간의 행위에서 관찰된 사실 – 즉 육체가 움직이는 것 – 은 가시적인 특징을 가진 것이고 인간의 마음속에서 내린 연속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그런데 그 선택 행위는 비가시적이고 가시적인 행동보다도 선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행동하기 이전에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비가시적인 특징을 가진 행위, 즉 선택을 가시적인 특징을 가진 행위, 즉 외형으로 나타난 행동과 결부할 때만이 가시적인 특징을 가진 인간의 행동을 적절히 이해할 수 있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어떤 관찰자는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달리는 것을 보고, 손을 움직이는 것을 본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성취하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을 때만 그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Mises, 2007, p. 284)

인간이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수단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수단을 선택하는 행위도 선택 행위의 한 종류이다. 우리가 약품 **medicine**과 같은 넓은 의미의 수단을 어떻게 학습 **learn** 하는가를 검토해본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약품이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가정해보자.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알약 형태의 진통제라는 약품을 복용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도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진통제라는 알약과 약품의 본질을 경험하지 않는다. 특정한 진통제를 복용하는 의도, 즉 고통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에 따른 숙고를 통해서 진통제라는 구체적인 물질의 사용을 이해할 수 있다. 약품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이가 고통을 완화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수단으로서 진통제를 인생에서 처음으로 복용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선택 행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어린이의 보호자가 진통제를 복용해야 하는 이유 또는 의도 등을 어린이에게 설명함으로써 큰 거부감 없이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어린이가 약품이라는 수단의 본질

을 한번에 정확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한 거부 반응 때문에 어린이의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약품의 기능을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진통제라는 알약의 물리적 특징을 배우는 것이 약품이라는 수단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가 약품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 진통제라는 구체적인 물체와 결부하여 진통제를 어떤 목적, 즉 고통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함으로써 약품이라는 수단의 본질을 배우게 된다.

좀 더 복잡한 경우를 보기로 한다. 부엌에서 사용하는 취사용 칼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는 사람이나 동물을 죽이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칼의 물리적 성질만으로는 수단으로서 칼의 본질을 정확히 안다고 할 수 없다. 수단으로서 칼의 본질은 칼을 사용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의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수단으로서 칼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칼의 물리적 성질과 함께 칼을 사용할 당시의 사용자의 의도 또는 목적을 알아야 한다.

둘째, 행동의 가시적인 부분은 포기한 선택지-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 갈 때 계단을 걸어서 내려가는 선택지-와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때 포기한 선택지는 인간행동의 비가시적인 부분이다. 이 관계는 <그림 1>에서 'b. counterfactual relation에 의한 인과 관계'로 표시한 것이다. 행동의 가시적인 부분은 행동의 목적과 관계가 있음을 앞에서 보았다. 두 가지 관계, 모두에서 행동의 가시적인 부분은 비가시적인 부분과 본질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두 관계가 법칙이 된다. 즉 <그림 1>에서 a와 b, 모두가 법칙이 되는 관계를 보여준다. 다만 여기에서는

먼저 첫 번째 경우를 자세히 검토한다. 이 경우가 미제스가 경제법칙의 선형성을 주장할 때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물론 두 번째 경우도 경제법칙이 될 뿐 아니라 그 법칙이 선형적인 것이다.

이제 인간 행위에서 두 가지 관계의 특징을 간략히 요약해본다. 첫째, 인간 행위의 비가시적인 부분은 가시적인 부분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할 뿐 아니라 선형적이다. 둘째, 비가시적인 부분과 가시적인 부분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관계를 가진다. 셋째, 인간행동의 비가시적인 요소는 실재하는 *real* 것이지만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는 없다. 넷째, 선택은 인간행동의 본질적 요소이고 인간의 어떠한 선택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다른 요소들로 전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자체적으로 결정되는 것 *self-determined*’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는 선택의 ‘내부에’ 포함된 관계에 의해 설명된다. 이 점을 휠즈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단순한 사실은 선택이 인간 행위의 본질적 요소라는 것이고 선택 그 자체는 인간행동의 외부에 있는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그 결과 인간행동은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결정되고 그래서 인간행동은 다른 요소들[행동의 외부에 있는 요소들을 말함]에 의해 완전히 설명될 수 없다.”(Hülsmann, 2003b, p. 63)

선형주의가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의 방법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휠즈만의 설명을 인용한다. “요컨대, 그러면 인간행동학적 분석은 가시적인 물질과 비가시적인 선택들과 의도들, 양자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인간행동학적 분석은 선택들과 의도들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물질에 대해서는 오로지 부수적으로만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선택들과 의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식은 인간의 감각

기관이 아닌 원천들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그 지식은 경험적 지식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접촉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식이 경험적이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에서 경험적이지 않다. 미제스가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이 선험적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의 의미는 이것이다.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은 인간 행위에 있어서 가시적이고 우연적인 특징을 가진 것은 어떤 것이라도 다루지 않는다. 인간행동학은 인간행동과 행동을 위한 수단들에 있어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징들(본질들)을 다룬다. 이런 본질들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와 독립해서 분석될 수 있으며, 심지어 분석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인간행동학에서 유도된 명제들의 타당성(명제들의 진실 혹은 거짓)은 ‘경험적 기록’과 완전히 독립하여 평가될 수 있다.”(Hülsmann, 2003a, p. xlvii)

미제스는 경제학이 선험과학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만약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 진정으로 장소, 시간, 인종, 민족성, 기후, 계급 등에 따라 조건 지어진다면 20세기 독일인은 페리클레스Pericles 시대의 그리스인의 논리와 행동, 그 어느 것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Mises, 2003, p. 28) 경제이론 또는 경제법칙이 시간이나 장소를 초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주장으로 역사학파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역사학파는 경제법칙이 시간적, 지역적, 민족적으로 타당성이 제한된다는 주장을 하지만 미제스가 든 예는 역사학파의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학이 선험과학이라는 주장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주관적 가치 이론을 지지했던 경제학자들, 즉 멩거, 제본스, 왈라스, 비저 등의 주장과 대동소이했다고 미제스는 지적한다.²⁷

경제이론들 또는 경제법칙들은 선험에 의해 도출된 것이다. 그러므로 경험으로 선험에 의해 도출된 경제이론들을 폐기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다. 경제이론들은 경험에 의해 도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이론들의 선험성은 경제이론들을 경험에 의해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새로운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도출해냈던 추론들을 폐기 또는 수정을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경험도 선험적인 정리들을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결코 강제할 수는 없다. 선험적인 정리들은 경험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다. 선험적인 정리들은 논리적으로 경험에 선행하고, 뒷받침할 경험으로 입증될 수도 없거나, 그와 반대되는 경험으로 반증될 수도 없다. 우리는 오로지 선험적인 정리들에 의해서만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Mises, 2003, pp. 28-29)

선험에 의해 도출된 경제이론들은 선험에 의해서만 폐기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선험에 의해 도출된 경제이론들 또는 경제법칙들도 오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이론들 또는 경제법칙들이 오류를 내포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은 완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성의 사용에서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험과 모순되어 보이지 않는 경제이론들 또는 경제법칙들이라 하더라도 그 이론들 또는 법칙들이 결정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미제스는 주장한다.²⁸ 경제이론들이나 경제법칙들에 대한 그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언제나 주의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제스는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의 경우를 예로 제시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현대의 주관적 가치 이론이 개발되기 전야에 객관적 가치 이론과 경험적 사실들 간에 아무런 모순을 발견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고 한다. 경험주의를 신봉했던 위대한 논리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사람마저도 이런 종류의 실수를 하는 것을 볼 때 모든 이론가들은 선험에 의해 유도된 이론들의 신뢰성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음은 두 말할 것도 없다.

동일한 경험에서 상반된 결론을 이끌어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과거에 사회주의를 지지했던 사람들과 사회주의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러시아 볼셰비키의 경험에서 상반된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험 자료를 추가하거나 축적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험적인 이론들 또는 학설들을 점검하는 것이다. 미제스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의 증거력에 관해 불일치하는 것은 모든 경험으로부터 독립적이면서 보편타당하고 유효한 이론으로 이루어진 학설들로 되돌아갈 때만 해결될 수 있다.”(Mises, 2003, p. 30)

그러면 선험주의가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의 인식론이라면 역사적 사실들은 인간행동학, 경제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에 있어서 실증분석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이다. 또는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에서 유도된 경제이론과 경제사학 또는 더 넓게는 일반 역사학^{history in general}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역사학과 역사가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부에서 다루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그 점에 대한 라스바드의 설명을 인용하고자 한다. “경제사학자에게 있어서 경제법칙은 역사적 사실들에 의해 입증되거나 테스트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사실들을 설명하는 데 조력하도록 그 법칙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응용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들은 경제법칙의 작동을 설명한다.”(Rothbard, 1997a, p. 77) 역사적

사실과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의 관계에 대해서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만일 역사 자료들이 체계적인 인간행동학적 지식에 의해 명백해지고 정리되고 해석될 수 없다면, 그것은 연관성 없는 사건들의 어설픈 축적, 혼동 덩어리에 불과할 것이다.”(Mises, 1996, p. 41)

미제스는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의 선험성에 대한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학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역사적 조사와 사회적 조건들의 모든 서술에서 이론적 개념들과 명제들을 전제한다는 진리를 인식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은 역사학과 정성적 경제학이 이론 없이 추구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Mises, 2003, p. 113) 미제스의 이러한 지적은 실증주의 또는 범물리주의가 얼마나 나쁜 방법론인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미제스는 이론과 경험적 사실들의 관계 또는 경제학과 역사학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추가한다. 이론가가 경험적 사실들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사실들에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서 순전히 개별적인 것인, 역사학의 주제가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선험적] 이론은 개별적이고 비반복적인 사례인 실제 사실들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이론적 파악의 영역이 끝나는 곳(개념적으로, 비록 아마도 공간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또는 감각에 인지될 다른 측면에서가 아닌)과 역사적 이해의 영역이 시작되는 곳을 보여줄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Mises, 2003, p. 32) 역사적 이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종합하면, 인간행동과학, 특히 경제학은 선험과학이지 경험과학이 아니다. 인간행동과학이 선험과학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미제스의 요

약을 다음과 같이 인용해본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하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경험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고 이성^{reason}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점이다. 행동이라는 근본적 범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행동, 절약하는 것^{economizing}, 선호하는 것, 수단과 목적의 관계, 이들과 함께 인간행동의 체계를 구성하는 그 외의 모든 것—은 경험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다. 마치 논리학적 진리와 수학적 진리를 생각하듯이, 우리는 어떠한 경험도 참조하지 않고 이 모든 범주들을 선협 내에서 생각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자신 안에서 이 범주들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경험도 이것들에 대한 지식으로 그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Mises, 2003, p. 14) 앞의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의 의미를 예를 들어 설명해본다. 조세를 징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 경우에 징수된 조세만큼의 일자리가 다른 부문에서 줄어든다. 감각기관의 경험만으로는 이렇게 줄어드는 일자리를 인식할 수 없다. 미제스는 경제학의 이론들이 선협적으로 도출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경제학의 정리들은 사실들의 관찰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근본적인 범주로부터의 연역을 통해서 도출된다. 그 범주는 때로 경제원리(즉, 절약할 필요성)로 표현되고 때로는 가치 원리 또는 때로는 비용 원리로 표현되어왔다. 경제이론들은 선협적으로 도출된 것이고 따라서 그렇게 도출된 기초 원리들에 귀속된 명백한 확실성을 요구한다.”(Mises, 2003, p. 18)

개인이 가진 가치판단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것들이 비록 인과 관계적으로 구성되지만 말이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확실히, 심지어 개인들의 가치판단들조차 인과 관계적으로 구성된다. 우리는 또한 가치판단들이 어떻게 현실화될지도

이해한다. 우리가 가치판단들의 구체적 구성을 예견할 수 없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면 모든 과학적 인식이 부인되는 경계선에 도달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가치판단들과 의지들을 예견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 안에 있는 세계가 우리 바깥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를 알아야 할 것이다. 라플라스가 우주 공식을 꿈꾸었을 때 그는 이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Mises, 2003, p. 129)

경제학을 포함한 인간행동학의 선협성에 대한 미제스의 최종적인 서술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인간행동학의 진술들과 명제들은 경험으로부터 유도되는 것이 아니다. 논리학과 수학의 진술들과 명제들처럼, 그것들은 선협적이다. 인간행동학의 진술들과 명제들은 경험과 사실에 근거해서 증명되거나 논박될 수 없다. 그런 진술들과 명제들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어떤 이해보다도 논리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선행한다. 그런 진술들과 명제들은 역사적 사건들의 지적 파악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 그런 진술들과 명제들이 없다면 우리는 사건의 진행 속에서 만화경 같이 무쌍한 변화와 무질서한 혼란 이외에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Mises, 1996, p. 32)

호페는 행동 공리의 선협성에 대한 주장이 완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두 번째 공리를 제안한다. ‘논쟁의 선협성 *a priori of argumentation*’이다. 호페는 논쟁의 선협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두 번째 공리란 소위 ‘논쟁의 공리’인데 그것은 인간들은 논쟁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진리와 타당성의 의미를 안다는 것을 뜻한다. 행동 공리의 경우처럼, 이 지식 [진리와 타당성의 의미를 아는 것은 관찰로부터 유도된 것이 아니다. 말을 하는 행위만이 관찰되고 말을 하는 행위를 의미 있는 주장들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동 공리의

타당성처럼, 논쟁 공리의 타당성은 명백하다. 사람이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바로 부정 그 자체가 하나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모순 없이 ‘나는 주장할 수 없다’라고 자신에게 심지어 조용히 말할 수 없다. 사람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Hoppe, 2007, pp. 65-66)

인간은 목적과 수단을 스스로 선택한다. 인간은 목적을 이루거나 성취하기 위하여 수단을 선택한다. 인간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행동한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목적을 먼저 선택하고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행동한다. 목적을 선택하는 행위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보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선행한다. 즉 선행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행동을 다루는 과학인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은 선행적이다. 이것이 목적론 관점에서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의 선행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미제스가 주장한 방법론으로서의 선행주의와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관계를 보기로 한다.²⁹ 아마도 선행성이라는 용어 때문에 미제스와 칸트의 유사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미제스와 칸트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미제스와 칸트는 당시에 유행했던 경험주의자들 *empiricists*의 주장에 대응하여 ‘순수 이성 *pure reason*’으로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다. 이때 순수 이성이란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유사성을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두 연구자의 유사성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경제학에 정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회과학의 인식론에

대해서는 결코 다른 적이 없다. 미제스는 다만 인간행동학의 인식론과 다른 과학의 인식론을 구분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진리의 본질이나 인간이 가진 지식의 일반적인 체계 내에서의 인식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미제스는 표준적인 인식론의 용어들을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때 미제스는 경제학이 그 당시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실증적empirical’이라는 의미에서 실증과학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경제학을 선행과학이라고 불렀다.

휠즈만은 미제스의 저작들과 미제스 이전의 오스트리아학파의 선구자들, 즉 멩거, 뵘바베르크, 비저 등의 저작들을 검토한 결과, 미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실재주의Aristotelian realism’를 따랐다고 결론 내린다.³⁰ 아리스토텔레스적 실재주의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관념이 아닌 실재를 중시하는 사고 방식을 주장하는 ‘실재주의적 합목적주의realistic rationalism’ 사고 체계를 말한다. 결국 미제스의 아이디어와 칸트 철학의 유사성은 주로 ‘수사학적rhetorical’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미제스가 다른 합리주의적 철학자와 가까운 정도보다 칸트에 더 가깝지 않다고 휠즈만은 주장한다.

휠즈만이 미제스의 주장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을 인용해본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그미제스의 과학적 논거는 본질적으로 다음 두 가지 사실에 의존했다. (1) 분업이 고립된 노동보다 물리적으로 더 생산적이다. (2) 그리고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와 어떤 혼합경제보다 더 고차원의 분업을 허용하는데,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경제계산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시, 이런 사실들에 대한 지식은 그 유명한 토끼처럼 마술사의 모자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런 지식은 분업이라는 구체적인 체계 또는 사회주의라는 구체적인 체계를 단순히

관찰함으로써 유도되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분업의 본질을 분석하고 사회주의의 본질을 분석함으로써 이런 사실들(앞에서 서술한 두 가지 경제 이론을 말함)을 알게 된다.”(Hülsmann, 2003a, pp. liii-liv) 앞의 인용문에서 미제스가 말하는 지식, 즉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의 정리들은 인간행동의 본질로부터 얻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통해 인식하는 경험에 선행적일 뿐 아니라 두 경험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리고 미제스의 빼어난 제자였던 라스바드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 **Aristotelianism**, 그중에서도 목적론적 세계관을 따름으로써 미제스의 주장, 즉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의 선행성을 받아들였다.³¹

포기한 선택지들과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

앞 장에서, 미제스는 목적론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함으로써 행동에서 유도된 서술이 법칙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법칙이 선택적임을 증명했다. 여기에서는 인간행동의 다른 측면인, 포기한 선택지와 행동의 관계에서 법칙을 유도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포기한 선택지와 행동의 관계를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관계’라고 하고 그때 유도 가능한 법칙을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이라고 부른다.

경제법칙들이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일 뿐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방법론이라는 관점에서 최초로 보여준 연구는 휠즈만이 2003년에 발표한 “Facts and Counterfactuals in Economic Law”(2003b)라는 논문에서이다. 그리고 최근에 Machaj(2012)에 의해 그 논문에 대한 의미 있는 반박 또는 논평이 발표되었다. 그러므로 휠즈만의 주장을 그의 논문에 의거하여 먼저 설명하고, 다음으로 반박에 대한 설명을 추가

하며, 마지막으로 이 부분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1.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로서의 경제법칙들

물론 휠즈만 이전에도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을 이용하여 경제현상들을 설명하는 연구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방법론으로서의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의 존재를 설명하고 규명하지는 않았다. 방법론으로서의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을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경제현상을 반사실적 조건문으로 설명한 연구자들, 즉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을 했던 선구자들에 대한 조사는 아래에서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휠즈만의 상기 논문을 전적으로 참조한 것이다.

어떤 선택 행위에서 가시적인 부분은 ‘관측 가능한 사실^{observable fact}’이다. 4장에서 제시한 예에서, 선택 행위의 가시적인 부분은 아파트에서 주차장에 주차해둔 자동차로 갈 때 육체의 움직임을 말한다. 이 사실은 포기한 선택지와 ‘본질적인 관계’를 가진다. 여기에서 포기한 선택지란 아파트를 출발해서 주차장에 주차해둔 자동차로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에 계단을 걸어서 내려가는 행동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포기한 선택지란 행위자가 어떤 선택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선택지 또는 선택하지 않은 선택지를 말한다. 포기한 선택지들은 선택의 다른 측면이고 비가시적인 부분이다.³² 포기한 선택지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사실들이 아니다. 그러나 포기한 선택지들은 여전히 사실들이다. 다만 그 사실들은 가시적인 사실들의 ‘반사실적 사실들^{counter-facts}’이고 물론 비가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비실재화(unrealized) 선택지들 또는 포기한 선택지들은 인간행동의 가시적인 부분과 본질적인 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우리의 예에서 선택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기한 선택지도 선택이 이루어질 때마다 생겨난다. 그러므로 포기한 선택지와 행위자의 행동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관계 또는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이 된다.

다른 과학에서의 법칙들, 예를 들어 물리학의 법칙들과 비교하여 인간행동에 있어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은 어떤 점이 다른가? 첫째, 물리학에서의 법칙들이 관측된 사실과 다른 관측된 사실 또는 사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은 인간행동의 가시적인 부분(실재화된 행동)과 다른 관측된 사실 또는 사건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은 인간행동의 가시적인 부분과 비가시적인 부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인간 행위의 내부에 있는 관계들이다. 다시 말하면,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은 선택의 가시적인 부분과 비가시적인 부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실재로 존재하는 것과 그것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을 비교함으로써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설명한다.

둘째, 자연과학들에서의 법칙들이 단순한 가설들 또는 약정들로서 무한정 반복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면 인간 행위에 대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즉각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설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들의 직접적인 지식들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는 설명되어야 할 사실(fact to be explained), 인간의 행동과 설명하는 사실(explaining fact), 즉 선택에 있어서 포기한 선택지들과 그 두 사실의 관계 등을 알게 된다.

셋째, 자연과학에서의 법칙들과 달리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은 선행적 법칙들이다. 시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관측된 행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포기한 선택지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은 경험에 의해 반박되거나 부정될 수 없기 때문에 실증주의를 이용하여 그 법칙들을 검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점은 행동의 목적으로 행동을 설명하는 경우의 법칙이 선행적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인간행동을 지배하는 법칙들이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이라는 점을 힐즈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요약하면, 선택이 존재하는 것과 그 대신 존재할 수 있었던 것 사이에 초래된 본질적인 관계는 인간행동의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이다. 실제로 취해진 선택들은 그 대신에 취해질 수 있었던 선택지들과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실제 세계^{real-world}에서의 인간행동들은 가능했었을 대안적인 행동들[포기한 선택지들을 말함]과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관계를 가진다.”(Hülsmann, 2003b, p. 71) <그림 1>의 ‘b’에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의 인과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예를 들어 설명해본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산책을 나가기로 결정하고 산책을 한다고 가정하자. 선택의 가시적인 부분은 관측 가능한 사실, 즉 산책이라는 행동이다. 이때 A는 산책을 선택함으로써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독서를 할 기회를 잃게 된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 또는 독서를 하는 것은 동일한 선택의 미실현된 선택지들이고 산책이라는 행동은 미실현된 선택지들과 어떤 본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 두 사실의 관계는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관계이다.

다르게 설명하면,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이란 어떤 선택의 보이

는 것 *the seen of a choice*, 즉 행동과 그 선택의 보이지 않는 것 *the unseen of a choice*, 즉 포기한 선택지가 상호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은 인간행동의 인지 가능한 부분(예를 들어, 관측된 행동)과 다른 관측된 사건들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 점에서 주류 경제학, 실증주의 등이 모두 틀린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 즉 선택에 의한 행동과 그 대신에 존재했을 수도 있었던 것을 비교함으로써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설명한다.

휠즈만은 경제학에서 경제법칙이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일 뿐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방법론적 관점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인간행동을 과학적 법칙이 되게 하는 것은 인간행동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휠즈만은 그런 주장을 펼친 논문의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끝말을 맺고 있다. 즉 “인간행동의 법칙들은 오직 인간행동 내부에서만 존재한다. 그 법칙들은 관찰된 행동을 관측할 수 없는 선택지들 *unobservable choice alternatives*과 연결하는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이고 선험적 법칙들이다.”(Hülsmann, 2003b, p. 97)

휠즈만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이 경제법칙들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한다. 경제법칙들에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이 아니면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다루고자 한다. 다만 휠즈만은 그가 말하는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이 전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경제법칙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법칙들의 대종이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본질을 가진 것임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현재의 논문[2003년에 발표한 논문을 말함]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이 전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경제법칙들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경제법칙들의 대종이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본질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한다.”(Hülsmann, 2003, p. 73, footnote no. 19)

앞 절에서 미제스가 목적론적 관점에서 인간행동의 법칙성을 설명했음을 알았다. 휠즈만은 인간행동의 포기한 선택지와 인간행동이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관계를 가진 것으로 그 관계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임을 설명했다. 휠즈만의 공헌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관계가 경제법칙으로서 당당히 성립함을 보인 것이다. 결국 미제스와 휠즈만은 행동의 서로 다른 측면을 이용하여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이 법칙이 될 뿐 아니라 선형적임을 증명했다.

2. 엄밀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

휠즈만에 의하면, 두 가지 종류의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이 있다. 하나는 인간행동을 인과 관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엄밀한^{exact} 경우이다. 즉 인간행동의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의 본질이 분명한 경우로서, 인간행동의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이 정말로 존재하고 엄밀할 뿐 아니라 보편적으로^{universally} 유효하다는 것이다. 휠즈만은 이것을 ‘엄밀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exact counterfactual laws}’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원인들이 인간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개연성^{probable}만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인과 관계는 언제나 유효한 것이 아니라 경향^{tendency}을 가진 것을 말한다. 휠즈만은 이것을 ‘경우-확률적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 *case-probable counterfactual laws*’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엄밀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을 먼저 보기로 한다.

엄밀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의 몇 가지 사례를 보기로 한다. 물론 아래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예는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의 일부일 뿐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내용은 Hülsmann(2003b)의 논문 72-73쪽에 포함된 내용을 인용했음을 밝혀둔다.

- 사람은 그가 선택한 행동의 진로가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행동의 진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잘못된 투자 결정은 투자 자원의 소유자의 복지를 투자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도달할 복지 수준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한다.
- 개인들 간의 분업은 자급자족적 생산보다는 개인당 물질적으로 더 생산적이다. 시장 교환은 교환 당사자들에게 이득을 주는데, 왜냐하면 적어도 교환이 일어날 때 당사자들 각자는 그 교환을 행동의 다른 진로보다 선호하기 때문이다.
- 저축의 증가는 미래의 소비를 더 높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런 추가적인 저축이 없었다면 가능했을 미래의 소비와 비교하여 말이다.
- 저축의 증가는 현재의 소비를 감소하게 하는데, 저축의 증가가 없었다면 도달할 소비 수준과 비교하여 말이다.
- 정부 프로젝트들(어떤 한 산업에서의 프로젝트들을 말함은 그 산업을 제외한 모든 다른 산업에 이용 가능한 자본의 양을 감소하게 한다. 그 결과 정부 프로젝트들이 없다면 도달할 임금을 *wage rate* 수

준에 비하여 그 다른 산업에서 획득 가능한 임금을 그 수준 아래로 떨어뜨린다.

- 화폐량의 증가 또는 감소는 국가의 부의 수준을 그런 일이 없었다면 도달했을 수준 이상으로 증대하게 만들지 않고, 화폐량의 증가 또는 감소는 국가의 부의 수준을 그런 일이 없었다면 도달했을 수준 이하로 감소하게 만들지 않는다.³³

이제 엄밀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의 의미를 점검해보기로 한다. 첫째, 엄밀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의 존재는 경제과학이 본질적으로 부정확^{inexact}하다는 Hausman(1992) 등의 주장을 반박한다.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의 존재와 그 정확성을 부인하는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부정하는 것이다. 즉 인간 존재는 선택하고, 선택은 다른 선택지들을 내포하며, 그 선택이 물리적으로 유한한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둘째,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의 모든 요소들은 실재적이다. 이 때 실재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허구적^{fictitious}’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이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의 선택지는 사실이 되고 선택하지 않는 모든 다른 선택지는 ‘반사실적 사실’이 된다. 즉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의 모든 요소는 실재적이다. 다만 반사실적 사실은 행동에서 선택한 선택지라는 사실과 다른 종류의 사실일 뿐이다.

셋째,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은 선행적 법칙들이고 선행적 법칙들은 본질적으로 관측치들로 증명하거나 반박할 수 없다. 인간행동의 비가시적인 부분인 반사실적 사실은 행동 또는 선택이라는 사실, 즉 경험보다는 언제나 앞서는 것이다. 여기에서 앞선다는 것은 시간적

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은 선험적이고 바로 그 이유로 경험에 의해 증명하거나 반박할 수 없다. 이러한 선험성은 ‘5장 행동의 목적과 선험주의’에서 언급한 선험성과 동일한 의미이다.

넷째, 휠즈만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을 공통의 ‘한정사 *qualifier*’ 없이 제시했다. 즉 휠즈만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차라리, 우리는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을 어떤 다른 요소들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 절대적인 것으로 제시했다.”(Hülsmann, 2003b, p. 74) 경제 분석에서 어떤 한 가지 선택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할 때, 경제에 영향을 주는 모든 다른 요인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경제학에서 우리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또는 ‘세트리스 페리버스 *ceteris paribus*’라는 한정사를 통상적으로 사용한다.³⁴ 그러나 휠즈만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을 서술함에 있어서 그런 한정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휠즈만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문제가 되는 요소를 제외한 다른 요소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그 변화가 사건들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동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알아야 한다는 점도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에는 상관이 없다.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든 앞에서 서술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휠즈만은 앞에서 서술한 다른 조건들의 변화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경제법칙들의 유효성과 응용성 *applicability*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휠즈만의 주장과 달리 기존의 세트리스 페리버스라는 한정사는 아니지만 변형된 형태의 세트리스 페리

버스라는 조항이 필요하다라는 반박 또는 논평이 있다. 이 점은 이 장의 '8절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 방법에 대한 비판'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1인당으로 계산하여 분업이 자급자족적 생산보다는 물리적으로 생산적이라는, 엄밀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경제법칙을 앞에서 제시했다. 사회의 특징적 구조, 세제 tax system, 자본의 축적 수준, 기후 등을 포함한 모든 다른 요소와 관계없이 그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은 유효하다. 더 구체적으로 응용해보면, 사회가 왕조 국가이든 민주주의 국가이든 상관없이 분업은 자급자족보다 물리적으로 생산적이다.

그러므로 휠즈만은 다음과 같이 종합한다. “행동의 조건들과 상관없이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시간의 경과 속에서 어떻게 변하는가와 상관없이,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은 존재한다. 그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조항으로 경제법칙들을 한정하는 대신에 누구나 ‘그렇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than otherwise’라는 표현을 붙임으로써 경제법칙들의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본질을 그저 명확히 해야 한다.”(Hülsmann, 2003b, p. 75)

다섯째,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은 현실 세계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수량적 서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킬로그램의 쌀이 있는데 그중 2킬로그램으로 떡을 만든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그렇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2킬로그램의 떡을 가지게 되었고 쌀은 2킬로그램이 줄어들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인간행동의 수량적 영향에 대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을 발견할 수 있다.

여섯째,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은 선택이 초래할 수량적 효과의 방향을 보여준다. 앞의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에서 정부 프로

젝트에 대한 서술을 보자. 여기에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경제법칙들은 어떤 선택의 정확한 수량적 효과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다만 어떤 선택이 초래할 수량적 효과의 방향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생산물을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생산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또는 ‘더 높이’ 또는 ‘더 낮게’ 등과 같은 표현으로 어떤 인간이 취한 선택의 수량적 효과의 방향을 보여준다.

일곱째, 현실에서 두 개 이상의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 또는 경제법칙들은 그 효과가 총합되는 **summing up** 것이 아니라 각각의 효과가 추가-additivity된다. 예를 들어보자. 노트북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수요의 증가라는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수요의 증가는 수요의 증가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더 높은 가격을 초래하고 기술의 발전은 기술의 발전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을 초래한다. 이 경우에 각각의 효과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측된 가격이 변화되기 이전에 비해 더 높을 것인지 또는 더 낮을 것인지를,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은 유효하고 정확하다. 그러나 이것을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이 결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법칙에 관한 수량적 지식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둘째, 사회적인 문제의 결정에 있어서 정책이 초래할 변화의 방향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은 정책이 초래할 변화의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이 같다면, 세율을 올리면 저축이 감소한다는 것을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경제법칙은 가르쳐준다. 셋째,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경제

법칙들이 예측하는 결과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유효하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미제스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일어날 결과를 예로 들어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화폐 관계에서 각 변화는 그 자신의 코스를 가고 그 자신의 독특한 효과들을 만들어낸다. 만약 인플레이션적 움직임과 디플레이션적 움직임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또는 시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디플레이션이 그 뒤에 발생한 결과로 최종 가격들이 그렇게 많이 변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움직임(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말함)의 각각이 초래할 사회적 결과는 상쇄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초래할 사회적 결과에 디플레이션이 초래할 사회적 결과가 추가된다.”(Mises, 1996, pp. 417-418)

3. ‘경우-확률적’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

이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에서 두 번째 종류인 ‘경우-확률적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을 다루기로 한다. 이 법칙들은 인간의 행위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현실 간의 관계가 정확한 것이 아니라 개연성 또는 경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일명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경향(counterfactual tendency)’이라고 부를 수 있다.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경향을 가지는 법칙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아래의 내용은 Hülsmann(2003b)의 논문 76쪽에 포함된 내용을 인용했음을 밝혀둔다.

-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이러한 증가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재화에 대한 시장 가격을 더 높게 만든다.³⁵

- 어떤 재화의 더 많은 공급은 그 재화의 시장 가격을 그런 증가가 없다면 도달할 수준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한다.
- 조세의 징수는 세금납부자를 그렇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더 현재 지향적 **present-oriented**으로 만든다.
- 화폐량의 증가는 그렇지 않았을 때에 형성될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더 높은 시장 가격을 초래한다.

마지막 예제를 이용하여 상기의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관계가 왜 경향만을 가지게 되는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추가된 화폐 또는 증가된 화폐는 화폐 보유자들의 입장에서는 화폐의 한계가치를 떨어뜨린다. 화폐 보유자들은 화폐량의 증가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더 많은 화폐를 소비하고자 한다.³⁶ 다른 한편, 화폐를 사고자 하는 쪽에서는 재화 또는 재산을 팔아서 그 대가로 화폐를 사고자 하는 경우에 화폐량의 증가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화폐를 적게 사고자 한다. 왜냐하면 화폐 공급의 증가 이전과 비교하여 이제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앞에서 서술한 두 가지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어느 한 가지 경우만 발생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나 재화들의 교환에서 지불되는 화폐 가격들 **money prices**은 상승할 것이다. 화폐량의 증가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 관계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엄밀한 것이 아니다. 즉, 그 인과 관계가 언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화폐량의 증가가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화폐량의 증가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화폐 보유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화폐를 소비 또는 지출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른 한편, 화폐를 사고자 하는 쪽에서는 재화 또는 재산을 팔아서 그 대가로 화폐를 사고자 하는 경우에 화폐

량의 증가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화폐를 적게 사고자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경향은 언제나 발생하는 정확한 관계가 아니고 하나의 경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경향은 인간행동의 정확한 결정 관계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인간 행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소에 관한 지식을 제공한다. 엄밀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과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경향의 차이는 바로 이 점이다. 물론 인간행동에 관한 이러한 지식은 결점이 있는 것이다. 화폐의 예제를 이용하여 이 점을 설명해본다. 화폐량의 증가는 화폐 가격들을 상승하게 하는 경향을 가진다. 그러나 화폐량의 증가가 화폐 가격들을 상승하게 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는 것은 다른 조건들에 달려 있게 된다. 이때 다른 조건들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화폐량이 증가될 당시에 각 개인의 가치척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각 개인의 가치척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4.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의 실재론적 기초와 필요성

먼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의 실재론적 기초를 보기로 한다. 휠즈만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이 실재 세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의존하고 있는 기초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초적인 사실들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들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실체들 **entities**은 이질적이다 **heterogeneous**. 둘째, 이 실체들은 유한하다 **finite**. 셋째, 그 실체들은 선택을 통해 이질적이고 유한한 대안적 실체들 **alternative entities**과 반사실적 조건

으로 된 관계에 있다.

인간은 선택 시에 환경에 직면한다. 그는 그 환경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 환경에 적응하기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쓰나미가 연안을 휩쓸 때 그는 쓰나미를 피해야 한다.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는 생존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미래에 발생할 쓰나미에 대비하여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쓰나미를 차단할 수 있다.

인간이 직면하는 환경이란 언제나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그 환경이 인간의 어떤 행동을 성공하게 하고 다른 행동은 성공하지 못하게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집에서 책을 읽는다면 음악 연주회에 갈 수 없다. 반대로 그가 음악 연주회에 가면 집에서 책을 읽을 수 없다. 즉 현실 세계에서는 현재의 조건이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없게 한다. 이런 상황은 인간이 직면하는 어떤 환경 조건에도 옳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은 제한되어 있는 것, 즉 유한하기 때문이다.

자연적인 사건이 인간이 직면하는 환경을 바꾼다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 봄에 비가 내린다면 야외에서 축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봄비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의 행위가 행동의 조건, 즉 환경을 바꾸는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어떤 강의 상류에 다목적 댐을 건설한다고 하자. 다목적 댐의 건설로 그 댐을 건설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많은 전기와 농업 용수를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다목적 댐의 건설은 그 다목적 댐의 건설을 위한 생산요소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재화의 생산을 줄어든게 할 것이다. 다목적 댐의 건설이 없었을 때와 비교하여 생산요소들이 다른 재화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행동의 조건들이 인간의 선택으로 수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행동의 조건들의 변화의 의미를 분석하는 경우에, 어떤 변화가 가능
 한가 하는 것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면 그 변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날 변화를 무시할 수 있다. 이제 힐즈만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
 석이 법칙이 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각각의 선택은 행동
 을 위해 하나의 새로운 우주를 개방하고 동시에 반드시 다른 우주를 제
 외한다. 바로 이 사실로 인하여 두 우주(개방된 우주와 제외된 우주)는 상호
 선택적으로 관계가 된 것이다. 그리고 두 우주는 유한한 실체들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우주의 차이들도 또한 오로지 유한해질 수 있
 다. 그 결과 그 두 우주의 관계를 지배하는 식별 가능한 법칙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관계란 우리가 인간행동의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
 칩들로 알아왔던 것이다.”(Hülsmann, 2003b, p. 86)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의 실재론적 기
 초를 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절의 서두에서 반사실적 조건으
 로 된 분석의 실재론적인 기초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입증했다는
 것이다. 위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실체는 유한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실체들이 유한하기 때문에 대안적 실체들도 유한하다. 실체
 와 대안적 실체가 이질적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실체와 대안적 실체
 들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관계에 있음은 앞에서 증명했다.

그런데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에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은
 관측 가능한 사건들을 선택적이고 인과론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
 러한 인과론적 설명은 자연과학에서의 인과론적 설명과는 다른 것이
 다. 경제학에서의 인과성과 자연과학에서의 인과성을 비교하는 일은
 다음 절에서 하고자 한다.

이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본다.

첫째, 현실의 실제 삶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비교 *counterfactual comparison*’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어떤 기업가가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그 경우에 그 기업가는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과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순수익을 비교하여 노동자를 고용할 것인가 또는 다른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기업가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비교에 의존해야 한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은 모든 다른 선택지들 *all other alternatives* – 이것이 포기한 선택지들임 – 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학을 제외한 모든 다른 학문에서도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비교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법학, 자연과학 등에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비교를 한다. 휠즈만은 독일 법학자들의 법률에서의 인과성이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관계임을 몇 가지 문헌으로 입증하고 있다.³⁷ 자연과학에서는 실험의 전제조건이 변화가 없었다면 관측되는 효과가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셋째,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을 제외하고 인간행동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경제법칙들은 두 가지 관계를 이용하여 성립될 수 있다. 하나는 경제법칙들이 현실과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사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경우에 경제법칙들은 엄밀하고 명백히 진리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법칙들이 현실을 다른 인지 가능한 사물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인간행동과학은 엄밀하고 명백한 진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점은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방법론을 설명할 때 이미 지적하였다. 현실에서 많은 경우에 경제학자들이 경제법칙들을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인과성 *counterfactual*

causality'으로 서술한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법칙들을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인과성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휠즈만은 주류 경제학자들 중에는 Hicks(1979)가 미흡하지만 그 점을 인식했다고 지적한다.³⁸ 오스트리아학파의 전통을 추종하는 연구자들이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인과성을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 경우는 아래에서 다루고자 한다.

넷째, 경제학을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으로 취급하는 것이 실제적인 관련성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을 함으로써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어떤 행동의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정부의 재정지출로 실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을 자주 볼 수 있다. 주로 주류 경제학자들이 그런 제안을 한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를 포함한, 경제학이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로 이루어진 과학이라는 입장을 가진 경제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그렇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어떤 산업(들)에는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지만 다른 산업(들)에는 필연적으로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든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개인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그렇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사회 내의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득의 증가를 초래하지만 사회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득의 감소를 초래한다. 두 경우를 종합하면, 정부의 재정지출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할 뿐이고 일자리나 소득을 창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권장하는 오늘날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재정정책의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경제현상을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관계로 분석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인간의 경제적 선택과 관련되어 있다. 휠즈만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요컨대, 그것[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을 말함]은 실재의 인간의 삶^{real human life}을 지배하는 원칙이다.”(Hülsmann, 2003b, p. 89)

5. 경제학의 인과성과 자연과학의 인과성

앞에서 경제학의 인과성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경제학의 인과성과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의 인과성을 이제 비교할 수 있다.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에서는 ‘결과론적 법칙들’을 찾는 것이다. 이때의 인과성이란 두 번째 현상이 언제나 첫 번째 현상의 뒤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바람의 세기가 임계점 – 여기에서 임계점이란 사과가 꼭지가 견딜 수 있는 힘의 세기를 말함 – 을 넘으면 사과는 언제나 떨어진다. 바람의 세기가 임계점을 넘는 것이 첫 번째 현상이다. 두 번째 현상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시간적으로는 바람이 일정한 강도에 이르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은 자연과학들의 결과론적 법칙들처럼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경제학의 법칙들은 결과론적 법칙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중앙은행이 일정 시점에 통화 공급을 100퍼센트 증가시킨다고 가정하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물가수준^{price level}으로 측정된 물가상승은 100퍼센트 증가할 수도 있고, 50퍼센트 증가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10퍼센트 감소할 수

도 있다.³⁹ 현실에서 물가상승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세 가지 경우만 예로 들어본 것이다. 이 예제는 통화공급의 변동은 물가수준의 변동을 초래하지만 관련된 현상들의 결과, 즉 물가수준의 상승을 언제나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경제법칙들은 결과론적 법칙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역사적 에피소드를 사용하여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의 인과성의 의미를 설명해보자. 미국 대공황의 사례를 이용하기로 한다.⁴⁰ 1929년 10월 말경에 주식시장이 대폭락하기 이전 몇 년 동안 미국연방은행은 연방기준금리를 낮추어 통화공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주식시장 대폭락 이전의 소비자 물가는 연율로 1926년 2.2퍼센트 하락, 1927년 1.1퍼센트 하락, 1928년 1.2퍼센트 하락했다. 주식시장 대폭락 이후의 소비자 물가는 연율로 1929년 11월부터 1930년 11월까지 5.2퍼센트 하락, 1930년 11월부터 1931년 11월까지 10.4퍼센트 하락, 1931년 11월부터 1932년 11월까지 10.2퍼센트 하락했다. 1933년 3월에 물가는 최저점을 찍고 곧바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주식시장 대폭락 이전 몇 년 동안 소비자 물가가 하락한 것은 통화공급의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지만 기술 진보에 따르는 생산성의 증가 등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디플레이션에 의한 영향이 인플레이션에 의한 영향보다 컸기 때문이다. 주식시장 대폭락 이후의 소비자 물가의 하락은 연방준비은행에 의한 화폐 공급의 증가(물가 상승 요인), 민간은행의 신용 축소에 의한 화폐 공급 감소(물가 하락 요인), 민간의 화폐 수요의 증가(물가 하락 요인) 등이 동시에 영향을 미쳐서 나온 결과이다.

이 점을 휠즈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요약컨대, 화폐 공급의

변동^{variation}은 물가수준의 변동을 야기한다. 그러나 여기에 관련된 현상들의 결과(물가수준의 변동을 말함)는 없다. 오히려, 화폐 공급의 변동은 시장에서 관찰되는 것으로서의 화폐 가격들과 화폐 공급의 변동이 없을 때에 존재했었을 가격들 간의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관계의 원인이다.”(Hülsmann, 2003b, p. 86)

휠즈만의 설명을 대공황 에피소드에 적용하여 다시 설명해보자. 대공황 이전 몇 년 동안 화폐의 공급 증가가 있었지만 물가수준의 상승이라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로 물가수준은 오히려 하락했다. 자연과학의 결과론적 법칙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공황을 전후한 화폐 공급의 증가는 당시의 실제 물가수준(실제로 하락하고 있었음)과 당시의 실제 물가수준보다 더 하락했었을 물가수준(비록 수치화할 수 없지만 화폐 공급의 증가가 없었다면 물가수준은 실제 물가수준보다 더 하락했을 것임) 간의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관계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경제학에서의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인과성은 결과론적 법칙을 찾고자 하는 실증주의자를 곤경에 처하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인과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실증주의는 경제학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인과성이 자연과학들의 결과론적 인과성과 다른 종류라면 어떤 인과성 이론(theory of causality)과 정합하는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인과성은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Aquinas) 등이 제시했던 ‘인과성의 고전 이론(classical theory of causality)’에 아주 잘 맞는 것이다. 토머스 아퀴나스는 그의 저술에서 인과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다른 것들이 그들의 존재나 전화를 의존하는 것들이 세칭 원인들이다.”(St. Thomas Aquinas, 1963, book 1, lecture 1, nr. 5) 여기에서 아퀴나스 등이 정의한 인과성은 자연과학의 인과성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아퀴

나스 등이 제시한 인과성을 우리의 예에 적용하여 보면, 화폐 공급의 변동이 현실에서 관측된 가격들과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가격들(counterfactual prices) 간의 관계가 의존하는 것으로서, 소위 원인이다.

6. 사고 실험의 문제점

휠즈만은 경제법칙들이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이라는 관점에서 휠즈만 이전의 오스트리아학파의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관점을 반박한다. 그 관점이란 경제적 추론이 ‘사고 실험’이라는 방법을 통해 인간행동의 법칙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고 실험이란 ‘Gedankenexperimente’ 또는 ‘mental experiments’라고 불리는 것이다.

먼저 미제스가 사고 실험이라는 방법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한 내용을 통해 사고 실험이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즉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외하고는 행동이라는 복잡한 현상들을 연구할 방법은 없다. 먼저 변화를 전적으로 제거하고, 그다음에 변화를 초래하는 독립적인 요소를 도입하며, 최종적으로는 다른 것들이 일정하다는 가정 아래에서 그 요소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Mises, 1996, p. 248) 사고 실험을 다시 한 번 설명해보자. 먼저 어떤 변화도 없는 상태를 분석한다. 그다음에 여건들 중에서 한 가지 요소만을 변화하게 한다. 그리고 그 요소만의 변화가 가져올 효과를 분석한다.

그러나 휠즈만은 미제스가 말한 사고 실험을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미제스는 사고 실험만이 변화의 효과를 분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휠즈만이 주장하는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으로 변화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즉 사고 실험만이 변화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미제스의 주장은 틀린 것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고 실험이라는 방법이 휠즈만이 제안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 방법에 대한 대안적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제스가 말한 사고 실험은 자연과학의 실험들과 같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비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자연과학 실험에서의 기초적인 가정은 관찰된 원인이 없으면 관찰된 효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관찰에 기초하지 않는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가정 *counterfactual assumption*’이다. 이와 유사한 가정이 사고 실험에도 있다. 사고 실험에서의 기초적인 가정은 모든 다른 조건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의 한 가지 조건만 변화하는 경우에 문제의 법칙의 작동이 관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미제스가 제안한 사고 실험도 암묵적으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비교를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미제스의 사고 실험 방법이 휠즈만이 제안하는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방법보다 열등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제스의 사고 실험에서 여건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은 비실재적 가정일 뿐 아니라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 방법보다 가정이 더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방법의 실재성과 오컴의 면도날 *Occam's razor*이라는 원리에 비추어보면 휠즈만이 제시하는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방법이 미제스가 제안한 사고 실험보다는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기로 한다. ‘다른 일이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에서, 사고 실험을 통해서 어떤 변화의 모든 효과 또는 일부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가? 다시 말하면, 사고 실험을 하는 것이 있을

법한 일인가 하는 것이다. 다른 일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어떤 하나의 변화의 효과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1차적인 효과의 영향으로 2차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두 효과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가? 만약 두 효과가 상쇄된다면 순효과^{net effect}를 식별할 수 있는가? 자연과학에서 인간과 같은 의지가 없는 물체의 움직임과 인간의 선택 행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 행위에서 앞에서 제기한 의문에서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추가적인 의문은 최초의 변화의 효과를 어디까지 분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최초의 변화는 그 변화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미래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그 영향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최초의 변화가 물고 온 모든 결과를 분석한다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하다.

화폐의 수량 이론^{quantity theory of money}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보기로 한다. 화폐 수량의 증가는 화폐로 표시한 재화의 가격들의 상승을 초래하지만 화폐로 표시한 재화의 가격들이 화폐 수량의 증가에 언제나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화폐 수량의 증가가 화폐로 표시한 재화의 가격들의 상승을 초래한다는 것은 화폐와 관련한 경제법칙이다. 사고 실험에 의해 이 법칙이 만들어지는가? 미테스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화폐 수량의 증가가 그 증가 이후에 전체 경제 제도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지 않았다. 그들은 데이비드 흄^{David Hume}의 방법을 따랐다. 흄이 한 방법이란 두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다. 두 상태란 두 시점의 화폐 사용량과 두 시점의 물가수준을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물가수준의 상승을 가져온 것은 화폐 수량의 증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퍼티시오우 프린시피아^{petitio principii}’이다. 퍼티시오우 프린시피아이란 논

증을 필요로 하는 논쟁점을 이미 논증된 것으로 전제하는 오류 또는 허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미제스 이전의 연구자들의 화폐의 수량 이론은 논쟁점을 논증된 것으로 전제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미제스는 화폐의 수량 이론을 처음으로 정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했다.⁴¹ 화폐 수량이 증가한다고 하자. 그러면 처음으로 증가된 화폐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 있게 된다. 화폐 잔고가 증대된 사람들은 이제 화폐의 한계 효용이 감소하고 그 결과로 화폐 잔고가 증대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더 많은 화폐를 사용(지출)한다. 이러한 지출의 증가는 다른 사람들의 화폐 잔고를 증대하게 만들고 다시 화폐 잔고가 증대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그 사람들의 화폐 사용(지출)을 늘리게 만든다. 화폐 수량이 증대하였다고 실물 부문에서 재화들의 양이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의 증대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하여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대부분의 재화들의 화폐로 표시한 가격을 상승하게 만든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이때도 물론 일부의 재화의 가격은 내려갈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화폐 수량의 증가가 화폐 가격들의 상승을 초래한다는 경제이론을 입증하기 위하여 미제스는 자신이 제안한 사고 실험에 의존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고 실험을 경제이론들 또는 경제법칙들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휠즈만은 주장한다. 경제학에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방법이 사고 실험보다도 더 나은 방법임이 분명하다고 그는 주장한다. 사고 실험이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방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이제 사고 실험이라는 방법을 버릴 때가 된 것이라고 휠즈만은 주장한다.

7.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의 선구자들

비록 휠즈만이 방법론적 관점에서 경제법칙이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이라는 점을 최초로 정립한 연구자이지만 경제 분석에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는 휠즈만 이전에도 있었다. 여기에서는 휠즈만 이전의 오스트리아학파의 정신을 이어온 몇몇 연구자에 의해 실제로 사용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을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프랑스 경제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프레데릭 바스티아(Frederic Bastiat)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what is seen and what is not seen)’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에세이에서 ‘깨어진 유리창 에피소드(“broken window” episode)’를 이용하여 인간행동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간의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었다.⁴² 그는 인간이 하는 선택이 지닌 법칙들의 본질과 경제현상에 대한 설명의 논리적 본질을 이해했던 최초의 경제학자였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행위 또는 선택이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점에서 과학으로서의 경제과학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스티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휠즈만은 주장하고 있다.⁴³

그러나 주류 경제학에서 바스티아의 업적은 잊혀졌다.⁴⁴ 그 위치를 영국의 정치경제학자들, 예를 들어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등이 차지했다. 경제학에 있어서도 그들이 주류가 되었다. 그들은 선택의 보이지 않는 결과를 장기적인 결과로서 해석했다. 영국의 정치경제학자들에 의하면 장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결과가 아닌 것이다. 이후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해왔다. 그러나

진실은 인간의 행위 또는 선택이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관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점은 경제현상을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하다. 선택의 결과가 장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과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 효과 면에서 매우 다를 여지가 있다. 그와 함께 방법론에 있어서 실증주의가 지배적이 되었다.⁴⁵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실제로 미제스만이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점은 특히 미제스가 정치경제 *political economy*와 관련한 문제를 분석할 때 분명히 드러난다. 미제스는 간섭주의를 분석할 때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간섭은 사회 당국(국가 기관 또는 공공 기관을 말함)에 의해 생산수단의 소유자들과 기업가들이 그들의 수단을 그렇지 않았다면(즉, 간섭이 없는 상태를 말함) 사용할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제한된 질서이다.”(Mises, 2011, p. 4) 정부의 경제 행위에 대한 간섭주의를 분석함에 있어서 미제스는 간섭주의의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영향 *counterfactual impact*을 설명했다. 정부의 간섭이 없을 때 일어날 결과, 즉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결과와 비교하여 간섭이 있을 때 일어날 결과를 서술했다.

미제스는 그의 대작, *Human Action*에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다. 특히 미제스가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간섭을 토론할 때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많은 주장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제스는 정부가 가격을 고정하는 경우에 그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되는 가격과 다르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제스는 또한 노동조합은 자유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끌어올린다고 설명한다. 정부의 간섭에 의해 이자율이 결정되는 경우에

시장 이자율과 신용의 배분이나 경기변동의 관계에 대해서도 미제스는 유사한 분석을 하고 있다. 불행한 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미제스가 경제학의 방법론과 인식론에 있어서 개척자이자 선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미제스가 그의 사고 체계에서 실증주의의 영향이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고 휠즈만은 지적한다. 그리고 이 점은 아래에서 보겠지만 그의 주요 계승자 중의 한 명이었던 라스바드의 저작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면 미제스 다음으로 미국에서 오스트리아학파를 이끌었고 미제스의 수제자였던 라스바드는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에 대해 어떤 기여를 했는가? 그는 분명 방법론에 대해 저작을 남겼다.⁴⁶ 그러나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의 존재에 대해 어떤 단서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바드는 경제분석에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는 대작 *Man, Economy, and State*에서 경제현상을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로 설명하고 있다. 그가 경기변동을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으로 설명하는 내용의 일부를 인용해보기로 한다. 라스바드는 “요점은 신용확대가 자유시장에서 결정될 가격들 이상으로 가격들을 끌어올린다는 것이고 그 결과 경기변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와 유사하게, 신용확대는 이전에 기록했던 이자율 이하로 이자율을 반드시 낮추지는 않는다. 신용확대는 자유시장에서 결정될 이자율 이하로 이자율을 낮추고 그 결과 신용확대는 왜곡과 과오투자를 만들어낸다.”(Rothbard, 1993, p. 862)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제스, 라스바드 등과 같은 오스트리아학파의 연구자

들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관계나 법칙을 이용하여 현실의 경제현상을 분석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았듯이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이나 법칙은 현실의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학자로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이나 법칙을 이해했지만 방법론자로서 그 분석이나 법칙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8.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 방법에 대한 비판

앞 절에서 휠즈만은 세트리스 페리버스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을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하이는 휠즈만이 제시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 방법이 방법론으로서 중요한 공헌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마하이는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들에 기존의 세트리스 페리버스 조항을 소프트하게만 들어 추가함으로써 경제법칙들의 정확성을 증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는 마하이가 사용한 경제법칙, 즉 징세(taxation)가 자본의 축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이론을 예로 이용하여 그의 주장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세트리스 페리버스 조항을 사용하여 경제법칙을 서술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경제학자가 징세와 자본 축적에 관한 경제법칙을 서술한다고 가정하자. 자본의 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하나가 아니다. 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에 징세를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징세만이 자본의 축적에 미치는 영

향을 서술하고자 한다. 이때 경제학자는 세트리스 페리버스라는 전제하에 징세의 증가는 자본축적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경제법칙을 서술한다. 자본의 크기가 A, B, C, D, T라는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자.

$$K = f(A, B, C, D, T) \text{ —— 등식 (1)}^{47}$$

위 등식 (1)에서 K는 자본의 크기, A, B, C, D는 자본의 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징세를 제외한 요인들, T는 세금의 크기를 보여주는 요인이다. 여기에서 징세와 자본 축적의 관계에 대한 경제법칙은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즉 세트리스 페리버스라는 전제하에 징세의 증가는 사적^{private} 자본량의 감소를 초래한다. 또는 모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징세의 증가는 사적 자본량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세트리스 페리버스 규칙을 이용한 전통적인 경제법칙의 서술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방금 서술한 경제법칙은 등식 (2)로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다.

$$K \downarrow = f(A, B, C, D, T \uparrow), (\text{다른 요인들, 즉 } A, B, C, D \text{는 일정}) \text{ —— 등식 (2)}$$

이때 우리가 사용한 세트리스 페리버스 조항을 ‘강한^{hard}’ 또는 ‘좁은^{narrow}’ 세트리스 페리버스 조항이라고 지칭하자. 강한 세트리스 페리버스 조항을 이용하는 접근법의 문제점을 보기로 한다. “만약 세금이 증가하고 모든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자본의 양은 작아질 것”이라는 경제법칙은 만약 다른 조건들이 변하지 않을 때 또는 실재 또는 현실에서 서술한 조건들이 만족될 때만이 실재 또는 현실을 언급하게 되는 것

이다. 모든 조건들이 동일하다는 것, 위의 예에서 다른 요인들, 즉 A, B, C, D가 본래대로라면 intact 우리가 서술한 경제법칙은 응용의 범위가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실재 또는 현실에서 A, B, C, D 중의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것이 변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 점을 마하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일단 다른 조건들이 변하면 이런 특별 형태의 법칙은 우리에게 징세의 증대가 자본 축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다.”(Machaj, 2012, p. 447)

이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경제법칙의 한계를 보기로 한다. 상기의 예를 세트리스 페리버스 조항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휠즈만이 말한 반사실적 조건으로 서술해보자. 즉 “징세의 증대는 만약 그렇지 않았던 경우와 비교하여 축적된 자본의 감소를 초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기로 한다. 세금도 증대하지만 다른 조건들도 다음과 같이 변한다고 가정하자. A, C, D 등의 요인들은 증대하고 B는 감소한다고 가정하자. 반사실적 조건문으로 된 서술에서는 세트리스 페리버스 조항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의 영향에 대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서술은 다음과 같이 등식 (3)으로 표현할 수 있다.

$$K \downarrow = f(A \uparrow, B \downarrow, C \uparrow, D \uparrow, T \uparrow) \text{ —— 등식 (3)}$$

문제는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접근법이 세트리스 페리버스 조항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점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위 등식에서는 다른 요인들인 A, B, C, D 등의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서술에는 다른 요인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

해 서술할 여지가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만약 그렇지 않았던 경우와 비교하여 *otherwise would have been the case*”라는 문구 뒤에 감추어 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서술이 가진 진정한 문제는 아래의 등식(4)에서 의문부호 뒤에 감춰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요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다.

$$K = f(A?, B?, C?, D?, T \uparrow) \text{ —— 등식 (4)}$$

이 결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요인들인 A, B, C, D 등이 위의 등식(3)에서처럼 현실에서 움직인 것과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즉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서술에 세트리스 페리버스 조항을 동시에 사용하되, 모든 다른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조건들이 현실에서 움직인 방향대로 변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에 이렇게 세트리스 페리버스 조항을 보완함으로써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접근법의 결점을 없애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접근법은 세트리스 페리버스 가정보다 더 넓은 가정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제 소프트 버전의 세트리스 페리버스 조항으로 보완하여 과세가 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서술을 한 경우와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서술을 사용하지 않고 하드 버전의 세트리스 페리버스 조항을 사용한 경우를 비교해보자. 먼저 마하이는 소프트 버전의 세트리스 페리버스 조항으로 보완하여 과세에 대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서술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과세의 증대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되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더 적은 양의

사적 자본(private capital)을 초래한다. 만약 대안적 시나리오에서 해당 인과 과정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이 실제 시나리오에서처럼 동일한 방향으로 변했다고 가정한다면 말이다.”(Machaj, 2012, p. 451) 마하이는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서술을 사용하지 않고 하드 버전의 세트리스 페리버스 조항을 사용한 경우를 제시한다. “과세의 증대는 감소된 양의 사적 자본을 초래한다. 만약 해당 인과 과정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이 언제나 동일했고 그런 안정적인 조건들 아래에서 내생적으로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말이다.”(Machaj, 2012, p. 451)

앞에서 인용한 두 문장을 보면 전자, 즉 소프트 버전의 세트리스 페리버스 조항을 고려하여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서술을 한 경우가 후자, 즉 반사실적 조건을 사용하지 않고 예전의 하드 버전의 세트리스 페리버스 조항을 이용한 서술보다 더 나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소프트한 세트리스 페리버스 원칙, 즉 대안적 시나리오들에서 통제된 변수들의 움직임에 대한 가정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틀이 작동하도록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반사실적 조건은 역사적 추측(historical speculation)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

9. 요약과 결론

휠즈만은 선택으로 나타나는 행동에는 비가시적이지만 포기한 선택지가 언제나 실재하기 때문에 그 둘의 관계는 법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두 관계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관계 또는 법칙이다. 방법론으로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관계 또는 법칙은 휠즈만이 처음 제안

하고 주장한 것이다. 비록 이전의 연구자들이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관계를 이용하여 경제현상을 설명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마하이는 휠즈만의 주장이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에 대해 휠즈만의 반론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없다. 필자가 보기에 마하이의 반론은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여기에서 휠즈만의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과 그에 대한 비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휠즈만의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 또는 법칙에 완화된 형태의 세트리스 페리버스 조항 –마하이는 ‘소프트 버전’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경제법칙들이나 분석을 실재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제 경제이론 연구자들은 소프트 버전의 세트리스 페리버스 조항으로 보강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이론 또는 법칙을 경제현상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마하이는 휠즈만의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 방법이 경제학 방법론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결론내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휠즈만은 경제학 방법론에 중요한 추가를 했다. (중략) 세트리스 페리버스 가정과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접근법은 떨어져 있는 지주들이 아니다. 세트리스 페리버스 가정 그 자체는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 접근법을 필요로 하고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분석은 세트리스 페리버스 가정의 소프트 버전을 필요로 한다(또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접근법을 지칭은 만화경같이 변화무쌍하고 우연적인 우주로 이끌 것이다).”(Machaj, 2012, p. 453)

균형 분석의 실재론적 접근

1. 서론

‘4장 3절 (3) 전통적 균형 분석 방법’에서 인간의 행동과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전통적인 균형 분석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제 휠즈만은 방법론적 관점에서 불완전하고 잘못된 전통적인 균형을 인간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실재적으로 *real* 만드는 시도를 했다. 여기에서는 그의 접근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휠즈만은 2000년에 발표한 “A Realist Approach to Equilibrium Analysis”라는 논문에서 균형 분석이 경제과학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도록 방법론적 관점에서 과학적 기초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균형 분석 방법의 문제점을 방법론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휠즈만은 균형

분석의 모든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는 사실적 요소 **factual element**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요소 **counterfactual element**를 현실적인 인간행동에서 찾음으로써 균형 분석을 전적으로 실재론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첫 번째 목적은 2000년에 발표된 휠즈만의 논문을 중심으로 균형 분석에 대한 실재론적 접근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이어서 우리는 휠즈만의 균형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적 함의와 정치적 함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부분에서의 두 번째 목적이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다른 연구자가 이미 유도한 것도 있다. 그러나 휠즈만의 균형 분석 방법을 기초로 분석적 함의와 정치적 함의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기존 연구자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도 유용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경제과학에서 균형 분석은 자주 사용되는 분석 방법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겠지만 분석 방법으로서 기존의 균형 분석은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경제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를 뿐 아니라 각종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제스가 사용했던 ‘항등순환경제 **evenly rotating economy**’라는 개념은 균형 분석이지만 비실재적인 것이다.⁴⁸ 여기에서 비실재적이란 항등순환경제가 현실 세계에서 대응물 **counterpart**이 없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미제스도 그가 사용했던 항등순환경제라는 개념이 ‘상상의 구조물 **imaginary construction**’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균형 분석이 문제점을 가지게 된 것은 미제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세 번째 목적은 지금까지 각 연구자들이 사용했던 균형 분석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넘어가지 전에 한 가지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휠즈만이 제안하는 균형 분석을 다른 균형 분석과 구분하기 위하

여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이라고 명명한다. 왜냐하면 그는 균형 분석을 방법론적으로 정밀하게 만들기 위하여 기존의 균형 분석과 달리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요소를 균형 분석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휠즈만의 균형 분석을 다른 균형 분석과 구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그렇게 부르기로 한다. 다만 균형 분석 일반을 지칭할 때는 그냥 균형 분석 또는 균형 경제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기존 균형 분석에 대한 비판

첫째, 전통적인 균형 분석 또는 균형 경제학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은 인간의 행동이 종종 균형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는 인간의 행동이 균형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균형 상태란 과오가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인간의 삶은 과오로 점철되기 때문이다. 물론 과오의 빈도와 정도는 개인에 따라서 또는 행동에 따라서 다르지만 말이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이 과오로 점철되어 있다는 지적은 옳지만, 이 지적이 균형 분석 자체를 논박하는 것은 아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선택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만약 우리의 어떤 행동이 실패했다는 점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실패한 행동과 비교할 ‘포기한 선택지’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우리가 포기한 선택지 또는 ‘포기한 성공 *forgone success*’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현실 세계의 과오를 과오로 인식할 수 없다.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앞의 경우와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어떤 행동 또는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이라는 사실

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포기한 선택지 또는 ‘포기한 실패 *forgone failure*’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점에서 균형 분석에서 실제 세계 또는 현실 세계가 균형에 도달한 것이냐 하는 의문 등은 균형 분석의 유용성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균형 분석은 성공과 실패로 이루어진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0세기 주류 경제학이 균형의 존재, 균형의 안정성을 위한 조건을 규명하는 일에 상당한 노력을 쏟은 것은 큰 의미가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⁴⁹ 이 점은 차후에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둘째, 균형 분석 방법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방법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법론으로서의 기초가 취약하다. 더 정확히는, 균형 분석을 위한 방법론적 기초를 정비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현상, 더 나아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일에 균형 분석을 응용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 균형 분석을 응용하는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방법론적 기초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균형 분석을 이용한 결과로 각종 균형 분석에는 문제가 내재되었다. 다만 우리가 그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셋째, 현재 경제학에서 각종 균형 분석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그 한계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균형 분석 방법의 기초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각종 균형 분석 방법의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각 연구자가 사용한 균형 분석 방법을 평가하고 그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을 아래에서 하고자 한다.

넷째, 방법으로서 균형 분석 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균형 경제학의 분석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과학에서 균형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3.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의 본질

2장과 4장에서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인간행동의 본질과 특성을 설명했다. 인간은 목적도 스스로 선택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스스로 선택한다. 문제는 인간이 모든 목적 또는 목표와 모든 수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인간이 어떤 특정 목적 또는 특정 수단을 선택한다면, 바로 그 선택 때문에 그 목적 또는 수단을 제외한 다른 목적 또는 다른 수단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포기한 목적 또는 수단은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다. 그 목적 또는 수단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포기한 목적 또는 수단이 인간이 선택한 목적 또는 수단에 대한 대가(또는 비용)이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선택 행위는 선택지라는 관점에서는 선택한 것과 포기한 것 또는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뉘어지고, 그 결과 선택한 선택지가 행동으로 나타난다.

인간이 목적과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경우일지라도 말이다. 그는 목적과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선택한다. 한 마디로, 인간의 행동은 가치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인간이 직면하는 다양한 선택지는 그 중요성이 모두 다르다. 동일한 인간이 동일한 선택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선택지라도 평가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다를 수 있다. 행동하는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선택지를 식별하고 선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선택지가 행동하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즉, 극단적으로, 어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지가 다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행동하는 인간은 타인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선택지를 평가하고 선택한다.

어떤 선택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치평가가 잣대라면 가치평가는 미래 지향적이고 그 결과로 투기적일 수밖에 없다.⁵⁰ 투자를 목적으로 주식을 사는 경우에 각 주식의 미래 가격(future price)을 추정하고 그 추정에 따라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를 선택한다. 미래 가격을 아무리 객관적으로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추정이고 추정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비록 주관적이지만 행위자는 자신이 판단하는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선택지 또는 프로젝트를 선택한다. 그러므로 사전적으로 인간의 선택은 언제나 ‘최적’이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인간의 선택은 최적일 수 없다. 사후적으로 인간은 과오를 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인간을 상상할 수 없다. 일상의 삶에서 인간은 그런 과오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예를 들어 “나는 직업으로서 교사보다는 의사를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라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는 “S대 A학과보다는 K대 B학과를 선택했어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현실에서 인간이 과오를 범했을 때 자신이 ‘선택한 행동’을 ‘실제로 선택하지 않았던 선택지’와 비교하여 판단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이 경우에 ‘목격한 실패 **observed failure**’를 ‘포기한 성공’과 비교하는 것이다. 포기한 성공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성공 **counterfactual success**’이다.

앞의 경우와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제 우리가 낚시를 가는 것보다는 뮤지컬 공연을 관람하러 간 것은 아주 잘 한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뮤지컬 공연을 관람하러 간 것은 선택한 행동일 뿐 아니라 ‘목격한 성공 **observed success**’이다. 그리고 낚시를 가는 것은 포기한 선택지, 즉 ‘포기한 실패’로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실패 **counterfactual failure**’이다. 일상에서 인간은 ‘선택한 행동’을 포기한 선택지인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선택지 **counterfactual alternative**’와 비교한다. 이런 비교를 통해 기회가 허락된다면 인간은 다가오는 미래에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물론 그 노력의 정도도 개인마다 다르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말이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경우를 ‘옳은 선택’, ‘정확한 판단’ 등으로 표현하고 실패한 경우를 ‘나쁜 선택’, ‘과오’, ‘실수’ 등으로 표현한다. 경제 분석에서 과오란 선택의 주체인 인간이 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데 실패한 경우를 말한다. 경제학에서 과오가 없을 때 ‘시장 가격’은 ‘옳은 가격’, ‘균형 가격’이 될 수 있고, 과오가 존재하면 시장 가격은 ‘불균형 가격 **disequilibrium price**’이 된다.

여기에서 인간의 행동을 다시 재조명해본다. 앞의 예를 보자. 직업을 교사로 선택하는 행동은 실패한 행동이다. 여기에서 의사가 되는 것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성공이다. 뮤지컬 공연을 간 행동은 성공한 행동이고 낚시를 가기로 한 것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실패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행동은 성공과 실패 또는 실패와 성공으로 ‘양분

dichotomy'된다는 것이다. 이 점을 힐즈만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이제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결정적인 사실은 우리의 구분이 양분적이라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성공 또는 실패이다. 우리는 더 중요한 행동을 하거나 더 좋은 선택지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어떤 가능한 선택도 옳거나 틀리고 어떤 가능한 행동도 성공이거나 실패이다.”(Hülsmann, 2000, p. 5) 즉, 성공과 실패의 중간은 없다는 것이다. 행동은 단지 두 가지, 성공과 실패로만 나누어진다.

경제학에서 균형 분석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인간의 행동을 평가하는 방법과 본질에서 큰 차이가 없다. 경제학의 균형 분석도 일상의 삶에서 인간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과 유사하게 사건의 ‘목적된 상태’와 ‘존재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다. 일상의 삶에 있어서 인간이 행동을 평가하는 방법과 경제학에서의 균형 분석 방법의 차이점은 경제학에서의 균형 분석이 일상에서의 인간 행동을 평가하는 것보다 좀 더 정교하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균형 분석이 실제로 응용되는 경우를 보기로 한다. 트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생각해보자. 여기에서 기업의 설립과 경영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가정한다.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는 운전사를 고용해야 한다. 경제 분석에서 트럭 운전자는 생산요소 중의 하나이다. 균형 상태에 있다면 생산요소 소유자인 트럭 운전자는 ‘할인한계가치생산(discounted marginal value product, DMVP)’을 받게 된다.⁵¹ 여기에서 어떤 생산요소 한 단위의 할인한계가치생산이란 그 생산요소 한 단위의 한계가치생산(marginal value product)을 순이자율(또는 균형 이자율)로 나눈 값을 말하고, 한계가치생산은 그 요소의 ‘한계실물생산(marginal physical product)’에 그 생산물의 가격을 곱한

것을 말하며, 다시 한계실물생산이란 그 생산요소 한 단위를 증가시킬 때 증가하는 생산물의 양을 말한다. 한계가치생산을 순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은 ‘기업가-자본가’가 생산에 투자한 자본에 대한 대가인 이자율로 할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생산요소의 할인한계가치생산이란 그 생산요소 한 단위를 증가시킬 때 그 생산요소가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한 것이다.

트럭 운전자가 받는 할인한계가치생산은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을 때 트럭 운전자가 기업가로부터 받는 그의 노력에 대한 대가인데,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은 운송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의 과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시장에서 기업가는 언제든지 과오를 범할 수 있다. 과오는 두 가지 중의 하나로 나타난다. 하나는 기업가가 트럭 운전자에게 그의 할인한계가치생산보다 적게 지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가가 트럭 운전자에게 그의 할인한계가치생산보다 많이 지불하는 것이다. 후자를 먼저 생각해보기로 한다. 기업가가 트럭 운전자에게 지불한 임금에서 할인한계가치생산을 뺀 금액만큼 그 기업가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 경우에 과오는 물론 그 기업가 쪽에서 발생한 것이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기업가가 트럭 운전자에게 그의 할인한계가치생산보다 적게 지불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에 다른 기업가가 그 트럭 운전자에게 임금을 약간 올려줌으로써 여전히 이윤을 낼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른 기업가 쪽에서 과오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로 우리의 기업가는 이윤을 얻게 된다.

요약하면, 우리가 균형 분석 방법을 응용함으로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상 가능한 세 가지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어떤 생산요소가 할인한계가치생산만큼 대가를 받거나, 할인한계가치생산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더 적게 받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균형 분석에서 이윤과 손실의 발생이 할인현재가치생산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할인현재가치생산이 이윤과 손실의 발생을 규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균형 분석의 응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일상의 삶과 관련한 앞의 예제에서 우리는 균형 상태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균형 분석을 응용한 앞의 예제에서도 시장이 실제로 균형 상태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다만 균형 분석은 “시장 참가자들의 관점에서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으로서 시장 참가자들이 한 것을 묘사하는 것”(Hülsmann, 2000, p. 7)이라고 휠즈만은 설명한다.

이제 다시 균형 분석에 대한 휠즈만의 정리를 요약해본다. “요점은 균형 분석이 ‘정상적인’ 현실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차라리 균형 분석은 현실을 묘사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 이 방법은 어떤 목격된 현실이 발생한 것인가와 상관없이 응용될 수 있다. 목격된 균형은 피할 수 있었던 과오들을 참조할 때만 의미 있게 이해될 수 있다. 마치 목격된 과오가 포기한 균형을 참조할 때만 이해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성공과 실패라는 관점에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을 둘의 관계로 집어넣는 것이 균형 분석이 하고자 하는 것이다.”(Hülsmann, 2000, p. 7)

균형 분석, 정확하게는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은 현실에 대한 묘사,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을 묘사하는 한 가지 방법임을 설명한 뒤 휠즈만은 이제 균형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균형 분석은 성공과 실패라는 관점에서 실제 행위를 그 행위의 반사실적 조건

으로 된 선택지들과 비교하는 방법이다.”(Hülsmann, 2000, p. 7)

여기에서 휠즈만이 정의하는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의 의미와 특징을 알아본다. 첫째,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은 전적으로 ‘실재적’이다. 왜냐하면 분석의 모든 구성요소, 즉 ‘사실적 요소들’과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요소들’을 실제의 인간행동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명되어져 할 행동 *the behavior to be explained*’이 사실적 요소이고 ‘그 행동을 설명하는 사실 *the fact that explains it the behavior*’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요소이다. 물론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요소들은 포기한 선택지들로서 현실에서 육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인 것은 분명하다. 이때 사실이란 물론 ‘반사실적 사실’이다. 다르게 말하면, 균형 분석이 실재적인 것은 성공과 실패가 인간행동의 잠재적인 특징 *potential features*이기 때문이다.

둘째,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은 ‘선행적’이다. 앞에서 균형 분석은 사실적 요소들과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요소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았다. 균형 분석에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요소들은 행동 이전에 존재하는 것일 뿐 아니라 바로 그 이유로 인간의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존재를 이성으로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요소들의 존재를 아는 것은 인간 행위의 선행적 본질을 아는 것으로부터 유도된다. 행동에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요소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그러므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이 ‘관측치 *observation*’에 의해 입증되거나 반박될 수 없다. 즉,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 방법은 선행적이고 실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의 두 가지 설명을 종합하면, 성공과 실패를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하는 방법인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은 실재적이고, 선택적인 실재를 이해하는 도구 중의 하나이다. 그 결과 휠즈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성공 또는 실패를 지적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필연적으로 이 방법[휠즈만이 말하는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 방법]을 응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는 삶에 있어서 성공-실패라는 특징을 간파할 수 없기 때문이다.”(Hülsmann, 2000, p. 8)

휠즈만의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 방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본다. 첫째, 그 방법은 실재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그 균형 분석 방법은 선택적이다. 셋째, 휠즈만의 방법은 실재를 ‘이해’하는 도구이지 실재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이라는 방법은 인간 존재가 ‘정상적으로normally’ 또는 ‘일반적으로generally’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은 인간 존재가 과오를 범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 점에서도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이 실재 세계의 인간행동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균형 분석에서 인간이 과오를 범한다거나 과오를 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런 증명이 균형 분석의 응용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넷째,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은 목격된 실재 세계real world를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것은 균형 분석 그 자체가 목격된 실재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균형 분석은 포기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선택과 현실을 비교함으로써 현실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 점은 균형 분석이 현실 세계를 묘사한다는 관점에서 균형 분석을 비판하는 내용이 틀린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의 정의는 균형 분석의

응용성이 현실 세계가 균형 상태에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없음을 보여준다. 균형 분석은 목격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현실과 반사 실적 조건으로 된 사실을 비교하는 것이다. 균형 분석은 성공의 가능성과 실패의 가능성을 포함할 뿐 아니라 그 둘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균형 분석의 응용성이 현실 세계가 균형 상태에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없다. 즉 목격된 현실이 무엇이든 균형 분석을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이 경제과학의 일부이고 그 점에서 균형 분석을 경제과학의 전부로 간주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화폐의 본질을 참조함으로써 화폐 이론과 관련한 모든 쟁점을 토론할 수 있다. 지폐의 증가가 생산요소들을 증가시키지 않음을 지적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논박할 수 있다. 사회주의는 ‘경제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존립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 경제과학에는 균형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이론이나 분석이 존재하고, 바로 그 이유로 균형 분석은 경제과학의 일부일 뿐이며 균형 분석이 경제과학의 전부는 아니다.

일곱째, 균형 분석은 본질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비교하는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이다. 즉 균형 분석은 성공뿐 아니라 실패도 분석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경제학자들은 그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 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균형이 어디든 존재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있다. 이 주장이 의미하는 바는 현상 유지 *status quo*를 경제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 주장을 펼치는 경제학자들은 균형 분석에서 성공만을 부각하고 과오는 단지 현실을 교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결과 그들은 과오는 중요하지 않은 현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오가 왜 발생하는가를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론 방법을 따르는 것은 ‘결과론자consequentialist’의 오류에 빠진 것이다. 휠즈만은 이 함정에 빠진 연구자로는 Marshall(1920), Miller(1994), Edgeworth(1961), Wicksell(1934), Hahn(1973), Butos and Koppl(1993)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Hülsmann(2000), 29-31쪽을 참조할 수 있다.

휠즈만은 그의 논문에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이 전적으로 실제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즉 “인간의 선택은 성공과 실패로 양분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그리고 균형 분석은 목격된 성공을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실패와 대비함으로써 목격된 성공을 설명하는 방법이고, 목격된 실패를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성공과 대비함으로써 목격된 실패를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이 접근법은 경제과학 안에서 균형 분석의 역할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단서와 그 분석법을 응용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들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제공한다.”(Hülsmann, 2000, p. 3)

결론적으로, 휠즈만의 공헌은 전통적인 균형 분석을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이 되도록 보강함으로써 균형 분석을 방법론의 하나로써 처음으로 정확하게 정립한 것이다. 그 결과 휠즈만은 최초로 균형 분석을 경제과학의 일부로 만들었다. 그 이전까지 연구자들은 균형 분석 방법을 사용해왔지만 방법론으로서 균형 분석의 기초에 대해서는 주의를 거의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균형 분석을 정밀하게 만드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휠즈만은 그것을 토대로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균형 경제학을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4.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의 응용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의 함의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합의란 균형 경제학이 우리에게 주는 분석적 함의와 정치적 함의를 모두 포함한다. 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앞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즉 휠즈만이 제시하는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은 현실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설명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그 점에서 균형 분석이 경제학의 일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균형 분석을 경제학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첫째,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은 ‘간섭받지 않는 시장 *unhampered market*’에서 기업가의 이윤과 손실의 발생과 그 크기를 결정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⁵² 이와 함께, 균형 분석이 자유시장에서 생산요소들의 소득을 결정하는 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업가의 이윤과 손실의 결정과 생산요소들의 소득 결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루고자 한다.

만약 기업가가 ‘과오’를 범하지 않으면 시장은 균형 상태에 있다고 말해진다. 만약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으면 생산요소들이 받는 소득은 해당 생산요소의 할인한계생산물가치와 일치한다. 만약 최소한 한 명의 기업가라도 과오를 범하면 생산요소들의 시장 가격은 그 과오와 비례하여 할인한계생산물가치와 달라진다. 그 차이가 이윤 또는 손실로 나타난다.

자세히 설명하면, 시장에는 세 가지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은 앞에서 설명했으나 다시 한 번 보기로 한다. 첫 번째 경우는 한 명의

기업가도 과오를 범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어떤 생산요소는 그 생산요소의 할인한계가치생산만큼 대가로 받는다. 이때 기업가는 이윤은 물론 손실도 없다. 다만 기업가는 자본가로서 한계생산물가치를 할인하는 비율인 할인율, 즉 시장 이자율만큼 대가를 받게 된다. 즉 자본가로서 기업가가 해당 기업에 투자한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한 명의 기업가도 과오를 범하지 않으면 모든 기업가는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받고 모든 생산요소들은 당해 요소들의 할인한계가치생산을 받게 된다.

다른 두 가지는 모두 과오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는 기업가가 한 생산요소에게 그 생산요소의 할인한계가치생산보다 적게 지불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기업가가 한 생산요소에게 그 요소의 할인한계가치생산보다 많게 지불하는 것이다. 첫 번째 경우, 그 생산요소가 자신의 할인한계가치생산보다 적게 받기 때문에 다른 기업가는 재정거래(arbitrage)를 통해 이 생산요소를 고용하여 이윤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기업가들 쪽에서 과오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결과로 우리의 기업가는 어떤 특별한 종류의 소득, 즉 이윤을 실현한다. 이윤의 존재는 자신이 아닌 다른 기업가들이 지금과는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았음을 의미한다.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두 번째 경우를 보자. 우리의 기업가가 한 생산요소에게 할인한계가치생산에 근접하는 액수를 지급한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에 과오는 다른 기업가 쪽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가 쪽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이것이 손실이다. 그가 받는 대가, 즉 생산물을 팔아서 받는 수익에 비하여 그가 생산요소들에 지불했던 가격이

지나친 것이다. 이 경우에 우리의 기업가는 거래에 참여하지 않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점은 시장은 개별 기업가의 행위와 그가 선택할 때 고려하는 다른 선택지들과 비교할 뿐 아니라, 그 개별 기업가의 행위 또는 선택과 다른 기업가들이 선택하는 선택지들과도 비교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경쟁을 정의할 때 ‘소비자의 주머니를 향한 경쟁’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미제스의 정의가 매우 의미 있는 개념임을 보여준다.⁵³

중요한 것은 시장 균형 분석에서 할인한계가치생산이 기업가의 이윤과 손실의 크기를 결정짓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와 반대로 기업가의 이윤과 손실의 발생이 할인한계가치생산을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이윤과 손실의 발생과 생산요소들이 받는 할인한계가치생산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하다.

균형 분석은 자본에 대한 이자율이 경제 내에서 동일해질 것이라는 점을 가르쳐준다. 균형 분석은 노동자의 임금이 노동 서비스의 할인한계가치생산과 동일해진다는 점 또한 보여준다. 만약 균형 분석 방법이 없더라도 노동자가 임금을 받는다는 점과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토지가 지대를, 자본이 이자를 받는다는 점과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균형 분석 방법이 없다면 경제 내에서 이자율이 동일해지고, 지대가 동일해지며, 노동이 할인한계가치생산과 동일해진다는 점을 알 수 없다.

균형 분석은 이윤과 손실이라 부르는 세 번째 종류의 소득을 구분할 수 있게 한다. 균형 분석은 이윤과 손실이 ‘잔여적인 residual’ 특성을 가진 것임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잔여적이란 기업가가 가지게 되는 이윤 또는 손실이 총수익에서 생산요소들에게 지불한 대가의 합인 총비용을 지불하고 남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윤과 손실의 잔여적 성격은 이윤

과 손실의 정당성의 기초가 된다. 예를 들어, 이윤을 낸 기업가가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비난받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⁵⁴ 왜냐하면 만약 그 기업가가 없었다면 노동자의 임금은 그 기업가가 있을 때와 비교하여 더 낮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의 이윤은 생산요소 서비스의 대가가 낮게 지불되는 생산요소를 고용함으로써 더 높은 소득 또는 이윤을 만들 기회를 놓친 것, 즉 다른 기업가 측의 과오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이해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윤과 손실은 과오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에 의해 제거될 수도 없다. 이 점은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와 상관없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간섭주의 등, 어떤 제도에서도 이윤과 손실은 발생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오를 저지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이윤과 손실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정부의 간섭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다른 크기의 이윤과 손실을 만들어낸다. 즉 정부의 간섭은 이윤과 손실을 재분배 *redistribution*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을 이용하여 무능한 기업가를 도와줄 수 있고 그 경우에 그 기업가가 자신의 능력으로 지불해야 할 손실을 세금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앞에서 균형 분석이 실재적이고 선형적이라고 주장했다. 선형성이라는 것은 균형 분석이 실증 또는 관찰에 의해 증명되거나 반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균형 분석을 응용하는 문제는 결국 현실 세계에서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가려내는 *identify* 일이 된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균형 분석이 기계적인 규칙과 일반화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공과 실패를 식별하는 문제는 개별적인 역사적 사례들 *individual historical cases*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개별 사례에서 성공과 실패를

식별하는 문제는 역사적 조사에서 ‘특정한 이해’의 문제가 된다. 바로 그 이유로 어떤 행동이 성공한 것이고, 어떤 행동이 실패한 것인가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특정한 이해란 역사학 원리로서,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는 경우에 비역사적 학문들로 설명하고 남는 부분들을 ‘이해’라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원리를 말한다. 특정한 이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9장에서 하고자 한다.

어떤 행동을 성공 또는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그 행동이 일어난 개별적인 조건들을 참조함으로써 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경제가 성장하고 있을 때, 축구 경기장을 짓는 것은 이윤이 남는 일이 된다. 그러나 전쟁 중이거나 전염병으로 다수의 인구가 굶주릴 때 축구 경기장을 짓는 일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윤이 남지 않을 것이다. 즉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앞의 예제가 의미하는 바는 성공과 실패를 행동의 조건들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 **necessary consequence of the conditions of action**로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는 어떤 환경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힐즈만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즉 “확실히, 성공과 실패를 행동의 조건들의 **필연적인 결과**로 설명할 수 없다.”(Hülsmann, 2000, p. 19)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선택지들 가운데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택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했다. 선택이 행해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선택이 행해지고 나면 그 선택의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개별 사례의 환경에 달려 있게 된다. 선택한 행동이 실현 가능한 선택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행동을 성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균형 분석을 응용함으로써 과오와 성공한 행동을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다. 과오를 범한 경우에는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연유하는 함의와 다른 행동을 취한 경우에 연유하는 함의를 비교함으로써 과오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성공한 행동을 한 경우에 그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함의와 일어날 수 있었던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함의를 비교함으로써 성공적인 행동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이 점을 휠즈만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요약하면 어떤 선택적인 기준을 참조함으로써 균형 분석을 응용할 수는 없다. 비교의 기준은 동일한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역시 행해졌을 수도 있었을 구체적인 행동이어야 한다.”(Hülsmann, 2000, p. 20)

사전의 선택과 사후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휠즈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사전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택지를 선택한다. 사후적으로, 우리는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을 비교하고 그 결과 우리의 과오들을 발견한다.”(Hülsmann, 2000, p. 26) 앞에서 지적했듯이 사전적으로 모든 행동은 최적이다. 그러나 사후적으로는 균형 분석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과오를 발견할 수 있다.

과거의 어떤 행동에 대한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증거가 미래에 생겨날 수 있다. 이것은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비교의 기준이 끊임 없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차선’ 또는 ‘차차선’일 수 있고 과거에 차선 또는 차차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최선’일 수 있다. 새로운 증거의 출현이 역사학, 특히 경제원리를 응용하는 역사 서술에게 주는 의미는 역사학자는 필연적으로 ‘수정주의자-revisionist’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증거의 출현은 과

거에 우리가 했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새로운 증거에 비추어 비판하게 한다.

5.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과 관련한 문제들

앞에서 설명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에 대한 반대 또는 비판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다. 첫째, 인간들이 그들의 선택에 대해 무차별하거나 어떤 결정은 때로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선택의 무차별성에 대한 비판은 2장을 참조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요점만을 다시 정리해본다. 선택의 무차별성은 오늘날 주류 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무차별을 강조하는 것이 휠즈만이 제시하는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에 대한 비판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휠즈만이 기초를 확립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은 인간의 행동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심적 상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해, 휠즈만의 균형 분석은 인간행동학의 일부로 간주해야 하지만 주류 경제학은 심리 상태 또는 응용심리학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인간의 행동에 비록 모호한 점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시점에서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행동하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런 행동은 그가 선택의 순간에 선택하지 않았던 선택지와 언제나 구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동에서 모든 선택지는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의 선택지가 선택되어 실현되면 그 순간에 그 선택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선택지는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인간은 심적인 측면에서 선택지들에 대해서 무차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는 행동으로는 선택지들에 대해 무차별할 수 없다. 그가 B보다는 A를 선택한다는 사실이야말로 선택하는 행동을 할 때 무차별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균형 분석에 대한 비판으로 선택의 무차별성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어떤 선택의 경우에 복수 균형의 가능성이 있고, 복수 균형이 존재한다면 균형 분석을 이용하여 현실을 설명하는 방법은 이용할 수 없다.⁵⁵ 어떤 부부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가상적인 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남편의 선호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것부터 나열하면, 아내와 함께 축구 경기를 관전하는 것, 아내와 함께 로맨스 영화를 보는 것, 아내 없이 홀로 축구 경기를 관전하는 것, 아내 없이 홀로 로맨스 영화를 관람하는 것 등의 순서이다. 아내의 선호는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가장 좋아하는 것부터 나열하면, 남편과 함께 로맨스 영화를 보는 것, 남편과 함께 축구 경기를 관전하는 것, 남편 없이 로맨스 영화를 보는 것, 남편 없이 축구 경기를 보는 것 등의 순서이다.

이러한 가치 척도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어떤 환경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즉 일반 균형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최선의 결과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선호 순위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만약 축구 경기를 관전하게 되면 남편은 제1순위의 선호를 지닌 선택을 하지만 아내는 제2순위의 선호를 지닌 선택을 하는 것이다. 로맨스 영화를 보게 되면 아내가 제1순위의 선호를 지닌 선택을 하지만 남편은 제2순위의 선호를 지닌 선택을 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의 선호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앞의 예제는 복수의 일반 균형 **multiple general equilibrium**에 도달하는 사례이다.

그러나 앞의 주장은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무차별이

인간의 행동에 적용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 때문이다. 어떤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한 ‘복수의 행동multiple action’ 같은 것은 없다. 다만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시점에서는 단지 하나의 행동만 있을 수 있다. 이때의 행동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상대적인 의미에서 성공이거나 실패일 수 있다.

만약 부부가 축구 경기를 관전하기로 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남편의 행동을 균형 분석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아내의 최선의 선택은 다른 방에 있는 텔레비전을 이용해 홀로 로맨스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남편과 같이 축구 경기를 관전하는 것이다. 만약 부부가 로맨스 영화를 본다면, 결국 복수의 균형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심리적인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했느냐 하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부는 로맨스 영화를 관람하기보다는 축구 경기를 관전했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그런 상황 또는 부부의 행동을 우리는 균형 분석의 도움을 받아 설명할 수 있다.

요약하면, 복수의 균형이 존재하면 균형 분석을 이용하여 현실을 설명하는 일은 실패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인간은 심리적인 추측이나 고려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이든 행동하며 행동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장소와 구체적인 시간에서 인간은 언제나 한 가지 행동 또는 선택을 하고 다른 가능한 선택지들은 포기한다. 그러므로 복수 균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균형 분석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다.

셋째, 성공적인 행동과 완전한 예측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많은 경제학자가 균형 경제학이 실증적으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시장 참가

자들은 완전한 지식, 완전한 예측, 완전한 정보 등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가정을 하는 이유는 균형 분석을 강조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 그런 가정을 하는 이유와 상관없이 완전한 예측 등을 전제하는 연구자들은 균형에서 인간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균형 경제학에서 과오의 가능성은 배제된다. 이 점은 Shackle(1972)에 의해 잘 비판되었다. 그는 균형 분석이 불확실성이 없는 세계를 다룬다면 현실 세계에 응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휠즈만이 제안하는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은 확실성 *certainty* 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즉 인간의 행동은 불확실성하에서도 성공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동에도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그의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은 성공적인 행동을 참조하기 때문에 실재적이다.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에는 성공이라는 개념이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교를 위한 요소 *comparative element*’ 로 도입되기 때문에 현실의 실제 행동이 성공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

인간행동의 성공은 그 행동이 직면하게 될 미래의 여건 *data*에 대한 적절한 판단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 행동하는 인간이 모든 여건에 대해 알기는 어렵다. 인간은 신 *神*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동하는 인간은 있을 법한 모든 조건들하에서 성공적으로 행동한다. 이때 성공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동하는 인간은 가장 중요한 행동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업가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결정짓는 요소들을 모르는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택을 결정하는 것 *determining*과 선택을 예상하는 것 *anticipating*은

서로 다른 일이기 때문이다. 기업가들은 심지어 우연히도 소비자의 선택을 예상할 수 있다. 이 이유만으로도 불확실성하에서 성공적인 행동 또는 균형이 가능하다.

넷째, ‘균형화^{equilibration}’와 ‘재정^{arbitrage}’이라는 개념은 무의미하고 잘못된 개념이다. 어떤 행동이 성공하면 균형 상태에 있는 것이고 실패하면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균형과 불균형은 인간행동의 본질적인 특성이고 그 결과로 균형과 불균형은 모든 있을 법한 환경 아래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균형과 불균형의 중간에 놓인 입장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의 진행에 따라 불균형 상황에서 균형 상황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균형화라는 개념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요약하면, 인간의 행동 그 자체는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동은 균형 상태에 있거나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화라는 개념은 틀린 것이다. 휠즈만은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즉 “(중략) ‘균형화’는 무의미한 표현, 경제과학에서 자리가 없는 미신이다.”(Hülsmann, 2000, p. 17)

균형화라는 개념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사후적인 재정^{arbitrage ex post}’이라는 개념과 같은 것도 없다. 어떤 행동이 성공적이 되는 경우에 이 성공한 행동을 재정이라고 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이 과거 상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행동은 과거의 조건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조건들만을 포함한다. 균형과 불균형은 현재의 행동만을 참조한다. 휠즈만은 재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중략) 재정이란 주어진 성공한 행동과 그 대신에 수행될 수 있었던 과오가 된 행동 간에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비교를 의미한다.”(Hülsmann, 2000, p. 17) 그러므로 현재 정확히 선택함으로써 과거의 과

오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모순적이고 무의미하다.

다섯째, 행동과 행동의 조건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과거에 균형 분석을 의미 있게 만들려는 시도는 모두 인간의 행동을 행동의 조건들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그 이유는 성공과 실패로 나타나는 선택을 궁극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을 행동의 어떤 조건들의 필연적인 추론 또는 결과로 제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선택을 더 궁극적인 조건들로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결과주의(sequentialism)’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균형 상태라는 것은 과오가 없는 상태이다. 균형에서 결과주의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과오가 행동의 어떤 조건들과 필연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선택을 행동의 어떤 조건(a condition)으로 규정한다면 과오는 분명히 그런 어떤 조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선택 그 자체는 과오나 정확한 판단을 초래한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과오를 범하거나 의도적으로 과오를 범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선택이 과오를 범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남은 문제는 과오가 선택을 제외한 행동의 조건들에 의존하는가 하는 것이다. 행동의 어떤 조건들 아래에서, 인간이 과오를 범할 수 없다거나 과오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할 가능성이 없다면, 행동의 그런 조건들이 없다고 대답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거나 과오를 범하기도 한다. 행동의 조건들이 끊임없이 변하는 경우에도 시장 참가자들은 미래의 조건들을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 결과 월즈만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즉 “그러므로 균형이라는 개념이 행동의 조건들의 특별한 상태로 언급되기보다는 행동 그 자체의 특징으로서만 언급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한다. 균형이 행동의 범주로서 주어질 때 명백하고 의미 있는 정의가 된다.”(Hülsmann, 2000, p. 18)

6. 기존 균형 분석 방법에 대한 비판

상당수 경제학자가 균형 분석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거나 균형 분석의 본질을 분석했다. 휠즈만은 게임이론, Knight(1956, 1985)의 균형 분석, Mises(1996)의 항등순환경제, Hicks(1979)의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Selgin(1990)의 주관적인 이윤 개념 등에 대해서 자신이 제시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 방법과 실재론적 기초를 이용하여 비판했다.

기존의 각종 균형 분석 방법은 두 가지 결점 중의 하나를 가지고 있다. 두 가지 결점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균형 분석 방법은 비교를 하지만 비교를 위한 정확한 요소들이 식별되지 않는 것이다. 미제스의 항등순환경제, 나이트 F. H. Knight 등의 균형 분석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균형 분석이 비교를 하지 않는다noncomparative는 것이다. 이런 균형 분석 방법들은 균형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될 때만 균형 분석이 관계가 있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분석 방법들에서는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서술인 포기한 선택지와 목격된 현실의 비교가 없다는 것이다. 기존의 균형 분석 방법이 지닌 두 가지 결점에 기초하여 기존 균형 분석 방법을 분류하는 일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게임이론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균형 분석을 부정하는 극단적인 경

우도 있다. 이 책에서는 힐즈만에 의거해 미제스의 항등순환경제와 계임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타 균형 분석에 대해서는 Hülsmann(2000)을 참조할 수 있다.

먼저 균형 분석 방법이 비교를 하지만 비교를 위한 정확한 요소들이 식별되지 않는 경우에 속하는 균형 분석 방법을 검토한다. Knight(1956, 1985), Mises(1996) 등이 이 그룹에 속하지만 여기에서는 Mises(1996)의 항등순환경제만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미제스가 인공으로 만들어낸 구조물인 항등순환경제는 균형 분석을 위한 비교 접근법 *comparative approach*이지만 비교를 위한 정확한 요소들을 식별하는 데 실패한 접근법이다. 항등순환경제는 미제스가 시장과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상상으로 고안한 구조물이다. 미제스 자신이 그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항등순환경제란 “제품들의 가격들과 그 제품들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들의 가격들의 관계와 기업가정신과 이윤과 손실에 함축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고안한 구조물이라는 것이다. 미제스가 구축한 항등순환경제란 미래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세계로서 이때의 인간들은 “영혼이 없고 생각이 없는 기계처럼 행동하는 인간들 *soulless unthinking automatons*” (Mises, 1996, p. 248)이다.

미제스가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구조물인 항등순환경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항등순환경제는 여건과 시간 요소의 변화를 제거한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중략) 항등순환경제는 허구적인 체제로서 그 안에서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격들이 최종가격들과 일치한다. 그 구조 내에서는 어떤 종류의 가격 변화도 없다. 완전한 가격 안정이 있다. 동일한 시장 거래들이 되풀이해서 반복된다. (중략) 시장 여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지 않고 내일

은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체제는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언제나 동일한 지점에 머무른다. 이 체제는 고정된 센터의 주위를 균등하게 순환하고 이 체제는 항등적으로 회전한다. 순수한 안정 상태는 반복적으로 어지럽혀지지만 예전의 수준에서 즉각적으로 재형성된다. 순수한 안정 상태를 되풀이해서 어지럽히는 것들을 포함하는 모든 요소들은 일정하다. 그러므로 가격들 – 통상적으로 말해 정태 또는 균형 가격들 –은 역시 일정하다.”(Mises, 1996, pp. 246-247)

미제스의 항등순환경제라는 균형 분석법은 앞 절에서 제시한 휠즈만의 균형 분석법과 비교하면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첫째, 항등순환경제에는 현실의 대응물이 없다. 그 점은 이미 미제스도 받아들인 것이다. 항등순환경제라는 개념이 순전히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항등순환경제는 경제가 이미 균형 상태에 있다는 가상적인 ‘이미지image’를 전제한 것이다. 그 말은 결국 항등순환경제라는 방법이 비실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은 성공과 실패로 양분되고, 그러므로 그런 인간행동을 묘사하는 휠즈만의 균형 분석 방법은 실재적인 것이다.

둘째, 항등순환경제라는 개념은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인데 그것은 인간이 미래에 대한 완전한 예측perfect foresight을 한다고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비록 그 전제가 암묵적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휠즈만의 균형 분석 방법은 그런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은 어떤 상황하에서는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실패할 수 있다. 휠즈만의 방법은 그런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는 것이다.

셋째, 항등순환경제라는 개념이 경제과학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제스는 경제과학이 선형적이고 현실 세계에 직접적으

로 응용 가능한 명제들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항등순환경제는 임의적이고 **arbitrary** 비실재적 가정을 전제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제스가 말하는 경제과학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넷째, 안정적인 물리적 조건들 **stable, physical conditions**이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균형을 초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항등순환경제에서 시장과정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을 선별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업들만 생존하고 다른 기업들은 퇴출된다. 생존한 기업들은 최종적인 안정 상태 **final state of rest**에 도달하고 이러한 과정이 무한정 반복되면서 항등순환경제에 도달하게 된다. 항등순환경제에 대한 미제스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장과정이 언제나 재분배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 과정은 이렇다. 어떤 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그 기업에 고용된 피고용자들은 그 기업을 떠나서 다른 기업에서 일해야 한다. 이때 물론 피고용인은 과거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가들은 높은 소득을 얻게 된다. 소득이 증가된 기업들이 과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증가된 소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장 조건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예전에 가장 중요한 기업들에 속했던 기업들은 한계 이하의 기업이 되고 예전에 손실을 보았던 기업들은 이제 이윤을 내게 된다. 즉 시장과정 자체가 연속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그것은 재조정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한다. 최종적인 안정 상태를 초래할 안정적인 조건들은 결코 주어질 수 없다. 결국, 앞의 설명에 의하면, 항등순환경제는 최종적인 안정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 항등순환경제에 대한 미제스의 설명이 모순적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항등순환경제라는 개념에는 다른 모순도 포함되어

있다. 현실에서는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 무한 반복의 경제를 가정함으로써 항등순환경제라는 개념에서는 이 점을 제외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물물교환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에서 시장 참가자들은 교환 수단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교환 수단을 보유하는 것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되기 때문에 교환 수단은 제작되고 유통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항등순환경제에는 교환 수단을 가정하고 있다. 모순적인 가정이다.

앞에서 말한 두 가지 결점이라는 틀에 넣어서 분류할 수는 없지만 균형 분석을 하는 경우로서 게임이론을 들 수 있다.⁵⁶ 게임이론은 서양 경제학계에서 한 때 크게 유행했을 뿐 아니라 그 영향으로 현재도 서양 경제학계에는 게임이론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많이 있다. 여기에서 그런 게임이론을 비판하고자 한다.

먼저 게임이론에 대해 알아본다. 게임이론은 균형 분석을 이용하고 있지만 균형 분석에 대한 관점은 앞에서 언급한 균형 분석 방법들과 다른 것이다. 게임이론의 목적은 설명을 위하기보다 게임을 ‘해결하는 prescription’ 것이다. 게임이론은 균형을 게임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하고 있다. 게임이론을 제외한 균형 분석에 대한 모든 전통적 접근법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how people behave)’라는 질문을 다루지만 게임이론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how people should behave)’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게임이론가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각 경기자가 최선의 전략을 발견하기 위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게임 상황을 분석한다.

게임이론이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얼마나 적합한가를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게임이론에서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행동이 현실 세계에서의 특징들과 잘 일치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그 구성 요소들이란 게임 참가자의 수, 전략, 보상 등이다.

첫째, 경기자의 수에 관한 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2인이 하는 게임에서 정해진 대로 상호 작용을 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2인 게임'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게임에서 모든 가능한 전략은 처음부터 규정된다고 가정한다. 전략은 명시적인 서술인 경우도 있고 전략 선택의 경계선에 대한 규정일 수도 있다. 전자는 예를 들어 죄를 고백하거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후자는 예를 들어 0과 1이라는 숫자만 가능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두 개의 가능한 전략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무수하지만 미지의 전략이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창의성이 지속적으로 옛날의 패턴을 무너뜨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전략을 추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임이론은 게임이론 연구자들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전략들만을 다룰 수 있다. 셋째, 게임이론가들은 게임에서의 보상 그 자체가 필요하다는 가정을 한다. 그리고 보상의 필요성은 보상의 물리적 특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 50만 원보다 선호되고 1년의 형무소 생활이 10년의 형무소 생활보다 더 선호된다. 왜냐하면 100만 원이 5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고 형무소에 있는 기간은 10년보다 1년이 짧기 때문이다. 게임의 보상은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게임이론에서의 보상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게임이론은 게임에서 보상이 이질적인 경우를 다루지 않는다. 예를 들어, 50달러보다 100달러가 언제 어디에서나 선호된다. 그러나 빵 10개와 등심 1인분 중에서 선택하는 문제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향수를 적게 뿌리는 것보다 많이 뿌리는 것이 언제 어디에서나 좋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람들의 선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게임이론은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자선 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 자선이라는 것은 그 시점에서 행위자가 많은 돈을 자신이 가지는 것보다 적은 돈을 가지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행위는 게임이론가들의 관점에서는 비합리적인 것이다. 셋째, 게임이론에서는 전략들이 보상의 일부라는 개념이 전혀 없다. 그러나 실제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과학적 연구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조사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게임이론에서는 그런 일은 제외된다. 게임이론에서는 보상이 있는 행동만을 고려한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게임이론의 우연적인 결점이 아니라 본질적인 특성이다. 동질적인 보상이 게임 참가자들의 이질적인 전략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상은 동질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게임 참가자들의 전략을 평가할 수 없다. 만약 전략이 그 자체를 위하여 요구된다면 동일한 물리적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그 전략을 다른 전략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앞에서 지적한 모든 점이 게임이론이 스스로 선택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게임이론에서 개발된 표준적인 해결책들이 현실 세계의 성공과 실패를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설명을 하는 경우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휠즈만의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과 게임이론은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인간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목적에서 게임이론은 적절한 이론이 아니다. 그러므로 게임이론에 대해 휠즈만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즉 “일반적으로 말해, 게임이론은 인간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다. 인간의 삶의 진정한 특성들과 문제들에 진정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대학교수들과 그 학생들의 지적 유희이다.”(Hülsmann, 2000, p. 35)

균형 분석은 경제과학의 일부이다. 이 말은 균형 분석이 경제과학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균형 분석들은 실재적이지 않음으로써 과학이 되는 일에서 정밀성이 부족했다. 휠즈만은 경제과학 내에서 균형 분석의 역할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실재적 기초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균형 분석을 재건했다. 그 결과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균형 분석이 현실을 묘사하는 정확한 방법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균형 분석이 현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됨으로써 그 기능이 왜곡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으로서의 균형 분석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기존의 균형 분석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이제 휠즈만은 균형 분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선택 그 자체 내 – 특히 성공과 실패라는 양분 내 – 에는 변하지 않는 관계가 존재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이런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실재적인 균형 분석을 향한 길을 열어준다. 그런데 그 분석이란 성공과 실패라는 관점에서 실제의 선택과 그 선택의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선택지들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접근법은 균형 분석이 매우 제한된 범위의 현상만을 다룬다는 미제스의 직관 – 즉 균형 분석이 경제과학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 – 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모든 이전의 접근법과 분명히 대조적으로 그 접근법은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허구들 또는 비실재적인 구성물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 균형 분석은 실재적인 과학의 통합된 일부, 실재를 이해하기 위한 귀중한 도구이다.”(Hülsmann,

2000, p. 48)

Part. 3

3부

역사학
원리

역사학 원리를 위한 기초

1. 역사학의 주제

역사학이란 인간행동에 관련된 과거의 모든 경험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학의 대상은 인간행동의 모든 면이다. 다만 이미 지나간 인간행동을 다룬다는 점에서 경제학에서 다루는 인간행동과 구별할 수 있고 구별해야 한다. 이 점은 3장에서 일부를 다루었고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역사학이 인간행동에 관련된 모든 경험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지만, 역사가가 과거를 복사하거나 재현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경험 자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 점은 과거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잘 발달한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그러므로 역사가의 임무는 과거를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과거를 복사하거나 재현하는 것)와 반대로, 역사가는 과거를 해석하고 재구성한다.”(Mises, 2003, p. 1) 다른 곳에서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사는 지적 재현이 아니라 개념적 용어들로 과거를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다.”(Mises, 1996, p. 47) 여기에서 개념적 용어들이란 역사학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다른 학문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다. 역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이상적 유형’이라는 것이다. 이 개념은 12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미제스는 역사학의 주제와 대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사학은 인간행동에 관련된 모든 경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역사학은 인간행동의 구체적 내용을 다룬다. 역사학은 무한히 복잡하고 다양한 모든 인간의 노력을 연구하고, 우발적이고 특별하고 특정한 의미를 내포하는 모든 개인들의 노력을 연구한다. 역사학은 행동하는 사람을 안내하는 아이디어들과 수행된 행동의 결과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한다. 역사학은 인간행동의 모든 면을 연구대상에 포함한다.”(Mises, 1996, p. 30)

과거를 재현하기 위하여 역사가는 먼저 다른 학문들에서 발달한 이론들 또는 개념들 **concepts**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역사 원리로서 ‘이해’를 적용해야 한다. 역사학과 다른 학문들 또는 개념들과의 관계, 역사 원리로서 이해와 역사학에서 사용하는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러면 역사학의 목적은 무엇인가? 지나간 역사로서의 사건은 모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역사학은 특정 사건을 초래하는 데 작동했던 요소들을 충분히 부각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은 전적으로 원인과 결과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우연적인 것은 없다.¹ 원인에 대한 분

석이 없거나, 우연성을 강조하거나, 막연한 예언으로 이루어진 역사학은 과학으로서의 역사학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유사 역사학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틀린 것이다. 유사 역사학 원리는 14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역사학과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이 어떻게 다른가? 3장에서 이 점을 자세히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그 차이를 간단히 요약해본다.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은 인간행동의 불변적인 특성, 예를 들어 선택, 목적 지향, 가치, 성공과 실패 등과 같은 것을 다루고 그 행동의 결과를 다룬다. 역사학은 인간행동의 우연적인 특성을 다루고 검토 중인 사례에서 행동의 원인들과 결과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은 인간이 선택한 목적을 다루지 않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선택을 다룬다. 그러나 역사학은 특정한 장소와 특정 시점에서의 인간들의 행동들과 가치판단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를 다룬다. 인간행동학과 역사학의 차이를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인간행동학은 행동의 변화하는 내용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순수한 형식과 범주적 구조에 관심을 갖는다. 인간행동의 우연적이며 환경적인 특징들을 연구하는 것은 역사학의 과제이다.”(Mises, 1996, p. 47)

앞에서 역사학이 인간행동과 관련한 모든 경험 자료를 연구대상에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역사 연구의 근본적인 자료 또는 역사 연구의 근본적인 대상은 ‘아이디어들’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아이디어들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사는 인간행동의 기록이다. 인간행동은 덜 만족스러운 상태를 더 만족스러운 상태로 대체하기 위한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이다. 무엇이 더 만족스러운 상태이고 무엇이 덜 만족스러운 상태인가는,

아이디어들이 결정한다. 그리고 덜 만족스러운 상태를 바꾸기 위하여 의존해야 하는 수단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아이디어들이 결정한다. 그래서 아이디어들이 역사 연구의 주된 주제이다.”(Mises, 2007, pp. 224-225)

그러나 미제스의 이런 설명에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고 살레르노는 지적한다.² 살레르노는 모든 역사가 지성사(intellectual history) 또는 사상사가 되어야 한다고 미제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부언한다. 미제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디어들이 경제 현상을 포함한 모든 사회 현상의 궁극적 원인들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들이 역사 연구의 주된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보자. 정보통신 기술은 유선전화, 무선전화 등으로, 무선전화도 비교적 단순한 휴대전화기에서 스마트폰으로 발전해왔다. 정보통신 기술의 역사는 기술 변화의 역사가 되지 않을 수 없고 기술 변화란 따지고 보면 통신 기술에 관련된 아이디어의 변화라고 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개발되어 나온 스마트폰은 무선전화를 위한 통신기기에서 아이디어의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유선통신 이후, 무선통신 발달의 역사를 서술하고 설명하고자 할 때 그 주제 또는 중심적인 내용은 무선통신과 관련한 아이디어 또는 그 아이디어의 변화라는 것이다.

사회 제도와 관련된 예를 들어보자. 최근에 인류는 자본주의, 노예제, 사회주의 등과 같은 제도 변화를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노예제는 불과 얼마 전에 폐지되었다. 서양 자유주의자들이 법적 관점, 경제적 관점, 도덕적 관점 등에서 노예제가 매우 나쁜 것임을 증명했을 뿐 아니라 대중운동(mass movement)을 통해 노예제를 폐지할 것을 대중에게 설득했기 때문이다. 노예제라는 제도의 폐지와 노예제의 역사가 바뀐 것은 노예제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나쁜 것이라는 아이디어의 결과이다. 물론 노예제의 폐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역사는 크게 바뀌었다. 노예제 폐지를 전후한 역사를 다루고자 한다면 노예제 폐지라는 아이디어의 변화를 언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비제는 조선왕조 말엽에 일본의 영향하에 단행된 갑오경장에 의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조선왕조의 노비제를 서술하고자 한다면 가깝게는 일본의 개혁과 멀게는 서양의 노예제 폐지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양의 노예제 폐지는 서양 자유주의자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조선왕조의 노비제 폐지 역사를 다루고자 한다면 가깝게는 일본, 멀게는 서양의 노예제에 대한 아이디어의 변화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노비제 폐지에 대한 조선왕조 내부의 변화가 있다면 물론 그것도 포함해서 말이다.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아이디어들이 언제나 세상이나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점에서 미제스가 역사 연구의 주된 주제가 아이디어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 아이디어들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 나쁜 아이디어의 예로 사회주의를 들 수 있다. 20세기 동안 다수 국가가 사회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좋은 예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 연구의 대상이 언제나 좋은 아이디어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역사 연구의 주된 대상은 ‘중요한’ 아이디어들일 것이다.

미제스는 아이디어들이 역사 연구의 주된 주제라는 점을 다른 곳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인류의 진정한 역사는 아이디어들의 역사이다. 아이디어들이야말로 인간과 모든 다른 존재를 구분해주는 것이다. 아이디어들이 사회 제도들, 정치적 변화들, 생산을 위한 기술적 방

법들, 경제 조건들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생기게 한다.”(Mises, 2007, p. 187)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절에서 하고자 한다. 역사가 인간 행동의 기록이라면 그런 인간행동은 목적 지향적이고 행동을 위해서는 가치판단을 전제한다.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수단을 또한 선택한다.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을 선택하지만 그런 행동의 결과가 언제나 자신이 의도한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선택한 목적과 행동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그러므로 미세스는 역사학의 주제 또는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사는 인간 행동들의 기록이다. 역사학은 특정한 아이디어들을 품은 인간들이 특정한 가치판단을 했다는 사실, 특정한 목적들을 선택했다는 사실, 선택한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특정한 수단에 의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게다가, 역사학은 인간들이 행동한 결과, 행동이 초래할 사물의 상태를 다룬다.”(Mises, 2006, p. 40)

앞에서 설명한 역사학의 주제를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 역사학의 주제는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환경들에 대한 인간의 의식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환경들이란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행동하는 인간에게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은 인간이 살고 있는 조건들이고 인간은 그런 환경들에 의식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므로 역사학의 주제는 행동하는 인간이 직면하는 환경들과 그 조건들에 반응하는 방식이다. 미세스는 역사학은 인간의 환경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사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조건들과 그들이 이 조건들에 반응하는 방식을 서술한다. (중략) 역사학은, 자연 환경이건 그 동시대 사람들의 행동들은 물론 먼저 살았던 세대들의 행

동들이 결정했던 사회 환경이건, 그의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식적 반응을 다룬다.”(Mises, 2007, p. 159)

역사학의 연구 대상인 역사적 사건 또는 역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역사적 사건 또는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이 독특한 개별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사는 변화의 연속이다. 모든 역사적 상황은 개별성 *individuality*, 어떤 다른 상황과도 구별할 수 있는 그 자신만의 특징들을 가진다. 역사의 흐름은 이전에 지나왔던 점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Mises, 2007, p. 219)³ 그 이유를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역사가 자체로서 반복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역사적 상태는 다른 역사적 상태에서 작동했던 아이디어들과 다른 아이디어들의 작동의 완성이기 때문이다.”(Mises, 2007, p. 225) 다시 말하면 모든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개별성 또는 특이성 *uniqueness*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한 시점의 역사와 다른 시점의 역사에 작용했던 아이디어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바로 그 점에서 모든 역사적 사건은 ‘특정하다 *specific*’.

역사적 사건 또는 역사의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 역사적 사건 또는 역사는 모든 개인이 행동한 결과이다. 즉 역사는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이다. 이때 개인이란 보통 사람, 천재들, 위인들 등을 모두 포함한다.⁴ 각 개인이 역사적 과정에 미친 영향은 모두 다르다. 그러나 개인들의 행동들은 그 영향의 크기와 상관없이 역사적 사건들의 경로를 결정한다. 개인들은 특정한 결과를 야기하기 위하여 행동한다. 그 점에서 개인들의 행동은 사전적으로는 계획적이고 목적 지향적이다. 그러나 행동의 결과물은 사전에 계획했던 것과는 언제나 상당히 다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성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한계도 분명히 크다. 왜냐하면 목적 설정의 어려움과 잘못된 목적 설정, 수단의 제약,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의 불완전성, 다른 인간의 영향 등 때문이다. 그리고 역사에서 개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목적을 추구하지만 전체 역사를 계획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미제스는 역사의 그런 특징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그러나 역사적 과정은 개인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다. 역사적 과정은 모든 개인의 의도적인 행동들의 복합적 결과물이다. 누구도 역사를 계획할 수는 없다. 그가 계획하고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모든 것은 그 자신의 행동들이며, 그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과 결합하여 역사적 과정을 이룬다.”(Mises, 2007, pp. 195-196)

미제스는 이어서 역사적 과정이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닌 사례로 메이 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상륙했던 청교도 순례자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제시한다. 즉 청교도들은 처음부터 미국이라는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영국을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미국 국가의 성립이라는 역사적 과정이 청교도들의 계획의 산물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상당수 개인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의지와 행동들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성립된다. 미국 국가의 성립은 다수 개인 행동의 복합적 결과물이라고 하겠다.

미제스의 역사 연구 대상과 실증주의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실증주의가 관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현상만을 다룬다면 미제스는 역사학이 그런 현상을 초래한 인간의 동기와 가치판단을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물론 인간의 동기와 가치판단은 주관적인 것이며, 관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것은 객관적인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미제스는 실증주의가 인간의 동기와 가치판단 같은 주관적 현상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획득하기 어렵게 한다는 입장에서 실증주의를 비판한다. 이 점이 역사 연구의 대상에서 미제스와 실증주의자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그리고 실증주의자가 인간의 동기와 가치판단 같은 주관적 현상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무시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기록한 학문인 역사학에 실증주의를 적용할 수 없다.

미제스의 관점에서 분석한 경제 역사, 특히 미국의 화폐와 금융의 역사를 다룬 저서가 2002년에 출간된 라스바드의 *A History of Money and Banking in the United States*라는 책이다. 실증주의 관점에서 미국의 화폐와 금융의 역사를 다룬 대표적인 책으로는 1963년에 출간된 밀턴 프리드먼과 안나 슈와츠Anna J. Schwartz의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67-1960*가 있다. 이 책은 미국 화폐와 금융의 역사에 관한 표준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살레르노는 프리드먼과 슈와츠의 역사 연구가 지닌 기본적인 문제점을 역사 연구의 방법론이라는 관점에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⁵ 여기에서는 살레르노의 비판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역사 연구의 방법론으로서의 실증주의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역사학은 과거의 모든 인간행동을 연구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나 그 대상에 따라 일반 역사학과 더 좁은 분야의 역사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더 좁은 분야의 역사학은 정치의 역사, 군사의 역사, 사상 또는 철학의 역사, 기술의 역사, 경제의 역사, 종교의 역사, 과학의 역사, 문학의 역사, 예술의 역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더 좁은 분야의 역사는 인간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 관한 역사이다. 그리고 미제스는 다음과 같은 학문도 역시 역사학이라고 설명한다. “생물학의 일부가 아닌 한에서는 민족학과 인류학도 역사학이고, 생리학이나 인식론이나 철학이 아닌

한에서 심리학도 역사학이다. 옹변의 논리학이나 옹변의 생리학이 아닌 한에서는 언어학도 역사학이다.”(Mises, 1996, p. 30)

2. 역사 연구와 시간⁶

시간은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인간은 일정한 시점에서 태어나고 일정한 시점에 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행동학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행동 또는 계획과 관련이 있다. 인간은 미래를 현재보다 더 만족스러운 상태로 만들고자 노력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인간은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계획에는 필연적으로 시간이라는 요소가 들어간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시간이 무한정한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간이라는 개념은 인간행동학의 범주이다. 바로 그 이유로 역사 연구가 인간행동학의 일부인 한 시간이라는 개념은 역사학의 범주로서 다루어야 한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인간행동학의 범주이다. 그러나 시간 개념은 경험적 사실이다. 그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이나 이 들고 죽는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 그가 시간의 경과^{passage of time}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경험적 사실이다. (중략) 시간의 경과가 행동이 일어나는 조건들 중의 하나라는 사실은 선험적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중략) 시간의 경과가 주어진 어떤 행동의 조건이라는 우리 지식의 경험적인 성격은 시간이라는 범주의 도입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는 결론들의 선험성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험적 지식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예컨대, 이자를 수수료로 보는 이론의 명제

들—은 어느 것이나 경험주의의 범위 바깥에 있다.”(Mises, 2003, pp. 25-26)

인간행동학에서 시간은 천문학적인 개념이나 시간 측정의 개념이 아니다. 철학자들이 시간 측정이나 천문학적 개념을 사용해 지칭하는 시간은 언제나 과거이거나 미래, 둘 중의 하나이다. 그 점에서 철학자들에게서 현재는 미래와 과거를 구분하는 관념적 경계선에 불과하다. 미제스는 “그러나 인간행동학적 측면에서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실재하는 확장된 현재가 있다.”(Mises, 2007, p. 100)라고 지적한다. 이 말은 현재라는 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시간이 반드시 ‘물리적’ 시간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미제스는 “그것[현재라는 개념]은 특정 종류의 행동이 가능해지도록 만드는 조건들의 지속에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그것[현재라는 개념]은 행동 분야별로 다르다.”(Mises, 2007, p. 287)라고 설명한다.⁷

예를 들어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평화롭다.”라고 할 때의 현재와 자동차 운전자가 “지금은 방향을 바꿀 때가 아니다.”라고 할 때의 현재는 다르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오늘날 일부 한국인은 불교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오늘에 내일이 포함될지 여부는 모레가 되어야 확실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라는 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물리적 시간은 여러 행동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가까운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보자.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묘사와 해설은 현 상태를 초래했던 사건들에 대한 해설일 수밖에 없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회사의 최고 경영자 자리 오르면서 회사나 산업의 현 상태를 알고자 한다면 그 회사나 산업의 과거 기록들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회사나 산업의 과거 기록들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상태에 대해 배운다.

정치가도 최고 경영자와 비슷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

었다면 그가 대통령이 되기 직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고 이해해야 한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정부의 각 부처를 돌면서 그때 까지 일어났던 국정과 관련한 각종 사안을 보고받음으로써 국정의 현재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현재에 대한 검토와 묘사는 반드시 방금 지나간 순간에 끝난 과거에 대한 역사적 설명이다.”(Mises, 2007, p. 287) 바로 그 이유로 “현재의 사정들을 비역사적으로 **nonhistorical** 분석하는 일과 같은 것은 없다.”(Mises, 2007, p. 287)라고 미제스는 지적한다. 이것이 인간행동에서 가까운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 개념의 관계이다.

먼 과거의 역사와 우리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역사 연구의 유용성을 비판하는 일부 회의주의자들은 먼 과거의 역사 연구는 단지 호기심의 발현으로서 골동품 수집 취미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현재 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까운 과거의 역사를 분석하는 일을 인정하지만 말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먼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는 일이 자원의 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매우 근시안적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가깝게는 20세기 초에 발생했던 일본의 조선 강제 병합에서 시작했고, 멀게는 임진왜란에서 기원했으며, 더 멀게는 동아시아 일대의 문명의 전파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먼 나라와 먼 과거에 일어났다는 단순한 사실이 현재의 인간의 삶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역사학에서는 중요한 요소를 간과한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충족시키면서 우리의 탐구를 끝낼 수 있는 지점은 없다.”(Mises, 2007, p. 290)

자율적인 문명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문명들 간에는

아이디어들 또는 사상들의 상호 교환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하는 것이 진실이다. 다만 그 정도와 비중은 역사 연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문명들 간의 문제를 다룰 때는 시간과 관련이 있다. 매우 긴 시간을 연구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에는 문명들 간 사상들의 상호 교환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문명과 관련한 역사 연구에서는 매우 긴 시간과 여러 다른 문명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역사학과 가치중립성⁸

역사학의 주제는 인간의 행동, 그중에서도 과거에 일어났던 인간의 행동이다. 그 행동은 특정한 목적들의 선택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특정한 목적들의 선택에는 필연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의 가치판단 또는 가치평가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역사학은 가치판단이나 가치평가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이 가치판단 또는 가치평가를 주어진 것으로 하고 수단의 선택만을 다루는 경제학과 다른 것이다.

그러나 역사학 자체는 그런 가치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즉 역사학은 ‘가치중립적’ 또는 ‘가치자유적(Wertfreiheit)’일 뿐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역사가는 당파성, 인종, 국가, 종교, 철학, 미신, 편견 등, 동시대의 모든 가치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역사학은 가치중립적 또는 가치자유적이어야 한다.

만약 어떤 저술가가 당파적 이해를 위하여 역사적 사건을 이용한다

면 그는 이미 역사가가 아니라 선동가이거나 대변인이다. 그 저술가는 이미 당파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저술가가 열망하는 것은 형이상학적, 종교적, 국가적, 정치적, 사회적 교리 등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대중을 속이기 위하여 역사라는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선 왕조 실록은 당파적 이해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은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당파적 이해를 차단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말이다. 그러나 역사는 어떤 당파성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가치중립성 또는 가치자유는 객관적 사고와 과학적 진리 탐구의 특징적인 표지이다. 가치중립성 또는 가치자유는 ‘무심한’ 관찰자의 눈으로 역사적 사건들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역사가가 역사적 사건들을 다룰 때 역사가의 희망이나 소망에 더 적합한 사물의 상태를 언급해서는 안 되고, 역사는 존재했던 사물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언급해야 한다. 역사학은 가치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역사학이 인간의 목적 또는 동기를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학 자체는 인간의 그런 목적이나 동기를 가치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역사 서술에서 역사가의 가치판단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역사 자료의 선택부터 역사적 사건들의 서술까지 역사학은 역사가의 세계관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역사학의 가치중립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역사학이 진정한 과학이 될 수 없고 단지 사실의 왜곡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역사가는 사실들을 선별할 때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고 당파적 편견을 포함해 각종 미신 등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그러나 미제스는 역사학의 가치중립성 확립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주장한다.⁹ 논리학, 수학, 인간행동학 등과 같은 선험과학에서는 가치중립성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쉽다. 이들 학문에서 과학적 논의와 미신, 선입견, 걱정 등으로 왜곡된 논의를 구분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역사학이 선험과학보다 가치중립성의 확보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과거에 행동한 사람이 어떻게 가치판단을 했는가가 역사가의 연구 조사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역사가는 활동의 매 단계마다 과거에 행동한 사람의 가치판단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판단에 영향을 받기 쉽다. 역사 연구의 모든 단계가 가치판단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단계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역사학이 중립성 확보에 어려운 것은 역사가도 한 명의 인간이자, 한 단체, 지역, 국가 등의 일원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들과 그가 속한 단체, 지역, 국가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역사가도 한 인간으로 자신의 이해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역사가 자신도 인생관, 세계관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로 역사학의 가치중립성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관점에서 역사가의 가치판단이 역사 연구의 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역사가의 가치중립성을 문제 삼는 일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러나 만약 [역사] 연구의 일반적 취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역사가의 선호를 표현하는 우연한 촌평들로 인하여 과학적 역사학이 가치판단들을 삼가해야 한다는 선결조건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Mises, 2007, p. 301)

역사가가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사학자와 다른 학문

분야의 진리 추구자는 다르지 않다. 다른 학문 분야의 진리 추구자도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사가와 다르지 않다. 미제스는 진리 추구자의 입장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진리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았지만 진리 탐구자의 소망에 더 적합한 사물들의 상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 또는 존재했던 것을 언급하는 것이다.”(Mises, 2007, p. 298) 그러므로 하나의 학문으로서 역사가이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점도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압력단체, 매춘, 가학성도착증^{sadism}, 잔혹성 등과 같은 용어에는 일상에서 보통 사람이 사용할 때 비난의 의미가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역사가가 이런 현상을 언급할 때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가치판단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지 역사가는 그런 현상을 단순히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역사가가 그런 용어를 사용할 때 명백히 의도적으로 가치판단을 개입시키고 있다면 다른 문제이다.

마치 정신의학자가 가학성도착증이라는 말을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듯이, 역사가도 ‘잔혹한’이라는 말을 과거에 일어났던 일정한 행동을 설명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매춘과 같이 어떤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 자체가 비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가가 그런 현상을 언급할 때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역사가의 가치판단이 내포된 것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 점에서 역사가가 가치판단을 하지 않은 채 역사적 사실들을 다루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역사학의 중립성 문제와 관련하여 조심해야 할 것은 역사를 왜곡하

려는 시도와 구분하는 것이다. 일부 역사가가 역사를 왜곡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민족주의, 지역주의 *parochialism*, 국수주의 *chauvinism* 등으로 무장한 역사가의 역사적 설명은 진실의 왜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중국의 동북공정은 동아시아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서술의 대표적인 예인 것처럼 보인다. 일본의 일부 역사가도 제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동아시아 역사를 왜곡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가치중립성의 문제와 역사적 사실들을 해석하기 위한 다른 학문들의 이론들을 선택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역사 연구를 위해서는 수학, 자연과학들, 인간행동학들 등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이때 다른 학문 분야의 이론들이 일치된 것이고 옳은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런 이론들이 서로 상충된다면 역사가는 그런 상충하는 이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불행하게도 잘못된 이론을 선택한다면 그의 역사적 설명은 틀리게 될 것이고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¹⁰ 그런 잘못된 선택이 역사가의 가치판단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선택은 역사가의 무지의 결과이거나 잘못된 이론이 더 큰 인기를 누리는 결과일 것이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종종 잘못된 학설의 수용은 무지의 결과물일 뿐이거나, 또는 잘못된 학설이 더 정확한 학설들에 비해 훨씬 더 큰 인기를 누린다는 사실의 결과물일 뿐이다.”(Mises, 2007, pp. 301-302)

비역사적 학문들의 이론을 선택하는 문제를 제외하면, 역사가에게 객관성 유지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전문가들마저도 역사 자료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는 크지 않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이용 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사가들 간의 의견의 불일치도 이용 가능한 자료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그

런 불일치는 쉽게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단지 이용 가능한 증거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근거로 해서 의견의 불일치를 보일 수 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의 논의는 어떤 자의적인 서술도 허용하지 않는다.”(Mises, 1996, p. 52)

요약하면, 다른 과학과 마찬가지로 역사학도 가치중립적일 뿐 아니라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역사 왜곡, 다른 학문의 이론을 잘못 선택하는 일, 역사가 개인의 한계 등으로 자연과학과 같은 다른 학문과 비교하여 역사학의 중립성은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유명한 역사가마저도 가치중립적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말로 하면, 역사가는 다른 과학자들보다도 중립성 유지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4. 역사 연구에 있어서 개인과 집단

역사 연구에 있어서 개인과 집단의 중요성은 어떻게 다른가? 역사 연구에서 개인과 집단의 관계는 무엇인가? 역사에서 위인 또는 위인들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가? 다시 말하면, 위인 또는 위인들의 업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역사 연구에 있어서 개인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하고 집단을 강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과연 그런 역사 평가는 타당한가? 역사 연구에서 개인과 집단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앞에서 제기한 질문들은 역사 연구에서 작은 주제가 아니다.

첫째, 오직 개인들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역사 연구의 대상은 물론 개인이다. 이때 각 개인의 생각과 행동은 그의 동료의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그리고 이 영향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역사 연구는 다양한 개인이 그 대상이다. 바로 이 점에서 집단 또는 사회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다. 예를 들어 뒤르켐 **Durkheim**은 역사의 주체가 개인들이 아니라 집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제스는 그것이 틀렸다고 지적한다.¹¹ 뒤르켐만이 아니라 집단 또는 사회를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간주하고 그런 가정이나 전제에 의한 어떤 주장도 틀린 것이다.

역사 연구에서 각 개인은 여러 집단에 속해 있고,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다양한 교육을 받고, 다양한 피부색과 성을 가지며,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점이 의미하는 바는 개인들의 업적들과 미덕들 혹은 실수들과 사악함들을 한 국가 또는 집단의 마음으로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모든 개인이 그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 연구의 대상은 개인임이 분명하다.

역사 연구의 대상이 개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개인이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물론 아니다. 개인들은 보통의 개인들, 비범한 개인들, 위인들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물론 이 구분이 언제나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미제스는 역사에 있어서 보통의 개인들과 비범한 개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만의 사고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받아들이기만 할 뿐이다.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창조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이 들은 것을 반복하고, 그들이 보았던 것을 모방한다. (중략)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들과 그것들에 의해서 인도된 행동들이다. 한 집단을 또 다른 집단으로부터 구별 짓는 것은 그러한

혁신들의 결과다. 이런 혁신들은 집단의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항상 개인들의 성취들이다.”(Mises, 2007, pp. 191-192) 그 결과, 한 나라의 사람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분하게 하는 것은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수적으로는 비록 소수이지만 비범한 개인들이다. 비범한 개인들의 사고와 행동들이 만들어낸 복합 효과가 혁신과 변화를 창출하고, 그 결과 한 집단과 다른 집단 또는 한 국가와 다른 국가를 구분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역사 연구에서 그 대상이 개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개인이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개인의 행동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된다는 관점에서 개인이 가진 이데올로기는 역사 연구의 대상 가운데 하나이다. 인간은 교육을 포함한 경험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가지게 된다. 개인의 경험은 직접적인 것도 있고 간접적인 것도 있다. 인간은 어린이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특정한 종교적 사상, 철학적 사상, 형이상학적 사상, 정치적 사상 등을 가지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런 사상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고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인간이 가진 사상을 통틀어서 ‘이데올로기’라는 말로 압축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의 원천을 추적해 들어가면 우리는 그가 가진 이데올로기를 만나게 된다. 결국 인간의 행동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강조한다. “개인의 행동들은 환경을 통해 그가 획득해왔던 이데올로기들에 의해 안내된다.”(Mises, 2007, pp. 159-160)

둘째, 개인 간의 관계, 특히 위인과 평범한 개인 간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역사에서 위인들이 수행했던 역할이 훨씬 더 평범한 것이었다는 데는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고 미제스는 강조한다. 미제스는

“역사에서 심지어 위인들이 수행했던 역할이 훨씬 더 평범한 것이었다는 데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 (중략) 거인은 그의 동시대인들 각각을 능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는 난장이들의 연합군을 상대할 수 없다.” (Mises, 2007, pp. 186-187)라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정치가도 사업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을 줄 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제스는 그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정 담당자는 오직 그의 계획들을 그 시대의 의견의 분위기, 즉 그의 동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아이디어들에 맞춘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국정 담당자는 사람들이 가길 원하는 길에 발맞추며, 그들이 달성하길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사람들을 안내할 태세가 되어 있는 한에서만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여론을 적대시하는 국정 담당자는 실패할 운명이다. 그가 독재자든 아니면 민주주의하에서의 공직 담당자든 간에, 정치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얻길 원하는 것을 주어야만 한다. 이는 사업가가 고객들이 얻길 원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제공해주어야만 하는 것과 너무 똑 같다.” (Mises, 2007, p. 187)

미제스는 앞에서 제시한 이유로 역사가 위인들의 업적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역사를 단순화시켜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진실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비스마르크가 제2제국을 건설했다거나, 빌헬름 2세가 그 제국을 망하게 했다거나, 히틀러가 제3제국을 건설했고 망하게 했다는 등의 설명은 신중한 역사가라면 아무도 그러한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의 역사에 응용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3공화국의 경제적 성공이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라는 주장은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위한 표현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문자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역사

가와 대중은 제3공화국의 경제적 성공이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3공화국의 경제사를 정확하게 서술하고자 한다면 당시의 평범한 개인들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새로운 사고방식들의 개척자와 예술과 문학의 새로운 양식의 선구자들은 보통의 개인과 다르다. 개척자들이나 선구자들은 그가 사는 시대의 아이디어들이나 사상들에 좌우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의 사상들이라는 보고에 무엇인가 새롭고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것을 추가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을 창조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지만 선구자들의 업적도 그 중요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천재의 작품마저도 또한 역사적 사건들의 연속 속에 삽입되고, 선행하는 세대들의 업적들에 의해 조건지어지며, 아이디어들의 진화에서의 단지 한 장^章이 된다.”(Mises, 2007, p. 187)

넷째, 집단주의자들은 사회라는 것이 인간과 독립된 실체이고 개인보다 상위에 있다고 주장한다.¹² 집단주의자들은 사회 또는 국가가 개인들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총체적 복종을 명령한다. 바로 그 이유로 집단주의자는 전체주의자이다. 그 결과 역사 연구에서 개인은 무시되고 사회, 국가 등과 같은 집단이 중요시된다.

그러나 진실은 사회 그 자체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는 인간행동의 한 측면이다. 그러므로 사회를 인간행동의 외부 또는 상위에 있는 독립된 실체인 양 다루는 것은 틀린 것이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개의 인간으로서 인간은 반드시 사회적 동물이다. 몇몇 종류의 협동은 그의 본성이 가진 본질적 특성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 사회적 관계들을 마치 관계들 이상의 다른 어떤 것인 양 다루는 것을, 또는 사회를 마치 그것이 개별 인간들의

행동들 외부에 혹은 상위에 있는 독립된 실체인 양 다루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Mises, 2007, p. 252) 그러므로 개인들의 행동과 별개로 사회, 국가 등과 같은 것은 없다. 그 결과 역사 연구에서 다양한 집단을 적절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그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행동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집단은 개인들로 하여금 특정 그룹의 구성원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아이디어들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고, 이 아이디어들의 설득력이 뒷받침하지 않을 때 존재하기를 그치게 된다. 집단들을 인식할 유일한 길은 그 구성원들의 행위를 분석하는 것이다.”(Mises, 2006, p. 73)

다섯째, 개인과 대중 현상 또는 사회 현상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대중 현상 또는 사회 현상도 개인 행동의 결과인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사회 현상들과 대중 현상들이란 개인 현상들의 외부나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아니다. 사회 현상들과 대중 현상들은 개인 현상들의 원인이 아니다. 사회 현상들 또는 대중 현상들은 개인들의 협동 혹은 나란히 하는 행동 **parallel action**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란히 하는 행동은 독립적이거나 모방적일 수 있다. 이것은 반사회적 행동들과 관련해서도 또한 타당하다.”(Mises, 2007, p. 260)

이어서 미제스는 대중 현상과 사회 현상에 있어서 선구자들 또는 지도자들과 다수의 개인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중이 영혼을 가지거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수가 선구자들과 지도자들의 의견을 지지하고 그들의 행위를 모방하면서 가지는 아이디어들과 실천하는 행동들만 있다. 또한 군중들은 주모자들의 지휘하에서만 행동한다. 대중들을 이루는 보통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주도성의 결여다. 그들[대중들을 말함]은 수동적이지 않고 행동하기도 하지만 선동

가들의 부추김이 있을 때만 행동한다.”(Mises, 2007, p. 262)

그러나 미제스는 개인의 다른 활동을 제외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활동들을 다루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은 어떤 정당의 당원일 수 있고, 노동조합의 일원일 수 있고, 종교 단체의 신자일 수 있으며, 학부모로서 학교의 한 모임의 일원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그 개인이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파업에 참가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경우에 파업에 참가하는 행위를 다룰 때라도 종교 단체에서의 신자, 학교에서의 학부모 모임의 일원, 정당의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집단 활동들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룹을 구성한 개인들의 활동들이다. 다양한 개인들의 활동들에서 비롯되지 않은 사회 현상이란 없다. 집단 행위를 창출해낸 것은 개인들이 추구했던 특정 목적이고, 이 그룹에서의 협동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는 개인들의 믿음이다. 한 그룹은 인간의 소망들의 산물이고, 그런 소망들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관한 아이디어들의 산물이다. 그룹의 뿌리들은 개인들의 가치판단들 안에 있고, 특정 수단들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들에 대해 개인들이 지닌 의견들 안에 있다.”(Mises, 2007, p. 258)

사회 내에 존재하는 집단, 예를 들어, 국가, 정부, 노동조합, 각종 종교 단체, 기업, 스포츠 단체, 각종 자선단체 등과 같은 집단은 그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 존재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집단의 행동, 예를 들어 한 노동조합의 파업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노동조합에 속한 개인들의 행동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이 집단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제

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이것[사회적 집단은 개인들의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는 말은 다만 개인들의 특정한 행동이 그 집단을 구성한다는 의미이다.”(Mises, 1996, p. 43)

요약하면, 개인들의 협동 또는 나란히 하는 행동에 의해 대중 현상들이 만들어지지만, 선구자들 또는 지도자들은 사회 현상들의 주도자들이거나 지휘자들이다. 그러므로 미제스는 개인과 대중 현상 또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그렇지만 역사학의 주된 임무는 개인들의 행동들과 사건들의 진행의 관계를 적시하는 것이다.”(Mises, 2007, p. 261)

마지막으로, 역사 연구에 있어서 궁극적 기정사실로서 개별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지식 탐구를 무한정 진행할 수 없다. 자연과학이든 비자연과학이든 인간의 지식은 다른 사실로 그 사실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인간의 지식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지닌 모든 지식은 인간의 이성으로서 정복할 수 없는 장애물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장애물을 ‘궁극적 기정사실’이라고 한다. 역사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궁극적 기정사실을 만나게 된다. 역사 연구에 있어서 그런 궁극적 기정사실이란 ‘개별성’을 말한다. 개별성에 대해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예로 설명한다. “개별 인간들의 특징들, 즉 그들의 사상들과 가치판단들은 물론이고 그것들에 의해서 인도된 행동들은 그 특징들이 무엇인가의 파생물이 될 그 무엇으로 추적해 들어갈 수 없다. 왜 프레데릭 2세 Frederick II가 실레시아를 침공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가 프레데릭 2세였기 때문이라는 점 이외에는 아무런 해답이 없다.”(Mises, 2007, p. 183)

역사학에서 개별성이라는 개념은 정확히 무엇인가? 이 점을 미제스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류의 진정한 역사는 아이디어들의 역사이다. 아이디어들이야말로 인간을 다른 모든 존재들과 구분해주는 것이다. 사상들이 사회 제도들, 정치적 변화들, 생산의 과학기술적 방법들, 경제적 조건들이라 불리는 등의 모든 것을 낳는다. 그리고 사상들의 기원을 탐구할 때 우리는 한 인간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는 지점에 불가피하게 도달한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부차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이 역사학이 개별성이라는 개념에 붙인 의미이다.”(Mises, 2007, pp. 187-188) 물론 여기에서 아이디어들의 역사라는 것이 지성사 또는 사상사가 아니라 는 점은 이미 앞에서 지적했다.

다시 말하면, 역사 연구에 있어서 궁극적 여건 **ultimate data**은 개인들이 가진 아이디어들과 개인들이 한 행동들이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사 연구가 넘어서질 수 없는 역사학의 궁극적 여건은 인간의 아이디어들과 행동들이다. 역사가는 아이디어들을 이전에 발전되었던 다른 아이디어들로 추적해 들어갈 수 있다. 역사가는 환경적 조건들을 묘사할 수 있는데, 행동들은 그런 조건들에 반응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그러나 역사가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인간의 마음 안에서 그것들이 발생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점 이외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들과 새로운 행동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다.”(Mises, 2007, p. 160)

역사 연구에 있어서 개인의 특징들, 즉 그가 가진 사상들과 가치판단들과 그것들에서 나온 행동이 역사 연구에서 궁극적인 기정사실이라는 점을 앞에서 보았다. 자연과학들마저도 궁극적 기정사실들에 봉착한다. 그것은 역사철학 **philosophy of history**이 개별성에 대한 언급을 회피

하고 유물론이 역사학을 완전히 던져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모두 틀리다는 것을 의미한다.¹³ 이 점에 대해서는 ‘15장 유사 역사학 원리와 역사의 철학적 해석들’에서 다룬다.

역사 연구에서 개인의 특징들이 궁극적인 기정사실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에 적용해보자. 박정희가 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는가 하는 의문을 푸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에 박정희가 가진 사상들과 가치판단들과 그에 따른 그의 행동들이 역사 연구에 있어서 궁극적 기정사실이다. 박정희가 왜 ‘10월 유신’을 단행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도 전자와 동일한 말을 할 수 있다.

이 절에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계획하고, 성취했다.”라는 주장을 평가해볼 수 있다. 경제성장이 경제 역사로서 역사의 일부라면, 국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계획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경제성과, 즉 경제 역사는 계획된 결과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경제 역사를 국가 계획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특히 제3공화국의 경제 역사를 평가하는 일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역사 원리와 다른 학문들의 관계

역사학은 과거를 실제로 일어났던 모습대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역사학은 과거의 사건들을 그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대로 묘사하려고 노력한다. 역사학은 [과거를 충실히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사학의 진실에 대한 개념은 [역사

적 묘사가 한때 실제였던 것과 일치하는가이다.”(Mises, 2007, p. 274) 미제스는 다른 곳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지적한 적이 있다. 즉 “역사 분석은 되돌아보아 분석의 결과물이 실제로 있었던 것과 다를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물론 결과는 언제나 작동하고 있는 요소들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다.”(Mises, 2007, p. 273)

그러나 역사가가 과거를 충실히 재현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다. 먼 과거의 역사를 충실히 재현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가까운 과거의 역사를 재현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가까운 과거라 하더라도 사건들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중요성에 따라 배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사건들의 인과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복잡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과거 자료가 제약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역사가 자신이 가진 미신, 편견, 당파성 등도 역사 해석에 물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역사적 진실을 찾기 위해서 역사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가는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간행동의 배경에 놓인 목적, 가치판단,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다루어야 한다. 한 마디로, 역사가는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고 해석하기 위해 인간행동의 동기를 이해하고 설명해야 한다.

역사가가 인간의 목적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역사 연구의 방법론 또는 역사학의 원리 또는 역사 원리 **historical discipline**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역사 원리란,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원리를 경제 원리라고 하듯이 역사를 이해하는 원리라는 의미이다. “역사 원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 역사를 이해하는 원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의미한다. 미제스는 역사 원리로서 ‘이해’ 또는 ‘특정한 이해’라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으로 미룬다.

이해 또는 특정한 이해에 대한 설명을 잠시 접어두고, 역사가가 인간 행동의 목적 등을 이해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역사 연구를 위해서 역사학자는 먼저 다른 학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¹⁴ 역사가는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기 위하여 논리학, 수학, 자연과학, 인간행동학 등이 제공하는 지식을 이용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간행동학은 중요하다. 그러나 역사 연구에 있어서 다른 학문들, 특히 ‘비역사적’ 학문들은 역사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보조 도구이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다. 비역사적 학문들이 역사가가 다루고자 하는 질문들을 본질에 있어서 모두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가가 어떤 특정 사건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 동기들을 이해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역사가가 어떤 특정 사건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제학과 다른 선택적 또는 비선택적 과학, 즉 논리학과 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응용과학인 공학과 자연과학들에서 발견되거나 만들어진 지식의 도움이 언제나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장 넓은 의미에서 역사학은 인간 경험의 총체이고 그 경험 안에는 인간행동과 관련된 경험뿐 아니라 자연과학들의 경험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건과 특정한 행동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찾아내고, 특정 행동이 초래한 구체적인 결과를 추적하며, 행위자의 목적에 비추어 그 행동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열거한 학문들에서 산출된 지식의 도움이 필수적이다.¹⁵

그러나 역사학과 자연과학들은 인식론적 측면에서 구분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연과학들은 자유의지는 없지만 규칙성이 있는 물체를 다루고, 역사학에서 인간행동과 관련한 경험의 총체는 규칙성과 관련이 없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한 자연과학들을 특징적으로 만드는 것은 사건들의 연속에서 엄격한 규칙성의 범주로 경험 자료에 접근한다는 사실이다. 협의의 의미에서 역사학, 즉 인간행동과 관련된 경험의 총체는 이 범주(규칙성이라는 범주를 말함)를 참고하여서도 안 되고 참고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역사학을 자연과학들과 인식론적으로 구분한다.”(Mises, 2006, p. 40)

어느 시대나 각종 사회현상 중에서 경제현상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경제현상의 중요성은 서양에서 산업혁명 이후 특히 그러하다. 경제역사 또는 경제사만을 다루는 경제사학은 그 점을 잘 드러낸 학문이다. 그러므로 경제사학 또는 역사학에서 경제학의 역할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은 앞에서 제시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

경제사는 오로지 경제 행위들을 조명해줄 수 있거나 해석할 수 있는, 또는 설명할 수 있는 경제이론들 또는 경제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하다. 만약 경제이론들 또는 경제법칙들이 없다면 경제적 사실들 또는 경제적 결과 등에 관한 기록들은 어떤 자의적인 해석도 가능한 연관성 없는 자료들의 집적일 뿐이다. 그러므로 경제이론들 또는 경제법칙들은 경제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반대의 관계, 즉 경제사로서 경제이론들을 증명하거나 반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역사적 경험으로 경제이론들을 유도할 수도 없다. 이 점은 이미 앞에서 지적했다. 그와 반대로, 경제적 사실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경제이론들 또는

경제법칙들이다. 요약하면, 경제이론들 또는 경제법칙들은 경제 역사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경제 역사는 경제이론들 또는 경제법칙들을 부정하거나 긍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방법론적 관점에서 범물리주의자들은 전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20~1930년대 미국 경제는 1920년대 초반에 경기변동이 시작되었고, 1920년대 말에 위기가 닥쳤으며, 그 이후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깊은 침체에 빠졌다. 당시 정부와 국민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정확한 경기변동 이론이 있을 때만 이러한 일련의 현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가능하다. 정확한 경기변동 이론 없이는 당시의 경제 지표는 단순한 자료의 집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바로 그 이유로 정확한 경기변동 이론 없이는 어떤 자의적인 해석도 가능하다.¹⁶ 요약하면, 정확한 경제이론들 또는 경제법칙들은 역사, 특히 경제사 서술에서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해방을 전후한 역사, 제3공화국의 역사 등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여러 가지인 것은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이론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제3공화국의 역사는 경제 역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경제 역사를 설명하는 경제이론들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 역사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다르게 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3공화국의 경제 역사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확한 경제이론들을 찾아내거나 발전시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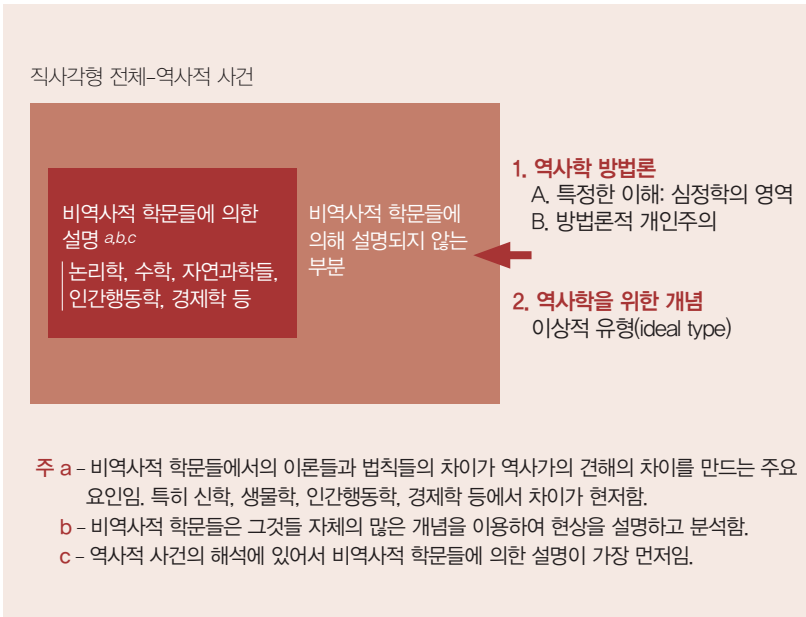
경제학이 과거 사건들에 대한 해석과 예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역사학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인간행동에 대한 실험과학인 인간행동학과 더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인간행동학의 가장 발전된 부분인 경제학이 자신의 영역에서

기록된 과거 사건들의 더할 나위 없는 해석과 특정 종류의 미래 행동 으로부터 기대되는 결과들의 더할 나위 없는 예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과 예상도 행동하는 개인들의 가치판단들의 실제 내용과 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해석과 예상] 양자 모두는 개인들이 가치평가하고 행동한다는 점을 전제한다. 그러나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의 정리들은 이 가치평가와 행동의 특별한 성격들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성격들은 인간행동과학들에게는 궁극적 여건이고, 그 성격들은 소위 역사적 개별성이라 불리는 것이다.”(Mises, 2007, p. 309) 물론 앞의 인용문은 앞 문단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의 중복에도 불구하고 인용한 것이다.

이어서 미제스는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역사학을 제외한 다른 학문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한다. 만약 다른 학문의 이론들이 믿을 만하고 확실하다면 현상들 자체의 내용에 대한 역사가들의 자의적인 대립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론이 다르다면 다른 서술이 있게 된다. 미제스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즉 “1914년부터 1923년 사이의 독일의 화폐사에 대한 서술은 그 저자가 받아들이고 있는 화폐 이론에 따라 달라진다.”(Mises, 1996, p. 53)라고 말이다. 앞에서 예로 든 대공황에 대한 연구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역사에 대한 역사가의 자의적인 해석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역사 이해를 도와주는 다른 학문의 이론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역사적 학문의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가의 이해가 다른 경우와 악의적인 사실 왜곡 등과는 구분할 것을 앞에서 지적했다.¹⁷

〈그림 2〉는 역사적 사건 또는 자료를 해석하는 경우에 비역사적 학문들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역사적 사

〈 그림 2 〉 역사적 사건의 해석



건의 해석에서 비역사적 학문들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논리학, 수학, 인간행동학, 자연과학들 등과 같은 다른 학문의 도움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역사가들 간에 견해의 불일치가 일어난다. 더 나아가, 논리학, 수학, 인간행동학, 자연과학 등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이론들이 서로 충돌하고 역사가들이 그 이론들 중에서 잘못된 이론을 선택한다면 그들의 역사 연구는 실패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제스는 오스왈드 슈펜글러 *Oswald Arnold Gottfried Spengler*의 *Decline of the West*와 아놀드 토인비의 *A Study of History*는 반자본주의 경제 사상을 전제하고 서술되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다.¹⁸ 요컨대, 미제스는 “역사가들 간의 견해 불일치가 발생하는 주요 원천은 그들의 연구에서 의존하고 있는 모든 다른 학문의 가

르침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Mises, 2007, p. 302)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역사학 이외의 학문들에 변화가 일어난다. 역사상의 동일한 문제일지라도 이러한 변화는 다른 해석과 이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때 역사가는 역사를 다시 쓰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은 동일한 역사상의 문제일지라도 각 세대는 그 문제들을 새롭게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다른 학문들의 변화로 역사상의 문제들이 각 세대에게는 종전과 다른 조명을 받고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미제스는 다른 과학의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 서술이 달라지는 경우의 예로서 옛날의 신학적 세계관을 제시한다.¹⁹ 미제스에 따르면, 옛날의 신학적 세계관은 현대 자연과학의 정리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다루게 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역사가가 특정 사건을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의 동기와 가치판단에 대한 특정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특정한 이해를 위하여, 역사가는 경제학뿐 아니라 수학과 논리학과 같은 실험 과학 또는 비실험 과학에서 유도된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와 함께, 역사가는 응용과학을 포함한 자연과학들로부터 유도된 지식 또한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역사가는 특정한 이해와 다른 학문들이 제공하는 지식으로 무장함으로써 인간의 행동과 역사적 사건의 인과 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그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추적하며,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행동의 성공 여부를 평가한다.

역사학 원리

앞 장에서 역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비역사적 학문들, 즉 역사학을 제외한 모든 다른 학문들의 필요성, 역사학과 비역사적 학문들의 관계 등을 설명했다. 그러나 역사가가 과거를 실제로 일어났던 모습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비역사적 학문들의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역사에는 비역사적 학문들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는, 역사에는 언제나 비역사적 학문들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남아 있기 마련이다.

역사에서 비역사적 학문들로는 분석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제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해’라는 원리를 제시한다. 결국 미제스는 역사학 원리로서 이해라는 원리를 제시한 것이다.²⁰ 즉 미제스는 역사적 사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라는 방법에 의해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미제스의 주장을 인용해본다. “역사

가가 직면하는 진정한 문제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처럼 언제나 그 사태를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른 모든 과학들[비역사적 학문들을 말함]이 제공하는 이론들의 기초 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가 직면하는 문제들 각각의 밑바닥에는 다른 과학들의 가르침으로 분석할 수 없는 무언가가 언제나 남아 있다. 각 사건의 바로 이런 개별적이고 독특한 특성이야말로 이해에 의해 연구되는 것이다.”(Mises, 1996, p. 49)²¹ 미제스는 이러한 이해를 베르그송은 ‘직관’이라고 불렀다고 덧붙이고 있다.²² 역사학 방법론의 하나인 특정한 이해의 역할이 〈그림 2〉에 나와 있다.

요약하면, 역사가가 역사적 사건을 분석할 때, 모든 비역사적 학문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남아 있는 경우에 – 그리고 그런 것은 언제나 남아 있다 – 역사가는 이해라는 방법으로 그 남아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미제스는 이해라는 방법의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즉 “이해를 발견한 것과 그 한계를 설정한 것은 현대 인식론의 가장 중요한 공헌 중의 하나였다.”(Mises, 1996, p. 50)

그렇다면 비역사적 학문들과 역사학에서의 이해 간의 순서는 어떤 관계인가? 역사가는 역사를 사태가 발생했던 그대로 재현하기 위하여 역사학을 제외한 다른 학문들의 도움을 받아 설명할 수 있는 역사의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도 설명이 안 되고 남아 있는 역사를 역사학 원리인 이해라는 방법을 통해 설명한다. 〈그림 2〉에서 역사가는 작은 직사각형 부분을 먼저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비역사적 학문들에 의해 설명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역사학의 이해라는 방법을 동원한다. 비역사적 학문들에 의한 역사적 사건(들)의 분석 또는 설명은 역사학의 이해를 위한 일종의 예비 작업인 셈이다. 요컨대, 비역

사적 학문들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건 집단에서 독특하고 개별적인 것이고, 이해라는 수단에 의해 역사적 사건 또는 사건 집단의 개별성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사학의 인식은 각 사건 또는 사건 집단에서 독특하고 개별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한다. (중략) 이 예비 작업[연구 대상을 비역사적 학문들로 설명하는 것을 말함]을 거친 후에 역사학은 자신의 고유한 문제, 즉 이해라는 수단에 의거해 각 사례가 가진 독특하고 개별적인 특성의 규명에 직면한다.”(Mises, 1996, p. 51)

한 마디로, 역사학의 방법론 또는 역사학 원리는 이해이다. 역사학 방법론으로서 이해란 비역사적 학문들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정신적으로 납득하는 것임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즉 “이해의 범위는 논리학, 수학, 인간행동학, 자연과학들 등에 의해 전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현상들을 정신적으로 납득하는 것이다. 이 모든 과학들[즉 앞에서 언급한 논리학, 수학, 인간행동학, 자연과학들 등을 지칭함]에 의해 그런 현상들이 깨끗이 치워지지 않는 한에서는 말이다.”(Mises, 1996, p. 50)

여기에서 역사학의 방법론인 이해와 비역사적 학문들의 관계에 대해 주의할 점이 있다. 미제스는 비역사적 학문들에서 유도된 지식과 역사학에서의 이해가 서로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²³ 비역사적 학문들에서 유도된 지식이 학문에 따라 아직도 완전한 상태가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을 제외한다면, 역사가가 역사를 설명하고 해석할 당시까지 발달된 비역사적 학문들의 지식과 역사학의 이해로부터 유도된 지식은 모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미제스가 강조하는 이해는 역사 연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²⁴ 또는 역사 연구에서 이해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 번

째 대상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치판단에 의존하여 선택한 목적이다. 즉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목적을 추구한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 대상은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한 수단이다. 즉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수단에 의존하여 목적을 성취하고자 한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세 번째 대상은 개인이나 집단이 그런 목적과 수단의 선택에 의하여 성취하고자 한 행동의 결과이다. 물론 행동의 결과는 목적에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전자는 성공한 경우이고 후자는 실패한 경우이다. 이와 동시에, 결과의 강도도 평가해야 한다. 행동의 결과와 결과의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어떤 사건의 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해의 세 가지 대상 중에서 첫 번째 대상이 다른 두 대상에 비해 중요하다.²⁵

역사적 사건은 언제나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사건 집단도 독특하고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앞에서 지적했다. 그러므로 앞에서 제시했던 이해라는 역사학 원리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특정한 이해’라는 원리가 된다. 요컨대, 역사학 원리는 특정한 이해이다.

그러면 과거 사건들의 특정한 이해라는 역사 연구의 방법은 정확히 무엇인가? 미제스는 “그것[아래에서 말하는 심정학을 지칭하는 심리학을 말함]은,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 행위를 할 때 필요불가결한 재능이자, 그에 못지않게 역사가들에게는 물론이고 시들, 소설들, 연극대본들 등을 짓는 저자들에게도 필요불가결한 재능인, 인간의 정서들, 열의들, 아이디어들, 가치의 판단들, 의지들 등에 대한 인식도 의미한다. 현대 인식론은 역사가들의 이러한 정신적 과정을 인간행동을 다루는 역사

과학들의 특정한 이해라고 부른다.”(Mises, 2007, p. 264)라고 설명한다. 심정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10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특정한 이해라는 원리에 대하여 미제스의 설명을 더 들어보자. 즉“인간행동과학들에 있는 이 특정한 이해는 인간들이 직면하는 환경의 상태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들을 입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즉 인간들이 이 상태를 평가하고 이런 가치평가들에 자극을 받아서 인간들이 목적 지향적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지배적이게 될 사건들의 상태와 다른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만들기 위하여 특정한 수단에 의존한다는 사실들을 입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Mises, 2006, p. 43)

요약하면, 미제스는 역사학의 원리로서 특정한 이해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설명한다.²⁶ 첫 번째 기능은 역사에서 인간들이 추구한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들을 선택한 것인가를 입증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능은 행동의 결과와 그 결과의 강도, 즉 행동이 사건들의 후속 과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정한 이해에 의해 사건의 결과에 미친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은 자연과학에서의 수량적 분석과 측정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미제스는 설명한다.²⁷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이해의 대상인 세 가지와 특정한 이해의 두 가지 기능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특정한 사건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역사에서는 특정한 이해라고 부르지만 그 대상은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다만 미제스는 특정한 이해를 설명할 때 행동을 초래하게 된 가치평가와 추구하는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하나로 묶어서 분류하고 행동의 결과를 다른 하나로 구분함으로써 약간 다르게 설명할 뿐이다.

특정한 이해라는 역사 연구의 방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행동의

의미(meaning of action)’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미제스는 지적한다.²⁸ 미제스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재규정한다. “역사학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관련된 인물이 부여했던 의미이다. 즉 그 사람들이 변경시키고 싶었던 사물들의 상태에 붙이는 의미이고, 그들이 그들의 행동에 붙이는 의미이며, 그들이 그 행동들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에 붙이는 의미이다.”(Mises, 1996, p. 59)²⁹ 이어서 역사가는 인간이 한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미제스는 설명한다.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12장 이상적 유형’에서 하고자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역사 과학에 사용되는 특정한 이해라는 방법은 객관성에 있어서 자연과학들, 수학, 논리학, 인간행동학 등보다 열등하다.³⁰ 극단적으로, 역사가들이 역사적 사건의 모든 것에 동의하더라도 그 모든 것의 해석에서는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이해라는 행위는 ‘논리적’ 도구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어야 한다. 특정한 이해라는 개념 또는 도구가 역사 연구에 있어서 반계몽주의(anti-Enlightenment), 신비주의, 이와 유사한 요소들을 도입하는 데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미제스는 강조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법정에서 마녀의 존재와 마녀의 요술에 대해서 수없이 입증되었지만 역사가가 이해라는 방법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때로는 역사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은 이해에 기대어 자신들의 잘못된 역사 해석을 옹호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모두 논리적 도구인 특정한 이해라는 역사학의 원리를 잘못 이용하는 것이다. 미제스는 논리적 도구인 특정한 이해가 비논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경고한다. 요약하면, 역사학의 원리인 특정한 이해가 경제학만큼은 아니지만 논리적인 것

임은 분명하다.

그러면 역사학 원리로서 특정한 이해가 역사가들만의 전유물인가? 특정한 이해라는 역사학 원리는 역사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실 역사 원리로서 특정한 이해는 모든 사람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응용되고 있다. 특정한 이해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다. 특정한 이해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인간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인지해야 하는가? 로빈슨 크루소가 아닌 한 인간은 행동할 때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무시하거나 인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인간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인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목적 추구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비례할수록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인지하는 일의 중요성이 비례하여 상승한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행위가 우리나라 대학입시에서 ‘눈치 보기’ 입학원서 제출이다.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입시의 당락이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의 행동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입시의 눈치 보기는 보통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인지하는 방법으로서 특정한 이해를 응용한 경우이다.

대학입시에서의 눈치 보기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인지하는 행위가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일 뿐이다. 기업가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받

는다. 소비자의 선택은 궁극적으로 기업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기업가는 소비자의 행동을 인지해야 한다. 기업가는 특정한 이해를 통하여 소비자의 목적과 수단 선택, 즉 소비자의 행동을 인지하고자 한다. 정치가는 넓게는 국민 일반, 좁게는 정책 대상자인 일부 국민의 선택이나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 사실 모든 일상에서 인간의 삶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행동과 선택을 이해해야 한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특정한 이해라는 방법론이 역사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미제스는 특정한 이해를 모든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 응용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즉 “역사 원리라는 특정한 이해는 역사가들만이 전적으로 의존하는 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특정한 이해는 모든 사람이 그의 동료들과의 일상적인 왕래에서 응용되고 있다. 특정한 이해는 모든 사람 간의 관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특정한 이해는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거래에서 경영자들이, 국사에서 정상배들과 정치가들이 실행하는 것이다. 그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치평가들과 계획들에 대해서 정보를 모으고 그것들을 정확히 평가하기를 열망한다.”(Mises, 2007, p. 265)

특정한 이해라는 역사 원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인지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용되는가를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특정한 이해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인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한 이해는 되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가 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고,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특정 목적을 선택할 때 그가 의미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의 행동의 결과물은 무엇이었는가? 또는 미래를 위해 이와 유사한 질문들도 던진다. 그가

무슨 목적들을 선택할 것인가? 그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의 행동의 결과물은 무엇이 될 것인가?”(Mises, 2007, p. 310)

물론 이때 과거 사건들에 대한 특정한 이해 또는 인간들의 과거 가치판단과 행동에 대한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인간의 미래 반응을 이해하기 수단일 뿐이다. 이 점을 미세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즉 “특정한 이해의 주요 인식론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어떻게 한 인간이 다른 사람의 미래 가치 판단들과 행동들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중략) 그러나 행동하는 사람, 즉 각각의 모든 사람이 그의 동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직면하는 과제는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관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미래 반응을 아는 것이 행동하는 사람의 우선 과제이다. 행동하는 사람의 과거 가치 판단들과 행동들에 대한 지식은 비록 불가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미래 행동을 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Mises, 2007, p. 311)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은 덜 만족스러운 현재 상태를 더 만족스러운 미래 상태로 바꾸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미래 상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목적과 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자연 현상들에 의해 초래되는 변화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샬레르노는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특정한 이해와 자연 현상들에 대한 이해를 모두 필요로 한다고 설명한다. 즉 “그래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위자는 사물들의 미래 상태에 영향을 주는 - 자연 현상들에 의해 초래되는 - 변화들을 예상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 - 행위자처럼 같은 시점에서 계획하고 행동하는 사람 - 의 행위에 의해서 초래될 변화들을 예상해야만 한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의 가치들과 목표들을 이해

하는 것이 성공적인 행동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다.”(Salerno, 2005, pp. 16-17) 물론 여기에서 특정한 이해는 미제스가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해 또는 특정한 이해의 한계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이해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역사에서 비역사적 학문들로 설명되지 않는 것, 즉 앞에서 설명한 이해의 대상에만 국한해야 할 뿐 아니라 이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역사를 설명하는 경우에도 역사가가 비역사적 학문인 자연과학이나 경제학의 원리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해는 현대 역사가에게 푸닥거리는 언제나 병든 소를 치료하는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주장할 권한을 주지는 않는다. 또한 이해가 현대 역사가로 하여금 경제법칙이 고대 로마 또는 잉카 제국에서는 타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도록 하지도 않는다.”(Mises, 1996, p. 68)

요약하면, 행동하는 인간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의해 초래될 변화들을 예상해야 할 뿐 아니라 자연 현상들에 의해 초래될 변화들을 예상해야 한다. 미래는 언제나 변한다. 그 미래의 변화는 다른 인간들에 의해 초래될 뿐 아니라 자연에 의해서도 초래된다. 그러므로 그 미래의 변화를 예상하고자 한다면 그 둘에 의해 초래될 변화를 예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의해 초래될 변화들을 예상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가치들과 목표들을 이해해야 한다. 역사학 원리로서 이해 또는 특정한 이해가 작동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해 또는 특정한 이해의 한계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의 일부로서의 심정학³¹

그러면 특정한 이해라는 역사학의 방법론은 정확히 무엇인가? 그리고 특정한 이해가 어떻게 인간의 동기와 같은 전적으로 주관적이면서 관측 불가능한 **unobservable** 것에 대해 진정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 장에서는 특정한 이해라는 역사학 방법론의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정한 이해는 인간의 의지와 가치평가를 다룬다는 점에서 심리학의 영역이다. 심리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소위 ‘실험 심리학 **experimental psychology**’ 또는 ‘자연적 심리학 **naturalistic psychology**’과 ‘심정학’이다. 실험 심리학 또는 자연적 심리학을 그냥 심리학이라고 부른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심리학, 즉 자연적 심리학과 구분하여 인간의 의지와 가치평가를 다루는 학문을 심정학이라고 부르자고 미제스는 제안한다. 심정학이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어의 파생어로서 인간의 감정, 동기, 아이디어, 가치와 의지에 대한 판단 등의 원천이라고 믿어지는

정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살레르노는 설명한다.³² 그러므로 특정한 이해는 심정학의 영역이다.

심정학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심정학은 인간의 사고들, 판단들, 욕구들, 행동들 등의 내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미제스는 지적한다. 그런 심정학은 자연적 심리학과 어떻게 다른가? 자연적 심리학은 인간의 사고들, 판단들, 욕구들, 행동들 등의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심정학은 앞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사고들, 판단들, 욕구들, 행동들 등의 내용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러면 심정학과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의 관계와 심정학과 역사학의 관계는 무엇인가? 심정학과 경제학을 포함하는 인간행동학의 관계를 먼저 보기로 한다. 경제학을 포함하는 인간행동학은 인간의 목적과 가치판단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지 않는다. 경제학에서 인간의 목적과 가치평가는 궁극적 여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왜 어떤 사람은 녹차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는 심정학의 대상이다.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은 행동 그 자체가 연구의 주제이다. 그러므로 심정학은 인간행동학과 경제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심정학은 역사학의 일부분이다. 물론 이 점도 앞에서 설명했다. 역사학의 대상인 인간의 목적과 가치판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험에 의해서만 유도될 수 있다고 미제스는 설명한다. 그 길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거 행동과 가치판단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자신의 행동과 가치판단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과 가치판단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내적 성찰(introspection)’이라고 부른다. 요약하면,

심정학 연구의 길은 두 가지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거 행동과 가치판단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과정, 심정학에 대해서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편으로 심정학은 내적 성찰의 자손이다. 다른 한편으로 심정학은 역사적 경험의 침전물이다. 심정학은 모든 사람이 그의 동료와의 왕래에서 배우는 것이다. 심정학은 인간들이 다른 조건들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인간들의 소망과 욕구에 대해서, 그런 소망과 욕구를 실현하는 그들의 계획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심정학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고 행동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지식이다. 또는 역사학자들에게 있어서 심정학은 특별한 원자료들을 연구함으로써 배우게 되는 낯선 환경에 대한 지식이다.”(Mises, 2007, p. 266) 바로 그 이유로 우리는 심정학을 ‘역사학의 한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미제스는 지적한다. 왜냐하면 심정학은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심정학적 지식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제 심정학에서 두 번째 방법인 내적 성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미제스는 인간의 행동과 관련해서는 그가 지향하는 목적과 무관한 진술이나 명제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설명한다. 즉 모든 인간의 행동은 목적을 지향한다. 정신 장애자, 어린이 등을 제외하면, 이 점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³³ 이것이 소위 행동의 목적론임을 ‘5장 행동의 목적과 선협주의’에서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신이 목적 지향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할 열쇠를 갖게 된다. 그 이유로 미제스는 “가치와 행동이라는 범주들은 모든 개별 인간의 마음에 현존하는 가장 우선적이고 선협적인 요소들”(Mises, 2007, p. 283)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제 인간은 내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목적과 가치판단을 경험

하고 다른 사람의 목적과 가치판단도 경험할 수 있다. 그리하여 미제스는 “인간행동의 영역에서 수단과 목적이라는 범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경험할 수 없다.”(Mises, 2007, p. 284)라고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신이 목적과 가치판단에 의존하여 행동한다는 것을 알고, 바로 그런 사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목적과 가치판단도 경험할 수 있다. 비록 간접적인 것이지만 말이다.

요약하면, 심정학적 지식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유도된다. 내적 성찰과 역사적 경험이다. 이제 미제스는 역사 연구에 있어서 심정학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즉 “인간을 심정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역사 연구에서 필수 불가결하다. 그것은 궁극적 목적과 가치판단들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전해준다.”(Mises, 2007, p. 280) 그러나 심정학적 지식은 인간행동학과 경제학과 관련이 없음을 앞에서 지적했다. 왜냐하면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궁극적 여건이고, 행동의 목적들과 가치판단들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심정학이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미제스는 심정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과거에 일정한 사람들과 일정한 무리의 사람들은 특정한 방법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심정학이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전부이다.”(Mises, 2007, p. 272) 이어서 미제스는 다시 “심정학이 성취한 것은 인간이 지닌 특성들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다. 게다가 심정학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어떤 특성들은 다른 특성들과 연계하여 나타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심정학은 자연과학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코 예측해낼 수는 없다. 심정학은 특정한 미래의 사건에 여러 요소들이 각각 어떤 비중으로 작용할지를 결코 미리 알 수도 없다.”(Mises, 2007, p. 274)

라고 설명한다. 다른 곳에서 미제스는 심정학적 지식이라는 것이 구체적이고 풍부하지 않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즉 “심정학은 단지 인간이 다양한 선천적 본능들, 다양한 정열들, 다양한 아이디어들 등에 휩쓸리고 있다는 점만을 말해준다.”(Mises, 2007, p. 313) 심정학 또는 역사학과 미래 예측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4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요약하면, 인간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미래 행동을 예상해야 한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목적 또는 행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미래 행동을 예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심정학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의 미래 행동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누적된 심정학적 지식 또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면 심정학적 지식을 어떻게 획득하는가? 심정학적 지식의 원천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것이다.³⁴ 그러므로 심정학적 경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행동하는 사람이 그와 관련 있는 개인들 또는 집단들—예를 들어, 가족들, 친지들 등을 말함—과의 과거 접촉을 통해 얻는 지식으로 ‘특별한’ 심정학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일반적’ 심정학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지식은 동료 인간들을 관찰하고 그들과 거래를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얻는 것과 독서나 소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심정학적 지식은 다른 사람의 미래 행동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심정학적 지식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축적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물론 심정학적 지식의 질과 양은 개별 인간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 점에서 역사가의 역사에 대한 이해 또는 설명이 달라질 수 있다. 개별 역사가의 심정학적 지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흔히 기업의 운명은 기업가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한다. 이때 기업가의 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목적이나 동기를 이해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정확한 심정학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기업의 이윤은 기업가가 판매하고자 하는 재화의 미래 가격에 대한 자신의 예측에 달려 있다.³⁵ 결국 기업의 운명은 다른 사람의 목적이나 동기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이 판매(하고자)하는 재화의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심정학은 역사학의 일부이다. 역사가는 과거 행위자들의 동기나 목적을 추정해야 한다. 이 경우에 앞에서 말한 심정학적 경험 또는 지식을 기초로 행위자들의 동기나 목적을 추정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1장에서 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과거의 심정학적 지식이나 경험을 기초로 하여 행위자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들, 친구들, 친척들, 지인들, 낯선 사람들 등이 특별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어본다.³⁶

양당제하의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한 상태에서 야당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예상은 여러 번의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획득된, 투표자들에 대한 정치가들과 상당수 사람들이 보유한 심정학 지식이다. 여당 후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을 할 수 있다. 그런 지식을 근거로 야당 대통령 후보가 둘 이상이 되면 서로 협상을 통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진보정의당과 같은 군소 정당이면서 국민적 지지도가 낮은 정당의 경우 당장은 대통령 후보가 출마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예측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어서 각 정당 후보

자들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예상은 투표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상한 투표의 결과이다. 자신의 배우자가 생일 선물로 받고 싶어 하는 보석이 어떤 것인가 하는 예상, 아들은 주로 블록버스터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어떤 부류의 학생이 학점에 대한 불만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 등은 모두 과거에 배우자, 아들, 학생들 등의 가치판단과 행동 등을 직접적인 경험으로 얻은 지식에 의존하여 예상한 것이다. 우리는 재화의 가격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사람들이 개인용 컴퓨터의 가격을 잘 모르는 경우에도 그 재화의 가격이 3개월 또는 5개월 이내에 두 배 이상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심지어 모르는 사람 또는 낯선 사람의 행동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부인을 우리가 희롱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즉각 어떤 응징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을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다. 비록 남편과 부인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에도 말이다. 비록 동화에서도 인간이 심정학적 지식을 이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늑대소년의 경우에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계속되는 거짓말에 여러 번 속임을 당한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늑대소년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상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정말로 늑대대가 마을에 나타났음에도 마을 사람들은 소년을 구하러 가지 않는다. 물론 동화에는 마을 사람들의 예상이 틀렸고 그 결과 소년은 늑대에 의해 희생되었다. 이 동화는 마을 사람들의 심정학적 지식이 소년의 과거 행동과 의도한 목적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알려진 경우, 그 사람의 가치관과 평소의 행동 등을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은 그 사람이 그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를 현실에서 목격할 수 있다. 지인들이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에 대한 심정학적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사람들의 무수히 많은 예상과 그 예상의 정확성은 자신들의 지인들의 가치, 목적에 대한 특정한 이해와 무수히 많은 익명의 행위자들의 가치, 목적에 대한 특정한 이해에 의존하게 된다.

이제 심정학적 지식과 자연과학에서 실험을 통해 유도되는 ‘실험적 지식 *experimental knowledge*’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³⁷ 자연과학에서의 실험적 지식은 ‘과학적 사실들 *scientific facts*’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실들의 진리 여부는 시간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심정학적 지식은 ‘역사적 사실들 *historical facts*’에만 국한하고 그렇기 때문에 독특하고 반복되지 않는 사건들이다. 그러므로 자연과학의 실험적 지식과 역사학의 심정학적 지식은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심정학적 지식에 의존하는 역사학은 실증주의와 같이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을 채택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채택해서도 안 된다. 이 점은 경제의 역사, 즉 경제사에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대 경제사가 실증주의 또는 수량적 분석에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역사가의 연구 과정을 요약해보기로 한다. 첫째, 역사는 역사적 사건을 먼저 비역사적 학문들로 설명한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은 비역사적 학문들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언제나 남아 있다. 둘째, 역사가가 역사적 사건을 회고적으로 돌아볼 때 심정학적 지식에 의존하여 사건에 대한 특정한 이해를 해야 한다. 특정한 이해의 대상은 역사적 사건에서 비역사적 학문들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때 역사는 먼저 사건에 영향을 미쳤던 요소들이나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해야 한다. 그 과정은 이렇다. 먼저 고려 중인 구체적인 사례에서 아무런 구체적인 역할도 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을 제쳐둔다.

그런 연후에 그는 남아 있는 요소들 사이에서 선택한다. 다음으로 역사가는 그런 요소들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가가 사건을 분석하고 설명할 때 분석과 설명의 정확성은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영향력의 정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점은 정치가, 국정 담당자, 장군, 기업가 등이 미래 사건들에 대해 특정한 이해를 할 때도 동일하다. 즉 정치가, 국정 담당자, 장군, 기업가 등이 미래 사건을 예상하고자 할 때 미래 사건을 결정하는 요소들만을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 요소들, 각각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예상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 사건을 결정하는 요소들의 영향력의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그 요소들 자체를 예상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역사 연구의 일부로서의 심정학은 역사 연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인간을 심정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역사 연구의 본질이다. 그것[심정학적 분석]은 궁극적 목적과 가치판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전해준다.”(Mises, 2007, p. 280) 미제스의 이 말은 심정학적 지식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역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만약 역사가가 비역사적 학문들의 도움과 심정학적 지식에 의한 특정한 이해를 통하여 과거 역사를 분석하고 설명한다면 그 분석은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와 일치하게 된다. 만약 역사가의 노력이 조금도 틀림이 없다면 말이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사적 분석은 되돌아보아서 결과물이 실제 그것과 다르게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물론 [역사적] 결과는 언제나 작동하고 있는 요소들의 필연적 결과물이다.”(Mises, 2007, p. 273) 다시 말하면 만약 역사

가가 심정학에 의존할 뿐 아니라 다른 학문에서 나온 지식들 중에서 틀린 지식을 채택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면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역사가의 분석과 설명은 정확하게 된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역사가의 역사적 사건들의 서술과 분석이 사건들이 발생했던 당시의 모습과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행위자의 동기 추정

앞 장에서 우리는 역사 연구에서 역사가가 행위자들의 동기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았다. 역사가에게 행위자들의 동기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일은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코 쉽고 확실한 일도 아니다. 이 점은 먼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 가까운 과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행위자들의 동기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일은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역사가가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이다. 라스바드는 인간의 동기에 대한 추정과 평가에서 역사가가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역사가가 절대적이고 명백히 확실하게 인간의 동기를 평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동기를 추정하고 평가해야 하는 것이 그의 피할 수 없는 조건의 일부이다.”(Rothbard, 1974, p. 4)

그러나 정치 과정 **political process**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특히 그 과정

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자들은 고의적으로 자신들의 그런 동기를 숨기거나 모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가 역사적 사건에서 행위자들의 동기를 발견하고 그 중요성의 정도를 가늠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된다. 다시 말하면, 정치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자들은 ‘공익’으로 대변되는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집단의 경제적 이득을 숨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³⁸ 라스바드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런 상황들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위자 자신은 그의 경제적 동기를 감추고, 그보다 더 추상적이고 이데올로기적 관심을 떠벌리고자 최대한 노력한다.”(Rothbard, 1974, p. 4) 다르게 말하면, 정치적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자들은 공익만을 내세우고 경제적 동기는 감추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 점이 의미하는 바는 공익을 내세우는 정책이나 제도의 경우에는 감추어진 동기의 존재 여부를 조심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라스바드는 역사가가 행위자들의 동기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길잡이를 제시한다.³⁹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행동에 있어서 경제적 이해관계의 인과 사슬이 단순하고 직접적인 경우이다. 예를 들어 본다. 농민들이 쌀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요구하면서 ‘식량안보’와 같은 ‘공익’을 내세우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때 역사가를 포함하여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공언된 동기에도 불구하고 쌀 수입 금지의 근본적인 동기가 쌀 생산자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명확히 알아차릴 것이다. 즉 쌀 수입의 금지가 해외 쌀 생산자들의 국내 시장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국내 쌀 생산자들이 획득하게 되는 혜택, 즉

‘독점 이득(monopoly gain)’을 증대시키고자 함이라는 것이다.⁴⁰

그러나 문제는 행위자들의 행동이 더 길고 더 복잡한 인과 사슬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이다. 라스바드는 그런 사례를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다.⁴¹ 그중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실시했던 마셜 플랜(Marshall Plan)에 대한 분석을 간략히 소개한다. 당시 미국의 정치가들, 정부 관료들 등은 굶주림과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셜 플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떠벌렸다. 그들은 마셜 플랜의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마셜 플랜이 미국의 수출 산업들에 보조금을 주고 그 결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은 감추어졌다. 그런 경우에 역사가들은 문제의 더 많은 조사와 더 깊은 연구를 통해 이렇게 교묘하게 감추어진 경제적 동기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기로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에 소위 ‘농지개혁’을 실시했다.^{42,43} 이때의 농지개혁은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을 채택했다.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이란 농지의 소유자에게 국가가 토지 보상금을 주고 농지를 강제로 사들이고 그 토지를 소작인 또는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민에게 분배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 정치가는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당시 다수를 차지한 소작인에게 토지를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당시 북한에는 김일성 정권이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결국 농지개혁의 동기가 공산화의 억제라는 ‘공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농지개혁의 경우는 마셜 플랜과 아주 유사한 경우이다. 농지개혁의 실질적인 동기는 당시 다수를 차지한 소작인에게 농지를 강

제로 분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목적은 감추어졌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당시의 농지개혁의 동기가 공익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때 정부도 농지개혁으로 많은 경제적 이득을 보았다. 비록 정부가 획득했던 경제적 이득이 의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말이다. 물론 이 점은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농지개혁의 ‘감추어진’ 동기는 경제적 이득이고 당시의 정치가들, 공무원들 등이 주장했던 공익은 ‘명시적인’ 동기일 뿐이다. 앞에서 언급한 농지개혁의 경제적 동기에 대해서는 필자가 역사가로서 처음 주장하는 것이다. 이 주장이 1950년대 초에 단행된 농지개혁의 동기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정치가들, 북한 관련 전문가들과 운동가들, 농민들 등은 굶주리고 있는 북한의 인민을 위하여 대북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천했다. 즉 그들은 ‘공익’을 위하여 대북 식량지원을 강조했고 실천했다. 비록 상당수 국민이 대북 식량지원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문제는 대북 식량지원 정책이 우리나라 농민에게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대북 식량지원 이전까지 쌀은 각종 보조금으로 인하여 매년 상당한 양이 초과공급되었다. 이런 상황은 보조금을 받는 농민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국내에서 쌀이 지속적으로 남아돌면 쌀 시장에서 가격이 하향 압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쌀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농민이 쌀 농사와 관련한 각종 보조금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한다. 즉 대북 식량지원은 사실상 미국의 마셜 플랜과 같은 것으로서 우리나라 농업에 보조금, 즉 경제적 이득을 주기 위한 목적이 감추어진 것임을 필자는 주장한다. 대북 식량지원이 공익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질적

으로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역사가로서 필자가 처음 주장하는 것이다. 이 주장도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대중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서 행위자들의 동기는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대중운동에서 행위자들의 동기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일은 일반적인 역사적 사건에서 행위자들의 동기를 이해하는 일보다도 어렵기 때문이다. 대중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서양에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어졌던 자유주의운동-libertarian movement, 미국의 독립운동인 미국혁명-American Revolution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4·19 의거, 5·18 운동 등이 대중운동의 좋은 예이다. 사실 길게 보면 앞에서 소개한 사례는 역사에서 대중운동의 일부일 뿐이다.

라스바드는 미국 혁명의 예를 들어 대중운동에서 행위자들의 동기를 이해하고 찾아내는 방법을 설명한다. 대중들은 일상의 삶을 영위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깊은 생각을 할 수 없다. 결국 대중운동의 중심에 있는 아이디어 또는 사상,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그것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지식인들이 만들거나 전파한 것이다. 그런 지식인들은 크게 보아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한 그룹은 반-국가주의자-anti-statist이고 다른 한 그룹은 국가주의자-statist 또는 친-국가주의자-pro-statist이다.

문제는 국가주의자 또는 친국가주의자의 아이디어가 대중운동을 이끌게 되면 국가의 확장이나 설립으로 일부 집단이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고, 반국가주의자가 대중운동을 이끌게 되면 공익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이데올로기가 대중운동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과 관련이 없다. 라스바드는 미국 혁명의 경우에 영국의 식민지배로

부터 분리하는 독립운동이기 때문에 반국가주의적 운동으로서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또는 공익이 당시 운동 참가자들의 동기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미국 헌법의 채택은 친국가주의자의 아이디어가 대중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채택되었다. 즉 미국 헌법의 채택은 국가주의를 신봉하는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 헌법의 채택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행위자들의 동기라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의) 헌법은 혁명(미국의 독립운동인 미국 혁명을 말함)을 완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혁명에 대한 반작용이었다.”(Rothbard, 1974, p. 7)라고 라스바드는 결론짓고 있다.

라스바드는 대중운동과 복잡한 역사적 사건에서 행위자들의 동기를 이해하고 간파하기 위한 이론적 길잡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데올로기(즉, 공익)가 반국가주의 운동들의 주요 길잡이라는 점과 대조적으로, 경제적 동기가 국가주의적 행동들의 주요 동인이라는 아이디어가 그 결과 미국 혁명의 사료를 분석함으로써 확인된다. 아마도 이 기초적인 틀을 채택하는 것이 인간 역사에 있어서 다른 주요 사건들과 운동들을 분석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Rothbard, 1974, p. 7) 다시 말하면, 반국가주의 운동은 그 동기가 공익이고 국가주의 운동 또는 친국가주의 운동은 그 동기가 경제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라스바드는 “결과적으로, 반대운동 또는 혁명운동 또는 사실상 아래로부터의 어떤 대중운동도 근본적으로는 통상적인 경제적인 동기들에 의해 안내될 수 없다.”(Rothbard, 1974, p. 5)라고 주장한다.

살레르노는 역사 연구에 있어서 행위자들의 동기에 대한 라스바드의 공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 길잡이(앞에서 언급한 이론적 길잡이를 말함)의 새로움과 훌륭함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있다. 즉 그

길잡이가 경제이론처럼 순전히 선형적 법칙도 아닐 뿐 아니라 자연과 학들에서 실험에 의해 정립된 ‘사실’도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 길잡이는 심정학적 경험과 경제이론을 창조적으로 혼합한 것의 위에 세워진 사회-논리적 일반화(socio-logical generalization)이다.”(Salerno, 2005, p. 26)

역사적 사건에서 사건의 동기가 단순한 것도 있고 복잡한 것도 있다. 그 동기가 복잡한 것일수록 역사가는 공표된 동기보다 감추어진 동기를 찾아내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대중운동일수록 행위자들의 동기를 찾는 일은 복잡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 앞에서 제시한 라스바드의 이론적 길잡이는 대중운동을 포함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이해하고 행위자들의 동기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이상적 유형⁴⁴

인간은 사람들과 제도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집합개념(class concept)’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한국인을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는 한국인을 지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반도의 지질학적 또는 기상학적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을 한국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언어학적으로 한국인을 다른 외국인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나 제도들을 일정한 성향에 따라 구분하는 개념을 ‘현실적 유형(real types)’이라고 부른다. 이때 분류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인간행동학이나 경제학, 법학, 기술, 자연과학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구분은 역사의 이해와 아무 관련이 없다. 역사의 이해에 유용한 개념은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이다.⁴⁵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먼저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박정희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에 독재자, 군사 쿠데타, 10월 유신, 새마을 운동,

개발독재 등의 용어 또는 의미를 사용한다. 이때 사용하는 독재자 등과 같은 용어와 그 의미가 이상적 유형이다. 미제스는 역사와 행동에서 이상적 유형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상적 유형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역사적 문제도 다룰 수 없다. 역사가는 개별 인간 또는 개별 사건을 다룰 때조차도 이상적 유형의 언급을 피할 수 없다. 만약 역사가가 나폴레옹에 대해 말하는 경우에 반드시 사령관, 독재자, 혁명 지도자 등과 같은 이상적 유형을 언급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가가 프랑스대 혁명을 다룰 경우에 혁명, 구정권의 붕괴, 무정부 상태 등의 이상적 유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적 유형에 대한 언급이 단지 문제의 사례에 그 이상적 유형을 응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이상적 유형을 수단으로 해서 묘사되고 해석된다. 보통 사람들도 과거 또는 미래의 사건을 다룰 때에는 언제나 이상적 유형을 이용해야 하며, 무의식 중에 언제나 그렇게 하고 있다.”(Mises, 1996, p. 60)

역사가는 역사적 사건들을 정리하고 분류하기 위하여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때 이상적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역사적 사건에 붙이는 의미의 근접성이다. 여기에서 의미에 대해서는 ‘8장 5절 역사 원리와 다른 학문들의 관계’에서 설명했다. 이때 의미가 비슷한 요소들을 이상적 유형들로 정리한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사학이 무한히 다양한 사건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외관은 사건들의 의미다. 역사학의 대상 – 인물들, 아이디어들, 제도들, 사회적 실체들, 인공물들 등 – 의 체계화를 위해 적용하는 단 하나의 원리는 의미의 근접성이다. 의미가 얼마나 유사한가에 따라 역사학은 요소들을 이상적 유형들로 정리한다.”(Mises, 1996, p. 59)

다시 정리하면, 미제스는 “다른 한편, ‘이상적 유형’의 특징적 표시는 그것(이상적 유형을 말한)이 가치를 매기고 행동하는 것과 관련한 어떤 명제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상적 유형이 사람을 언급하는 경우에 그것은 어떤 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적 유형이 제도들을 언급할 때는 그 제도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가치평가하고 행동한 결과의 산물들이거나 그 제도들이 가치평가하고 행동하는 것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들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특정한 유형의 기초 위에 이상적 유형들은 구축되고 사용된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건 과거를 분석하는 것이건 상관없이 말이다.”(Mises, 2007, p. 316)라고 설명한다.

요약하면,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은 역사 연구에 사용되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은 역사학 원리인 특정한 이해에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경우, 즉 기대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이해 또는 특정한 이해라는 방법을 이용해야 하고 그때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14장 역사 연구의 응용’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비역사적 학문들에서 사용되는 개념처럼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이 정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⁴⁶ 왜냐하면 이상적 유형, 그 자체가 역사가가 행동하는 개인들의 동기들, 아이디어들, 목표들과 그들이 동원하고자 했던 수단에 대해 이해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상적 유형은 특정 시점과 특정 장소에서의 개인들이 그들의 행동에 부여했던 의미의 근접성에 의거하여 추출한 것이므로 개별적이고

독특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역사학에서의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은 역사학을 제외한 다른 과학들에서 사용될 수 있는가? 한 마디로,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은 다른 과학들에서 사용될 수 없다. 역사학과 다른 과학들은 주제, 방법 등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은 비역사적 학문들에서 사용되는 아이디어들과 개념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상적 유형은 역사학 이외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발전된 아이디어들과 개념들을 이용해 구축된다. (중략) 그러나 역사 지식은 여타의 과학과는 다른 주제와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여타 과학도 또한 이해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상적 유형은 역사학 이외 과학들에서의 개념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Mises, 1996, p. 61)라고 미제스는 지적한다.

예를 들어 ‘기업가’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를 검토해본다. 미제스는 기업가라는 용어에 세 가지 층위가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기업가라는 개념, 경제사에 사용하는 이상적 유형으로서의 기업가, 법률 용어로서의 기업가 등이다. 법률 용어로 사용되는 기업가라는 개념은 이상적 유형으로서의 기업가라는 개념과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한다.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기업가라는 개념은 경제이론의 틀 안에서 엄밀하게 정의된 개념이다. 이때 기업가는 경제 내에서 세 가지 기능 또는 역할을 한다. 그 세 가지란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불확실성을 떠맡는 **uncertainty-bearing** 기능, 자본가로서의 기능, 의사결정 **decision-making** 기능 등이다.⁴⁷ 경제학에서 기업가라는 개념은 정확히 정의된 것으로 세 가지 기능을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불확실성을 떠맡는 기능이란 위험을 추구하는 것 **risk-taking**과 다

르다. 이 점에 대해서 라스바드는 “기업가는 불확실성 그 자체를 즐기려고 창출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그는 가능한 한 최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한다. 불확실성은 이미 시장상황에서 인간행동의 속성에 내재되어 있다. 누군가가 이 불확실성을 다루어야 하며, 그가 가장 숙련되거나 혹은 기꺼이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후보자이다. (중략) 이윤과 손실은 기업가적 불확실성의 결과들이다.”(Rothbard, 2006, pp. 657-658)

둘째, 기업가가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기업가는 자본가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이다. 기업가는 그 자본으로 현재 시점에서 노동과 토지를 구입하고 그 대가로 미래에 최종 재화를 받게 된다. 여기에서 ‘받게 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기업가가 생산요소 소유자들에게 현재 재화를 주고 미래 재화인 최종 재화를 미래에 그들로부터 받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자본가로서 기업가가 받는 것은 순이자pure interest이다.⁴⁸

셋째, 기업가는 의사결정 기능 또는 소유권 기능ownership function에 따르는 의사결정을 한다. 의사결정 기능이란 기업가 소유 자산의 사용과 그 자산을 관리할 인력의 선택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기능을 말한다. 기업가 소유 자산의 사용이란 생산을 통제할 뿐 아니라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생산된 재화가 팔릴 때까지 돌보는 것을 포함한다. 이때 기업가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이해 능력에 맞는 생산과정의 선택도 포함된다. 관리 인력이란 기업가의 시간, 능력, 지식, 태도 등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능하고 믿을 만한 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 의사결정 기능은 피고용인hired employee에 맡길 수 없다. 왜냐하면 ‘자본가-기업가’가 자신이 소유한 자원의 사용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사결정 기능에 따라 받는 대가를 라스바드는 ‘의사결정 기능으로 인한 임대료 *rents of decision-making ability*’ 또는 ‘소유권 결정으로 인한 임대료 *rents of ownership-decision*’라고 불렀다. 물론 이것은 경영자들이 받는 임금과 다른 것이다. 경영자는 고용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 요소 *decision-making factor* 는 결코 고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요소의 기회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시장임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스바드는 이러한 임대료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즉 “이 임대료는 (중략) 그 요소가 기업의 수입에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양액수와 같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능력은 각 기업의 소유자마다 다를 것이므로 그 임대료도 다를 것이다.”(Rothbard, 2006, p. 709) 이 임대료는 불확실성이 사라진 가상적인 세계에서도 남아 있을 것이고 그 크기는 그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기업가의 세 가지 기능 또는 역할은 이론적으로 분리할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이론에서 정립된 개념인 기업가는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모두 기업가라고 부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 개인택시 운전자, 소기업인, 소농 등도 통상의 기업가와 함께 기업가라고 할 수 있다. 경제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인 기업가는 시간, 장소, 종사하는 사업, 인종, 종교, 연령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역사학에서 이상적 유형으로서의 기업가는 시간, 장소, 연령, 사업 종류와 관련된 특수 상황, 기타 많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역사학에서 기업가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어느 누구도 자영업자, 개인택시 운전자, 소기업인, 소농 등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역사학에서 이상적 유형으로서의 기업가는 경제이론에서의 기업가와 동일한 구성

원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60~1970년대 경제 개발의 시대에는 정주영, 이병철과 같은 재벌 총수가 기업가로서 지칭된다. 최근에는 정보기술을 이끄는 벤처 사업가를 역사학에서의 이상적 유형으로서의 기업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제스는 외국의 예로서 토머스 제퍼슨 시대의 미국 기업가,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수십 년간의 뉴잉글랜드 지역 섬유공업에 종사한 기업가 등을 제시한다. 요약하면, 역사학에서 이상적 유형으로서의 기업가는 역사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역사 연구에서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에 대해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이상적 유형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역사 문제도 다룰 수 없다.”(Mises, 1996, p. 60) 역사학에서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은 역사적 사건의 이해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의 한계도 명백하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이상적 유형은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상적 유형은 개인들과 사건들을 단순화하는 이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 단순화로 인하여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 이상적 유형으로 다채롭고 변화무쌍한 인간의 삶과 행동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⁴⁹ 그리고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은 비역사적 학문에서 사용하는 ‘개념 *conception*’과 구분해야 한다.

방법론적 개인주의⁵⁰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방법론적 개인주의 *methodological individualism*’를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을 위한 한 가지 방법론으로 주장했다.⁵¹ 방법론적 개인주의란 소비자의 선택과 같은 미시 현상들 *microphenomena*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실업, 경제위기 등과 같은 거시 현상들 *macrophenomena*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개인들의 선택과 행동을 기초로 하는 분석 방법을 말한다. 왜냐하면 이런 거시 현상들이 인간행동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경제이론을 위한 방법론 또는 경제이론을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일종의 기본적인 기초라고 주장한다.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은 개별 인간의 행동을 다룬다.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의 의미를 자세히 검토하면 집단 전체의 행동

들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집단은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의 행동 없이는 그 집단이 존재할 수도 없고 실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미제스는 방법론으로서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대해 “그 결과 집단 전체를 인식하는 길은 개인들의 행동들을 분석하는 것을 거치는 것이다.”(Mises, 1996, p. 42)라고 요약한다.

방법론적 개인주의 관점에 동의하면서, 미제스는 집단 전체를 시각적으로 그려 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라고 주장한다. 집단 단위로부터 인간행동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려는 연구자는 곧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개인이 다양한 집단에 속할 수 있고 실제로 다양한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집단을 연구를 위한 분석의 기본 단위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존하는 사회적 단위들의 중복성과 그들 간의 상호 적대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오직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의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Mises, 1996, p. 43) 미제스는 또한 다음과 같이 앞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펼친다. “과학의 목적들을 위해서 우리는 개인의 행동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개인의 행동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개인들의 행동과 별개로 스스로를 작동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어리석다.”(Mises, 2003, p. 44)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의 창시자로 추앙되고 있는 칼 멩거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응용하여 화폐의 기원을 설명했다. 멩거는 화폐의 기원에 있어서 국가나 정부와 같은 기구나 집단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같은 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화폐가 없다면 ‘물물교환^{barter exchange}’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경우에 거래자들은 많은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거래에 참여하는 쌍방의 욕구가 일치해야 하지만 그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물교환의 기회는 매우 제약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비참한 삶 또는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교환수단의 도움을 받거나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간접교환(indirect exchange)’은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거래의 참가자들이 학습과 모방 등에 의해 점차 인식하게 된다. 비록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교환수단이 없더라도 거래 참가자들이 간접교환이 물물교환보다 혜택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교환수단으로 사용되는 상품은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그 재화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채택된다. 예를 들어, 소금, 옷감, 담배 등이 교환수단으로 사용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환수단은 점차 시장성이 큰 재화가 사용되게 된다. 시장성이 크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점차 교환수단은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고, 내구성이 있고, 품질이 균일하며, 보관과 이동에 좋은 특징 등을 갖춘 재화가 화폐로 채택된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교환수단이 진화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간접교환이라는 기술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특정한 교환수단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점차 화폐로 바뀌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화폐의 발생과 사용에 정부나 국가의 강제 또는 집단적 의사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칼 멩거는 위와 같은 추론 과정을 거쳐 화폐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화폐의 기원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전적으로 자연적이고 그 결과 아주 드문 경우에만 입법적 영향을 받았다. 화폐는 국가가

만든 것이 아니다. 화폐는 입법에 의한 법률의 산물이 아니다. 화폐의 존재를 위해 정치적 기관의 인가마저도 필요하지 않다. 국가 권력과 독립적이었던 경제 관계들의 결과로서 어떤 상품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화폐가 되었다.”(Menger, 1950, pp. 261-262) 화폐의 기원을 제외하고도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여러 경우에 응용되었다. Mises(1983)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응용하여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권역의 발흥과 몰락을 설명했다. 또한 Mises(1980)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응용하여 화폐 생산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설명했다.

그러나 Hülsmann(2009)은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에 있어서 오스트리아학파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경제이론을 위한 방법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경제이론을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일종의 기본적인 기초가 아니라고 주장한다.⁵² 그는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역사 분석을 위한’ 귀중한 도구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역사 분석 또는 역사학을 위한 방법론이지 경제학을 위한 방법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휠즈만의 논지를 전개해본다. 직접교환에서보다는 간접교환하에서 시장(그 결과분업)이 더 크다. 이것이 순수한 경제이론이다. 그리고 이 주장은 원인과 결과 간에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관계(time-invariant relation)’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간접교환이 직접교환보다 더 큰 기회를 창출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또는 이런 효과가 다음 달에 미국에서 발생할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직접교환에서 보다 간접교환에서 시장이 더 커진다는 것은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

문제는 이때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경제이론의 유도에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왜, 그리고 어떻게 개인의 행동으로부터 거시 현상들이 만들어지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가 시간과 무관한 것인 경우에는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그런 인과 관계를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엄격히 말해 정부 당국 또는 정부 기관에 의해 조직화된 집단적인 협력을 통해 화폐가 출현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경제이론들을 유도 또는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휠즈만은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경제이론이 있다. “더 ‘우회적인 생산(rounabout production)’이 덜 우회적인 생산보다 (물리적 관점에서) 더 생산적이다.”라는 내용이다. 우리는 두 단계를 통해 우회 생산의 결과를 알 수 있다. 먼저 노동의 물리적 생산성은 수확의 법칙(law of returns)에 지배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단계로, 더 우회적인 생산이란 다른 요소, 예를 들어 기계의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비재 생산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인다. 이제 결과는 인간의 노동이 더 생산적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앞에서 기술한 생산 방법에 관한 경제이론을 유도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보다 더 우회적인 생산과 보다 덜 우회적인 생산을 비교했다. 그들은 선택지라는 관점에서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모든 다른 선택지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서술한 경제법칙을 응용하여 목격된 행동을 설명하는 경우를 생각해본다. 만약 사냥꾼 A가 활과 화살을 가지고 토끼 사냥을 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A가 맨손으로 사냥하는 것보다 더 많은 토끼를 사냥할 수 있다고 설명할 것이다. 왜냐하면 A는 활과 화살을 만들기

위해 먼저 사냥하는 시간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만약 A가 활과 화살을 만들기 위하여 사냥하는 시간을 줄이지 않는다면 그가 잡을 수 있는 토끼의 마리 수는 활과 화살을 만들었을 때와 비교하여 더 적을 것이다. 활과 화살을 사용하는 사냥, 즉 목격된 행동은 활과 화살을 제작하지 않았을 때의 행동과 비교하게 된다. 이것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비교’이다.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지금까지의 경제법칙들의 성립과 설명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멩거가 화폐의 기원을 설명한 경우를 예로 들어 휠즈만의 주장을 다시 설명해본다. 멩거가 화폐의 기원을 설명하는 논지의 출발점은 모든 장소와 시간에서 간접교환이 물물교환보다 더 많은 교환 또는 거래의 기회를 창출한다는 경제법칙이다. 만약 이 경제이론이 없다면 화폐의 기원에 관한 멩거의 설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만약 간접교환이 물물교환보다 언제 어디에서나 더 혜택을 주지 않고,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는 더 혜택을 주지만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학습과 모방을 통해 간접교환의 기술이 언제나 더 널리 채택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교환수단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다. 일단 어떤 재화가 교환수단으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 금이 버터보다도 언제 어디에서나 더 적절한 교환수단으로 간주되지 않고,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는 더 적절하지만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버터보다 금과 같은 더 편리한 교환수단이 더 널리 채택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을 때 그 어떤 것을 배우게 된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만이 교육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응용하여 화폐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간접교환이 물물교환보다 교환할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한다는 경제이론이 존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먼저 정확한 경제이론을 가지고 있을 때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응용하여 화폐의 기원과 같은 거시 현상들의 발생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경제이론을 위한 방법론이 아니라 역사 분석을 위한 방법론임을 강조하면서 휠즈만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리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경제법칙들에 기초한 설명들의 논리적 성격과 다른 한편으로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기초한 설명들의 논리적 성격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Hülsmann, 2009, p. 5)

결론적으로, 아직 이 부분은 완전히 해결된 주제가 아니라고 간주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휠즈만을 제외한 미제스를 포함해 대부분의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자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경제이론을 위한 방법론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휠즈만은 이런 견해를 반박한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필자가 여기에서 방법론적 개인주의라는 주제를 다룬 것은 필자가 휠즈만의 주장에 동의하기 보다는 순전히 편의성 때문이다. 왜냐하면 휠즈만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학의 방법론까지도 이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일한 이유로 <그림 2>에서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역사학의 원리 중의 하나로 포함했다. 비록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역사학 원리로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역사 연구의 응용

1. 역사학과 미래 예측

인간의 모든 행동은 미래를 향해 있다. 인간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연구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자신의 목적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해서다. 순전히 지적인 호기심에서 역사서를 읽는 경우에도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분석하거나 연구하는 것은 과거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집단이 과거의 역사를 분석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미래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에게 미래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에게 미래는 불확실하다. 현재로서는 인간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한 것이다. 문제는 인간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그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미래를 이해하지 않고는 어떤 행동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없다.” (Mises, 2006, p. 45)⁵³

미래 예측, 특히 역사학에 있어서 미래 예측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자연과학들에 있어서 예측의 문제를 설명하기로 한다. 미제스는 자연과학들에서 미래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연과학들이 이 선형적 가정 **aprioristic assumption** [자연 현상의 연쇄와 연속에는 움직일 수 없는 확실성이 지배한다는 선형적 가정을 참고할 때만, 과거에 관찰된 규칙성으로부터 미래의 사건들에서도 똑같은 규칙성을 추론해내는 것, 즉 연장귀납 **ampliative induction**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연장귀납이 자연과학들의 인식론적 토대이다.” (Mises, 2007, p. 303) 다시 말하면 자연과학들에서 사물들이나 사건들에서 규칙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 또는 전제를 하지 않는다면 자연과학들에서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 자연과학들에서 사물들이나 사건들에서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선형적 가정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뒤죽박죽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행동과 관련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자연과학들의 방법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역사학에서 연구 대상은 개인과 집단의 가치판단과 목적과 행동을 있게 한 아이디어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궁극적 기정사실이다. 그런데 가치판단, 목적, 수단 등에 대한 예지 **foreknowledge**는 없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인간행동과학들을 특징짓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개인들의 가치판단에 대한 예지, 그런 가치판단의 영향하에 추구하는

목적들에 대한 예지, 추구하는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에 관한 예지, 그들 행동의 결과에 대한 예지 등과 같은 그런 종류의 예지는 없다는 점이다. 개인들의 가치판단, 목적들, 수단, 행동의 결과 등이 자연과학들에 의해 그 정보가 알려진 요소들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에서 말이다.”(Mises, 2007, pp. 306-307)

그러나 개인과 집단의 가치판단, 목적, 수단 등에 대한 예지들이 없다고 미래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래를 이해한다고 할 때 이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미제스는 설명한다. “행동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Mises, 2006, p. 44) 그런데 미래의 불확실성은 두 가지의 원천에서 초래된다.

첫째, 미래의 불확실성은 자연 현상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간행동과 관련된 자연 현상 중의 하나로 날씨가 있다. 날씨를 기상학에 의해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종종 오보가 발생한다. 특히 날씨의 장기 예측은 정확도가 상당히 낮다. 요약하면, 자연 현상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쉽지 않다.

둘째, 미래의 불확실성은 다른 사람의 미래 행동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자연 현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외하면, 행위자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할 때 그 행위자의 행동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다른 사람의 미래 행위의 불확실성에 의해 초래될 뿐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은 행동에 중요한, 자연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에 관한 지식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초래된다.”(Mises, 2006, p. 42)

예를 들어본다. 겨울에 빙과류를 제조하여 저장해두었다가 여름에 판매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자. 그 기업가는 빙과류를 생산할 때 다음 해의 기상을 예측해야 할 뿐 아니라 빙과류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 변화, 소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의 변화, 소득과 기호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변동 등을 예상해야 한다. 겨울 시점에서 다음 해 여름 시점의 빙과류 생산자의 사업의 미래는 날씨와 소비자의 기호를 포함한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를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에 달려 있게 된다. 자연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업의 경우에 앞의 사례와 상황은 비슷하다. 제조업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자연 현상과 큰 관련이 없는 경우와 자연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경우이다. 자연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사업의 미래는 빙과류 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 자연 현상과 큰 관련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자연 현상에 대한 예측은 중요하지 않다. 휴대전화의 경우에 자연 현상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 경우에 소비자 기호를 포함한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는 일이 휴대전화의 제조와 판매 사업에서 중요하다.

인간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미래 예측이 필수라면 미래 예측은 모든 인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러면 역사학 또는 역사학의 연구 방법인 심정학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인간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 질문은 의의가 있다. 게다가, 역사학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면 역사학 연구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첫 번째 질문을 다루기로 한다.

심정학 또는 역사 연구로부터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미래 예측을 위해 심정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심정학은 과거

에 특정한 사람들 또는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가치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러나 그들이 미래에 동일한 방식으로 가치평가하고 행동할 것인가는 불확실하다. 역사가 자 또는 일반인은 심정학에 기초한 역사의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투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전부'이다. 미제스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심정학이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특정 방식으로 가치판단하고 행동했다는 점이 전부이다. 미래에 그들이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가치 평가하고 행동할 것인가는 불확실하다. 그들의 미래 행동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전부는 인간행동과학들 중에서 역사 부문인 특정한 이해를 기초로 미래를 투기적으로 예측하는 것이다.”(Mises, 2007, p. 272) 54, 55

역사적 지식(historical knowledge)은 미래 예측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역사적 지식이란 역사적 사건에서 개인들의 가치판단들, 목적들, 목적들을 위한 수단들, 행동의 결과들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이런 지식이 미래 예측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먼저 개인들의 가치판단들, 목적들, 목적들을 위한 수단들, 행동의 결과들에 대한 사전 지식 또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인간행동과학들을 특징짓는 것은 개인들의 가치판단들에 대한 사전 지식과 같은 것, 이 가치판단들의 영향하에서 그들이 지향할 목적들에 대한 사전 지식과 같은 것, 추구하는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의존하는 수단들에 대한 사전 지식과 같은 것, 이것들(가치판단들, 목적들, 수단들 등을) 지칭함이 그 지식을 자연과학들이 전해주는 요소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 개인들의 행동들의 효과들에 대한 사전 지식과 같은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Mises, 2007, pp. 306-307)

그러나 역사가는 심정학을 통해 역사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 지식은 미래의 조건들을 예상하고 그것을 기초로 미래의 행동을 계획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지만 그 지식[역사적 지식을 말함]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미래의 조건들을 예상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항상 미래의 조건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둔 행동을 계획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다고 보여진다.”(Mises, 2007, p. 307)

그러나 미래 예측에 있어서 심정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미제스는 심정학으로는 자연과학과 같은 방법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심정학이 성취한 것은 인간의 성향을 기록한 목록을 다듬는 것이다. 게다가, 심정학은 일정 성향들이 일반적으로 일정한 다른 성향들과 연계되어 과거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심정학은 자연과학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측해낼 수는 결코 없다. 심정학은 특정한 미래의 사건에 여러 요소들이 각각 어떤 비중으로 작용할지를 결코 미리 알 수도 없다.”(Mises, 2007, p. 274)

여기에서 미래에 대한 예언 또는 예측과 과거 역사 분석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미래에 대한 예측과 과거 역사 분석의 차이점은 미래 예측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다룬다면, 역사 분석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룬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둘 간의 유사점은 특정한 이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가는 과거 역사를 특정한 이해라는 도구를 이용해 설명하지만, 미래에 대한 예언 또는 예측은 미래의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날 일을 특정한 이해라는 도구를 이용해 예측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 역사의 특정한 이해를 위하여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듯이 미래의 특정한 이해,

즉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도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한 이해라는 도구를 이용해 과거 역사를 설명하는 사람을 ‘과거의 역사가(the historian of the past)’라고 부르고 특정한 이해라는 도구를 이용해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사람을 ‘미래의 역사가(the historian of the future)’ 또는 ‘행동하는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미제스는 설명한다.⁵⁶ 여기에서 미제스가 미래의 역사가를 행동하는 인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것은 행동하는 인간은 언제나 미래를 지향하고 특정한 이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미래 행동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역사가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동에 대한 예측 또는 예언의 어려움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미제스에 의하면 예측 또는 예상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 가능하다.⁵⁷ 현실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건은 복합 현상이다. 예측 또는 예상을 하려는 사람은 그 사례에서 명백하게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요소들을 먼저 제쳐둔다. 이것이 예상의 제1단계이다. 그다음으로는 그 사례에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미쳐왔던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상의 제2단계이다. 그다음 단계는 그런 요소들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을 예상하는 것이다. 즉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3단계이다.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예상하는 것이 각 요소들의 영향력의 크기를 예상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쉽다. 즉 예측 또는 예상에서 어려움은 각 요소들의 영향력의 크기를 예상하는 데 있다. 즉, 세 단계 중에서 제3단계가 가장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미래 사건을 예상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가

과거 사건을 이해하고자 할 때도 발생한다. 즉 역사가에게 과거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는 어려움보다는 각 요소들의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하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한다.⁵⁸ 두 명의 역사가가 역사학 이외의 다른 학문들에서 유도된 이론들과 역사적 사건에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사건에 미치는 요소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클 수 있다. 이 경우에 그러한 의견의 차이는 두 역사가의 가치판단, 선호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차이는 역사적 사건에 미치는 요소들의 영향력에 대해 두 역사가가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에 미치는 요소들의 영향력에 대한 판단의 차이는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다른 차이, 예를 들어, 다른 학문들에서 유도된 이론들, 행위자들의 목적과 수단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객관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제스는 역사적 사건에 미치는 요소들의 영향력의 차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어서 미제스는 미래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각 개인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설명한다.⁵⁹ 정치가, 장군, 기업가 등은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 미래 사건에 미치는 각 요소들을 전부 정확히 알아야 하지만 그 사건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들이 미치는 정도를 정확히 예상해야 하고 영향이 미치는 시점도 정확히 예상해야 한다고 미제스는 설명한다.

여기에서 역사가의 이해와 보통 사람들의 미래 예측 행위가 어떻게 유사한가를 미제스의 설명으로 요약해본다. “이해란 역사가들만의 특

권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다. 자기의 환경조건들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은 역사가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적응시켜야 할 미래 사건의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 이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중략) 그리고 (중략) 행동은 필연적으로 언제나 미래를, 따라서 불확실한 조건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것은 언제나 투기다. 행동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역사가들의 눈으로 미래를 본다.”(Mises, 1996, p. 58)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정확성에 있어서 역사적 경험으로부터의 예측과 자연과학에서의 예측은 전적으로 다르다. 정확성에 있어서, 역사적 경험에서의 예측은 자연과학에서의 예측을 결코 따라갈 수 없다. 그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사적 경험으로부터는, 자연과학들에서 실험실의 실험에서 확립된 사실들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예측들의 확률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예측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Mises, 2007, p. 335)

지금까지 역사 원리와 미래 예측의 관계를 설명했다. 지금부터는 역사의 경로를 예측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집단의 주장을 비판하기로 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틀리기 쉽다. 하물며 역사의 경로를 예측하는 일은 더더욱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집단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마르크스를 포함하는 독일의 역사학자들이다. 여기에서는 역사의 경로를 예측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역사의 경로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의 연속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역사의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바로 그

이유로 인간이 그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화기가 처음 나왔을 때 오늘날의 무선 전화기를 어림껏이나마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비행기, 자동차, 텔레비전 등과 같은 문명의 이기를 생각해보면 미래 예측의 어려움은 분명해진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등과 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프로그램과 사이트가 지금과 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이용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앞에서 우리는 중국에는 아이디어 또는 사상이 인간사를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아이디어 또는 사상의 변화를 예측하는 일은 어떤가? 사실 물질적인 것보다 아이디어 또는 사상을 예측하는 일은 더 어렵다. 정확히 말하면 물질적인 변화의 근저에는 아이디어 또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놓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점에서 물질적 변화는 사실상 아이디어 또는 사상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모든 물질적 변화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 이후에 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 사업가들 누구도 자유기업이 일궈낸 유례없는 경제적 성취를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 중 누구도 자본주의로 혜택을 받은 대중이 이후에 자본주의에 보인 적대감에 대해서는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다. 인류는 20세기를 사회주의라는 이상에 몰두한 나머지 수많은 인명을 굶어죽이거나 살상했고 전쟁과 적대감으로 문명은 파괴되었다. 다시 말하면, 20세기 역사는 산업혁명 전후의 자유주의자들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이다.

우리가 작은 사건들도 예측하지 못하는 데 하물며 역사의 경로를 예측하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일은 쉽지 않다. 그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역사에 관한 두드러진 사실은 역사가 사건들

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의 연속이라는 점이다. 대체로 이데올로기들과 일반적 조건들에서 철저한 변화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시기에, 가장 원대한 안목을 가진 국정 담당자들과 사업가들이 예측한 것이 기껏해야 그들이 가까운 미래에 발전시킬 조건들이다.”(Mises, 2007, p. 378)

마르크스나 독일의 역사학파는 마치 자신들이 역사의 경로를 아주 잘 알고 있고 그 결과 미래 역사가 인류를 위해 준비해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역사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 또는 역사의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들이나 학파들은 인간이 사고한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인간이 이성을 사용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인간은 이성을 사용한다. 그 이성을 사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고 수단을 선택한다. 이 점이 지구상의 다른 생물과 다를 뿐 아니라 다른 생물은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이다. 인간은 이성을 사용하여 환경에 반응할 것을 결정한다. 개인이나 집단의 환경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앞에서 지적했다. 하물며 역사의 경로를 예측하는 일은 더욱더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다.

역사의 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나 학파는 인간사에 대해 이성의 잣대를 적용하려는 인간의 내재적 성향을 쓸어버리기를 원했다. 그러나 미제스는 그런 철학자나 학파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역사의 진행을 예측할 때의 내재적 오류는 예언자들이 그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아이디어들 외에는 어떠한 아이디어들도 사람들의 마음을 결코 사로잡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중략) 서구에서 현재까지 안정화의 사도들과 인간

을 돌처럼 취급하기를 원하는 사도들[실증주의를 말함] 중에서 누구도 사고하고 모든 문제에 이성의 잣대를 적용하려는 개인의 내재적 성향을 쓸어버리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미래가 인류를 위해 예비해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설들을 다룰 때, 역사학과 철학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 말뿐이고 그 이상은 아니다.”(Mises, 2007, p. 379)

2. 역사 연구의 의의와 한계

실증주의에서 과학의 목적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고, 역사주의는 역사 연구가 인간이 걸어가야만 하는 길을 제시해주는 이정표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증주의와 역사주의는 파산했고 그 결과 역사 연구의 의미, 가치, 용도에 관해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었다고 미제스는 지적한다. 그리고 미제스는 자신이 정립한 역사 연구 방법론을 기초로 하여 역사 연구의 의의 또는 역사학의 의의를 검토한다.

첫째, 역사가는 역사의 이해를 통해 현재의 아이디어들 또는 사상들을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역사 변화는 아이디어들 또는 사상들에 유도되거나 또는 그 변화에 의해 유도된다. 왜냐하면 역사는 인간행동의 기록이고 인간행동은 아이디어들 또는 사상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역사가는 이해라는 방법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과거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해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가는 현재의 아이디어들 또는 사상들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현재의 역사를 변하게 만들 수 있다.

역사가가 현재의 아이디어들 또는 사상들을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실제로는 과거에 대한 이해라는 것도 끊임없이 유전(流轉)하는 것이다. 역사가의 성취는 이해라는 새로운 시야로 과거를 소개하는 데 있다. 역사 변화의 과정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아이디어들의 끊임없는 변형에 의해서 활성화되거나 혹은 차라리 그 아이디어들의 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이데올로기적 변화들 중에는, 과거에 대한 특정한 역사적 이해와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두드러진 역할을 한다. 다른 이데올로기적 변화들 중에서, 옛날 시대와 최근 시대를 구분하는 것 또한 선행하는 시대들에 대한 이해가 바뀐 것이다. 역사가들은 우리의 역사적 이해를 끊임없이 검토하고 재형성하면서, 시대정신이라고 불리는 것에 자신들의 몫을 보탠다.”(Mises, 2007, p. 292)

둘째, 기록된 역사가 ‘언제나’ 진실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사가는 진실을 밝히는 일을 해야 한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국정 담당자들, 외교관들, 정치가들, 그리고 작가들의 관점으로는, 역사적 사실들을 속이고 증거를 파괴하는 것은 공적 사안들을 처리하는 정당한 방식이었고, 역사를 쓰는 정당한 방식이었다. 역사 연구의 주된 문제들 중의 하나는 그러한 왜곡들을 벗겨내는 것이다.”(Mises, 2007, p. 292) 역사가 왜곡되어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진실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일은 현재의 아이디어들이나 사상들의 내용을 바꾼다는 점에서 앞에서 지적한 역사 연구의 의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기록된 역사가 언제나 진실이 아닌 경우는 ‘왕조사’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이 점은 왕조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왕조사는 승리한 자가 기록한 역사이기 때문에 승리한 자의 목적에 맞게 역사가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역사를 기록했던 담당자들도 이 점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장치에도 불구하고 왕조사에서 역사 왜곡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동일한 장소에서 한 나라가 멸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진 경우에 그 다른 나라의 멸망한 국가에 대한 서술은 왜곡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셋째, 미제스는 역사 연구가 사람들의 지혜를 증대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사물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폐쇄적인 태도에 비하여 개방적인 태도는 모든 인간의 행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미제스는 그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사 연구는 정치적 의사결정들을 준비하는 데 불가결한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운명을 이해하도록 마음을 열어준다. 역사 연구는 지혜를 증대시킨다. 역사 연구는 아주 잘못 해석되어왔던 개념인, 자유로운 교육의 핵심 그 자체다. 역사 연구는 무엇보다도 인본주의로의, 즉 인간을 다른 생물들과 구별 짓는 특별히 인간적 관심사에 대한 지식으로의 접근이다.”(Mises, 2007, p. 293)

넷째, 역사 연구는 인간의 영적인 유산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한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동물이다. 이성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연마해야 한다. 이성의 연마에는 현재의 지식뿐 아니라 영적인 유산도 필요하며 중요하다. 그 점을 미제스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새로 태어난 아이는 그의 조상들로부터 인류라는 종들의 생리

학적 특징들을 물려받았다. 그는 배움과 지식에 대한 욕구라는, 인간의 이데올로기적 특성들을 물려받지는 않았다. 각각의 모든 개인은 [책이나 교육을 통해서] 문명인과 야만인을 구분하게 만드는 것을 새로이 획득하여야 한다. 인간의 영적 유산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열성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Mises, 2007, p. 293) 다시 말하면 역사 연구는 인간의 이데올로기적 특성들을 연마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섯째, 역사학의 일부인 심정학은 우리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 비록 심정학에서 유도된 미래 예측이 매우 부정확하고 불완전하지만 말이다. 그 점에서 역사학, 특히 정확히 서술된 역사는 우리에게 그만큼 도움을 준다. 물론 역사 서술이 잘못될 경우에는 그만큼 해악을 끼칠 것이지만 말이다. 심정학이 미래 예측에 도움을 주는 점은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마지막으로 역사학의 근본적 한계를 알 필요가 있다.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역사과학들의 주제는 과거다. 역사과학들은 모든 인간행동에 대해 타당한, 즉 미래에도 역시 타당한 그 어떤 것도 가르쳐줄 수 없다. 역사 연구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사려분별 있게 만든다. 그러나 역사 연구가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Mises, 1996, pp. 30-31)⁶⁰ 다시 말하면, 앞에서 보았듯이 역사 연구가 매우 의미 있는 일임이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이 역사학을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으로부터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역사학이 미래를 예측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이론을

만드는 데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사상의 경험이 전해준 정보는 이론들의 구성과 미래 사건들의 예측을 위한 재료로 사용될 수 없다. 모든 역사적 경험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고 실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된다.”(Mises, 1996, p. 31) 미제스는 또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반적 규칙 또는 원리 또는 법칙을 가르쳐줄 수 없다.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인간의 행위나 정책에 관한 어떤 경험적 이론 혹은 법칙을 사후적으로 추출해낼 방법이 없다.”(Mises, 1996, p. 47)

3. 역사 연구의 주의점

그러면 역사 연구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첫째, 역사가는 비역사적 학문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았듯이 역사적 사건은 먼저 비역사적 학문들로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제스는 그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사가는 그가 논리학, 인간행동학, 자연과학들 등의 영역들에서 획득해왔던 지식으로 무장하고 기록들에 접근한다. 만약 이 지식이 흠결이 있는 것이라면 그의 자료 검토와 분석의 결과는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Mises, 2007, p. 292) 이 점은 역사가들의 경제학에 대한 지식에서 현저하다. 역사가들은 경제현상을 정밀한 경제원리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즉 그들은 정밀한 경제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 역사 자료에 접근한다. 그 결과 경제사 또는 사회사가 잘못 기술되거나 해석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미제스는 역사가들의 경제원리에 대한 무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지난 80여 년의 경제사와 사회사에 대한 기여들 중 상당 부분은 경제학에 대한 저자들의 불충분한 이해 때문에 거의 쓸모가 없을 정도다. 역사가는 경제학을 잘 알아둘 필요가 없고, 심지어 그것을 경멸해야 한다는 역사주의자의 명제가 몇 세대에 걸친 역사가들의 저작들의 가치를 떨어뜨렸다.”(Mises, 2007, pp. 292-293) 불행하게도, 이러한 비판은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가들에게도 매우 유효하다고 여겨진다.

역사가가 비역사적 학문들에 대한 잘못된 지식 또는 가짜 지식을 피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다. 어쩌면 역사가의 비역사적 학문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이해가 역사 왜곡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 점은 특히 경제학에 대해서 그러하다. 오늘날 신고전학과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이 되면서 경제정책이 잘못되어 왔을 뿐 아니라 경제사가의 경제지식도 오류를 가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2장에서 보았듯이 오늘날의 주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고전학과 경제학은 오류투성이기 때문이다. 역사가의 잘못된 경제지식은 그만큼 역사 해석을 잘못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러나 그들(현대 역사가들은 흔히 경제학에 무지하고, 경제정책들의 문제들에 대해 지지 받을 수 없는 학설들에 몰두한다.”(Mises, 2007, p. 297)

역사가의 비역사적 학문들에 대한 무지는 먼 과거의 역사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경제학이 발달하기 이전의 역사에서 역사가의 경제학에 대한 무지는 더욱 두드러진다. 정확히 말한다면 예전에는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들의 경제현상에 대한 설명과 해석은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 현재도 대학이나 대학원의 역사학과 전공과목에 비역사적 과목들이 거의 포함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벤 버냉키 Ben Bernanke는 잘못된 경제이론으로 대공황을 이해했다.⁶¹ 그 결과 대공황에 대한 그의 연구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를 인정받아 버냉키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총재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에 기초한 통화정책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역사 연구자로서 버냉키는 정확한 경제이론을 찾는 일에 실패한 것이다. 게다가 정책 담당자로서 버냉키도 잘못된 경제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경제 전문가인 버냉키마저 잘못된 경제이론으로 과거의 경제현상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은, 경제 전문가가 아닌 역사가가 비역사적 학문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찾는 일, 또는 가짜 이론을 피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둘째, 역사가는 개인이나 집단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얼마나 잘 선택한 것인가를 평가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다. 역사가는 개인이나 집단의 과거 역사가 잘못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줄 것을 요청받는다. 역사가는 여기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평가해야 한다. 수단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가 여부이다. 인간은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을 선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일련의 실수와 좌절로 점철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집단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수단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목적의 선택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양립할 수 없는 다양한 목표들 사이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인간은 흔히 ‘핑계대기(rationalization)’를 한다.⁶² 그러나 개인 차원에서의 핑계대기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반복적인 공격과 비판을 장기간 견뎌내기 어렵다. 그러나 집단 차원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집단 차원의 핑계대기에 대해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사회 그룹들의 혜택을 위해 개발된 핑계대기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그것은 그룹의 구성원들로부터 아무런 비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인의 비판은 명백히 왜곡된 것으로 기각되기 때문에, 무성하게 번창할 수 있다. 역사 분석의 주된 과제들 중의 하나는 정치 이데올로기들의 모든 분야에서 핑계대기의 다양한 표현들을 연구하는 것이다.”(Mises, 2007, p. 282) 한 마디로, 인간의 역사는 일련의 실수와 좌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 집단들은 핑계대기를 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역사가는 그런 핑계대기를 찾아내고 바로잡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역사가는 역사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판단할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한다. 우리가 그 모든 사건과 사고를 기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자원, 시간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에 발생했던 그 모든 사건과 사고를 기록한 역사가 인간이나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역사가는 지나간 일들과 사건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만을 취사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취사선택에는 당연히 기준이 필요하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로부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가려낼 수 있게 하는 기준을 발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Mises, 2007, p. 286)

넷째, 기록된 역사가 왜곡된 경우에 역사가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역사를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 중에서 고종시대(1863~1907)의 ‘고종실록’과 순종시대(1907~1910)의 ‘순종실록’은 일제의 영향하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많다. 순종실록 1909년 11월 4일자 기록에는 “[이토 히로부미 공작이] 광패[미치고 사나운]한 인민의 흉수[흉악한 손]에 상하여…”라는 대목이 있다. 여기에서 ‘광패한 인민’은 안중근 의사를 말한다. 이렇게 역사 기록 자체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역사가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 그런 왜곡을 찾아내어 바른 해석과 설명을 해야 한다. 앞의 예제는 물론 비교적 쉬운 경우이다.

다섯째, 역사적 자료는 선험과학인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에서 유도된 이론들이나 법칙들을 증명하거나 반박할 수 없다는 점을 역사가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사적 자료로부터 이론을 유도할 수도 없다. 이것을 경제사에 적용하면, 과거의 경제현황 또는 경제자료로부터 경제이론들이나 경제법칙들을 유도할 수는 없다. 역사가는 이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부 역사가는 종종 역사적 사실로부터 이론이나 법칙을 유도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가는 역사학과 인간행동학 또는 경제학의 관계를 정확히 그리고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역사적 자료 또는 역사적 사건은 어떤 유용성이 있는가? 역사적 자료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이것이 역사적 자료의 유용성이다. 문제는 동일한 역사적 자료를 두고 서로 다른 이론들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이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이때 역사가들이나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른 역사적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역사적 자료로 이론을 증명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 전문가들은 추론을 통하여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정확한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는 역사가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이론이 옳은 것인가를 점검해야 한다. 이론이 정확할 때만이 역사 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론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제스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정확한 이론들의 기초 위에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역사는 말한다.”(Mises, 1996, p. 863) 마지막으로, 역사가들이 동시대인들이 지닌 오류들과 잘못된 개념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역사가뿐 아니라 역사를 읽는 일반인도 경청해야 할 대목이다. 역사가도 인간인 이상에는 그의 동시대인들이 지닌 오류들과 잘못된 개념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역사가들이 자신의 저작에서 자기네 민족 편만 들어서 민족주의적 주장들과 요구들만 정당화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흔한 일이다. 그러므로 역사가들과 역사를 읽는 일반인들은 역사서를 읽을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평균적인 역사가가 그의 동시대인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오류들과 잘못된 개념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Mises, 2007, p. 297) 예를 들어, 일제시대의 식민사관, 민족주의에 의한 역사 해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킨 사람들은 역사가들 자신이 아니라 반경제학자들 *anti-economists* 일 수 있다. 역사가들은 단지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채택하고 적용하는 것뿐일 수 있다. 이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러나 국제적 갈등과 침략적 민족주의라는 현대

이데올로기를 발전시켰던 사람은 역사가들이 아니라 반경제학자들이
다. 역사가들은 단지 그 이데올로기를 채택하고 적용했을 뿐이다.”(Mises,
2007, pp. 297-298)⁶³ 역사가들이 지닌 오류가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잘못된 이데올로기의 생산자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잘
못된 이데올로기를 채택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역사가들에게 있다.

유사 역사학 원리와 역사의 철학적 해석들

다양한 유사 역사 원리가 있다. 여기에서는 최근 서양 경제사학계의 주류인 소위 신경제사학과 역사철학 등을 다루고, 이와 함께 역사의 철학적 해석들, 역사적 변화에 대한 평가 등을 추가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 최근에 신경제사학은 우리나라 경제사학계에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장 먼저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이 책은 유물론, 변증법적 유물론 등과 같은 유사 역사 원리는 다루지 않는다. 필자는 우주관으로 결정론을 지지하기 때문에 유물론 등과 같은 유사 역사 원리는 틀린 것이고 바로 그 이유로 다루어야 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물론 등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Mises(2007)의 6장과 7장을 참조할 수 있다.

1. 신경제사학⁶⁴

최근 경제사학계의 지배적인 주류는 신경제사학이다. 신경제사학의 개척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더글라스 노스(Douglass North)는 신경제사학의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최초 가설들을 세우고 가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그 가설들을 검증하지 않고서는 경제사학에서 다루어지는 쟁점들을 분석하고 설명할 수는 없다. 최초 가설들은 지난 200년 동안 진화했고 경험적 검증에 의해 지속적으로 검증되면서 정밀화되고 있는 경제이론에서 나온다. 통계학은 [경제]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정확한 측정과 경험적 증거를 제공한다. 검증의 한계는 적절한 이론과 증거의 존재에 의해 지배된다. (중략) 이상적이게도, 그 증거는 검증될 쟁점들을 정확히 정의하고 측정할 통계 자료이다.”(North, 1966, pp. 1-2)

노스가 천명한 신경제사학의 방법론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신경제사학은 방법론으로서 실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량으로 나타낼 수 없는 쟁점들이나 통계 자료를 구할 수 없는 이슈들은 전적으로 무시되거나 중요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기간인 제3공화국의 경우에 신경제사학자들은 수출 촉진 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친 순_{net}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신경제사학자들은 수출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수출 보조금의 크기와 동기, 그것이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 미국의 경우에, 신경제사학자들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의 설립이 물가수준의 안정과 실질국민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그들은 연방준비은행법(Federal Reserve Act

통과의 동기에 대해서는 훨씬 덜 관심을 가진다. 이것은 경제사학계만의 현상이 아니다. 일반 역사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역사학이 행위자들의 동기 또는 목표, 수단의 선택, 행동의 결과 등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미제스의 역사학 방법론 관점에 비추어보면 신경제사학은 상당 부분 초점이 빔나갔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제도들의 출현과 그 동기들에 대한 이해라는 관점에서도 신경제사학은 전통적인 역사학이 아니다.

둘째, 통계의 의미에 대한 것이다. 신경제사학은 실증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 통계의 의미를 자연과학에서의 통계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역사 연구에 있어서 통계의 의미와 자연과학에서의 통계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다. 먼저 전자를 보기로 한다. 미제스에 의하면 통계는 역사 연구의 방법이다. 통계는 일정한 시기, 일정한 장소, 일정한 그룹의 사람에게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숫자로 기술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통계의 의미는 엄밀하게 말해서 통계가 변화하지 않는 어떤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들을 묘사한다는 사실에 있다.”(Mises, 2007, p. 89)

그러나 자연과학의 영역에서 통계는 귀납적 연구-inductive research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자연에는 규칙성과 완전한 결정론이 있다는 철저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과학에서 통계는 일정한 시점과 일정한 장소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와 모든 시점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역사 연구에서 통계는 일정 시점, 일정 장소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앞에서 지적했다. 통계의 의미와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신경제사학은 자연과학 영역에서의 연구 방법과 동일하다. 역사 연구에서 통계의 의미와 사용이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셋째, 경제이론과 역사적인 자료 data 또는 실증적인 자료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앞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신경제사학은 역사적인 자료로 경제이론을 끊임없이 검증한다고 주장한다. 마치 자연과학자가 실험실에서 반복적인 실험을 하듯이 말이다. 이 과정에서 이론은 끊임없이 검증된다. 그러나 5장과 6장에서 보았듯이 경제이론은 선형적인 것이다. 그 결과로 경제이론은 선형적 추론에 의해 반박되거나 기각될 수 있는 것이지 실증적인 자료에 의해 반박되거나 검증되는 것이 아니다. 신경제사학은 방법론과 인식론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다.

넷째, 역사학과 경제이론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경제이론들 또는 경제법칙들이 역사학을 위한 기초가 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수학, 논리학, 자연과학들 등의 도움을 받고서 말이다. 그러나 신경제사학은 역사 자료를 경제이론을 끊임없이 검증하기 때문에 경제이론들이나 경제법칙들이 역사학의 기초가 되는 것인지가 모호하다. 선후의 관계가 바뀌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하여 미세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만약 역사 자료들이 체계적인 인간행동학적 지식에 의해 명백해지고 정리되고 해석될 수 없다면, 그것들은 연관성 없는 사건들의 어설픈 축적, 혼돈 덩어리에 불과할 것이다.”(Mises, 1996, p. 41)

다섯째, 신경제사학이 의존하는 방법론인 실증주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 점에 대한 설명은 앞의 ‘4장 3절 (1) 범물리주의’에서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신경제사학이 의존하는 방법론인 실증주의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생략한다

요약하면, 신경제사학은 경제이론의 선형성을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위자들의 동기 또는 목표, 수단의 선택, 행동의 결과 등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사학의 방법론을 부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경제사학은 실증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실증주의가 지닌 문제점도 또한 지니고 있다.

2. 역사철학

역사학의 주제는 8장에서 설명했다. 역사철학의 주제는 무엇인가?⁶⁵ 역사철학은 인류 역사를 다른 관점에서 본다. 역사철학은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을 다루지 않는다. 역사철학은 역사 과정이 인간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신이 설정한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가정한다. 역사철학의 임무는 신이 설정한 특정한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역사적 국면을 판단하는 것이다.

역사철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모든 변종은 두 가지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첫째, 지향했던 최종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길을 통해서 그것에 도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수단으로 이 경로를 추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두 질문에 충분히 그리고 완전하게 대답하여야만 역사철학의 변종들이 완전한 체계가 된다.

역사철학을 비판해본다. 먼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과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역사철학은 과학이 아니다. 어쩌면 역사철학의 이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학으로서 역사학은 과거에 일어났던 인간의 행동을 정확히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행동한다는 인간행동학적

관점에서 보면, 역사철학자가 미래에 다가올 것들을 내적 목소리가 제시해준다는 역사철학자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인간이 미래를 안다면 행동할 이유가 없다.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역사철학자는 인간의 본질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역사철학은 그런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있다. 모든 역사철학은 미래에 일어날 인간의 운명이 위대한 서적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철학자들은 그 서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제시할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한다. 역사철학에 의하면, 인간의 운명은 신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것을 우리는 숙명론자의 결정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일은 아무리 당신이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역사철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미제스는 역사철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직관에서 도출된 학설들(역사철학을 말함)을 가지고 논의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역사철학의 각각의 모든 체계는 입증될 수도 없고 반증될 수도 없는 자의적인 추측이다. 내적 목소리가 제시한 학설을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데 이용 가능한 합리적 수단이 없다.”(Mises, 2007, p. 165)

3. 역사의 철학적 해석들

역사학의 방법론 또는 인식론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역사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학설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그런 학설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런 학설들이 지닌 문제점을 앞에서 설명한 역사학 원리에 비추어 비판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비판하는 ‘역사의 철학적 해석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of history*’은 역사철학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둔다.

첫째,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이 역사적 변화를 야기한다는 학설이 환경결정론 *environmentalism*이다. 이 학설은 두 가지 변종이 있다. 하나는 물리적 또는 지리적 환경이 역사를 결정한다는 학설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또는 문화적 환경이 역사를 결정한다는 학설이다. 두 가지 학설의 근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역사적 변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있다.

사실 인간은 환경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변경시키기도 하고 환경에 적응하기도 한다. 쓰나미가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방파제를 건설할 수 있다. 방파제가 건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쓰나미가 발생하더라도 그 쓰나미에 반응하는 방법은 각기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상황에서도 다른 방식이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다. 인간이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는 개인의 개별성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 즉 한정된 시기와 한정된 공간 – 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인간의 행동이 다시 환경을 변경하지만 환경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즉 “환경이 상황을 결정하지만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Mises, 2007, p. 326) 그러므로 환경이 역사를 결정한다는 학설은 틀린 것이다.

둘째, 역사를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학설이 인류평등주의자의 역사 해석 *egalitarians' interpretation of history*이다. 루소 *Rousseau*와 바뵈프 *Babeuf*에 의해 인기를 얻었던 이 학설은 마르크스의 계급투쟁

학설 속에서 전체 인간 역사의 과정을 ‘강탈’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변형되었다. 그러므로 인류평등주의자의 역사 해석은 중국에는 사회주의자의 역사 해석이라고 하겠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포함한 사회주의자들은 세계를 착취자와 피착취자로 구분하고 자본가 계급을 착취자로, 노동자 계급을 피착취자로 규정했다. 이러한 이분법을 토대로 사회의 기생층과 같은 존재인 자본가 계급을 몰아내고 평등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선전했다. 이들은 인류의 역사가 계급투쟁의 역사로서 평등을 실현하고 쟁취하는 역사로 해석한다. 그러나 인류평등주의 학설은 생물학과 역사학에 의해 확인된 모든 사실들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인류평등주의적 우화들로는 과거 역사의 진행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 우화들은 경제문제들을 분석할 때도 부적당하고 미래의 정치적 행동을 계획할 때도 소용이 없다.”(Mises, 2007, pp. 331-332)

셋째, 인종주의적 역사 해석은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구 문명을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우월성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사정들이 인종적 차이에 관한 현대의 학설과 그 정치적 부산물인 인종주의(racism)를 낳았다.

현대 문명이 백인들의 업적이고, 바로 그 이유로 문명, 특히 현대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다른 인종보다 더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에 의한 진술로서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점이 미래에 관한 어떤 진술도 보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점이 백인의 인종적 자부심을 정당화하거나 인종주의라는 정치 학설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인종주의적 역사 해석은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미제스는 인종주의적 쟁점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인간들의 다양한 생물학적 변종들 사이에 있는 주요한 차이는 그룹 구성원들의 문명화된 성취물들에 반영되어 있다. 둘째, 우리 시대에 다른 모든 인종들의 구성원 대다수는 백인 코카서스Caucasian 인종의 일부 분파들의 문명에서의 주요 성취물들을 자신들 각각의 인종들의 구성원들이 만들어냈던 문명의 특징적 모습들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한다.”(Mises, 2007, p. 336-337)

4. 역사적 변화

역사학은 가치중립적인 학문인 것을 앞에서 알았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과 설명에 있어서 역사가의 가치판단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역사가는 역사적 사건을 일어났던 그대로를 보여주어야 한다. 거기에 역사가의 가치판단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역사적 변화 또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가치판단을 삼가야 하는 다른 이유도 있다. 역사적 사건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역사가들을 포함해서 사람들 사이에는 역사적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 또는 일치된 기준이 없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가치판단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고 바로 그 이유로 역사가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가치판단을 삼가야 한다.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진실은 이것이다. 역사적 사건들은 통일성도 연속성도 없다. 역사적 사건들이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찾기가 어렵다. 역사적 사건들이 연속적인 경우에도 통일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인류가 탄생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 역사가 특정한 노선을 밟아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제 미제스는 역사 평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만약 역사가나 철학자가 자의적으로 인간 노력의 종착점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척하지 않는 한, 역사적 변화들에 대해서 성장과 쇠퇴, 진보와 퇴보, 개선과 타락이라는 용어들을 적용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이 안 된다. 사람들 사이에는 문명의 성취물들이 좋다 또는 나쁘다, 더 나아졌다 또는 더 나빠졌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일치가 없다.”(Mises, 2007, pp. 368-369)

역사적 사건들을 판단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이 없지만 다수가 일치된 견해를 가지게 되면 상황은 다를 수 있다.⁶⁶ 예외를 제외하면, 현재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구 문명의 혜택을 누리기를 원한다. 만약 이 관점에서 인류가 초기 시대를 넘어 진보해왔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가치판단은 다수의 가치판단과 일치한다. 그러나 역사에서 진보가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가정하거나 바로 그 이유로 역사에 진보를 영원히 계속되게 만드는 법칙이 사건들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가정이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역사학을 위한 함의들

역사학은 과거를 충실히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 역사가의 한계 등의 이유로 과거의 역사를 충실히 재현하는 일은 쉽지 않다. 사실상 역사가는 과거를 해석하고 재구성한다. 역사가는 수학, 논리학, 자연과학들, 인간행동과학들 등의 도움을 받아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에는 비역사적 학문들로 설명되지 않는 침전물이 언제나 남아 있다. 이 침전물, 즉 역사의 개별성을 특정한 이해라는 역사학 원리를 이용하여 해석하고 설명한다. 역사학 원리인 특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이다. 미제스는 이 점을 “역사는 개념들의 관점에서 과거를 묘사하는 것이다.”(Mises, 1990, p. 13)라고 설명한다. 이때 역사가들이 논리적으로 옳은 모든 개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개념으로 묶을 때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요소들이 공통된 특징을 가질 때 그런

분류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역사가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거나, 비역사적 학문들의 지식이 변경되거나, 사상들 또는 아이디어들이 바뀐 경우 등에 역사를 새로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역사는 언제나 새롭게 작성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역사 해석은 역사가마다 다를 수 있다. 역사가의 세계관, 이데올로기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역사학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역사가의 세계관 등이 다르지 않은 경우라도 비역사적 학문들의 지식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다. 이때 비역사적 학문들의 지식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에 역사 해석은 잘못될 수도 있다.

역사학의 과학적 객관성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는가?⁶⁷ 역사과학, 특히 특정한 이해의 영역에서 과학적 객관성은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 특정한 이해에 있어서 과학적 객관성의 수준은 자연과학들, 논리학, 인간행동학 등에 있어서 과학적 객관성의 수준에 이를 수는 없다. 역사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서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한 나라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 간의 충돌의 역사는 더욱 그렇다. 역사가들은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모든 것에 일치된 견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데는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들은 역사학의 객관성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과학에 비해 역사학의 과학적 객관성이 낮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역사는 언제나 재작성^{rewritten} 되고 재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학은 가치중립적인 학문이고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아놀드 토인비와 같은 세칭 위대한 역사가마저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역사를 작성했다는 사실은 역사가가 가치중립성을 유지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역사학에서의 가치중립성 유지가 자연과학들에서보다 훨씬 어려운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인간행동학과 경제학과 같은 다른 인간행동과학보다도 어렵다는 것도 진실이다. 그러나 역사학이 최대한 가치중립적일 때 과학으로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휠즈만은 역사학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즉 “역사 분석은 알려진 사실들에만 충실한다면 개별 인간의 행동으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사회적 현상을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사건들의 인과 사슬은 개인들의 아이디어들과 가치판단에서 시작하고 거기에서 끝나야 한다. 역사학은 되돌아보아서 행동하는 인간이 그가 행동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그가 목표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그의 의지대로 처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믿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서술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학은 행동하는 인간이 그의 행동을 통해 초래할 객관적인 영향을 서술하기 위하여 경제학과 자연과학들에 의해 제공되는 법칙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학의 임무는 역사의 주인공들의 관점에서 사회적 진화와 경제적 진화의 드라마를 기술하는 것이다. 이 일에서 역사학 고유의 특정한 도구는 ‘심리학’ 또는 미제스의 표현을 빌리면 ‘심정학’이다.”(Hülsmann, 2009, p. 2)⁶⁸

과학으로서 역사학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미제스는 *Theory and History*에서 역사학 원리와 그런 원리를 위한 개념을 설명하거나 제안했다. 그러나 오늘날 역사학계뿐 아니라 그의 추종자인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들에게도 미제스의 역사학 원리는 잊혀졌다. 오늘날 역사가들이나 역사 연구

자들은 역사학 원리를 배우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대학 역사학과는 어떤 역사학 원리도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 역사 서술이 객관성을 잃고 있는 한 가지 이유이다. 그러므로 대학의 역사학과를 포함해 역사가를 훈련하는 어디에서도 역사학 원리에 대한 연구와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역사학 원리에 대한 무지와 이념 또는 이데올로기가 합쳐져서 역사 연구의 객관성이 무너진 지 오래다. 특히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학계의 분열상은 너무 심해서 토론과 분석이 어려울 정도이다. 역사학의 객관성을 위하여 역사가들은 비역사적 학문들의 주요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국가에 있어서는 경제현상이 중요해지면서 경제사 서술이 다른 어떤 분야의 역사 서술보다 중요하지만 경제사가나 경제사 연구자는 경제이론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사 연구를 시작하거나 경제이론들 중에서도 좋은 경제이론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늘날 경제사가는 실증주의 또는 범물리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잘못된 방법론을 채택하는 실정이다.

다른 한편, 미제스는 역사 연구에 있어서 실증적 측면보다는, 인류의 진보를 위한 규범적 측면, 특히 대중과 정치 사상의 선구자들과 그 사상을 전달하는 자들과 보급하는 자들의 관계에 대한 규범적 측면도 제시하고 있다. 미제스는 역사적 진보를 위해서는 좋은 정치 사상을 창조하는 선구자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상을 전달하고 보급하는 부류들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사회에는 좋은 정치 사상이나 철학을 창조하는 자들과 전달하고 보급하는 자들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중이 언제나 좋은 정치 사상만을 선택할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대중은 좋은 정치 제도나 사상을 거부한 경우도 많고 나쁜 아이디어들을 채택한 사례도 적지 않다. 미제스의 말을 인용해본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새로운 사상들을 생각해낼 능력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정치 사상들은 사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때만 오로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구자들의 혁신들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새로운 사고방식을 발전시킬 능력이 없는 대중에게 달려 있다. (중략) 그러나 만약 대중이 더 나쁜 것을 채택하면 잘못된 오직 그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에 못지않게 잘못된 자신들의 사고들을 더 확신이 가는 형태로 제기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던 좋은 대의들을 지닌 선구자들의 것이기도 하다. 인간 관련 사물들의 좋은 진화는 인간에게 이로운 사상들의 저자들을 낳을[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상들을 전달하는 자와 보급하는 자들도 낳을 수 있는 인류의 능력에 궁극적으로 달려 있다.”(Mises, 2007, p. 371)

미제스의 주장을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해보자.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과 고전적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라는 사상을 정밀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연구자나 전문가 못지않게 그것들을 우리 사회의 대중에게 전달하고 보급하는 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좋은 사상이나 이념을 전달하고 보급하는 자가 우리 사회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필자만의 잘못된 판단일까? 복지국가와 국가에 의한 간섭이 거센 환경에서 미제스의 경고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Part. 4

4부

경제학과
역사학의
발전을 위하여

경제학과 역사학에 대한 도전

주류 경제학은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에 그 유용성에 있어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왜냐하면 2008년 위기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진단과 처방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일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방법론과 인식론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주류 경제학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은 이 책의 많은 부분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주류 경제학은 과학적 정밀성 면에서 오류가 있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바로 그 점이 현실의 위기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여겨진다. 최근 서양 경제사학계의 중심이 된 패러다임인 신경제사학을 포함해 역사학도 주류 경제학과 비슷한 오류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역사학이 유용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비역사적 학문들의 이론들이

정확해질 필요가 있다. 경제학에만 국한하여 본다면, 정확한 방법론과 인식론만이 좋은 경제학 또는 정확한 경제이론을 정립할 수 있다. 부정확한 방법론과 인식론으로 좋은 경제학 또는 정확한 경제이론을 만들 수는 없다. 정확한 방법론과 인식론이 정밀한 경제학 또는 정확한 경제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정확한 방법론과 인식론인가를 탐구하지 않을 수 없다. 범물리주의는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의 방법론과 인식론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자 잘못된 이론을 확산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학의 좋고 나쁨은 문명의 성쇠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경제학은 좋은 체제 또는 제도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쉽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나쁜 체제 또는 제도에 비하여 좋은 체제 또는 제도는 더 많은 조화, 평화, 번영, 자유 등과 더 적은 갈등, 전쟁, 테러 등을 초래한다. 나쁜 제도로 운영되는 사회주의 국가인 작금의 북한과 몰락한 동유럽, 소련 연방, 개혁과 개방 이전의 중국 등을 생각해보면 앞의 서술을 이해할 수 있다. 문명의 보존을 위해서도 가깝게는 인간행동학과 경제학, 그 자체를 잘 다듬어야 하고, 멀게는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의 방법론과 인식론을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미제스는 경제학의 운명과 문명의 운명이 그 궤를 같이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예언한다. “지난 200년간 백인들이 발전시켜왔던 현대문명의 운명이 경제학의 운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도 강조되어야만 한다. 경제정책의 문제들에 대해 경제학적 가르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사람들을 압도했기 때문에, 이 문명[현대문명을 지칭함]의 생성과 존립이 가능했다. 만약 민족들이 경제적 사고를 거부하는 학설

들의 주술에 사로잡혀서 진입했던 진로를 추구하는 것을 지속한다면, 그 문명은 장차 그리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Mises, 1996, p. 10) 미제스는 다른 곳에서 현대 주류 경제학이 아니라 자신이 인간의 행동에 기초하여 추론해낸 경제학, 즉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이 좋은 경제학임을 묵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주류 경제학에 비하여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이 더 정확하다는 점은 이 책의 여러 곳에서 다루었다.

미제스가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시기에 형이상학자들이나 경제학을 과학으로 만들거나 과학으로 간주하기를 포기한 경제학자들로부터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은 거센 도전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무렵의 도전이 미제스에게 준 교훈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된다. 미제스가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 지적한 바를 인용해 본다. “논리학과 과학에 반대하는 낭만적인 반란은 사회현상들의 영역과 인간행동과학들에 자신을 국한시키지 않는다. (중략) 과학은 그 자신의 영역을 넘어설 수 없다. 과학은 우리의 지식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자신을 한정시켜야 하고, 지식 체계의 도움을 받아 경험을 논리적으로 다듬는 일을 떠맡아야 한다. (중략) 과학은 초월적인 것을, 사고나 경험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을 결코 다루지 않는다. 과학은 형이상학적 영역에만 관심을 가지는 학설들에 대해서는 호불호(好不好) 간에 어떤 의견도 표명할 수 없다. (중략) 어느 시대나, 과학적 사고의 선구자는 외로운 사색가이다. 그러나 현대 경제학 분야에서보다 과학자의 지위가 더 외로운 적은 결코 없다. 인류의 운명 – 서구 문명이 수천 년간 취해왔던 길로 진보하든가, 또는 탈출구가 없는 혼돈,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듯이 어떠한 새로운 삶도 결코 발전되지 않게 될 혼돈으로 급격히 빠져들 것인가 하는 – 은 이러한 조건이 지속되는지 여부에 달

려 있다.”(Mises, 2003, pp. 214-215)

오늘날에도 과학으로서 경제학에 대한 도전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정치가는 단순 육체 노동자의 삶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최저임금법’을 포함한 많은 법률, 정책 등을 만들어내고 집행한다. 물론 그 결과는 법률이나 정책이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집단을 그 정책이나 법률이 없을 때보다도 나쁘게 만든다.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그 결과 최저임금법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최저임금법이 있을 때 사회는 더 나빠진다. 이러한 행위는 경제학이 매우 정밀한 과학이라는 주장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미제스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수는 과학으로서 경제학을 무시하고 있거나 더 좋은 경제학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한 것이다. 이 문제는 작은 일이 아니다. 오늘날 정치가들을 포함한 사회 지도자들이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을 무시하는 행동이나 처사는 쉽게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작금의 세계 경제학계는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학계의 한편에서 외롭지만 당당하게 오스트리아학파의 인간행동학과 그 발전된 부분인 경제학이 맹거를 시조로 하고 미제스에 의해 그 기초가 구축되고 설립되었다. 그리고 주류 경제학이 거세게 도전받고 있는 시점인 지금이야말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제학계에서는 오스트리아학파의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은 아직도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 문명을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경제학계에서 오스트리아학파의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의

위치는 서양 경제학계에서보다 더 비참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이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역사학계도 경제학계가 지닌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어쩌면 역사학계는 경제학계보다 문제가 심각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역사학계는 비역사적 학문들의 이론들이나 법칙들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 원리, 그것도 제대로 된 역사학 원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런 지적 오류 또는 문제를 바로 잡고 경제위기와 같은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시도의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이론과 인식론과의 관계에 대한 미제스의 제안을 인용해본다. “경제이론의 요지를 파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그 자신을 먼저 경제학이 가르치는 바를 잘 알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런 연후에만 경제 정리들을 되풀이해서 곱씹으면서, 관련된 인식론적 측면들을 연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최소한 인간행동학적 사고의 커다란 쟁점들의 일부 – 예를 들어, (대부분 수확체감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수확의 법칙, (비교 비용의 법칙으로 더 잘 알려진) 리카도의 제휴의 법칙 *law of association* [미제스는 리카도의 비교우위의 법칙을 광의로 해석하여 제휴의 법칙이라고 명명함], 경제계산의 문제 등등 – 를 아주 조심스럽게 검토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인간행동학이 의미하는 것을 파악하거나 인간행동학의 구체적인 인식론적 문제들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Mises, 2006, p. xii)

방법론과 인식론을 기초로 한 전망¹

여기에서는 방법론과 인식론을 기초로 한 전망에 국한하여, 경제학, 역사학, 자본주의, 현대 문명 등에 대한 전망을 하고자 한다. 우주는 두 부분으로 나눈다. 인간의 마음과 물질 **matter**이다. 물질은 인간에게 외부 세계 **external world**이고,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사고력 또는 생각하는 것 **a thing of thinking**이다. 인간은 마음의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 그 점을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마음을 말함)를 참고하지 않고서 경험에 대해 말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Mises, 2006, p. 114)

미제스의 앞의 지적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행동은 선형적이고 그렇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방법론인 범물리주의 또는 실증주의는 인간의 마음을 무시한다. 그 점에서 실증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우주관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다. 실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물질과 명백히 다른 인간의 마음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험과학에 적합한 실증주의는 인간행동과학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은 그런 실증주의를 오래전에 방법론으로서 채택했다. 주류 경제학이 잘못된 방법론을 채택하게 된 것은 인간행동을 위한 인식론에서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방법론을 채택하면 두 가지의 작지 않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 그런 잘못은 경제이론의 발달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킨다. 주류 경제학의 일부인 거시경제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4장에서 다루었다. 실증주의는 어떤 새로운 경제이론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른 지적일 것이다. 주류 경제학이 많은 오류가 있다는 점은 2장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부실한 경제이론은 이제 그를 토대로 하는 문명을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각국의 경제위기와 세계적인 수준의 경제위기는 그 점을 잘 보여준다. 불행한 것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위기에 대한 대책은 말할 것도 없고 위기의 원인들마저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엄밀히 말한다면 주류 경제학자들이 위기의 원인들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에 따른 대책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장기적으로는 향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둘째, 범물리주의 또는 실증주의는 자본주의라는 제도를 약화시키게 된다. 범물리주의 또는 실증주의는 인간행동학의 방법론과 인식론을 부정함으로써 경제과학을 과학으로 인정하는 것을 부정한다. 실증주의의 명제는 자연과학들의 실험적 절차들만이 지식 탐구에 적용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명제를 기초로 '통일 과학'unified

science’ 또는 ‘통섭’이 나오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자연과학계에서 통섭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동물의 행태를 연구하는 일부 연구자가 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인간의 행위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일부 대중 매체는 그들의 그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찬성함으로써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통섭 또는 통일 과학 또는 자연과학 만능주의의 맥락에서는 사회가 거대한 공장이고, 모든 사회 문제는 ‘사회공학’이 풀어야 할 과학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다. 통계와 자료를 중시하는 실증주의는 복지국가주의 또는 간섭주의를 위한 통계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공학, 복지국가주의, 간섭주의 등은 반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철학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본주의라는 제도를 약화시킨다. 세계의 각 나라가 일정한 경제성장 단계에 도달하고 나면 반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철학이나 제도가 득세하는 것은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의 방법론 또는 인식론의 오류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요인은 현대 문명의 물질적 토대인 자본주의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문명의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 사실 서양의 문명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의 결과이지만 그런 과학과 기술은 자본주의라는 사회·정치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² 오늘날 많은 나라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발달된 과학과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과학과 기술을 발달하게 만들거나 외국으로부터 발달된 과학과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자본’이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자본의 형성, 특히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거대한 자본의 형성은 자본주의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사회주의, 간섭주의, 복지국가주의, 평등주의 등, 반자본주의에서 자본은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되기 때문에 자본의 형성은 저해되거나 지연된다.

역사학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은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이념 또는 이데올로기가 개입할 여지를 많아지게 만든다. 역사 서술이 이념 또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되면 역사 서술은 부정확해질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게 된다. 이 점은 국내뿐 아니라 국가 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제 평화와 번영은 억제되고 갈등과 쇠퇴가 조장된다. 게다가, 인류는 이념 또는 이데올로기로 해석된 역사로부터는 인류 문명의 지혜를 배울 수 없다. 경제사가들을 포함한 역사가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역사학의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과학과 기술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과학과 기술은 경제적으로는 오직 자본주의, 철학적으로는 신자유주의 또는 고전적 자유주의하에서만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다. 반자본주의적 이념인 사회공학, 복지국가주의, 간섭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평등주의 등과 같은 이념하에서는 과학과 기술이 전쟁과 파괴를 위한 도구를 만드는 일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과학과 기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과학과 기술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공학 등과 같은 이념은 국가 또는 정부가 사람들의 행동을 계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제는 정부가 사람들의 행동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계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국가 또는 정부가 사람들의 행동을 더 많이 계획할수록 개인들은 자신을 위해 더 적게 계획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 사회공학 등

과 같은 이념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유와 재산을 탈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노예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현재 세계적 수준에서는 문명의 발달을 촉진하는 요인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무역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하면 보호무역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점에서 보면 친자본주의적인 제도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문명의 발달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³ 인터넷을 포함하는 대중 매체들의 발달과 확산,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과 확산, 예전에 사회주의 국가였다가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국가가 발생하는 것 등은 문명의 발달을 촉진하는 요인임이 분명하다.

필자가 앞에서 분석한 두 가지 문제는 인간행동학의 방법론과 인식론의 관점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한 것이다.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은 자본주의를 촉진하는 요인들과 저해하는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가 어떻게 현재로서는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각국마다 사정이 천차만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자본주의적 요소와 반자본주의적 요소 중에서 어느 요소가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인가는 시간만이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문명의 성쇠는 두 요소 중에 어느 쪽이 큰가에 달려 있다. 인간의 의지라는 관점에서 문명의 성쇠는 어느 쪽을 더 크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만의 자본주의, 문명 등에 대한 예상을 간략하게 하고자 한다. 최근 정치권은 복지 정책과 같은 반자본주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예를 들어, 반값 등록, 무상 급식, 무상 보육 등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그 추세를 되돌리기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해 관계자들의 저항과 반대 때문이다.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나라의 정책은 앞서서도 보았듯이 반자본주의적인 것도 있고 친자본주의적인 것도 있다. 다른 나라의 제도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 마디로 단언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반자본주의적인 것이 친자본주의적인 것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하겠다. 한 마디로, 한국 경제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이론과 경제학의 방법론과 인식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서문

1. *Epistemological Problems of Economics*는 1933년에 독일어판으로 발행되었으며, 1960년에 처음으로 영역되었다.

1부 방법론과 인식론을 위한 기초

1. 1980년대까지 오스트리아학파의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의 부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Rothbard(1992) 참조.
2. 오스트리아학파의 창시자로 추앙받고 있는 칼 멩거(Carl Menger)도 연구 방법론과 인식론에 관련한 문제를 독일어로 된 저작을 통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의 업적은 제외한다. Hülsmann(2003b), 각주 3번 참조.
3. Hülsmann(2003b) 참조.
4. Ebeling(1990), Introduction, pp. xii–xiii 참조.
5. Rothbard(2007) 참조.
6. Friedman(1953), pp. 3–43 참조.
7. 여기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 영어 real, realistic, realism, realist, reality 등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관념’의 반대로서 ‘실재’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이상’의 반대로서 ‘현실’이라는 의미이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real과 관련한 파생어들은 이 책에서는 첫 번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철학에서 인식론과 관련한 의미는 전자이기 때문이다.

-
8. 오스트리아학파의 실재론(realism)적 전통은 멩거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오스트리아학파의 초기부터 내려온 것이다. Hülsmann(2007), p. 135 참조.
 9. Caplan(1999)을 예로 들 수 있다.
 10. 민족주의, 사회주의, 나치즘 등이 동일한 이데올로기로서 중국에는 그 이념을 채택한 사회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Mises(1996), 제9장 참조.
 11. Mises(2006), pp. 1-2 참조.
 12. 이 부분은 전용덕(2014)의 논문을 발췌·수정한 것이다.
 13. Friedman(1953) 참조.
 14. 오스트리아학파의 역사에 대한 필자의 지식은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에 대해 생소한 연구자들을 위하여 오스트리아학파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할 필요는 있지만 이 글의 목적상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간략한 스케치 정도로 하고자 한다. 그리고 신고전학파의 역사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한다.
 15. 미제스의 일대기를 다룬 최근의 주요 저작으로는 Hülsmann(2007)이 있다. 그리고 어떤 연구자는 미제스를 설립자로 하는 학파를 그 이전과 구분하기 위하여 ‘신오스트리아학파’라고 부르기도 한다.
 16. 멩거의 뒤를 뵘바베르크가 이었다. 그리고 뵘바베르크의 뒤를 이은 연구자가 프리드리히 폰 비저(Friedrich von Wieser)이다. 그러나 그는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가정과 생산과 분배를 분리함으로써 결정적인 잘못을 범했다. 그 결과 오늘날 오스트리아학파라고 말할 때 비저를 포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미제스가 쓴 대작 *Human Action*에서도 비저의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만 두 번 나온다. Mises(1996), Hülsmann(2007) 참조.
 17. 멩거, 뵘바베르크, 미제스, 하이에크 등은 독일어 저작들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

18. 다만 관심 있는 독자를 위하여 각 분야의 주요 참고문헌을 나열해본다. 경제이론 일반은 Mises(1996), Rothbard(1993), Reismann(1998), 독점과 가격 이론은 Selgin(1988a), Block(1990), Salin(1996a, b), Armentano(1999), 비교경제 제도는 Hoppe(1989), Salerno(1990), 복지 이론은 Sennholz(1987), Thornton(1991), Cordato(1992), Herbener(1997), 산업조직 이론은 Klein(1996), 화폐와 금융은 White(1989), Selgin(1988b), Hoppe(1994), Huerta de Soto(2006), Salerno(2010), 경제사는 Rothbard(1975, 2005), 공공재 이론은 Hummel(1990), Holcombe(1997), Campan(1999), DiLorenzo(1988), 기업가 이론은 Kirzner(1973, 1992), 사유화 이론은 Hoppe(1991), Herbener(1992), Selgin(1996), 방법론은 Mises(1996, 2003, 2006, 2007), Rothbard(1997a), Hoppe(2007), 사상사는 Rothbard(1997a, 1997b), 법학(도덕과학)은 Rothbard(2002) 등이다. 참고로 앞에서 나열한 참고문헌은 Hülsmann(1999)의 18쪽에 나와 있는 참고문헌에 1999년 이후 연구자들의 문헌을 필자가 일부 선정하여 포함한 것이다.

19. Rothbard(1992) 참조.

20. 오스트리아학파 내에서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하이에크의 비중은 작지 않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 내에서는 그의 존재감이 크지 않다고 호페는 지적했다. 학문적 공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라스바드와 같이 엄청난 업적을 남긴 연구자도 경제이론에 관한 한 독점 이론을 제외하면 자신의 학문적 공헌은 없다고 자평했다. 왜냐하면 경제이론은 모두 미제스가 이미 설명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서 하이에크적 전통을 이어가는 연구자가 적지 않지만 미제스적 전통을 따르는 연구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왜소하다. 그런 이유와 다른 이유가 겹쳐 하이에크의 연구를 이 논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작게 취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21. 이 부분은 Mises(1996, 2006, 2007), Rothbard(1992), Hülsmann(1999), Salerno(2010),

Caplan(1999) 등을 주로 참조.

22. Mises(2003) 참조.
23.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Mises(1996, 2006, 2007) 참조.
24. Hülsmann(2003b) 참조.
25. 마하이는 휠즈만이 주장하는 반사실적 조건문으로 된 관계에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achaj(2012), Hülsmann(2003b) 참조.
26. Rothbard(1997a), 제1장에서 제6장까지 참조.
27. 영어 'rationality'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응용에 대한 국내 문헌으로는 전용덕(2006)을 참조.
28. 인간의 행동이 동물의 행동과 다른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Mises(1996), 제1장 참조.
29. Mises(2003), p. 24 참조.
30. 미제스는 만약 개인이 두 사물이나 조건에 대하여 진정으로 무차별하다는 가치판단을 하는 경우에 그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행동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차별로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Mises(2007), p. 24 참조.
31. 이 점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Rothbard(1993), 제4장을 참조.
32. Rothbard(1997a) 참조.
33. Mises(1996) 참조.
34. Mises(1996), p. 105 참조.
35. Caplan(1999), p. 832 참조.
36. Mises(2007) 참조.
37. 이때 발명가를 재화의 발명가라는 의미로 좁게 해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때

발명가란 아이디어의 발명가를 지칭한다.

38. 신고전학파의 주장은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Knight(1922)의 위험과 불확실성의 구분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39. Hoppe(1989) 제7장, Hoppe(1993) 제2부와 부록을 참조.
40. Hülsmann(1999) 참조.
41. Caplan(1999) 참조.
42. Hoppe(1993) 참조.
43. 신고전학파의 공공재 이론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Holcombe(1997) 참조.
44. 여기에서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탄소배출권과 같은 것은 잘못 만들어진 권리이다. 그것은 오히려 정부가 부여한 독점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5. Mises(1996) 참조.
46. 외부경제에 대하여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외부경제가 외부불경제의 단순한 정반대 또는 역(逆)이 아니라는 점이다. 외부경제는 외부불경제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외부경제는 그 자체로서 고유한 영역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외부경제를 마치 외부불경제의 역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
47. 오스트리아학파의 화폐 제도와 금융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Mises(1980), 국내 문헌으로는 전용덕(2009) 등이 있다.
48. Gertchev(2013) 참조.
49. 예금과 관련한 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두 학파는 견해 차이를 드러낸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도덕적 해이, 주인-대리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예금 보험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논의를 생략한다.

-
50. 1920~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에 대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적 관점에 의한 분석은 Rothbard(1975)가 대표적이다.
51. 여기에서의 선협주의는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말하는 선협주의와 다른 것이다.
52. 기업가의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Salerno(2008), 전용덕(2010a)을 참조.
53. Rothbard(2007), p. xiv 참조.
54. 두 학파는 경쟁에 대한 정의도 다르게 제시한다. 그 결과 산업조직론과 반트러스트법과 관련하여 두 학파는 크게 다르다. 여기에서 이 점은 생각한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관점에서 경쟁과 독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othbard(1993), 제10장을 참조.
55. 미제스에 의하면 인간행동학이라는 용어는 1890년에 에스피나(Espinas)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 아래에 나오는 교환학이라는 용어는 왜틀리(Whately)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Mises(1996), p. 3, 각주 1번과 2번을 참조.
56. Mises(1996), p. 7 참조.
57. Mises(1996), p. 13 참조.
58. 선거 때가 다가오면 투표하지 않은 행위를 비난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서의 서투르기 짝이 없다. 투표하지 않는 것을 투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볼 때, 비로소 투표자들의 투표 불참 행위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투표를 하지 않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이전에 그런 행위도 투표 행위 못지않게 행동의 일종이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59. 최근 뇌과학은 '내측 안와전두엽'이 뭔가를 선택하는 기능, 즉 가치판단을 하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런 가치판단을 하게 되는가는 아직도 수수께끼이다. 현재까지 뇌과학이 이룩한 바는 다음과 같다. 두뇌의 피질을 통해 생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확신은 있지만 완전히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뇌과학에서, 생각 그 자체는 무엇이고, 육체와 정신이 어떻게 서로 영
-

향을 주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제스의 주장이 여전히 옳다는 것이다.

60.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또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 있는 사람의 신체 안에서 사상들과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동일한 외적 사건들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시점의 같은 사람들에게, 상이한 사상들과 아이디어들로 귀결된다. 생리학은 자극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라는 현상을 적절하게 다를 어떤 방법도 갖고 있지 못하다.”(Mises, 2006, p. 105)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연구에 정진했을 무렵인 1940년대에 미제스는 이미 현재의 뇌과학이 도달하고 있는 결론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61. 영어 ‘rationality’라는 용어를 무역정책에 응용한 사례는 전용덕(2006)을 참조.
62. 여기에서 ‘합리적인’이라는 말과 ‘합목적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rational’이라는 말로 번역하지 않을 수 없다.
63. Mises(2007), pp. 23–25 참조.
64. Mises(1996), p. 14 참조.
65. Mises(1996), p. 103 참조.
66. Mises(2007), pp. 35–36 참조.
67. 미제스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확실히, 개인들의 가치판단들조차 인과 관계적으로 결정된다. 우리는 또한 그것들[개인들의 가치판단들]이 어떻게 현실화될지도 안다. 우리가 그것들의 구체적 구성을 예견할 수 없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모든 과학적 인식이 우리에게 부인되는 그런 경계선에 도달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가치판단들과 의지들을 예견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면 누구나 우리 내부에 있는 세계가 우리 바깥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를 알아야 할 것이다. 라플라스(Laplace)가 우주공식을 꿈꾸었을 때, 그는 이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았

다.”(Mises, 2003, p. 129)

- 68.** 인간이 지닌 마음의 논리적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더욱이 모든 인간은 단세포로부터 고도로 복잡한 포유동물체로의 생리학적 탈바꿈뿐 아니라, 순전히 식물적이고 동물적인 존재 양식으로부터, 이성적 마음으로서의 정신적 탈바꿈이라는 개인적 진화를 되풀이한다. (중략) 그러므로 발육기의 모든 사람은, 어둠의 심연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다양한 상태의 마음의 논리적 구조를 거치면서 나아간다.”(Mises, 1996, p. 34)
- 69.** 경제학의 가치중립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용덕(2003) 참조.
- 70.** Mises(2003), p. 38 참조.
- 71.** 이 문단과 다음 문단은 전용덕(2003), 제1장, 11-13쪽에서 발췌.
- 72.** 경제학자가 어떤 정책을 반대하는 경우도 공공 정책에 대한 경제학자의 가치판단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정책을 반대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
- 73.** 윤리적 질문(ethical question)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의학에서 건강한 것이 좋다는 판단은 윤리적인 것 또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인 경제학에 비한다면 의학에서는 윤리적 질문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물론 안락사와 같은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말이다. 왜냐하면 건강한 것이 좋다는 윤리적 판단은 의사와 환자 사이에 그다지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쉽게 공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와 정치의 영역에서는 윤리적 질문이 의학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제와 정치의 영역에서는 윤리적 갈등 또는 가치 갈등이 자주 일어나서 사회에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또 각기 다른 가치 체계(value-system)로 인하여 의학에서처럼 동일한 가치와 윤리를 사람들이 쉽게 공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경제학자를 포함한 사회과학자는 의사보다 윤리적 질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
74. 빈자를 돕는 일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불법 자산, 다른 경제정책에 의한 소득 재분배 등과 같은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법 체계와 법학의 문제이거나 해당 경제정책 자체의 문제로서 경제학의 가치중립성과 무관하다.
75. Hülsmann(2003a), p. xlvii 참조.
76. Mises(2007), p. 310 참조.
77. Hülsmann(2003a), p. xlvii 참조.
78. 오늘날 주류 경제학은 인플레이션을 물가수준의 일반적인 상승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그런 정의는 부정확한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정확한 정의는 지폐 발행의 증가를 지칭한다. 인플레이션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Mises(1980) 참조.
79. Mises(1996), pp. 117–118 참조.

2부 경제학의 방법론과 인식론

1. 인간이 지식을 탐구할 때의 인식론적 기초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결정론(determinism)이다. 미제스가 결정론의 핵심을 요약한 것을 인용해본다. 즉 “우주의 모든 사물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변화는 사물들에 내재해 있는 힘들의 결과들이다. 선행하는 상태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었을 변화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사실은 그것들의 원인들에 달려 있고 그 원인들에 의해 조건 지어진다. 사물들의 필연적 경로로부터의 이탈은 가능하지 않다. 영원한 법칙이 모든 것을 규율한다.”(Mises, 2007, p. 74) 다른 한 가지는 유물론, 그의 변형인 유물 변증법과 역사철학 등을 지칭한다. 유물론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결정론을 받아들이고 유물론 등을 기각한다. 두 가지 인식론적 기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Mises(2007)의 제2부를 참조.
-

-
2. 통상적으로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경험적 사실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경험적 사실에 포함함으로써 '경험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넓게 정의한다.
 3. 아래의 분류는 Hülsmann(2003b), p. 61 참조.
 4.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동하고 있는 것인가를 모른다고 심리적으로 느낄 때가 있다. 이런 경우가 없을 수 없지만 그렇게 혼한 경우는 아니다. 종종 인간은 자신이 잘못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다. 이 경우가 어떠한 인간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동한다는 우리의 명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5. 바로 이 점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동물의 행동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최근에 동물사회학과 같은 학문이 등장한 것도 문제라고 하겠다. 동물은 인간처럼 사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본능에 따라 군집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6. 이 점은 Mises(2003), pp. 33-37 참조.
 7. Mises(1996), p. 11 참조.
 8. Mises(2003) p. 34 참조.
 9. 일관성 있는 유물론자들(materialists)인 마르크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선택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 Hülsmann(2003a), p. xlv, footnote no. 59 참조.
 10. 이들은 선택 행위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유물론자들,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의 추종자들 등과 구분된다. 적어도 이들은 선택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11. 'counterfactual'이라는 용어는 '반사실적 조건문'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철학계에서 통용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이 용어의 번역은 철학계의 관례를 따르기로 한다. 문제는 'counterfactual'을 형용사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counterfactual law, counterfactual relation, counterfactual analysis 등과 같은 용어의 번역에 어려움이 따른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직역하는 것이다. 예
-

를 들어 counterfactual law를 ‘반사실적 조건문 법칙’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뜻을 풀어서 표현하는 것이다. 다만 형용사로 쓰는 경우에 ‘문’을 빼는 것이다. 예를 들어, counterfactual law의 경우에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칙’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후자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counterfactual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표현의 간결성보다는 의미의 전달에 무게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2. Hülsmann(2003b), Mises(1990, 2006, 2007)를 주로 참조하였다.
13. Mises(2006), pp. 31–33 참조.
14. Hoppe(1989), ch. 8 참조.
15. Hülsmann(2003b), pp. 65–66 참조.
16. Mises(2007), 제10장 참조.
17. 역사 자료들로부터 경험법칙들을 도출해낼 가능성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명제를 ‘경험주의’로 부른다. 역사주의자 가운데에는 경험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경험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 동일한 사람도 시기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고,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한다는 점은 경험주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경험주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각한다. 경험주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Mises(2003), 제1장 참조.
18. 어떤 재화의 가격 또는 가치는 유량(flow) 개념뿐 아니라 재고(stock) 개념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전체의 재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폐의 가치를 설명하는 경우에 그렇다. 재고 개념으로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Rothbard(1993) 참조.
19. 선형주의에 대한 참고문헌으로는 Rothbard(1997a), Hoppe(1995), Smith(1996) 등과 Hülsmann(2003a), 각주 56번 참조.

-
20. 미제스는 행동주의(behaviorism)와 목적론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행동주의가 동물들과 아이들의 행동들을 관찰함으로써 달성한 것은 무슨 결과들이든 간에 목적론을 몰래 들여온—물론 은폐하고 부인하면서—덕분이다. 목적론이 없었다면 행동주의가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 주어진 장소와 주어진 시간에 일어나는 사례들을 거대하게 축적한 것에 불과했었을 것이다.”(Mises, 2003, p. 139)
21. 장 바티스트 세(Jean Baptiste Say), 나소 윌리엄 시니어(Nassau William Senior), 존 엘리엇 케언스(John Elliot Cairnes) 등과 같은 고전파 경제학자들도 경제이론들이 ‘선형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미제스와 매우 유사하게 경제이론들의 선형성을 인정했다. Hoppe(2007), p. 10 참조.
22. 미제스는 사고와 행동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의 사고는 인간의 삶과 행동에 봉사한다. 그것은 절대적 사고가 아니라 기획된 행동들로 향해진 사전 사고(forethought)이고 행한 행동들을 반성하는 사후 사고(afterthought)이다. 그 결과, 최종 분석에서는, 논리학과 보편타당한 인간행동과학은 하나이고 동일한 것이다.”(Mises, 2003, pp. 13–14)
23. Hülsmann(2003a), p. x 참조.
24. Hülsmann(2003a) 참조.
25. 이 절과 다음 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ülsmann(2003a), pp. xlv–xlvii와 Hülsmann(1999) 참조.
26. Hülsmann(2003a), pp. li–lii 참조.
27. 미제스는 케언즈(Cairnes), 비저(Wieser) 등이 주장한 내용, 즉 경제학이 선형과학이라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매우 유사한 요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Mises(2003), pp. 20–24 참조.
28. Mises(2003), pp. 31–32 참조.
-

-
29. 이 부분은 Hülsmann(2003a) 참조.
30. Hülsmann(2003a) 참조
31. Rothbard(1957, 1993) 참조.
32. 우리의 사례와 달리 통상적으로 선택지는 여러 개이기 때문에 ‘선택지들’이라는 복수로 표현했다.
33. Barnett II and Block(2004)은 화폐의 공급이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법칙은 수정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이후의 연구에서 분명히 되어야 할 점이다. 여기에서는 Hülsmann(2003b)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34. ‘세트리스 페리버스’라는 구절은 ‘모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에서는 두 구절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때로는 문맥상 ‘모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이라는 표현은 잘 맞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35. 수요와 공급에 대한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서술이 엄정한 법칙이 아니고 경향을 가진 법칙이 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언제나 상호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류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엄밀한 법칙이라고 설명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엄밀한 법칙이 될 수 없음을 Hülsmann(2003b), 76-77쪽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77쪽의 각주 24번을 참조. 그러므로 이 설명은 공급에 관한 다음 문장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36. 오스트리아학파는 재화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화폐를 팔고 재화를 구매한다고 표현한다. 반대로 생산자 입장에서는 재화를 팔고 화폐를 구매한다고 한다. 화폐도 일종의 재화로서 구매와 판매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때 또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재화를 보유하는 생산자 또는 재고 보유자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
37. Hülsmann(2003b), 각주 38번 참조.
-

-
38. Hülsmann(2003b), p. 88, 각주 39번 참조.
39. 엄밀히 말하면 물가수준이라는 개념은 틀린 것이다. 화폐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 각 재화의 가격 상승의 정도, 상승 시기, 상승 속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화폐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30년 동안 개인용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의 가격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그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물가수준이라는 개념이 틀린 것임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는 Rothbard(1993)를 참조.
40. 대공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Rothbard(1975), 전용덕(2010b), Murphy(2009) 등을 참조.
41. Mises(1980), 160쪽 이후 참조.
42. 그러나 바스티아의 분석이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관계를 잘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관점에서 옳지만 그 분석의 내용 자체는 약간의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Carabini(2007)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내용의 오류에 대한 자세한 지적은 Carabini(2007)를 참조.
43. Hülsmann(2003b), pp. 93-95 참조.
44. 이 점에 대해서는 Salerno(1988) 참조.
45. 주류 경제학자가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관계나 법칙을 이용하는 경우는 교과서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있지만 전문 학술서나 연구 논문 수준에서는 많지 않다고 힐즈만은 지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Hülsmann(2003b), p. 96 각주 50번 참조.
46. Rothbard(1997a) 참조.
47. 인간 행위는 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인다. 여기에서 등식을 이용한 것은 단지 설명을 위한 것이다.
48. 항등순환경제라는 개념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

49. Hülsmann(2000), pp. 6-9 참조.

50. 인간의 모든 행위가 미래 지향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는 언제나 투기적이다. 그 점에서 모든 인간은 투기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현실에서 투기자를 구분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투기자의 처벌은 투기가 일어난 원인을 투기자에게 돌림으로써 투기가 발생한 원인을 찾는 일을 근원에서 차단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이유들 중 중요한 하나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투기와 같은 투기 행위를 차단하고자 한다면 일단 투기자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투기가 발생하는 제도적 원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51. 할인한계가치생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Rothbard(1993), 제7장 참조.

52. 여기에서 간섭받지 않는 시장이란 정부나 민간(개인 또는 단체)으로부터 시장의 민간 경제주체가 경제 행위에서 어떤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간섭에는 정부의 간섭이 가장 많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간섭받지 않는 시장을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시장으로 정의해도 큰 문제는 없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재화의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 간섭의 좋은 예이다. 물론 정부 또는 민간이 경제주체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간섭받지 않는 시장을 자유시장(free marke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간섭받지 않는 시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Rothbard(1993)를 참조.

53. 미제스의 경쟁 개념에 대해서는 Mises(1996) 참조.

54. 마르크스 경제학을 옹호하는 전문가들은 이윤을 노동자를 착취한 증거라고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주장한다.

55. 체스(chess) 또는 테니스와 같은 경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오락이나 스포츠 게임과 같은 상황에서도 균형 분석을 이용해 오락이나 게임의 참가자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게임과 같은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ülsmann(2000), pp. 11–12 참조.

56.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ülsmann(2000), pp. 31–35 참조.

3부 역사학 원리

1. Mises(2007), pp. 92–93 참조.
2. Salerno(2005), p. 12 참조.
3. 여기에서 미제스가 말하는 개별성은 다른 의미도 가진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룬다.
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5. Salerno(2005) 참조.
6. 인간행동학에서의 시간 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ses(1996), pp. 99–104 참조.
7.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존속 기간으로서의 현재는 행동을 초래할 조건들과 기회들이 지속되는 것이다.”(Mises, 1996, p. 100)
8. Mises(2007), pp. 298–302 참조.
9. Mises(1996), p. 48 참조.
10. 역사가들의 불일치가 다른 학문의 이론들 중에서 선택하는 일이 불일치하기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11. 집단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파나 학설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Mises(2007), pp. 188–195 참조.
12. Mises(2007), pp. 250–259 참조.
13. 이 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ses(2007), pp. 183–184 참조.

-
14. Mises(1996), p. 49 참조.
15. 다음 인용문은 미제스가 인식론과 방법론을 연구하는 초기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고가 자신의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 대처해야 하는 과제들 중의 하나는 인간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조건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조건들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다루는 것은 자연과학들의 일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한 역사학과 다른 역사과학들의 일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우리 과학[경제학을 말함]은 우발적인 것은 무시하고 오직 핵심적인 것만 고려한다. 그것[우리 과학을 말함]의 목표는 보편적인 것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것의 절차는 형식 논리적이고 공리적이다. 그것은 행동과 행동이 일어나는 조건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듯이 구체적인 형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학들과 역사과학들 각각에서 행동과 행동이 일어나는 조건들을 볼 때 그것들의 실제 설정 내에서 보는 것도 아니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인간행동의 유형들을 순수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형식적 구조물들(formal constructions)로 본다.”(Mises, 2003, p. 14)
16. 대공황 이후에 대공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공황 당시나 지금이나, 정확한 경기변동 이론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진실일 것이다. 정확한 경기변동 이론에 의한 대공황에 대한 연구는 Rothbard(1975)를 참조.
17. 이 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ses(1996), pp. 54–55 참조.
18. Mises(2007), pp. 219–226 참조.
19. Mises(1996), p. 53 참조.
20. 미제스는 이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해는 엄밀하게 말해서 (용어가 가지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역사 과학들이 독특하고 반복될 수 없는 것을 다룰 때, 즉 단순히 역사적인 것을 다룰 때 사용하는 방법론이다. 이해는 우리가 규칙들로부터는 알 수
-

없고, 그것들[규칙들]을 통해서 설명할 수도 없는 어떤 것을 정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Mises, 2003, pp. 12–13)

21. 역사 원리로서 이해라는 방법은 실증주의자들의 비난에 직면하여 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개념이라고 한다. Mises(2006), p. 44 참조.
22. Mises(1996), p. 49 참조.
23. Mises(1996), p. 50 참조.
24. 미제스는 이해를 시인(approval)과 혼동하지 말 것을 설명한다. 또한 그는 이해와 감정이입(empathy)을 구분할 것을 지적한다.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Mises(1996), p. 50 참조.
25. 역사 연구에 있어서 이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의 역할에 대한 미제스의 설명을 직접 인용해본다. 즉 “이해는 개인이나 개인의 집단이 특정한 가치 판단과 선택에 의해 뿔어져 나온 특정한 행동과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동에 몰입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리고 이해는 개인이나 개인의 집단이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특정한 기술적, 치료법적, 행동학적 원리들 등에 의해 제공되는 특정한 수단을 응용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게다가 이해는 행동에 의해 야기된 결과와 결과의 강도를 평가하는 것을 시도한다; 이해는 각 행동이 모든 행동과 관련된 정도, 즉 행동이 사건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한다.”(Mises, 1996, p. 50)
26. Mises(2007), pp. 264–265 참조.
27. Mises(1996), p. 56 참조.
28. Mises(1990), p. 12 참조
29. 미제스는 행동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사가들이 ‘의미’라고 말할 때 그들은 개별 인간들—행위자들 자신과 그 행동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행위자들

또는 역사가들—이 행동들에서 보았던 의미를 말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마도 불필요한 것이 아닐 것이다.”(Mises, 2006, p. 39)

30. Mises(1990), pp. 12–13 참조.
31. Mises(2007), 제12장 참조.
32. Salerno(2010), p. 216 참조.
33. 심지어 술을 적당히 먹고 평소에 잘하지 못했던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인간이 얼마나 목적 지향적인가를 잘 보여준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에 인간의 행동이 목적 지향적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34. Mises(2007), p. 313 참조.
35. 기업을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하고자 한다. Salerno(2008), 전용덕(2010a) 참조.
36. Salerno(2005), pp. 18–19 참조.
37. Salerno(2005), p. 18 참조.
38. 여기에서 사익이란 엄격히 말해 사적 개인들의 경제적 이득이고 이것이 집단적으로 요구되고 획득된다는 점에서 사익이라는 표현은 부정확한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런 관행을 따랐다.
39. 미제스도 일반적 관점에서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동기를 감춘다는 점을 역사 연구에 주의할 점으로 이미 지적했음을 아래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라스바드의 경우, 좀 더 구체적인 길잡이를 제시한 점이 그의 공헌이라고 하겠다.
40. 독점과 그에 따른 독점 이득에 대해서는 Rothbard(1993), 제10장 참조.
41. Rothbard(1974) 참조.
42. 경제학처럼 역사학도 가치중립적임을 앞에서 알았다. 농지개혁이라는 용어는 그 점

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농지개혁이라는 용어 그 자체가 가치판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관행을 따르기로 한다.

43. 당시 농지개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용덕(1997), Jeon and Kim(2000)을 참조. 그러나 두 논문에서 필자들은 농지개혁의 동기를 전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완성이라고 하겠다.
44. 에블링은 미제스가 역사학을 위해서 도입한 이상적 유형이라는 개념은 막스 베버(Max Weber)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한다. Ebeling(1988), p. 14 참조.
45. 에블링의 이상적 유형에 대한 설명을 인용해본다. “이상적 유형이란 정형화된 재건축물을 의미한다. 이상적 유형이란 문제가 되는 분석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특징들 또는 성격들, 또는 사회 제도 또는 질서의 특징들 또는 성격들, 또는 역사적 시기의 특징들 또는 성격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전형적인 특징들 또는 성격들을 추출한 것이다. 그 특징들 또는 성격들이란 그 개인, 또는 그 사회 제도 또는 질서, 또는 그 역사적 시기를 해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바로 가까이에 분석적 문제가 주어진 상태에서 바로 그 건축물에 의해 이상적 유형은 어떤 성질들 또는 특징들을 강조하고 그 결과 개인들이나 사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다양한 특징들을 이상화한 것이다.”(Ebeling, 1988, p. 13)
46. Mises(1996), pp. 59–60 참조.
47. 기업가의 세 가지 기능, 기업과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Salerno(2008), 전용덕(2010a)을 참조.
48. 순이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Rothbard(1993) 참조.
49. 미제스는 ‘기업가’라는 개념을 예로 들어 이 점을 설명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Mises(1996), pp. 59–64 참조.
50. Hülsmann(2009)에 의하면 방법론적 개인주의라는 용어는 슌페터가 만들었다고

한다.

51.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대한 참고문헌으로는 Mises(1996), 제2장 제4절, Hayek(1979), pp. 61–76, Rothbard(1997a), pp. 52–57, 버틀러(2000)의 서문 등이 있다.
52. Hülsmann(2009)은 당초 Hülsmann(2006)에 발표된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프랑스에서 발표된 책에 실린 것으로 구할 수가 없었다.
53. “심지어 고립된 개인의 행동마저도 그 행위자의 미래 가치판단에 대한 특정한 가정들에 의해 인도되고 고립되어 있을 때까지는 행위자가 생각하는 그 자신의 개성에 대한 이미지에 의해 결정된다.”(Mises, 2006, p. 45)라고 미제스는 설명한다.
54. ‘투기하다(speculate)’라는 용어는 원래는 ‘숙고와 견해의 형성’이라는 의미였다고 한다. Mises(2006), p. 45 참조.
55. 또한, 미제스는 다른 곳에서 이와 유사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심정학적인 경험으로부터 인간 — 그가 개인이건 집단이건 상관없이 — 의 미래 행위를 확실하게 연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정학적 지식에 기초한 모든 예언은 모든 사람이 일상의 행동에서 행하는 그리고 특히 정치가들, 정상배들, 경영자들이 또한 일상의 행동에서 행하는 미래에 대한 특정한 이해이다.”(Mises, 2007, pp. 273–274)
56. Mises(2007), p. 320 참조.
57. Mises(2007), p. 314 참조.
58. Mises(1996), pp. 57–58 참조.
59. Mises(2007), p. 314 참조.
60. 미제스는 역사학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역사학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를 풀 능력을 주지는 않는다.”(Mises, 2003, p. lxxvii)
61. 1920년대 대공황, 2008년에 발생한 경제위기 등은 모두 경기변동 현상이기 때문에 경

기변동 이론이 필수이다. 그러나 작금의 주류 경제학은 경기변동 이론이 없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이 유일하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ses(1980, 1996) 참조.

- 62. Mises(2007), pp. 280–282 참조.
- 63. 이 인용문은 현대에 와서 역사학자들이 국제적 갈등과 침략적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채택한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 64.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lerno(2005) 참조.
- 65. 역사철학도 다음 절에서 보는 역사의 철학적 해석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추어 분리하여 다루고자 한다. 역사철학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Mises(2007) 참조.
- 66. Mises(2007), p. 369 참조.
- 67. Mises(1990), p. 12 참조.
- 68. 이 인용문에서 한 가지 의문은 힐즈만은 역사가 언제나 진화만 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역사는 역사가 퇴보하는 것이다. 이 점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부 경제학과 역사학의 발전을 위하여

- 1. 부분적으로는 Mises(2006), 제7장과 제8장 참조.
- 2. 18세기 말 서양에서 시작된 소위 산업혁명은 직접적으로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의 결과이지만,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자본의 축적이고 자본의 축적은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와 철학적으로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산업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궁극적으로는 그것 자체가 결과이고 원인은 사회와 정치 체제의 변화라는 것이다.

3. 2008년의 경제위기와 1920년대에 발발한 대공황의 차이점들 중의 하나는 2008년 위기에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점이 대공황에 비해 2008년 위기의 충격을 작게 만드는 원인들 중의 하나이다.

참고 문헌

-
- 버틀러, 이문. 2000. 『루드비히 폰 미제스: 현대 미시경제학 혁명의 원천』. 김이석 역. 서울: 자유기업원
- 전용덕. 1997. “제3장 한국의 농지개혁, 소득 재분배, 농업생산, 그리고 거래비용”. 『한국경제의 성장과 제도 변화』. 전용덕, 김영용, 정기화 공저. 자유기업센터.
- _____. 2002. 『월드컵으로 이해하는 시장경제』. 자유기업원.
- _____. 2003.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자유기업원.
- _____. 2006. “인간 행동의 합목적성과 경제 교육의 필요성: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응용하여”. 자유경제스쿨 홈페이지(7월 9일자).
- _____. 2009.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화폐와 금융 제도』. 한국경제연구원.
- _____. 2010a. 『기업과 기업가 정신: 이해와 오해』. 한국경제연구원 KERI 정책제언 10-09.
- _____. 2010b. “대공황과 통화주의자가 만들어낸 미신”. 『자유와 시장』. 제2권. 39-90.
- _____. 2014.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 대 신고전학파의 경제학”. 『제도와 경제』. 제8권 제1호. 85-126.
- Armentano, Dominick T. 1999. *Antitrust: The Case for Repeal*. 2nd ed. Auburn, Ala.: Mises Institute.
- Aquinas, St. Thomas. 1963. *Commentary on Aristotle's Physics*.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 Barnett, William II and Walter Block. 2004. “On the Optimal Quantity of Money.” *Quarterly Journal of Austrain Economics*. 7(1): 39-52.
- Block, Walter. 1990. “The DMVP-MVP Controversy: A Note.” *Review of Austrian*
-

-
- Economics*. 4: 208-14.
- Bohm-Bawerk, Eugen von. 1959. *Capital and Interest*. South Holland, Ill.: Libertarian Press.
- Butos, William N., and Roger G. Koppl. 1993. "Hayekian Expectation: Theory and Empirical Expectations."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4.
- Campan, Gael J. 1999. "Does Justice Qualify as an Economic Good?: A Bohm-Bawerkian Perspective."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2(2): 21-33.
- Carabini, Louis. 2007. "Bastiat's 'The Broken Window': A Critique."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21(4): 151-155.
- Caplan, Bryan. 1999. "The Austrian School for Realistic Foundations". *Southern Economic Journal*. 65(4): 823-838.
- Cordato, Roy. 1992. *Welfare Economics and Externalities in an Open-Ended Universe: A Modern Austrian Alternative*.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DiLorenzo, Thomas J. 1988. "Competition and Political Entrepreneurship: Austrian Insights into Public-Choice Theory."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2:59-72.
- Ebeling, Richard M. 1988. "Expectations and Expectations Formation in Mises's Theory of the Market Process." *Market Process*. 6 (Spring): pp. 12-18.
- _____. 1990. "Introduction." In *Money, Method, and the Market Process*. Norwell, Mass.: Kluwer.
- Edgeworth, F. Y. 1961. *Mathematical Psychics*. Reprint. New York: Augustus M. Kelley.
- Friedman, Milton. 1953. "The Methodology of Positive Economics". In *Essay in Positive Econom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43.
- Gertchev, Nikolay. 2013. "From Monetary Nationalism to Monetary Imperialism:
-

-
- Fractional Reserve Banking and Inter-Government Cooperation".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109-134.
- Hahn, Frank H. 1973. *On the Notion of Equilibrium in Econom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usman, Daniel M. 1992. *The Inexact and Separate Science of Econom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yek, F. A. 1931. *Prices and Production*. London: Routledge.
- _____. 1937. *Monetary Nationalism International Stability*. London: Longmans.
- _____. 1979. *The Counter-Revolution of Science*. 2nd ed. Indianapolis, Ind.: Liberty Fund.
- Herbener, Jeffrey M. 1992.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in Desocialization."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6(1): 79-93.
- _____. 1997. "The Pareto Rule and Welfare Economics."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6(1): 79-93.
- Hicks, John R. 1979. *Causality in Economics*. New York: Basic Books.
- Hoppe, Hans-Hermann. 1989. *A Theory of Capitalism and Socialism*. Boston: Kluwer.
- _____. 1991. "De-Socialization in a United Germany."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5(2): 77-104.
- _____. 1993. *The Economics and Ethics of Private Property*. Boston: Kluwer.
- _____. 1994. "How is Fiat Money Possible?-or The Devolution of Money and Credit."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7(2): 75-90.
- _____. 2007. *Economic Science and the Austrian Method*. Auburn, Ala.: Mises Institute.
-

-
- Holcombe, Randall G. 1997. "A Theory of the Theory of Public Goods."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10(1):1-22.
- Huerta de Soto, Jesus. 2006. *Money, Bank Credit, and Economic Cycles*. translated by Melinda A. Stroup. Auburn, Ala.: Mises Institute.
- _____. 2012. "Book Review of Mises: The Last Knight of Liberalism."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15(4): 469-479.
- Hummel, Jeffrey. 1990. "National Goods vs. Public Goods: Defense, Disarmament and Free Riders."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4: 88-122.
- Hülsmann, Jorg Guido. 1999. "Economic Science and Neoclassicism."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2(4): 3-20.
- _____. 2000. "A Realist Approach Equilibrium Analysis."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3(4): 3-51.
- _____. 2003a. "Introduction." In *Epistemological Problems of Economics*. Auburn, Ala.: Mises Institute.
- _____. 2003b. "Facts and Counterfactuals in Economic Law."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17(1): 57-102.
- _____. 2006. *L'homme libre-Festschrift in Honour of Pascal Salin*. Paris: Les Belles Lettres.
- _____. 2007. *Mises: The Last Knight of Liberalism*. Auburn, Ala.: Mises Institute.
- _____. 2009. "How to Use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Mises Daily. <http://mises.org/story/3578>.
- Jeon, Yoong-Deok and Young-Yong Kim. 2000. "Land Reform, Income Redistribu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on in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

-
- Change*. 48(2): pp. 253-268.
- Kirzner, Israel M. 1966. *An Essay on Capital*. New York: Augustus Kelley.
- _____. 1973.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Chicago University Press.
- _____. 1992. *The Meaning of Market Process*. London: Routledge.
- Klein, Peter. 1996. "Economic Calculation and the Limits of Organization."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9(2): 3-28.
- Knight, Frank H. 1922, *Risk, Uncertainty, and Profit*. Chicago: Hart, Schaffner, and Marx.
- _____. 1956. *On the History and Method of Econom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chmann, Ludwig. 1994. *Expectations and the Meaning of Institutions*. London: Routledge.
- Machaj, Mateusz. 2012. "In Counterfactuals We're All Dead."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15(4): 443-455.
- Menger, Carl. 1950. *Principles of Economics*. Glencoe, Ill.: Free Press.
- Marshall, Alfred. 1920. *Principles of Economics*. 8th ede. London: Prentice-Hall.
- Miller, Preston J., ed. 1994. *The Rational Expectations Revolu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 Mises, Ludwig von. 1980. *Theory of Money and Credit*. Indianapolis: Liberty Fund.
- _____. 1983. *Nation, State, and Econom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_____. 1990. *Money, Method, and the Market Process*. Norwell, Mass.: Kluwer.
- _____. 1996. *Human Action*. San Francisco, Cal.: Fox & Wilkes. 민경국, 박종운 역.
- _____. 2011. 『인간행동I, II, III』.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 _____. 2003. *Epistemological Problems of Economics*. Auburn, Ala.: Mises Institute.
-

-
- _____. 2006. *The Ultimate Foundation of Economic Science*. Indianapolis, Indiana: Liberty Fund.
- _____. 2007. *Theory and History*. Auburn, Ala.: Mises Institute.
- _____. 2010. *Socialism: An Economic and Sociological Analysis*. Indianapolis: Liberty Press.
- _____. 2011. *A Critique of Interventionism*. Auburn, Ala.: Mises Institute.
- Murphy, Robert. 2009. *The Politically Incorrect Guide to the Great Depression and the New Deal*. Washington: Regnery Publishing.
- North, Douglass C. 1966. *Growth and Welfare in the American Past: A New Economic Histor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_Hall.
- Reismann, George. 1998. *Capitalism: A Treatise on Economics*. TJS Books. Laguna Hills, California.
- Rothbard, Murray N. 1957. "In Defense of 'Extreme Apriorism'." *Southern Economic Journal*. 3{2/3}: 314-20.
- _____. 1974. "Economic Determinism, Ideology, and The American Revolution". *The Libertarian Forum*. November. 4-7.
- _____. 1975. *America's Great Depression*. Kansas City: Sheed & Ward.
- _____. 1976. "Praxeology: the Method of the Social Sciences". In Edwin Dalam ed. *The Foundations of Modern Austrian Economics*. Kansas City: Sheed & Ward.
- _____. 1982. *The Ethics of Liberty*. Auburn, Ala.: Mises Institute.
- _____. 1992. *The Present State of Austrian Economics*. Auburn, Ala.: Ludwig von Mises Institute.
- _____. 1993. *Man, Economy, and State*. 3rd ed. Auburn, Ala.: Mises Institute. 머레이
-

-
- N. 라스바드. 2006. 『인간, 경제, 국가』. 전용덕, 김이석 공역. 자유기업원.
- _____. 1997a. *The Logic of Action One: Method, Money, and the Austrian School*. Cheltenham, U. K.: Edward Elgar.
- _____. 1997b. *The Logic of Action Two: Applications and Criticism from the Austrian School*. Cheltenham, U. K.: Edward Elgar.
- _____. 2005. *A History of Money and Banking in the United States*. Auburn, Ala.: Mises Institute.
- _____. 2007. "Preface." In Mises, Ludwig von. *Theory and History*. Auburn, Ala.: Mises Institute.
- Salerno, Joseph T. 1988. "The Neglect of the French Liberal School in Anglo-American Economics: A Critique of Received Explanations."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2: 113-56.
- _____. 1990a. "Why a Socialist Economy is Impossible." Postscript to Mises(2010). 51-71.
- _____. 1999. The Place of Mises's Human Action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Economic Thought.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2(10): 35-65.
- _____. 2005. "Introduction." In Rothbard, Murray N. *A History of Money and Banking in the United States*. Auburn, Ala.: Mises Institute.
- _____. 2008. "The Entrepreneur: Real and Imagined." *The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11: 188-207.
- _____. 2010. *Money: Sound and Unsound*. Auburn, Ala.: Mises Institute.
- Salin, Pascal. 1996a. "Cartels as Efficient Productive Structures."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9(2): 29-42.
-

-
- _____. 1996b. "The Myth of the Income Effect."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9(1): 95-108.
- Schulak, Eugen Maria and Herbert Unterköfler. 2011. *The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A History of Its Ideas, Ambassadors, and Institutions*. Translated by Arlene Oost-Zinner. Auburn, Ala.: Mises Institute.
- Selgin, George. 1988a. "Praxeology and Understanding."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2: 19-58.
- _____. 1988b. *The Theory of Free Banking*. Totowa, N.J.: Rowman and Littlefield.
- _____. 1990. *Praxeology and Understanding*. Auburn, Ala.: Mises Institute.
- _____. 1996. *Bank Deregulation and Monetary Order*. London: Routledge.
- Sennholz, Hans. 1987. *Debts and Deficits*. Spring Mills, Penn.: Libertarian Press.
- Shackle, G. L. S. 1972. *Epistemics and Econom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ith, Barry. 1996. "In Defense of Extreme (Fallibilistic) Apriorism."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12(1): 179-92.
- Thornton, Mark. 1991. *The Economics of Prohibition*.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 White, Lawrence H. 1989. *Competition and Currenc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Wicksell, Knut. 1934. *Lectures on Political Economy*. Vol. 1. London: Routledge.
-

찾아보기

ㄱ

가시적인 43, 115-118, 139, 141-144, 155-157, 161, 179

가치 이론 36, 53, 145-146

가치자유적 236

가치중립성 23, 87-89, 236-241, 329, 332-333, 346

가치판단 73-74, 77, 81, 83-99, 149-150, 226, 229, 231-232, 236-240, 247-251, 255, 266, 269-271, 274, 276, 300-301, 303, 306, 329-330, 333

가치평가 10, 33, 37, 73-74, 77, 81, 83-87, 90-91, 95, 112, 125, 192-193, 236-237, 255, 262, 265, 268-269, 287, 303

간섭받지 않는 시장 202, 363

간섭주의 25, 123, 180, 205, 345-346

간접교환 294-298

개별성 95, 230, 248, 255, 260, 327, 331

개인 10-11, 23-24, 37, 39, 51-52, 55-60, 63, 68-69, 76-78, 83-84, 91-97, 106-108, 122, 149, 160-161, 167, 171, 190, 194, 225, 230-231, 241-255, 261, 272, 274, 287, 290-296, 299-303, 306, 309-310, 312-313, 316-317, 327, 333, 346

개인 자기 주권 68

객관성 238, 240, 263, 332, 334

객관주의 45

거시 현상 292, 296, 298

게임이론 43, 214-215, 218-220

결과론자 201

결정론 321, 323, 326

경기변동 17, 27-28, 65, 181, 254, 365, 369-370

경제과학 20, 71, 128-129, 131, 135, 161, 179, 188-189, 192, 200-201, 212, 216-217, 221, 344

경제계산 73-74, 152, 200, 342

경제법칙 9, 17-20, 123, 128-131, 144-147, 154-155, 158-159, 162-164, 170, 175, 177-179, 182-184, 187, 253-254, 267, 296-298, 318, 324

경제사 9, 18, 25, 125, 147, 245, 253-254, 275, 288, 314-315, 318, 321, 334, 346

경제예측 22

경제위기 16, 27-29, 66, 292, 338, 342, 344

경제이론 9, 22, 25, 31, 35, 37-38, 45, 66, 70-71, 78, 89-94, 98-99, 115, 125, 129-132, 145-147, 149, 178, 187, 253-254, 284, 288, 290, 292, 295-298, 316, 322-324, 334, 339, 342, 344, 348

경제적 동기 11, 109, 279-281, 283

경제적 이득 279, 281-283

경험법칙 359

계획 61, 85, 230-231, 233, 244, 249-250, 265-266, 270, 300-301, 304, 327-328, 346

고전파 경제학자들 360

공공 정책 89, 356

공공재 53-54

공리 35, 67, 70-71, 78, 94, 150-151

공익 11, 279-283

과거의 역사가 305

과오 117, 132, 190, 193-194, 196-197, 199-203, 207, 211-213

과학 24-26, 38, 41-42, 48, 72-74, 76-79, 85, 87-91, 94-95, 102-103, 111, 114, 122, 127, 129-130, 134, 136, 137, 141, 145, 148, 150-152, 156-158, 171, 220-221, 226, 232, 237-241, 248, 252, 257, 259-260, 263, 288, 293, 310, 325, 332-333, 338, 340-341, 344-346

관찰 114, 123-124, 137, 139, 141, 149-150, 158, 173-174, 176, 205, 237, 272, 300, 360

교환수단 94, 218, 294, 297

교환학 73, 91-92, 110, 354

구매력 125

국가주의자 282

국수주의 240

귀납적 연구 323

규칙성 49, 67, 80, 128, 140, 252-253, 300, 323

균형 가격 131, 194, 216

균형 경제학 131, 190-191, 201-202, 210-211

균형 분석 10, 119-120, 131-132, 134, 188-192, 195-221, 363

균형화 212

금전적 이윤 34

급간 확률 48

기업 59, 60, 63, 69, 108, 195, 217, 247, 273, 289-290, 302

기업가 34, 59, 63-64, 68-70, 73-74, 80, 108-110, 130, 170, 180, 195-196, 202-205, 211-212, 217, 264-265, 273, 276, 288-290, 306, 354, 367, 368

L

노동조합 180, 247

노비제 228

노예제 227-228

논쟁의 윤리 50-53

농지개혁 280-281, 367-368

C

대공황 29, 66, 173-174, 255, 316, 354, 362, 365, 369, 371

데이비드 리카도 179, 342

독점권 353

동기 10-11, 49, 67, 78, 91-93, 97, 106, 109-110, 130, 231-232, 237, 251-252, 257, 268, 273, 278-284, 287, 322-324, 367-368

R

라흐만 113

루트비히 폰 미제스 7, 11, 16, 19-21, 24-26, 30-35, 47-48, 58, 62-63, 71, 73-88, 91-95, 98, 106-112, 116, 125-129, 131, 135-138, 140-154, 159, 165, 175-181, 189, 204, 214-217, 221, 225-272, 276, 286-288, 291, 293, 298-315, 317, 319, 323-324, 326-328, 330-335, 339-343, 350

Q

마르크스 307, 309, 327-328, 358, 363

마셜 플랜 280-281

마음 24, 37, 67, 77, 85-86, 95, 112, 115, 121,

138, 140-141, 221, 242, 244, 246, 249, 270,
309, 312, 328, 343-344, 355-356, 364

마음의 논리적 구조 86, 343, 356

마하이 154, 182, 184-187, 352

머레이 라스바드 21, 32, 37, 42, 44-45, 53, 69,
84, 147, 153, 181, 232, 278-
280, 282-284, 288, 290, 351,
367

목격한 성공 194

목격한 실패 194

목적 5, 7, 10, 16-18, 22, 24, 33-35, 38-39, 42-44,
49, 52, 66, 70, 74, 77, 81-97, 105-113, 116-
121, 134-137, 140-143, 151-152, 157, 162,
189, 192-193, 202, 211, 218, 220, 225-226,
229-231, 236-237, 247, 251-252, 261-267,
269-276, 280-281, 291, 293, 299-302, 306,
309-311, 316-317, 325, 327, 350, 355, 358,
366

목적론 35, 48, 67, 86, 135, 138, 140-141, 151-
154, 159, 270, 360

목표 10, 39, 81-83, 87, 90-91, 106-108, 110, 117,
192, 244, 250, 266-267, 287, 316, 323-324,
331, 333, 346, 365-366

무차별 40-44, 47, 208, 209, 352

무차별 이론가 41-42

문명 11, 29, 65, 70, 235-236, 308, 328-330, 339-
347

물가수준 172-174, 177, 322, 357, 362

물리학 26, 76, 103, 120-122, 124-127, 156, 172

물질 23, 58, 121, 142, 144, 343-345

미래 9, 11, 23, 47-50, 71, 83, 95, 107, 113, 122,
160, 162, 168, 177, 193-194, 207, 211, 213,

215-216, 231-234, 254, 265-267, 271-273,
276, 286-289, 299-313, 325-328, 347, 363,
369

미래 가격 193, 273

미래 지향적 113, 193, 363

미래의 역사가 305

미시 현상 292

민족주의 23, 128, 240, 319, 350, 370

밀턴 프리드먼 2, 29, 232

ㅅ

반국가주의자 282

반사실적 사실 41, 155, 161, 198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관계

반사실적 조건으로 된 법적 10, 118-119, 135,
154-167, 170-175,
179, 182, 359

방법론 5-11, 16-26, 28, 30, 37, 66-68, 70, 72, 75,
78-79, 98, 102, 115, 119-122, 127-128,
130-131, 135-136, 138, 144, 148, 151,
154-155, 158, 170, 175, 179-182, 186-
191, 201, 232, 251, 254, 256, 259-260,
265, 268, 275, 292-298, 300, 310, 322-
326, 334, 338-339, 343-349, 351, 355,
357, 365, 368-369

방법론적 개인주의 1, 256, 292-293, 295-298,
368-369

방법론적 이원주의 79

범물리주의 16, 25, 30, 67-68, 71, 79, 119-127,
135, 138, 148, 254, 324, 334, 339,
344

법학 26, 70, 170, 285, 351, 357

보이는 것 179, 255
 보이지 않는 것 158, 179-180
 보조금 63, 280-281, 322
 복수 균형 209-210
 복지국가주의 25, 345-346
 복지 이론 51, 351
 빔바베르크 30-32, 152, 350
 부분 지급 준비 은행업 65-66
 불규칙성 121
 불균형 가격 194
 불확실성 47, 49-50, 113, 211-212, 215-216, 231, 288-290, 301, 307, 353
 불환지폐 65
 부리던의 당나귀 41-42
 비가시적인 115-118, 139-144, 155-156, 161
 비경제적 동기 109-110
 비교 연구 200
 비실재적 29, 34, 39, 47, 176, 189, 216-217, 221
 비역사적 학문 10, 26, 206, 240, 252, 255-256, 258-260, 267, 275-276, 287-288, 291, 314-316, 331-334, 338, 342

ㅅ

사고 실험 175-178
 사고하기 116
 사례별 확률 48
 사상 136, 232, 235-236, 243, 245, 248-250, 282, 308-311, 332-335, 355
 사적 재화 54
 사전 사고 360

사전적 108, 110, 122, 150, 193, 207, 230
 사회공학 25, 345, 346
 사회과학 120, 121-125, 128, 151, 356
 사회복지함수 45
 사회적 복지 51
 사회주의 23, 128, 147, 152-153, 200, 205, 227-228, 308, 339, 345, 347, 350
 사후 사고 360
 사후적 50, 70, 105, 108, 122, 126, 193, 207, 212, 314
 산업혁명 18, 253, 308, 370
 상품화폐 65
 생리학 76, 91, 232, 313, 355-356
 생물학 26, 79, 232, 256, 328-329
 생산구조 70
 생산수단 180, 205
 새클 113
 선택의 법칙 115
 선형과학 94, 129, 145, 148, 152, 238, 254, 257, 318, 360
 선형성 20, 94, 129, 135, 144, 146, 148-151, 153, 162, 205, 233, 324
 선형적 가정 300
 선형적 명제 126
 선형적 추론 94, 129, 324
 선형주의 66, 119, 134-137, 144, 147, 151, 354, 359
 세제 163
 세트리스 페리버스 162, 182-187, 361
 손실 33, 58-59, 61, 62, 74, 108, 196-197, 202,

205, 215, 217, 289

수단 10, 34, 49, 52, 54, 77, 82, 87, 90, 93-94, 105-112, 117, 119, 138, 140, 142-143, 149, 151-152, 180, 192, 205, 218, 226-227, 229, 231, 236, 247, 251, 260-262, 265-266, 271, 286-287, 294, 297, 300-301, 303, 306, 309, 316, 323-326, 333, 347, 366

수정주의자 207

수학 26, 75, 95, 116, 127, 130, 136, 149, 150, 238, 240, 252, 256-257, 260, 263, 324, 331

수확의 법칙 296, 342

순이자율 195-196

슈페터 32, 368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관계 295

시장 가격 165, 194, 202

시장실패 53, 56, 61

신경계사학 18, 321-325, 338

신고전학파 5, 9, 16-17, 20, 22, 27-47, 50, 53-55, 60-61, 65-71, 76, 109, 115, 120, 130, 170, 315, 341, 350, 353

실재 22, 39, 45, 82, 109-110, 115, 117-119, 144, 152, 167, 183-184, 186, 199, 220, 234, 343, 349

실재론 10, 22, 131, 134, 167, 169, 188-189, 214, 350

실재적 29, 71, 161, 187-188, 198-201, 205, 211, 216-217, 221

실재주의적 합목적주의 152

실증주의 16, 20-22, 25, 29, 66-68, 71, 79, 93, 98, 119-127, 132, 135, 148, 157-158, 174, 180-181, 231-232, 275, 310, 322-325, 334, 343-345, 366

실증주의자 120, 124, 126, 174, 231-232, 366

실험 123-124, 170, 176-178, 268, 275, 307, 324, 344

실험 심리학 268

실험에 의한 경험 124

실험적 지식 275

심리학 10, 33, 37, 42, 77-78, 90-91, 208, 232, 261, 268-269, 333

심리학적 분석 33, 37

심적 이윤 34

심정학 10, 90, 256, 261-262, 268-276, 284, 302-304, 313, 333, 369

아담 스미스 179

아리스토텔레스 35, 138, 152, 174

아이디어 8, 10, 23-24, 49, 85, 122, 152, 225-230, 235, 242-249, 261, 268, 272, 282, 283, 286-288, 293, 300, 308-311, 323-333, 353, 355

아퀴나스 174

양적 지식 125

언어학 233, 285

역사 원리 18, 225, 250-251, 264-265, 286, 307, 321, 366

역사가 6, 9-11, 19, 23, 25-26, 49, 95-96, 125, 147, 224-225, 236-241, 244, 249, 251-267, 272-284, 286-287, 304-320, 328-334, 364, 366

역사 교육 9, 23, 25

역사의 철학적 해석들 11, 321, 326

- 역사적 개별성 95, 255
- 역사적 경험 93, 124, 147, 253, 270-271, 307, 314, 325, 328
- 역사적 사건 49, 96-97, 128, 130, 150, 206, 225, 230, 236-237, 245, 251-252, 255-263, 275, 277, 279, 282-284, 286, 291, 303, 306, 314, 318-319, 323, 329-333
- 역사적 사실 96-97, 117, 124-125, 147, 239-240, 275, 311, 318, 330
- 역사주의 20-21, 119-120, 127-131, 135-136, 263, 310, 315, 359
- 역사철학 249, 321, 325-327, 370
- 역사학 원리 5-11, 18, 21, 24, 31, 206, 224-335, 342, 346
- 역사학계 5-9, 23, 323, 333-334, 342
- 역사학파 128-129, 135, 145, 309
- 연역법 94
- 연역적 방법 35
- 연장귀납 300
- 예상 50, 64, 74, 95, 108, 111, 170, 211-213, 255, 266-267, 272-277, 305-308, 344, 347
- 예측 11, 22, 27, 29, 49, 60, 67, 98, 107, 113, 164, 210-211, 216, 231, 271-273, 287, 299-310, 313-314
- 오스트리아학파 5, 7, 19, 28, 30, 31-42, 46, 49, 51, 53-54, 56, 60, 65-66, 68-71, 76, 79, 81, 109, 118-120, 130-131, 135, 152, 171, 175, 178-179, 181, 292-293, 295, 298, 333, 335
- 알라스 31, 145
- 왕조사 312
- 외부경제 55, 61-64, 353
- 외부불경제 55-58, 60-61, 353
- 외부비용 57-58, 60
- 외부성 54-55
- 우연적인 특성 99, 117, 226
- 위인 230, 241-244
- 위험 48, 50, 69, 122, 288, 353
- 유물론자 358
- 윤리적 질문 356
- 윤리적 판단 89, 356
- 의사결정 기능 69, 288-290
- 의지 10, 42, 47, 53, 77, 111-112, 140-141, 150, 177, 231, 261, 268, 271
- 이념 9, 23, 58, 334-335, 346, 350
- 이데올로기 11, 243, 279, 282-283, 309, 311, 313, 317, 319-320, 332, 334, 346, 350
- 이상적 유형 11, 225, 256, 263, 285-288, 290-291, 304-305, 331, 368
- 이성 39, 42, 71, 76, 78-79, 82-83, 86, 102-105, 108-109, 112, 146, 149, 156, 198, 243, 248, 309-310, 312, 358
- 이윤 33-34, 63-64, 69, 74, 108-109, 130, 196-197, 202-206, 215, 217, 273, 289, 363
- 이자들 65, 180-181, 196, 203-204
- 인간행동의 불변적인 특성 93, 226
- 인간행동의 우연적인 특성 96, 117, 226
- 인간행동학 5, 7, 16-21, 24-26, 30-31, 33, 35-37, 42-43, 48, 72-77, 79, 85, 87-96, 102, 111, 117, 124, 126, 130, 135, 137,

140, 144-145, 147-148, 150-153,
159, 169, 208, 226, 233-234, 238,
240, 252, 254-256, 260, 263, 269,
271, 285, 292, 295, 313-314, 318,
324-325, 332-333, 339, 341-342,
344-345, 347, 354

인간행동학적 분석 33, 37, 75, 144

인과성 48, 80-81, 86, 120, 138, 140, 169-174

인류학 232

인플레이션 65-66, 96-97, 132-133, 165, 173,
200, 292, 357

일반균형 131-132, 134, 209

임금 180, 196, 204-205, 217, 290

임마누엘 칸트 136, 151

ㄷ

자기 소유권 51

자동인형 132

자본 160, 163, 182-184, 196, 203-204, 289, 345-
346, 370

자본가 59, 69, 196, 203, 288-289, 328

자본주의 11, 23, 25, 63, 152, 205, 227, 308, 332,
343-347

자연과학 20, 25, 30, 48, 67, 79, 95, 102, 119-121,
123-125, 129, 132, 135, 138, 156-157,
169-170, 172, 174, 176-177, 240-241,
248-249, 252-253, 256-257, 260, 262-
263, 267, 271, 275, 284-285

자연적 심리학 268-269

자유시장 25, 56, 65-66, 70, 180-181, 202, 363

자유시장경제 56, 62, 64

자유주의운동 282

자유주의자들 227-228, 308

잔여적인 204

재분배 65, 171, 205, 217

재정거래 203

정보 126, 145, 151, 211, 265, 301, 314

정부실패 53, 60-61

제3공화국 23, 244-245, 250, 254, 322

제브스 31, 145

제휴의 법칙 342

조건 37, 45, 49, 54, 75, 79-81, 97-98, 102-103,
113-114, 132, 145, 149, 162-164, 167-169,
176, 183-186, 191, 206, 211-213, 217, 229,
233-234, 245, 249, 270, 278, 290, 304, 307,
309, 340, 352, 357, 361, 364-365

조셉 샬레르노 93, 227, 232, 266, 269, 283

존 스튜어트 밀 146-147

주관주의 31-32, 45

주권 68

주류 경제학 5-6, 16-17, 22, 25, 31, 33, 37, 39,
43, 52, 56, 61-63, 69, 71, 75, 78,
81, 84, 109, 110, 119-120, 123,
130, 136, 158, 179, 191, 208, 315,
338, 340-341, 344, 357, 361

지대 52, 204

지식 6, 8, 24, 26, 48, 58, 61, 92, 94, 98, 125-127,
129, 144, 149-153, 156, 167, 211, 231, 232-
233, 248, 252, 257-258, 260, 266, 268, 270,
272-274, 277, 289, 301, 303-304, 312-316,
332, 340, 344, 350, 357, 377

지역주의 240

지폐 65, 96-98, 200, 357

진리 추구자 238-239

질적 지식 125

집단 10-11, 32, 37, 109, 241-243, 245-248, 252, 261, 272, 279, 282, 292-294, 296, 299-301, 307, 309, 316-317, 341, 364, 366-367, 369

ㄸ

철학 11, 70, 106, 136-138, 151-152, 232, 234, 236, 243, 249-250, 310, 321, 325-327, 330, 334, 345-346, 349, 354, 358, 366, 370

추론 22, 48, 78, 81-82, 175, 213, 294, 300, 306, 319

측정 124-125, 231, 262, 322

친국가주의자 282

ㄷ

카르텔 69-70

칼 멩거 30-32, 145, 152, 293-294, 297, 341, 349

캐플란 49, 52

ㄹ

탄소배출권 353

통섭 345

통일 과학 344-345

통화량 96-97

투기 47, 113, 193, 303, 307, 363, 369

투기자 47-48, 363

투자 73-74, 108, 113, 160, 170, 181, 193, 196, 203-204

특정한 이해 10-11, 21, 49, 75, 95-96, 99, 128, 206, 251-252, 256-257, 259, 261-269, 275-276, 287, 303-305, 331-332, 369

ㅍ

파레토 최적 50

퍼티시오우 프린시피아이 177

포기한 선택지 10, 35, 42-43, 66, 116-119, 135, 140-141, 143, 154-159, 170, 186, 190-191, 194, 198, 214

포기한 성공 190, 194

포기한 실패 191, 194

폴 크루그먼 28

프레데릭 바스티아 179, 362

프리드리히 폰 비저 145, 152, 350, 360

핑계대기 317

ㅎ

한스헤르만 호페 21, 31, 50-53, 123, 150, 351

할인한계가치생산 195-197, 203-204, 363

합리성 38, 81, 106

합리적 38-39, 82-83, 109, 209, 240-241, 326, 332

합목적성 38, 81-83, 140, 372

항등순환경제 89, 214-218, 362

행동 10, 12, 24, 33-45, 47, 49-50, 53-56, 60-61, 66-69, 73-86, 88, 90, 92-96, 98-99, 104-106, 108-122, 124, 126-127, 130, 132, 134, 136-146, 149, 151, 153-162, 168-169, 171, 175-176, 186, 188, 190-195, 198, 206-216, 218, 220, 225-226, 229-234, 236, 238, 241-243,

245-255, 257, 261-266, 269-274, 279-280,
283, 286-287, 291, 292-293, 296-297, 299-
305, 307, 311, 323-327, 333, 340-341, 343,
346, 352, 354, 358, 360, 363, 364-367, 369

행동 개념 32-34

행동 공리 70, 78, 150

행동의 기초 공리 35

행동의 의미 263, 366

행동의 조건들 36-37, 43, 115, 163, 168, 206,
213-214

행동의 환경 36, 106, 115

현시 선호 원리 40, 44-45, 53, 84

현실적 유형 285

형이상학자들 340

호모 사피엔스 80

호모 아젠스 80

화폐 국가주의 65

화폐 제국주의 65

화폐 가격들 166-167, 174, 178

화폐 계산 73

화폐 이론 94, 200, 255

효용 31, 34, 45-46, 50-53, 64, 178, 299

효용 이론 44

효용함수 45

효율성 52, 90

효율성 개념 52

웰즈만 19, 21-22, 34-36, 44-45, 50, 52-53, 71,
93, 96, 102, 115, 119, 125, 127, 131, 136-
137, 140, 144, 152, 154-155, 157-159,
162-163, 167, 169-176, 178-179, 181-
182, 184, 186-190, 195, 197-199, 201-

202, 206-208, 211-216, 220-221, 295-
298, 333, 352, 362, 370